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정석

(공무원이 쓴 글쓰기 오답 교본)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정석

(공무원이 쓴 글쓰기 오답 교본)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정석

일러두기

+ : 결합을 표시, 짝을 이루는 말

→ : 글쓰기가 고친 말

≒ : 부록의 '동사성 한자어 명사' 편에서 의미가 유사한 말

○ : 부록의 '1글자 한자어 명사 편'에서 발음이 같은 것은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강조점을 표시함

○○ : 본문 설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글자' 단어를 표시함

알림

- ① 조사와 같이 앞이나 뒤에 들어가 말을 대신할 때 '물결표(~)'를 넣어야 하나, 문장부호를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 생략함 (실제: ~에 있어서 →표기: 에 있어서)
- ② 표 안에서는 '말줄임표(...)'를 생략함
- ③ '일본어 투 형식명사'는 대부분 히라가나로 표기해야 하나, 쉽게 이해하도록 곳곳에 한자로 같이 표기함 [실제: 내[うち] →표기: 내[うち/内]]
- ④ 마침표(.)는 최신 문장부호 편을 참조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생략함 단 접속부사의 예문에는 되도록 마침표를 표기함
- ⑤ 부록의 접미사 '적' 편에서 동음이의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가 비슷한 영어를 같이 표기함

용어 설명

용어	용어 설명
1글자 한자어 동사	'1글자 한자어+하다'가 결합한 형태 예시를 들면 '대하다, 감하다, 의하다' 따위가 있음
1글자 부사	일본어의 1글자 한자로 만들어진 부사
가정형	일본어의 용언 활용 형태로 조건을 나타냄 예시를 들면 '비하다'를 가정형으로 만들면 '비하면'이 됨
고유어	고유한 말, 다른 이름으로 토박이말, 토착어, 순우리말로 부름
고유어계 접사	고유어로 만든 접사, 예시를 들면 '개, 막, 끈, 치레'와 같은 고유어계 접사를 이용하여 '개꿈, 막춤, 농사꾼, 병치레'를 만들 수 있음
관형사류 적	'적'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인, 이고, 이며' 따위가 붙는 형태
관형사형 전성어미	용언의 어간에 'ㄴ, 은/는, ㄹ, 을/를' 따위가 붙어 관형사를 만드는 어미 일본어의 연체형과 대응함
그리/그러 계열 접속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래도' 따위의 접속부사
동사성 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든 형태 예시를 들면 '배우다'를 명사로 만들면 '배움'이 됨
동사성 한자어 명사	한자어에 '하다, 되다' 형태가 붙을 수 있는 명사 예시를 들면 '개조'는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있음
동사성 후치사	일본어 투 후치사 상당구와 대응하는 후치사, 1글자 한자어 동사와 같음 예시를 들면 '인하다, 위하다, 대하다'가 있음
보편성 형식명사	여러 가지 용법이나 어휘를 가지고 두루 쓰는 형식명사 예시를 들면 '것, 시제·상황(ところ)'이 있음
명사형 후치사	일본어 투 형식명사와 대응하는 후치사 예시를 들면 '위, 중, 앞, 안'이 있음
명사화 접미사	'기, ㅁ, 음'과 같은 말이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명사화된 형용사	형용사를 명사로 만든 형태 예시를 들면 '가깝다'를 명사로 만들면 '근처'가 됨
모국어	자국민이 부르는 나라말, 국어라고 부름
명령형	일본어에서 용언의 활용 형태로 명령을 나타냄
미연형	일본어에서 용언의 활용 형태로 부정, 의지, 추측, 권유, 사역, 수동을 나타냄 예시를 들면 '의하다'를 미연형으로 만들면 '의하지 아니하다'가 됨

용어	용어 설명
번역 투	외국어를 직역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문법 체계를 반영하다 보니 우리말을 왜곡한 결과로 굳어진 말, 이 책에서는 주로 일본어 번역 투(줄임말: 일본어 투)를 의미함
복합명사	명사와 명사로 연결되는 형태 즉 명사 사이에 조사, 형식명사, 접미사 따위의 수식하는 말이 오지 않는 형태
복합명사류 적	복합명사처럼 해석되고, 접미사 '적'을 쉽게 생략할 수 있는 형태 예시를 들면 '천문학적 성과'는 '적'을 생략하고 '천문학 성과'로 고침
부사 파생 접사	형용사의 어간이나 반복되는 명사에 붙어 부사를 만들어 주는 파생 접사 학교문법에서는 '이, 히'가 있음
부사형 '적으로'	'적으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을 하면 우리말 부사로 대응하는 형태 예시를 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먼저 반영하였다'로 풀이가 됨
부사형 적류 접속부사	부사형인 '○○적으로' 형태로 접속부사로 사용하는 것 예시를 들면 '결론적으로, 선제적으로' 따위가 있음
부사형(전성)어미	문장에서 부사어 구실을 하게 하는 활용어미 학교문법에서는 '게, 도록'이 있음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	'하다, 되다' 형태가 붙을 수 없는 한자어 명사 예시를 들면 '금액, 인생'은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없는 명사
사변 동사의 어간	'하다'와 대응하는 '스루(する)'는 사[ㅅ]행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동사와 달리 불규칙하게 활용되므로 '사변 동사, 사형 변경 동사'라 부름, 여기에서 '하다[ㅅ]가 사라진 형태가 '사변 동사의 어간'이고, 곧 '동사성 한자어 명사'임
서술어 형태의 부사	모양은 서술어 형태이나 부사로 고칠 수 있는 말 예시를 들면 '계속하다'는 '줄지어, 연달아+하다'로 고칠 수 있음
서술적인 용법	조사 '노(の)'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관형어 역할뿐만 아니라 명사끼리 인과관계나 의미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서술적 의미가 있음 그러므로 '노(の)'와 대응하는 조사 '의'도 용언으로 고칠 수 있음
서양 말	서양 사람이 쓰는 말, 서양어라고 부름
신조어	새로 만든 말, 신(생)어, 새말이라고도 부름
연결어미	어간에 붙어 다음 말을 연결하는 어미 분류: 원인, 이유, 상황, 조건, 무관, 양보, 계속, 나열, 첨가, 목적, 대조, 선택, 정도 따위
연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구나 절을 만드는 것
연용형	일본어에서 용언의 활용 형태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함
연체형	일본어에서 용언의 활용 형태로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의미가 있음 우리말 용언의 관형사형과 유사함

용어	용어 설명
용언의 관형사형	동사, 형용사를 활용하여 관형사를 만들
완전한 문장	문장에서 주요소인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따위를 모두 갖춘 문장임
의존명사	자립성이 없어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불완전 명사
이중 부정	글 안에 부정어가 두 번 이상 나오는 형태
'이(い)' 형용사	일본어의 두 가지 형용사 중 하나로 주로 고유어로 만든 형용사
인용절	남의 말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한 절
일본어 고유어계 부사	일본어에서 고유어 계통의 부사 예시를 들면 '사전에, 삼가' 따위가 있음
일본어식 후치사	김문오 씨와 홍사만 씨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사 '에'와 1음절 한자어 어근에 연용형이 결합하여 관용적으로 굳어진 형태를 정의함
일본어 투 명사 겸용 부사	한자어 명사 형태로 명사와 부사로 함께 쓰는 것 예시를 들면 '대략, 사실, 순차, 시종' 따위가 있음
일본어 투 형식명사	처음 뜻과 다르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명사(줄임말: 형식명사)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의존명사를 형식명사라고 부르기도 함
일본어 투 후치사 상당구	일본어 투를 따라 하고 전치사와 달리 뒤에서 수식하는 구로 지은이가 새롭게 정의 (줄임말: 후치사 상당구), 일반적으로 일본어식 후치사로 부름
자립명사	다른 성분의 수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명사 예시를 들면 '사람은 언제나 죽는다'에서 '사람'은 자립명사임
접사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말
접속부사	부사의 하위 개념으로 연결보다는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미는 역할을 강조
접속사	품사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순수한 역할을 강조

용어	용어 설명
접속표현	단어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논리적 표현을 만듦
종결형 형식명사	형식명사와 '(이)다' 형태로 종결을 나타내는 형식명사 예시를 들면 '모양새다, 계획이다' 따위가 있음
중첩조사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는 형태 예시를 들면 '에의, 에서부터, 까지도' 따위가 있음
일본어 고유어계 부사	일본어에서 고유어 계통의 부사 예시를 들면 '사전에, 삼가' 따위가 있음
한국어	언어 관점에서 일본어, 영어와 구별되는 우리말을 의미함
한문 투 부사	한문에서 유래된 부사 예시를 들면 '미상불, 언필칭' 따위가 있음
한자	뜻을 단위로 만들어진 표의문자
한자어	한자를 기초로 삼아 만든 우리말
한자어 명사류 접속부사	일본어의 한자어 명사에서 유래한 접속부사 예시를 들면 '내지, 물론, 일단, 여하간' 따위가 있음
한자어계 접사	한자어로 만든 접사 예시를 들면 '최, 시'를 사용하여 '최일선, 문제시' 따위를 만듦
(전치)한정사	영어에서 명사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함 예시를 들면 'all, both' 따위가 있음
형식명사류 접속부사	형식명사를 그대로 접속부사로 사용하거나 형식명사 앞에 '그/이'와 같은 지시어가 붙은 형태, 예시를 들면 '고로, 반면, 그 이후에, 그런 까닭에' 따위가 있음
형용동사	일본어의 두 가지 형용사 중 하나로 주로 한자어로 만든 형용사 다른 이름으로 '나(な)' 형용사라고 부름
형용사류 적	'비슷하다, 닮다, 답다, 스럽다'처럼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적'을 의미 예시를 들면 '신사적 품모'는 '신사다운 품모'로 고칠 수 있음
후치사	전치사와 다르게 수식하는 말 우리말에서 대표가 되는 후치사는 조사와 어미가 있음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	후치사 상당구에서 조사가 생략되거나 후치사 상당구 앞에 '그/이'와 같은 지시어가 붙은 형태, 예시를 들면 '그에 따라, 이어(서),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따위가 있음

시작하면서

공무원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글을 쓴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됩니다. 우리는 왜 어려운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근대기에 우리말이 확립되기 전에 일본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즉 한자어와 일본어 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말에 스며들어 누구나 다 아는 한글인데도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한글 전용이 시행되어 한자 병기가 사라졌지만, 한자어는 다양한 글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일본어 투는 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까지 물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조차 접미사 ‘적’을 ‘조자룡 현 창 쓰듯’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풀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이 책에서 나온 설명이 수능 국어에도 출제되었습니다. 후치사 상당구인 ‘에 따르다(2021년), 에 도달하다(2017년)’가 출제되었고, 형식명사 ‘대비(2017년)’가 문제로 나왔고, 한자어 ‘진작, 고안, 소지, 괴리, 초래, 도모(2018년, 2016년)’가 이미 출제되었습니다. 수능 국어도 하나의 사례이지만 공무원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 하나, 글 하나가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시절 글쓰기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잘 써보려고 경험이 많은 선배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냥 잘 써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 없기에 체계가 있는 글쓰기를 가르쳐야 업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도 현실은 마땅한 글쓰기 교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와 더불어 새내기분들과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고쳐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서 조사 ‘의’와 후치사 상당구 ‘에 의한’과 형식명사 ‘위한’이 나옵니다. 또한 ‘국민의’ 말고 ‘국민적’으로 고치면 접미사 ‘적’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4대 비극입니다.

그럼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다운 어미와 조사와 용언과 부사를 살리면 됩니다. 4대 비극의 앞에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있는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오면 어미를 쓰고, 앞에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없는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오면 조사를 씁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언으로 새롭게 고치고, 한자어 부사를 싱싱한 우리말 부사로 되살립니다.

다음은 차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에서는 우리말의 현실과 한자어와 방향성을 서술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후치사 상당구와 접미사 ‘적’과 조사 ‘의’와 형식명사와 부사와 한자어를 6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에 의하여, 에 대하여’와 같은 일본어 투 후치사 상당구를 순화합니다. 둘째 접미사 ‘적’과 나머지 접사를 손질합니다. 셋째 일본어 조사 ‘노(の)’와 대응하는 조사 ‘의’를 바꿉니다. 넷째 ‘상, 중, 하’와 같은 ‘일본어 투 형식명사’를 고칩니다. 다섯째 ‘없이’로 시작하는 부사와 다양한 일본어 투 부사를 수정하고, 접속부사를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있는 ‘동사성 한자어 명사’와 ‘1글자로 된 한자어 동사’와 ‘사자성어’를 순화하겠습니다. 또 본론의 이해를 돕고자 표를 만들어 각 단원의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분량이 많은 접미사 ‘적’과 ‘동사성 한자어 명사’는 부록으로 분리하여 여러분이 긴급하게 글쓰기를 하는 데 필요한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밝히다, 캐내다’와 비슷한 뜻이 있더라도 ‘의사, 태도’를 나타내면 ‘표명’으로, ‘본질, 원인’을 나타내면 ‘규명’으로, ‘오해, 비난’을 표현하면 ‘석명’으로, ‘원인, 이유’를 표현하면 ‘소명, 해명’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공공언어를 살리려면 ‘뜻을 내보이다, 본질을 파헤치다, 까닭을 알아내다, 오해를 풀다’와 같은 다양한 쉬운 어휘를 발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책은 글쓰기 연습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한 많은 예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인 소망은 창의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삼아 공공언어의 사회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잘못 설명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좋은 말과 글이 뿌리가 내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목 차

1부 개 론

1. 가짜가 진짜를 지배하는 말 세상 3
2. 독과 약이 되는 한자어 4
3.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5

2부 후치사 상당구

1. 후치사 상당구를 시작하면서 11
2. 상황·조건의 후치사 상당구: 에 있어서 14
3. 원인·이유의 후치사 상당구: 에 따르다, 에 의하다, 로 인하다 16
4. 큰 목적어로 사용되는 후치사 상당구: 에 관하다, 에 대하다 19
5.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후치사 상당구: 을/를 통하다 22
6. 겉은 다르나 속은 같은 후치사 상당구: 에 반하다, 에 비하다 23
7. 한정의 후치사 상당구: 에 한(정)하다, 을/를 제(외)하고, 에 그치다 24
8. 계속·동시의 후치사 상당구: 에 (뒤)이어, 와/과 동시에 25
9. 첨가의 후치사 상당구: 에 더하다, 에 한(정)하지 않다 26
10. 부정어로 만든 다양한 후치사 상당구 27
11. 범위의 후치사 상당구: 에 걸치다, 에 달하다 28
12. '에 대하다'가 확장된 후치사 상당구: 을/를 향하다 28
13. 조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후치사 상당구 29

3부 적(的)과 접사

1. 적(的)을 시작하면서 35
2. 복합명사처럼 사용되는 적(的) 37
3.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적(的) 38
4. 용언으로 고쳐야 하는 적(的) 38
5. 일본에서 새롭게 만든 '적으로' 39
6. 접사를 고치면서 40

7. 접두사 고치기	41
8. 접미사 고치기	43
9. 접미사 화(化) 고치기	47

4부

조사 ‘의’

1. 다이어트가 필요한 조사 ‘의’	55
2. 소유·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의’	57
3. 동작주·작성자를 나타내는 조사 ‘의’	58
4. 단체·소속을 나타내는 조사 ‘의’	59
5.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의’	59
6. 비율·한도를 나타내는 조사 ‘의’	62
7.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의’	63
8.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의’	64
9. 지시어와 접속하는 조사 ‘의’	64
10. 시간·시기를 나타내는 조사 ‘의’	65
11. 수량·순서를 나타내는 조사 ‘의’	65
12. 조사 ‘의’를 다른 조사로 고치기	66
13. 중첩하는 조사 ‘의’를 고치기	68
14. 조사 ‘의’를 동사로 고치기	70
15. 조사 ‘의’를 형용사로 고치기	70
16. 조사 ‘의’를 다른 조사와 용언으로 고치기	71
17. 부사와 결합하는 조사 ‘의’	72

5부

형식명사

1. 같은 듯 다른 형식명사와 의존명사	79
2. 두루 사용되는 형식명사: 것	81
3. 약방에 감초처럼 사용되는 형식명사: 도쿄로(ところ)	83
4. 쓰기 싫은 형식명사: 상(上)	85
5. ‘중(中), 간(間), 가운데’는 시간의 형식명사로 발효되었다	86

6. 영향·조건을 나타내는 형식명사: 하(下), 아래	87
7. ‘다른, 나머지’로 사용되는 형식명사: 외(外), 밖, 타(他)	88
8. 내(內), 리(裏)는 중(中), 간(間)과 같은 말이다	89
9. 우리말에 부리를 내린 형식명사: 전(前), 후(後)	89
10.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형식명사: 정도, 수준, 간격	90
11. ‘위하다’와 ‘때문’은 같은 부리에서 나왔다	91
12. 상황·조건형 형식명사: 경우, 때/시/제, 시점, 이상, 한	93
13. 대조·대비의 형식명사: 반면, 한편, 대신, 대비	95
14. 나열의 형식명사: 등(等), 들	95
15. 계속·동시의 형식명사: 즉시, 동시	97
16. 방향에서 비롯된 다양한 형식명사	97
17. 종결형 형식명사: 모양(새)이다, 경향이 있다, 계획이다	98

6부

부사

1. ‘없이’ 형태의 부사 고치기	103
2. 일본어 투 명사 겸용 부사 고치기	109
3. 일본어 투 1글자 부사 고치기	112
4. 일본어 투 한자어 명사+‘히’ 형태의 부사 고치기	115
5. 일본어 고유어계 부사 고치기	118
6. 서술어 형태의 부사 고치기	119
7. 한문 투 부사 고치기	120
8. 접속부사를 시작하면서	129
9. 나열의 접속부사	131
10. 원인·이유의 접속부사	132
11. 상황·조건형 접속부사	133
12. 무관·양보의 접속부사	134
13. 대조·대비의 접속부사	134
14. 계속·동시의 접속부사	135
15. 첨가·선택의 접속부사	135
16. 동격·예시의 접속부사	137
17. 결론·강조의 접속부사	138

7부 한자어

- 1. 동사성 한자어 명사 143
- 2. 혼란을 가중하는 1글자 한자어 동사 144
- 3. 의미가 죽어버린 사자성어 145

8부 부록

- 1.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하는 적(的) 고치기 149
- 2. 복합명사류 적(的) 고치기 160
- 3. 형용사류 적(的) 고치기 169
- 4. 적(的)을 용언으로 고치기 172
- 5. 부사형 '적으로' 고치기 187
- 6.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 202
- 7. 1글자 한자어 동사 고치기 227
- 8. 사자성어 고치기 233

〈참고 문헌〉 244

1부

개론

1부. 개론

1. 가짜가 진짜를 지배하는 말 세상

우리말은 슬프지만, 우리 것이 아닌 게 더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지배하는 말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어까지 뒤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지배하려고 일본어를 가져왔습니다.

그 뒤 일본은 패망했지만, 남아있는 일본어는 이 땅에 남아서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 디엔에이(DNA)를 변질시켰습니다. 이 땅에 지식인들은 우리말을 새롭게 발굴하기보다 남아있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름표만 일본어에서 우리말로 변경되었습니다. 광복 후 바로잡았다면 좋으련만 벌써 몇 세대가 지나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모국어를 살리려면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은 아니더라도 약물치료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말 바로 쓰기(다른 말: 국어 순화)는 오염된 말과 글을 올바르게 고친다고 이름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어 순화’라는 명목으로 한자어를 억지로 고유어로 대체하면 오히려 낯선 말이 되고, 또한 단어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 곤란한 독특한 느낌과 맛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말 어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자어를 빼면 다양한 표현이 곤란합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는 시대와 달리 세상은 복잡해지고 새로운 말이 계속 창조되므로 고유어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유어로 먼저 고치되, 불가피할 때는 쉬운 한자어 고치기도 필요합니다.

국어 순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원으로는 한자어, 일본어 번역 투, 외래어 고치기가 있습니다. 고유어에는 비어, 속어, 은어 고치기가 있습니다. 문법으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글쓰기에서 가장 안 되는 한자어 고치기와 일본어 번역 투 고치기를 위주로 풀이하겠습니다. 나머지 외래어 고치기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를 활용하시고,¹⁾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범을 참고하시어 올바른 글쓰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²⁾

1)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2021년 10월 4일 확인, 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List.do?mn_id=158.

2)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2021년 10월 4일 확인, <https://kornorms.korean.go.kr/main/main.do>.

그럼 왜 국어 순화가 안 되었을까요?

첫째 명사 고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자어 명사인 ‘나대지’는 ‘빈터’로, ‘대두유’는 ‘콩기름’으로, 일본어 투 명사인 ‘다마네기’는 양파로, ‘오뎅’은 ‘어묵’으로 바꾸는데만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명사가 아닌 용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고유어를 비롯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기보다 먼저 고유어를 찾고 그다음으로 쉬운 한자어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면구하다’가 있으면 ‘미안하다’를 먼저 쓰고, 다음으로 쉬운 한자어인 ‘죄송하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고유어 부사가 지닌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항과 같은 한자어로 가두면 우리말이 살아남지 못하므로 흐르는 물과 같은 고유어를 사용할수록 우리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2. 독과 약이 되는 한자어

먼저 한자어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화장처럼 조어력이 뛰어납니다. 보기를 들면 한자 ‘구(區)’와 ‘분(分)’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여 ‘구분, 구획, 분류, 분단, 분배, 분할’과 같은 새로운 말을 얼마든지 창조합니다.

둘째 꼼꼼한 참빛처럼 상황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양성’을, 동물은 ‘사육’을, 세균은 ‘배양’을, 산업은 ‘육성’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루 꼬리처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고유어로 고치면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복을 받으시길 정중히 빕니다’가 되어 문장이 길어집니다.

다음은 한자어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동명이인이 많아 의미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를 들면 ‘고사’는 ‘외판 절간[孤寺], 곳간[庫舍], 옛 사당[古祠], 깊이 생각하다[考思]’를 비롯하여 30개 이상이 있지만, 같은 발음을 사용합니다.

둘째 피비우스의 띠입니다. 특히 후치사 상당구나 접미사 ‘적’이나 조사 ‘의’와 같은 일본어 투 구조는 한자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역사에 있어서 의미’는 한자어와 후치사 상당구 다음에 한자어가 다시 나옵니다. ‘역사적 의미’도 한자어와 접미사 ‘적’ 다음에 한자어가 다시 나타납니다. ‘역사의 의미’도 한자어와 조사 ‘의’ 다음에 한자어가 또 출현합니다.

셋째 다양한 용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말은 ‘지다, 답다, 서다’와 같이 용언의 끝맺음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자어를 쓰면 ‘하다, 되다, 시키다’ 형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파라켈수스가 “모든 약은 곧 독이다. 약과 독은 용량의 차이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자어는 되도록 적게 써야 약이 됩니다. 글쓰기가 한자어를 남용하면 ‘지식의 저주’에 빠질뿐더러 읽는 이에게 ‘두뇌의 소비’를 강요합니다.

3.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① 무엇을 고칠까요?

우리말 고치기의 핵심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이 문장에서 조사 ‘의’, 후치사 상당구 ‘에 의한’, 형식명사 ‘위한’이 나옵니다. 또 ‘국민의’가 아닌 ‘국민적’으로 고치면 접미사 ‘적’이 출현합니다. 모두 일본어 번역 투이고, 한마디로 ‘4대 비극’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번역 투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오경순³⁾ 씨는 “번역 투란 원문 구조에 치우친 직역의 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 식 표현이다”라고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다양한 번역 투 가운데 일본어 번역 투가 우리말을 좌우합니다. 또 일본어 번역 투의 구조는 한자어 명사와 함께 후치사 상당구, 접미사 ‘적’, 조사 ‘의’, 형식명사 따위가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② 어떤 방향으로 고칠까요?

첫째 문장을 통째로 고쳐야 합니다. 4대 비극은 수은처럼 흘러졌다가 다시 뭉칩니다. 후치사 상당구인 ‘에 대하다’는 접두사 ‘대’와 조사 ‘에의’와 형식명사 ‘대상, 상대, 상’과 비슷하므로 같이 쓰면 중복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문장 전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 4대 비극은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 경제적 문제, 경제의 문제, 경제상 문제’는 모두 비슷합니다.

둘째 같은 말이라도 다른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후치사 상당구나 조사 ‘의’나 형식명사는 앞말에 오는 한자어 명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곧 ‘동사성

3) 오경순, *번역 투의 유혹* (서울: 이학사, 2010), 25-27쪽.

한자어 명사[하다, 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와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하다, 되다가 붙을 수 없는 명사]’가 오는지 보아야 합니다. 4대 비극의 앞에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오면 어미로 바꾸고,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오면 조사로 변경합니다.

특이하게 ‘적’은 뒷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적’은 뒷말을 따라 부정 표현과 긍정 표현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을 골라내야 하고, 처음 뜻과 파생되는 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4대 비극은 두루뭉술하므로 날카롭게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적’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어순화집』⁴⁾조차 30가지 남짓한 단어만 풀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으로 만든 단어는 거의 해석하지 못하고, 어벌정하게 풀이하곤 합니다.

③ 어떻게 고칠까요?

한마디로 4대 비극은 어미, 조사, 용언, 부사로 다듬어야 합니다.

첫째 어미를 살려야 합니다. 서양 말은 활용할 때 주로 명사가 변합니다. 일본말은 어미가 변하지만,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로 ‘가정형’을 비롯한 6가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면서, 먹을까’를 비롯한 수많은 어미가 존재합니다. 또 우리말에서 갈수록 복문 구조가 많아지므로 어미 가운데 연결어미를 잘 살려야 합니다. 즉 이 책에서 학습하게 되는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4대 비극에 앞에 오는 구조는 연결어미로 고칩니다.

둘째 조사를 살려야 합니다.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4대 비극의 앞에 오는 구조는 조사로 고쳐야 합니다. <표 1>에서 조사 고치기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말의 중심인 용언으로 고쳐야 합니다. 즉 4대 비극을 용언으로 고치면 우리말이 살 수 있습니다.

넷째 고유어 부사를 살려야 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한자어 부사는 고유어 부사로 고칩니다. 예를 들면 ‘균형적으로, 우선적으로’는 ‘골고루, 먼저’로, ‘자기의, 상호의’는 ‘스스로, 서로’ 따위로, ‘극히, 부단히’는 ‘매우, 꾸준히’로 순화합니다.

4) 국립국어원,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서울: 국립국어원, 2003), 2003-1-5,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208&etc_seq=107, (2021. 12. 19. 확인).

앞으로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말에서 대표 선수가 되는 연결어미를 정리합니다.

① 원인·이유는 ‘기에, 느라고, 느니만큼, 니까, ㄴ세라/을세라, 므로, 아(서)/어(서)/여(서)’가 있습니다. ② 상황·조건은 ‘거든, 거나, 는바, 라면/려면, 아도/어도/여도, 아야/어야/여야, 으면’이 있습니다. ③ 무관·양보는 ‘기로(서니), ㄴ들, 더라도, ㄴ망정, ㄴ지라도, ㄴ지언정, 아도/어도/여도’가 있습니다. ④ 계속·나열은 ‘고(서), 며, 아(서)/어(서)/여(서), (으)면서’가 있습니다.

또 ⑤ 첨가는 ‘거니와, ㄴ뿐더러, 으려니와’가 있습니다. ⑥ 목적은 ‘고자, 여고, (으)러, 으(려), (으)려고’가 있습니다. ⑦ 대조는 ‘건만, (으)나, 지만’이 있습니다. ⑧ 선택은 ‘건, 거나, 든(지), 든가, (으)나’가 있습니다. ⑨ 정도는 ‘도록, ㄴ수록, 으리만큼, 으리만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대 비극의 앞에 오는 명사 종류를 정의하겠습니다.

‘동사성 한자어 명사’는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개조, 집중’은 ‘개조하다, 개조되다, 집중하다, 집중되다’와 같이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성 한자어 명사’는 본론의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동사성 한자어 명사’를 쉬운 말로 고치는 방법은 부록에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동사성 한자어 명사’는 조사 ‘의’에서 설명하는 ‘사변 동사의 어간’과 비슷합니다.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는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없는 명사입니다. 보기를 들면 ‘가사, 견본’은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없는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 인생’과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어 명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책에서 ‘동사성 한자어 명사’와 대조하기 위해 만든 개념입니다.

표 1 조사 고치기

구분	후치사 상당구	조사 '의'	접사, 형식명사, 접속부사 따위
이/가	-	주술관계, 주격, 대상의 주체, 복문 (민족의 단결→민족이 단결)	-
은/는, 로는, 로서는, 로선 만은, 만큼은	에 따르면, 에 의하면 (결과에 따르면→결과는) 에 관한 한은, 에 관해서는, 에 있어 서는 (경제에 관해서는→경제만큼은)	의+경우 (서민의 경우→서민은)	일본어 연어: 함은, 이라는 것은 (물건이라 함은→물건은)
으로서/ 으로써	-	'의'와 중첩: (으)로써의/(으)로써의 (→으로서/으로써)	-
을/를 에게(서) 한테(서)	에 대하여, 에 관하여 (결과에 대하여→결과를) 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그에게) 을/를 향하여 (청소년을 향하여→청소년에게) 을/를 통하여, 로 하여금 (누나를 통하여→누나에게)	객술관계, 대상격, 목적의 사물, 관여물, 사실관계 (자연의 관찰→자연을 관찰)	-
에, 에서 로, 으	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영업에 있어서→영업에서) 을/를 향하여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빛이 있는 곳으로) 을/를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라디오에서) 에 따라서, 에, 의하여, 로 인하여 (사정에 따라→사정으로)	소속·단체, 장소, 추상적 장소, 출처· 근거, 비율·한도 (법원의 확인을→법원에서, 청구액의 50%→청구액에서) '의'와 중첩: 에의, 으로의, 에로의, 에서의, 에서부터의, 으로부터의, 부터의(→에, 에서, 로, 으)	복합명사류 적(的) (실무적 문제→실무에서 문제 법적 효력→법으로 효력) 형식명사 상(上), 대상, 상대 (직무상 발언→직무에서 발언, 기업 대상으로→기업에)
와/과, 하고, 이랑, 에다가	와/과 더불어, 아울러, 함께 을/를 겸해서 (딸과 함께→딸이랑) 에+이어, 더하여, 덧붙여, 한하지 아니하고 따위 (국내에 한하지 않고→국내에다가)	'의'와 중첩: 와의/과의, 하고의 (→와/과, 하고, 이랑, 에다가)	접두사 대(對) (대국민사과→국민에게 사과) 접속부사: 및, 물론, 역시, 또한, 이/그+위에, 뿐만 아니라 (사과 및 배→사과랑 배, 등대는 물론→등대에다가)
대로, 만큼 만치	에+따라, 의하여 (법에 따라→법대로) 에 못지않은, 에 달하는 (개경에 못지않은→개경만큼) 에 상응하는, 상당하는 (객실에 상당하는→객실만큼)	'의'와 중첩: 대로의, 만큼의 (→대로, 만큼)	접미사 적(的) (정서적인 진행→정서대로 진행)
마다	에 따라서, 에 의하여 (주말에 따라→주말마다)	'의'와 중첩: 마다의 (→마다)	접미사 별(別), 당(當) (한 사람당→한 사람마다)
만	에/로+한하여, 국한하여, 한정하여 (어린이에 한하여→어린이만)	'의'와 중첩: 만의 (→만)	-
보다	에+반하여, 비하여, 비교하여, 비하면 (작년에 비해→작년보다)	-	형식명사: 대비 (전년 대비 상승 →전년보다 상승)
까지	에 걸쳐 (31일에 걸쳐→30일까지)	'의'와 중첩: 까지의 (→까지)	-
치고(서)는, 치곤, 말고	에 반해서, 에 비하면 (명성에 비하면→명성치곤)	-	-
부터	을/를+계기로, 기회로 (오늘을 계기로→오늘부터)	-	-
처럼, 같이	-	모종의, 일종의: (일종의 신호→신호처럼)	형용사류 적(的) (기적적→기적처럼)

2부

후치사 상당구

2부. 후치사 상당구

1. 후치사 상당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전치사라는 용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후치사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전치사는 앞에서 꾸미고, 후치사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우리말에서 후치사의 대표 주자는 조사와 어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후치사 상당구도 후치사의 한 형태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후치사 상당구는 조사나 어미로 고칠 수 있는 ‘일본어 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말에서 후치사를 인정할지 말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쪽은 최현배 씨와 이희승 씨를 중심으로 우리말은 서양 말과 다르게 단어의 변화가 없어 조사와 특수 조사가 구별되므로 후치사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램스테트(G. J. Ramstedt) 씨와 이승욱 씨를 중심으로 조사와 구별되는 후치사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⁵⁾

특히 램스테트⁶⁾ 씨는 후치사를 명사성 후치사와 동사성 후치사로 구별하였습니다. 형식명사와 연관이 있는 명사성 후치사는 ‘위, 중, 앞, 안’이 있습니다. 또 후치사 상당구와 관련이 있는 동사성 후치사는 ‘인하다, 대하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하다, 대하다’와 같은 1글자 한자어 동사에서 후치사 상당구가 유래되었기에 이 사람의 분류법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본어식 후치사의 정의를 알아보실까요?

김문오 씨와 홍사만⁷⁾ 씨는 “일본어식 후치사란 ‘에[に]’와 1음절 한자 어근인 ‘대(對), 인(因), 향(向)’ 따위와 ‘하다[する]’의 ‘연용형’이 결합하여 관용적으로 굳어진 형태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연용형’이란 일본어의 ‘기본형’을 활용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에 대하다, 로 인하다, 을/를 향하다’를 ‘연용형’으로 바꾸면 ‘에 대하여, 로 인하여, 을/를 향하여’가 됩니다.

5) 고대영, “현대국어의 후치사에 대한 연구: ‘없이, 밖에, 말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2006), 3-25쪽, <http://www.riss.kr/link?id=T10329049>, (2021. 4. 13. 확인).

6) Gustaf John Ramstedt,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1939), 150-158쪽. <https://altaica.ru/LIBRARY/KOREAN/Ramstedt,%20A%20Korean%20Grammar.pdf>, (2021. 10. 31. 확인).

7) 김문오, 홍사만,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13), 330쪽, https://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207&report_seq=337, (2021. 10. 31. 확인).

저는 김문오 씨와 홍사만 씨 설명에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해 봅니다.

첫째 ‘와/과 동시에, 을/를 통하다’와 같이 ‘와/과, 을/를’과도 결합하고, 또한 ‘로 말미암다, 로 하여금’처럼 조사 ‘로’와도 결합하기도 합니다.

둘째 ‘기본형, 연체형, 미연형, 조건형’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에 관하다, 에 관한’은 ‘기본형, 연체형’이고, ‘에도 불구하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미연형’이고, ‘에 따르면, 에 비하면’은 ‘조건형’입니다. 셋째 ‘에 다름없다, 에 기인하다’와 같이 2음절 한자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일본어 투란 일본어를 따라 했고, 후치사란 전치사와 대조되는 개념이고, 상당구란 ‘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 투와 후치사와 상당구를 합쳐 ‘일본어 투 후치사 상당구’라고 출생신고를 하고, 줄임말로는 ‘후치사 상당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첫째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후치사 상당구는 ‘1글자 한자어 동사’의 아들이고,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는 자식이고, ‘일본어 투 형식명사’는 큰 형입니다. 예를 들면 1글자 한자어 동사는 ‘관하다, 반하다’가 있고, 형식명사는 ‘경우, 상’이 있고,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는 ‘이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둘째 오십보백보입니다. 즉 후치사 상당구끼리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직원들이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직원들이 이번 회의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와 닮았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었다’와 비슷합니다. ‘장관은 지자체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장관은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와 비등합니다.

또 ‘부장은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쳤다’는 ‘부장은 직원들에 대해 소리를 쳤다’와 비슷합니다. ‘업무 태만에 다름없다’는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와 같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근거하여 임금을 책정하였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였다’와 흡사합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회사는 20개에 그쳤다’는 ‘세미나에 참여한 회사는 20개에 불과했다’와 유사합니다.

셋째 유령입니다. 후치사 상당구와 ‘까지, 도, 만, 은/는’과 같은 보조사가 결합하면 후치사 상당구는 사라지고 보조사만 사용해도 됩니다. ‘추가 보험금은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는 ‘추가 보험금은 특수한 상황에만 지급할 수 있다’로 표현하면 글이 간결합니다.

넷째 아바타(분신)가 있습니다. 즉 ‘접사, 증첩조사, 형식명사, 구 형태’는 후치사 상당구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에 대하다’는 접두사 ‘대’와 접미사 ‘당’과 증첩조사 ‘에의’와 형식명사 ‘상’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후치사 상당구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아니므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⁸⁾에서 낱새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에 관하여는: 는, 을/를, 에, 에 관하여 ② 에 대하여: 로 하여금, 는, 을/를, 에게, 에 대하여 ③ 에 있어(서): 가 발생하여, 경우, 때, 로, 로 인하여, 시, 에서, 하는 경우, 하여, 하는 데(에), 할 때 ④ 에 한하여: 에서만, 으로서, 에 한정하여 ⑤ 에 한하다: 에/로 한정한다, 만, 만을 말한다, 만 해당한다’로 고친다고 풀이하였습니다. 즉 법제처는 대부분 조사로 고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고치기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연결어미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서 고친 사례를 두 가지만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에 대하여, 로 하여금’은 모두 후치사 상당구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에 대하여’ 앞에 ‘장’이라는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에게’를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을 하는 경우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에 있어서’는 후치사 상당구이고, ‘경우’도 형식명사이기에 모두 일본어 번역 투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에 있어서’의 앞에 ‘계약’이라는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으려면 ….’으로 수정합니다.

결론입니다. 후치사 상당구는 크게 두 가지로 고칩니다. 앞에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오면 조사로,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오면 연결어미로 수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조사 ‘에’가 아닌 ‘와/과, 을/를’로 교체하거나, 다른 용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제9판 (서울: 행복한 나무, 2019), 31-47쪽, [, \(2021.10. 31. 확인\).](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8030000&bid=0001&act=view&list_no=191536&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2. 상황·조건의 후치사 상당구: 에 있어서

우리말에서 ‘에 있어서’는 ‘당신 거기에 있어 주세요’와 같이 본디 장소를 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일본에서 상황, 조건, 시간, 분야를 나타내는 ‘에 있어서’를 수입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본디 장소를 표시하였으나, 상황, 조건, 시간, 분야까지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사, 형식명사와 결합합니다. 예를 들면 ‘에 있어서의, 에 있어서는, 경우에 있어서(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품으로는 ‘에게 있어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사용하므로 ‘에게’로 변경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했다’는 ‘그에게 사랑이 제일 중요했다’로 교정합니다.

먼저 고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조사로 바꿉니다. 간판 조사로는 ‘으로, 에(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 있어서’가 장소의 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인생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상황·조건의 연결어미로 교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든, 는바, 러면, 면서, 아/여/야, (으)면’으로 수정합니다. 또 ‘는 데’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예산 수립에 있어서 반영하겠습니다’는 ‘시민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예산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로 순화합니다. 참고로 앞 문장에서 ‘수립’은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동사성 한자어 명사’입니다.

셋째 보조사와 결합하면 생략합니다. 즉 ‘에 있어서’와 ‘까지, 도, 만(큼), 은/는’이 결합하면 보조사만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 2항에 규정된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서도 검사가 청구하거나 긴급한 사례를 빼고 1항과 같다’로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분야를 나타내면 ‘만(큼)은, 에서는, 은/는’으로 교정합니다. ‘그는 연애에 있어서는 지독한 초보자였다’는 ‘그는 연애만큼은 지독한 초보자였다’로 수정합니다. 덧붙이면 ‘에 관한 한은, 에 관해서는, 에 관한 것이라면, 에 대해서는, 에 대한 것이라면’도 분야를 나타냅니다. 즉 분야를 나타내면 ‘에 있어서, 에 관하다, 에 대하다’는 같은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 있어서’의 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 있어서’의 변형으로는 형식명사인 ‘경우, 때, 시(時), 제(際)’가 있고, 후치사 상당구로는 ‘에 제하다, 에 즈음하다’가 있고, 구 형태로는 ‘함에는, 함에 있어서’가 있습니다.

첫째 ‘경우[場合]’는 일본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본보기, 사례’를 뜻하는 실질명사 ‘경우’가 있습니다. ‘물만 먹고 살이 찌는 경우’는 ‘물만 먹고 살이 찌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형식명사로 사용됩니다. 이때는 ‘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상황·조건 연결어미로 고치거나 그나마 우리 말인 ‘때’로 바꿉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야구 경기를 연기할 것이다’는 ‘비가 오면 야구 경기를 연기할 것이다’로 변경합니다.

경우를 좀 더 풀이하겠습니다. 일본어에서 ‘의 경우’의 형태로 사람이나 사물의 입장이나 처지를 나타냅니다. ‘그녀의 경우 휴식이 필요하였다’는 ‘그녀는 휴식이 필요하였다’로 수정합니다. 또 ‘거개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는 ‘대부분(은)’으로 수정합니다. ‘농경민족은 대부분의 경우 유목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농경민족은 대부분 유목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다’로 순화합니다.

둘째 ‘때, 시,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고칩니다. ‘사랑할 때는 주변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한다’는 ‘사랑하면 주변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한다’로 수정합니다. ‘계약 시, 종료 시’는 ‘계약할 때, 종료할 때’로 바꿉니다. 「어머니의 마음」의 가사인 ‘낳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는 ‘낳을 무렵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낳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가 맞는 표현입니다.

셋째 ‘제’와 비슷한 ‘에 제하다, 에 즈음하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정한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경, 께, 때, 무렵, 쯤’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시인은 삼일절에 제하여 새로운 시를 발표할 것이다’는 ‘그 시인은 삼일절 무렵 새로운 시를 발표할 것이다’로 바꿉니다. 헌법 69조의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로 수정합니다.

넷째 ‘함에는, 함에 있어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바꿉니다. 민법 5조 1항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교정합니다. 또 ‘그는 힘든 일을 함에 있어 보람을 찾았다’는 ‘그는 힘든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았다’로 수정합니다.

3. 원인·이유의 후치사 상당구: 에 따르다, 에 의하다, 로 인하다

게티즈버그 연설문에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the people’을 ‘국민’과 ‘인민’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할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조사 ‘의’와 후치사 상당구 ‘에 의한’과 형식명사 ‘위한’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만든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앞 문장에서 언급된 ‘에 의하다’와 같은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을까요? 첫째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로는 ‘로 말미암다, 에 근거하다, 에 기인하다, 에 기반하다, 에 부응하다, 에 쫓다’가 있습니다. 둘째 중복 표현이 됩니다. 특히 원인·이유의 조사 ‘에, 로’는 ‘기인하다, 말미암다, 인하다’와 뜻이 비슷하므로 같이 쓰면 중복 표현이 됩니다. 셋째 조사 ‘의’와 ‘에 의하다’가 짝을 지어서 수동을 만듭니다.

다음은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오덕 씨와 최인호 씨가 고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오덕⁹⁾ 씨는 ‘의하다’는 ‘생략하기, 따라서, 때문에, 에서, 으로, 이/가 했다, 하다’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according to’를 ‘에 따라’로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서 이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을 따라’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에 의하다, 에 따르다’는 ‘을/를 따르다’로 고쳐야 한다는 최인호¹⁰⁾ 씨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이 고친 사례를 참고하여 두 가지로 고치겠습니다.

먼저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올 때는 조사와 쉬운 형식명사로 교정합니다. 첫째 조사로 고칩니다. 특히 조사 ‘대로’의 발견입니다. ‘대로’는 ‘에 따르다, 에 의하다, 로 인하다’를 가장 잘 표현합니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보다 ‘법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또 ‘마다, 만치, 만큼, ㄹ수록, 은/는’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권을 지급했다’는 ‘백화점은 구매 금액만큼 할인권을 지급했다’로 교정합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증가했다’는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될수록 농가 피해가 증가했다’로 다듬습니다.

9) 이오덕, **우리말바로쓰기2**, 제2판(파주: 한길사, 2011) 24-27쪽; 이오덕, **우리말바로쓰기4**, 제1판(파주: 한길사, 2011) 463-465쪽.

10) 최인호, “[말글찾집] 의하면과 따르면,” **한겨레**, 2006년 8월 11일 수정, 2021년 1월 12일 접속,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48211.html.

둘째 원인·이유의 형식명사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중립 표현인 ‘때문에’나 긍정 표현인 ‘덕에, 덕분에, 덕분에’나 부정 표현인 ‘바람에, 탓에’로 변경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멕시코 국경이 폐쇄되었다’는 ‘코로나 때문에 멕시코 국경이 폐쇄되었다’로 수정합니다. ‘그는 친구로 인해 우정을 알게 되었다’는 ‘그는 친구 덕분에 우정을 알게 되었다’로 순화합니다. ‘겨울철은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는 ‘겨울철은 부주의한 탓에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올 때는 세 가지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이유의 연결어미인 ‘기에, 길래, 니까, 느라고, 므로, 아(서)/어(서)/여(서)’로 수정합니다. ‘그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민법 121조 2항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는 ‘대리인이 자기가 지명하여...’로 교정합니다.

둘째 비례·호응을 나타내면 ‘비례하다, 반다, 수용하다’를 비롯한 다양한 용언으로 순화합니다. ‘미국에서 로봇 기술의 발전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미국에서 로봇 기술 발전과 비례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로 교정합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다’는 ‘회사는 투자자 요청을 수용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다’로 변경합니다.

셋째 근거·인용의 ‘에 따르면, 에 의하면’과 짝지어 ‘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이다, 인 것 같다’는 모두 일본어 투입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고칩니다.

하나는 ‘에서(는), 은/는’으로 수정합니다.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 의하면 감초는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한다’는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서 감초는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한다’로 순화합니다.

다른 하나는 ‘발표하다, 보다, 살펴보다, 산정하다, 알아보다, 인용하다, 조사하다, 참고하다’ 따위로 고치거나 간접인용을 나타내는 ‘고’로 순화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거주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것이다’는 ‘서울시에서 발표하길 올해 서울시 거주 인구가 감소했다고 한다’로 변경합니다.

앞에서 학습한 ‘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에 따르다, 에 의하다, 로 인하다’는 다양한 후치사 상당구가 많이 있습니다. ‘에 기인하다, 로 말미암다, 인 관계로, 에 근거하다, 에 기반하다, 에 걸맞다, 에 상응하다 로 기인하다’ 따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① ‘에 따르다, 에 의하다, 로 인하다’는 ‘에 기인하다, 로 기인하다, 로 말미암다’로도 해석됩니다. ‘서울시 땅값 상승은 인구 증가에 기인하였다’는 ‘서울시 땅값 상승은 인구 증가 때문이었다’로 변경합니다. ‘그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그는 가난해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로 다듬습니다.

② ‘에 힘입다’는 긍정을 표현하는 ‘덕에, 덕분에, 덕택에’로 고치거나 원인·이유의 연결어미로 교체합니다. ‘이 물건은 성원에 힘입어 다 판매되었다’는 ‘이 물건은 성원 덕분에 다 판매되었다’로 교정합니다. 아니면 ‘이 물건은 성원해 주셔서 다 판매되었다’로 수정합니다.

③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인 관계로 돌아가세요”라는 풋말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풋말에서 사용된 ‘인 관계로’는 원인·이유의 어미나 ‘때문에, 탓에, 덕분에’로 수정합니다. ‘그녀는 지각한 관계로 선생님에게 별점을 받았다’는 ‘그녀는 지각했기에 선생님에게 별점을 받았다’로 순화합니다.

④ ‘에 근거하다, 에 기반하다, 에 기초하다, 에 바탕하다, 에 입각하다’는 근거·인용을 나타내는 ‘에 따르다, 에 의하다’와 비슷합니다. 이 말은 ‘○○로 두다, ○○로 삼다’로 수정합니다. 아니면 ‘대로, 을/를 따르다’로 교정합니다.

하나를 더 설명하면 근거, 기반, 기초, 바탕, 입각은 움직임이 없으므로 되도록 ‘하다’를 붙이면 안 됩니다. ‘새 헌법은 국민의 뜻에 입각하여 만들었다’는 ‘새 헌법은 국민의 뜻을 기초로 삼아 만들었다’로 변경합니다. ‘그 조직은 성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인력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그 조직은 성과를 근거로 삼아 새로운 인력 체계를 구축하였다’로 순화합니다.

⑤ ‘에 걸맞다, 에 부응하다, 에 부합하다, 에 상당하다, 에 상응하다, 에 어울리다, 에 응하다, 에 적합하다, 에 쫓다’는 비례·호응을 나타내는 ‘에 따르다, 에 의하다’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에’가 아닌 ‘와/과, 을/를’로 조사만 바꾸거나 ‘대로, 마다, 만치, 만큼’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2조 1항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대로 성실히 하여야 한다’로 순화합니다. ‘회사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회사는 소비자 요구 대로 제품을 만들었다’로 교정합니다. ‘그 협회는 만든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만들었다’는 ‘그 협회는 만든 목적대로 정관을 만들었다’로 바꿉니다.

4. 큰 목적어로 사용되는 후치사 상당구: 에 관하다, 에 대하다

우리는 뉴스에서 ‘대국민 담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대(對)와 같은 ‘에 관하다, 에 대하다’를 파헤쳐 볼까요? 일본어에서 ‘에 관하다, 에 대하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 전체’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대항,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럼 ‘에 관하다, 에 대하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적’과 ‘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 경제적 문제, 경제의 문제’는 비등비등합니다.

둘째 ‘에 있어서, 에 향하다’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는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약탈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와 ‘그는 약탈자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닮은 모양입니다.

셋째 일본어의 명사구 ‘에 관한 (것), 에 대한 (것)[のこと]’을 직역하기 때문입니다.¹¹⁾ 일본어는 ‘명사+의[の]+명사’ 형태처럼 ‘명사+에 관한 (것), 에 대한 (것)+명사’ 형태로 명사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와 ‘에 관한, 에 대한’이 같은 뜻이 됩니다.

다음은 ‘에 관하다, 에 대하다’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은 ‘을/를’로 고칩니다. 더불어 ‘에게, 와/과, 으로’를 비롯한 다양한 조사가 대용품이 됩니다. ‘그는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파악했다’는 ‘그는 사건 조사 결과를 좀 더 파악했다’로 변경합니다. 헌법 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로 교정합니다.

또 민법 65조에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그 이사는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교정합니다. ‘책임자는 업무 관련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로 수정합니다.

11) 김영아, “「のこと」에 대한 고찰: 현대소설·드라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2009), 32-33쪽, <http://www.riss.kr/link?id=T11748091>, (2021. 4. 13. 확인).

둘째 분야를 나타내는 ‘관해서는, 에 관한 것이라면, 에 대해서는, 에 대한 것이라면’은 ‘만(큼)은, 에서는, 은/는’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인터넷에 관한 한은 선진국 되었다’는 ‘한국은 인터넷만큼은 선진국이 되었다’로 수정합니다.

셋째 ‘에 관하다, 에 대하다’와 ‘까지, 도, 만(큼), 은/는’ 따위의 보조사와 결합하면 보조사만 씁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추가 비용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로 변경합니다. 민법 72조의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총회는 71조 규정대로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로 교정합니다.

넷째 ‘와/과’와 더불어 ‘관련하다, 규정하다, 다루다, 연관하다, 처리하다, 하다’로 바꿉니다. 다만 ‘을/를 위하다’로는 대체하지 않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를 다룬 특례법’으로 수정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에 규정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상속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로 변경합니다.

다섯째 ‘에 관한, 에 대한’과 ‘을/를’이 함께 오면 다른 조사와 용언으로 고칩니다. ‘민법 312조 2항의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다만 ‘의’가 연속해서 나오는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는 바른 고치기가 아닙니다.

이쯤에서 일본어와 우리말에서 목적어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어에서 ‘을/를’은 범위가 작은 목적어로, ‘에 관한, 에 대한’은 범위가 큰 목적어로 사용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말이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철수를 좋아했다’에서 목적어 ‘철수’는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지만, ‘그녀는 철수에 대해 물으면 할 말이 없었다’에서 ‘철수에 대해’는 철수가 지닌 개성, 성격, 신변, 외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일본어는 ‘을/를’과 ‘에 관한, 에 대한’을 같이 사용합니다. 일본어는 ‘관한, 대한[こと/事]’을 형식명사로 취급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이것을 형식명사로 분류하지 않을뿐더러, 일본어와 다르게 작은 목적어와 큰 목적어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 목적을 나타내므로 한 문장에서 쓰면 중복 표현이 되기 쉽습니다.

‘에 관하다, 에 대하다’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습니다. 후치사 상당구로는 ‘에 관련하다, 에 연관하다, 에 연루하다, 에 얽히다’가 있고, 접두사 ‘대’, 접미사 ‘당’, 중첩조사 ‘에의’, 형식명사 ‘대상, 상대, 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① ‘에 관련하다, 에 연관하다, 에 연루하다, 에 얽히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에’가 아닌 ‘와/과’로 바꿉니다. ‘미국은 가상현실에 연관된 기술이 발달했다’는 ‘미국은 가상현실과 연관된 기술이 발달했다’로 교정합니다. ‘도지사는 지역 갈등에 얽힌 문제를 풀었다’는 ‘도지사는 지역 갈등과 얽힌 문제를 풀었다’로 바꿉니다.

② ‘대(對)’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 관하다, 에 대하다’와 같은 뜻이 있으므로 한 이불을 덮고 자지 못합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일관된 지지를 보였다’는 ‘그는 대북 정책도 일관된 지지를 보였다’로 하나만 살립니다. 또 ‘검찰총장은 그에게 대테러전 전권을 부여했다’는 ‘검찰총장은 그에게 테러전에 대항하는 전권을 부여했다’와 같이 ‘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당(當)’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입원 1일당 1만 원을 지원했다’는 ‘환자에게 입원 1일에 대하여 1만 원을 지원했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 문장은 ‘환자에게 1일마다 1만 원을 지원했다’로 ‘마다, 씩’을 사용하여 교정합니다.

④ ‘에의’가 있습니다. ‘그녀는 만찬회에의 초대를 받았다’는 ‘그녀는 만찬회에 초대를 받았다’로 수정합니다. 또 민법 642조의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 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는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 건물 따위를 담보물권자에게 통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대상, 상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 으로, 에게’로 고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자금 혜택을 부여했다’는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혜택을 부여했다’로 교정합니다. ‘지자체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는 ‘지자체는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했다’로 다듬습니다.

⑥ ‘상(上)’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 으로, 에게’나 원인·이유의 연결어미나 ‘상태, 상황’으로 교정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에서 ‘형사상’보다는 ‘형사사건에서’로 고칩니다. 또 ‘그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로 교정합니다.

5.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후치사 상당구: 을/를 통하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빨간색 소독약 ‘아카징키(다른 말: 머큐로크롬)’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개에 물려도,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이 약을 발랐습니다. 개에 물린 상처는 몰라도 머리카락이나 배가 아픈 것은 소독약과 무관한데도 완치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글에서는 ‘통하다’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시지요.

이것은 신호등처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로·연결은 ‘거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개선문을 통해 광장으로 갔다’는 ‘그들은 개선문을 거쳐 광장으로 갔다’가 됩니다. 또 원인·이유나 방법·수단을 뜻합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서 사는 의미를 알았다’는 ‘그녀는 고난 때문에 사는 의미를 알았다’로 해석됩니다.

특히 ‘을/를 통하다’가 원인·이유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면 ‘에 따르다, 에 의하다, 로 인하다’와 복제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 문장은 ‘그녀는 고난으로 인해 사는 의미를 알았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오덕¹²⁾ 씨는 ‘을/를 통하다’를 ‘에서, 으로, 을/를’이나 ‘저편에 있는, 을 거쳐, 을 밟아, 을 지나가는, 을 하면서’로 고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오덕 씨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첫째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조사로 고칩니다. 사람이 오면 ‘에게(서), 한테’로 고칩니다. 사물이 오면 ‘으로, 에(서)’로 변경합니다. ‘나는 누나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는 ‘나는 누나에게서 소식을 들었다’로 바꿉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통해 사고 소식을 들었다’는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다양한 용언으로 손질합니다. ‘정부는 개발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정부는 개발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다’로 순화합니다. ‘시장은 점점 회의를 통하여 대책을 세웠다’는 ‘시장은 점점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세웠다’로 수정합니다. ‘그 회사는 산소와 화학반응을 통하여 새 제품을 만들었다’는 ‘그 회사는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새 제품을 만들었다’로 변경합니다.

12) 이오덕, **우리말 바로 쓰기 4**, 459-462쪽.

6. 겉은 다르나 속은 같은 후치사 상당구: 에 반하다, 에 비하다

붕어빵과 국화빵은 겉은 다르지만 속은 비슷합니다. 빵틀 속에서 밀가루 반죽과 팔소가 결혼해서 영혼을 갈아 넣은 길거리 음식이 됩니다. 붕어빵과 국화빵을 닮은 ‘반하다’와 ‘비하다’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보기를 들면 ‘손님 접대가 옛날에 반해 소홀하였다’는 ‘손님 접대가 옛날에 비해 소홀하였다’와 유사합니다.

그럼 ‘에 반하다, 에 비하다’를 고쳐보겠습니다.

첫째 ‘보다, 치고(는), 치곤’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앞 문장은 ‘손님 접대가 옛날보다 소홀하였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 반면’으로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교하다, 견주다’를 사용하여 의미를 더욱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앞 문장도 ‘손님 접대가 옛날과 비교하여 소홀하였다, 손님 접대가 옛날과 견주어 소홀하였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하다’와 ‘비하다’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규정·의사에 반하다’는 ‘어긋나다, 위반하다’로 변경합니다. 민법 제14조2 제2항에 규정된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특정후견은 자기 의사와 어긋나게 할 수 없다’로 교정합니다. 또 ‘풍경·사람에 반하다’는 ‘매혹되다, 끌리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정선이 지닌 아름다운 경치에 반했다’는 ‘그녀는 정선이 지닌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되었다’로 다듬습니다.

참고로 붕어빵과 비슷한 잉어빵인 ‘에 비교하다, 에 견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요즘은 놀거리가 풍부하다’는 ‘과거와 비교하면 요즘은 놀거리가 풍부하다’로 변경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견주어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는 ‘다른 사람 시선과 견주어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로 순화합니다.

계란빵과 같은 ‘을/를 대신하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대표·대리를 나타내면 ‘을/를 대표하다, 을/를 대리하다’로 고칩니다. ‘총무부장은 사장을 대신하여 행사에 참석하였다’는 ‘총무부장은 사장을 대리하여 행사에 참석하였다’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나 반대 상황을 의미하면 ‘이/가 아니다, 말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법인카드를 대신하여 공공경비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는 ‘그 회사는 법인카드가 아닌 공공경비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한정(정)의 후치사 상당구: 에 한(정)하다, 을/를 제(외)하고, 에 그치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금일 한정 특가’처럼 ‘한정’은 제한된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것과 비슷한 말들을 알아보시죠. ‘에 한(정)하다, 로 한(정)하다, 에 국한하다, 로 국한하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만, 에서만, 으로서만, 까지, 은/는’으로 고칩니다.

예를 들면 헌법 33조 2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사람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변경합니다. ‘그 가게는 오늘에 한해 할인 행사를 할 것이다’는 ‘그 가게는 오늘만 할인행사를 할 것이다, 그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행사를 할 것이다’로 순화합니다. 또 ‘모임에 참석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선물을 주었다’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만 선물을 주었다’로 교정합니다.

뒤에서 배울 ‘한’과 관련하여 밑밥을 깔아봅니다. ‘한’은 제한이나 한정(정)을 표시하지만, 조건이나 양보의 형식명사로도 사용됩니다. ‘나는 여력이 되는 한 돕겠다’는 ‘나는 여력이 된다면 돕겠다’로 수정합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에게 부탁은 하지 않겠다’는 ‘나는 죽더라도 남에게 부탁은 하지 않겠다’로 교정합니다.

다음은 ‘을/를 제(외)하고, 을/를 제쳐두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고, 을/를 빼고’로 고칩니다. ‘그는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백 점을 맞았다’는 ‘그는 한 과목을 빼고 모두 백 점을 맞았다’로 순화합니다. ‘나를 제쳐두고 너희끼리 놀러 갈 수 있니?’는 ‘나를 빼고 너희끼리 놀러 갈 수 있니?’로 대체합니다. ‘그는 생활비를 제하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다’는 ‘그는 생활비를 빼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다’로 변경합니다.

특이하게 ‘을/를 제쳐두고’는 두 가지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을/를 연기하다’로 변신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무튼(지), 어쨌든(지), 어쨌건, 여하튼(지), 하여튼(지)’으로 변경합니다. ‘삼촌은 만사를 제쳐두고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삼촌은 만사를 연기하고 결혼식에 참석했다’로 교정합니다. ‘그는 명목을 제쳐두고 텔레비전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그는 명목이 어쨌든 텔레비전에 출연할 수 없다’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에 한하다’와 비슷한 ‘에 그치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뿐이다’가 잘 어울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출산 정책은 미봉책에 그쳤다’는 ‘정부가 발표한 출산 정책은 미봉책일 뿐이다’로 수정합니다.

8. 계속·동시의 후치사 상당구: 에 (뒤)이어, 와/과 동시에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은 소나기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행은 지긋지긋한 장마처럼 오래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처럼 계속·동시를 나타내는 후치사 상당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속을 나타내는 ‘에 (뒤)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근뿐더러, 뿐만 아니라, 예다가, 와/과, 할뿐더러’로 받아줍니다. ‘그 집안은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도자기에 미쳤다’는 ‘그 집안은 아버지에다가 아들까지 도자기에 미쳤다’로 수정합니다.

그러나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계속·나열의 연결어미로 변경합니다. 즉 ‘고(서), 며, 면서, 아/어/여, 아서/어서/여서, (으)면서’로 고칩니다. ‘우리는 광복절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에 뒤이어, 묵념을 진행했다’는 ‘우리는 광복절 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묵념을 진행했다’로 바꿉니다.

다음은 동시를 나타내는 ‘와/과 더불어, 와/과 동시에, 와/과 아울러, 와/과 함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은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와/과, 이랑, 하고’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시골집에서 딸과 함께 산다’는 ‘그녀는 시골집에서 딸이랑 산다, 그녀는 시골집에서 딸하고 산다’와 비슷합니다.

단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계속·나열의 연결어미로 수정합니다. ‘그 연구원은 최신 기술 소개와 더불어 업계 현황을 설명하였다’는 ‘그 연구원은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업계 현황을 설명하였다’로 수정합니다. 또 ‘그녀는 둘째 아이 출산과 동시에 주말부부가 되었다’는 ‘그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주말부부가 되었다’로 변경합니다.

앞서 후치사 상당구는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과 더불어, 와/과 동시에, 와/과 아울러, 와/과 함께’는 ‘에 따라(서)’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의 고령화가 계속됨과 더불어 해녀 인구가 감소했다’는 ‘제주도 해녀들의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해녀 인구가 감소했다’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제주도 해녀들이 계속 늙어가므로 해녀 인구가 감소했다’로 수정합니다.

뒤에서 배울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와 관련하여 예행연습을 하겠습니다. ‘에 (뒤)이어, 와/과 더불어, 와/과 아울러’에서 ‘에, 와’가 생략된 ‘(뒤)이어, 더불어, 아울러’는 접속부사로도 사용됩니다.

9. 첨가의 후치사 상당구: 에 더하다, 에 한(정)하지 않다

어릴 적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항상 ‘덤’을 받았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 너도나도 가난했지만, 마음속 금고에는 ‘덤’을 넉넉히 줄 만큼 정(情)이 넘쳐났습니다. 이제부터 ‘덤’과 같은 첨가의 후치사 상당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 더하다, 에 덧붙이다, 에 추가하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데다가, 뿐만 아니라, 에다가’로 변경합니다. ‘앞으로 모든 담배에는 건강 경고 문구에 더하여 경고 그림을 붙여야 한다’는 ‘앞으로 모든 담배에는 건강 경고 문구에다가 경고 그림을 붙여야 한다’로 교정합니다. ‘동료들은 안주에 추가하여 배달 음식까지 시켰다’는 ‘동료들은 안주에다가 배달 음식까지 시켰다’로 바꿉니다.

또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근거니와, ㄹ뿐더러, 으려니와’ 따위로 수정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덧붙여 다자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는 ‘외교부는 앞으로 주변국 협력 증진하거니와 다자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부정어로 만든 후치사 상당구가 있습니다. 즉 ‘에/로 한(정)하다, 에/로 국한하다, 에 그치다’가 부정어와 결합하면 ‘에/로 한(정)하지 않다, 에/로 국한하지 않다, 에 그치지 아니하다’가 있습니다. 이때는 ‘에 더하다’와 같은 방법으로 고치거나 ‘을/를 넘다’로 변경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은 오늘에 한하지 않고 모레까지 할인행사를 할 것이다’는 ‘백화점은 오늘뿐만 아니라 모레까지 할인행사를 할 것이다’로 수정합니다. ‘빈부격차는 미국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가 겪고 있다’는 ‘빈부격차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다’로 바꿉니다. 또 ‘교통사고 유발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까지 받았다’는 ‘교통사고 유발자는 범칙금 부과에다가 과태료까지 받았다’로 바꿉니다.

‘덤’을 보태면 ‘첨가’와 ‘계속·동시’의 후치사 상당구는 비슷합니다. 앞 문장의 ‘빈부격차는 미국에 한정되지 않고는 전 세계가 겪고 있다’는 ‘빈부격차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가 겪고 있다’와 비슷비슷합니다.

또 앞서 계속·동시의 후치사 상당구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 더하여, 에 덧붙여’에서 조사 ‘에’가 사라진 ‘더하여, 덧붙여’는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로 사용됩니다.

10. 부정어로 만든 다양한 후치사 상당구

일본어는 부정어로 후치사 상당구를 만듭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시지요.

① ‘에(도) 불구하고, 에 관계없이, 에 개의치 아니하고, 에 상관없이, 에 아랑곳 없이’는 ‘건만, 더라도, ㄹ지라도, ㄹ지언정, 에도, 지만’이나 ‘아무튼(지), 어쨌든(지), 여하튼(지), 하여튼(지)’로 고칩니다. ‘인명 구조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심각했다’는 ‘인명 구조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피해가 심각했다’로 교정합니다.

② ‘에 의하지 아니하다’는 ‘이/가 아니다, 말고’로 바꿉니다. 헌법 112조 3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이나 금고를 넘는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로 변경합니다.

③ ‘에 다름 아니다, 에 다름없다, (임)에 틀림없다, 와/과 다름 아니다, 와/과 다름없다, 이나 다름 아니다, 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꼭, 바로, 분명히, 확실히)+이다’로 변경합니다. ‘무질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에 다름없었다’는 ‘무질서는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행위였다’로 교정합니다.

④ ‘에 못지아니하다’는 ‘만큼, 만치’로 변경합니다. ‘그녀는 시험 성적에 못지않게 친구들끼리 우정도 소중히 여겼다’는 ‘그녀는 시험 성적만큼 친구들끼리 우정도 소중히 여겼다’로 다듬습니다.

⑤ ‘에 불과하다, 에 지나지 않는다’는 ‘뿐, 만’으로 고치거나, ‘겨우, 고작, 기껏 해야+이다’로 손꼽니다. ‘그녀가 올림픽 출전을 했을 때 16세에 불과했다’는 ‘그녀가 올림픽 출전을 했을 때 고작 16세였다’로 바꿉니다.

⑥ ‘을/를 금치 못하다, 을/를 금할 길이 없다, 을/를 금할 수가 없다, 을/를 마지 아니하다’는 매우 ○○하다, 몹시 ○○하다로 손질합니다. ‘그녀는 민족 분단에 통탄해 마지아니하였다’는 ‘그녀는 민족 분단을 매우 통탄하였다’로 교정합니다.

⑦ ‘할 가치가 없다, 할 것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로 교정합니다. ‘그 정보는 전혀 신뢰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그 정보는 전혀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었다’로 수정합니다.

11. 범위의 후치사 상당구: 에 걸치다, 에 달하다

‘해가 서쪽 산에 걸쳤다’처럼 ‘에 걸치다’는 본디 ‘가로질러 걸리다, 얹히다’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확대되면 범위나 시간을 표현합니다. 즉 범위를 나타내면 ‘으로, 에(서)’로 교정합니다. ‘그는 다방면에서 걸쳐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는 ‘그는 여러 방면에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했다’로 수정합니다.

또 시간을 나타내면 ‘동안, 내내’로 고치고, ‘부터, 에서’와 짝지어 형태는 ‘까지’로 바꿉니다. ‘신혼부부는 사흘에 걸쳐 살 집을 보았다’는 ‘신혼부부는 사흘 동안 살 집을 보았다’로 교정합니다. ‘시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시청은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했다’로 순화합니다.

‘달하다’는 세 가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르다, 도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달했다’는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이르렀다’로 바꿉니다.

둘째 ‘이/가 되다’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민법 800조에 규정된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는 ‘성년이 되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도를 의미하면 ‘가량, 만큼, 만치’로 변경합니다. ‘호주는 한국 면적 50%에 달하는 평야가 홍수에 잠겼다’는 ‘호주는 한국 면적 50%만큼의 평야가 홍수에 잠겼다’로 교정합니다.

12. ‘에 대하다’가 확장된 후치사 상당구: 을/를 향하다

‘향하다’는 방향이나 이동을 나타내면 ‘겨냥하다, 마주보다, 가다, 이동하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는 ‘시민을 겨냥하여 사격을 가했다’로 바꿉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누웠다’는 ‘그는 하늘을 마주 보고 누웠다’로 교정합니다.

하지만 대상이나 목적을 나타내면 ‘대하다, 위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에(서), 으로, 에게’로 수정합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였다’는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손 인사를 하였다’로 교정합니다.

여담으로 ‘향하다’와 비슷한 ‘지향하다’는 ‘목표를 두다, 목표로 삼다, 꿈꾸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화통일을 지향하였다’는 ‘그는 평화통일을 꿈꿨다’로 교정합니다.

13. 조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후치사 상당구

아무 먹이나 잘 먹는 불가사리처럼 후치사 상당구는 조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즉 ‘에 있어서’는 ‘으로, 에(서)’를, ‘에 있어서는, 에 관해서는, 에 대해서는’ 등은 ‘은/는’을, ‘에 관하다, 에 대하다, 로 하여금’은 ‘을/를, 에게’를, ‘에 의하다, 에 따르다’는 ‘대로, 마다’를, ‘에 반하다, 에 비하다’는 ‘보다, 치곤’을 소멸시킵니다.

또 ‘에 한(정)하다’는 ‘만, 까지, 은/는’을, ‘을/를 대신하다, 을/를 제(외)하다’는 ‘말고’를 ‘에 이어, 와 함께, 와 더불어, 와 동시에, 에 더하다, 에 추가하다, 에 그치지 아니하다, 예/로 한정하지 아니하다, 예/로 국한하지 아니하다’는 ‘와/과, 에다가, 이랑, 하고’를, ‘에 달하다, 에 못지않다’는 ‘만큼’을, ‘에 걸치다’는 ‘에서, 까지’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럼 조사를 사라지게 하는 다른 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로 하여금’은 한자 하여금 ‘사(使)’와 관련된 낱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말인데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에서 사역을 나타내는 ‘에게, 한테’로 고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실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과학 실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에 해당하다’는 ‘이다’로 교정합니다. ‘고리대금업이나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은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는 ‘고리대금업이나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은 불로소득입니다’로 변경합니다.

셋째 ‘을/를 계기로, 을/를 기회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 부터’로 손질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이번 코로나로부터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로 교정합니다.

표 2 후치사 상당구 가족 관계도

분류	후치사 상당구	형식명사	조사 따위	접사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
시간, 장소 상황, 조건	에 있어서[に於いて, における], 에 제하여, 에 즈음하여[に際して]	경우, 시(時), 제(際), 시점, 이상, 한, 상(上)	으로, 에(서), 은/는 무렵, 즈 (의존명사)	경(頃), 께	-
분야	에 있어서는, 에 관해서는, 에 대해서는[に掛けては]	-	만(큼)은, 에서는, 은/는	-	그와/이와 관련하여(첨가)
원인, 이유 근거, 인용 비례, 호응	에 의하여, 에 따라서 에 근거하여, 에 기초하여 에 상응하여, 에 응하여 [に因って, に従って, に基づいて, に応じて]	관계, 사정, 사유, 원인, 이유, 때문, 탓, 바람, 덕, 덕택, 덕분, 나머지, 상(上), 결과	대로, 마다, 만큼, 만치 는 데(의존명사)	-	그에/이에 따라, 그로/이로 인하여, 그로/이로 말미암아
대상, 목적	에 관하여[に關して] 에 대하여[について] 에 향하여[に向かって]	것, 상(上)	에게, 을/를	대(對), 당(當)	이에 대하여(첨가) 이에 관하여(첨가)
경로, 연결 원인, 이유 방법, 수단	을/를 통하여[を通じて]	-	에(서), 으로, 에게, 을/를, 대로	-	-
대조, 대비	에 반하여, 에 비하여 [に引き換えて, に比べて, に反して]	반면, 한편	치고(는), 치곤, 보다	-	그와/이와 반대로, 그에/ 이에+반하여 그에/이에· 비하여
	을/를 대신하여[に代わって]	대신(에)	말고	-	-
제한·한정	에 한(정)하여[に限って], 로 한(정)하여, 에 국한하여, 로 국한하여, 에 그치다, 에 불과하다, 에 지나지 않는다	한(限)	만, 에서만, 으로만, 까지, 은/는	-	-
제외	을/를 제외하고[を除いて]	외(外), 밖, 타(他)	말고	-	-
계속, 동시	에 이어[に続いて], 와 함께, 와 더불어, 와 동시에[と共に]	즉시, 동시	와/과, 에다가, 이랑, 하고	-	이어, 그와/이와+더불어·동시에· 함께
첨가	에 더하여, 에 덧붙여서, 에 추가하여, 에 그치지 아니하고, 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에 국한하지 아니하고[に加えて]	-	와/과, 이랑, 에다가, 하고	-	이에/그에 더하여, 그에/이에 덧붙여(서), 그에/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관, 양보	에(도) 불구하고[にも関わらず]	여하간, 좌우간, 하여간	-	-	그럼에도 불구하고(하고)
범위	에 걸쳐[に掛けて]	-	으로, 에서, 까지	-	-
정도, 도달	에 달하다[に達する], 에 못지아니하다[に劣らず]	정도, 수준	가량(접미사), 남짓, 만큼, 쯤(의존명사)	-	-
사역	로 하여금[をして]	-	에게, 한테	-	-
동격	에 해당하다[に当たる] 에 틀림없다[に相違ない]	-	이다	-	-
출발	을/를 계기로[をきっかけに]	-	부터, 에서	-	-

표 3 후치사 상당구를 연결어미나 조사 따위로 고치기

분류		후치사 상당구	고치기
연결 어미	원인 이유	에 의하다, 에/로 인하다, 에 따르다, 에/로 기인하다, 로 말미암다, 에 힘입다, 인 관계로	기에, 길래, 니까, 느라고, 므로, 아/어/여, 아서/여서
	상황 조건	에 있어서	거든, 는바, 려면, 면서, 아/여/야, (으)면
	계속 나열	에 이어(서), 와/과 더불어, 와/과 동시에, 와/과 아울러, 와/과 함께	고, 고서, 며, 면서, 아(서)/어(서)/여(서), (으)면서
	첨가	에 더하다, 에 덧붙이다, 에 첨가하다	ㄹ뿐더러, 으려니와
	양보	에(도) 불구하고, 에 관계없이, 에 개의치 아니하고, 에 상관없이, 에 아랑곳없이	기로(서니), ㄴ들, 더라도, ㄹ망정, ㄹ지라도, ㄹ지언정, 아도/어도/여도 의존명사: 는 데
조사 따위로 고치기		로 인하다, 에 따르다, 에 의하다, 에 달하다, 에 걸맞다, 에 부응하다, 에 부합하다, 에 상당하다, 에 상응하다, 에 어울리다, 에 응하다, 에 적합하다, 에 쫓다, 을/를 통하다	에서, 으로, 은/는, 로서는, 대로, 마다, 만치, 만큼
		에 있어서, 에게 있어서, 에 대하다, 에 관하다, 을/를 향하다	에, 에서, 으로, 에게, 한테
		에 반하다, 에 비하다	보다, 치고(는)
		에 있어서는, 에 관한 한은, 에 관해 서는, 에 관한 것이라면, 에 대해서는, 에 대한 것이라면	만큼은, 만은, 에서는, 은/는
		에 제하다, 에 즈음하다	무렵, 쯤(의존명사), 경, 께(접미사)
		에 한(정)하다, 로 한(정)하다, 에 국한하다, 로 국한하다	만, 에서만, 으로만, 까지, 은/는
		을 대신하다, 을/를 제(외)하고, 을/를 제쳐두고	말고
		에 이어, 에 뒤이어, 와/과 더불어, 와/과 동시에, 와/과 아울러, 에 더하 다, 에 덧붙이다, 에 추가하다, 에/로 한(정)하지 아니하다, 에/로 국한하지 아니하다, 에 그치지 아니하다	와/과, 이랑, 하고, 에다가 뿐만 아니라(구), 데다가(구)
		에 그치다, 에 불과하다, 에 지나지 않는다	뿐(의존명사), 만
		에 못지않다	만큼
		에 걸치다	까지, 내내(부사), 동안(의존명사)
		로 하여금	에게, 한테
		에 해당하다, 에 다름 아니다 따위	이다
	을/를 계기로, 을/를 기회로	부터, 에서	

표 4 후치사 상당구를 조사+용언 따위로 고치기

분류	후치사 상당구	조사+용언으로 고치기
비례, 호응	로 인하다, 에 따르다, 에 의하다	을/를 따르다, 와/과+비례하다, 을/를+받다, 을/를+수용하다
근거, 인용	로 인하다, 에 따르다, 에 의하다	에서/은/는/을/를+발표하다, 보다, 살펴보다, 알아보다, 인용하다, 조사하다
	에 근거하다, 에 기반하다, 에 기초하다, 에 바탕하다, 에 입각하다	○○로 두다, ○○로 삼다
대상, 목적	에 관하다, 에 대하다, 에 관련하다, 에 연관하다, 에 얽히다, 에 연루하다	와/과 또는 을/를+관련하다, 규정하다, 다루다, 연관하다, 처리하다, 하다
원인, 이유 방법, 수단 경유, 연결	을/를 통하다	다양한 조사+용언
대조, 대비	에 비하다, 에 비교하다	와/과+비교하다, 견주다, 다르다, 대보다, 대어 보다
	을/를 대신하다	을/를 대표하다, 을/를 대리하다, 이/가 아니다
한정	을/를 제외하고, 을/를 제쳐두고, 을/를 제하고	을/를 빼고
첨가	에 한(정)하지 아니하다, 에 국한하지 아니하다, 에 그치지 아니하다	을/를 넘다
범위	에 달하다, 에 도달하다	을/를+도달하다, 달성하다, 이/가 되다, (무엇) 이다, 에 이르다
겨냥, 방향	을/를 향하다	을/를+겨냥하다, 겨누다, 마주보다, 마주하다, 찾다, 으로 가다
지향, 목표	을/를 지향하다	목표로 두다, 목표로 삼다, 꿈꾸다

표 5 후치사 상당구를 다른 형태로 고치기

분류	후치사 상당구	다른 형태로 고치기
한정	에 그치다	(뿐)이다
부정	에 의하지 아니하다	이/가+아니다
	에 다름 아니다, 에 다름없다, (임)에 틀림없다, 와/과 다름 아니다, 와/과 다름없다, 이나 다름 아니다, 이나 다름없다	(꼭, 바로, 분명히, 확실히)+이다
	에 불과하다, 에 지나지 않는다	(겨우, 고작, 기껏해야)+(뿐)이다
	을/를 금치 못하다, 을/를 금할 길이 없다, 을/를 금할 수가 없다, 을/를 마지아니하다	(매우, 몹시)+하다, 되다
범위	에 달하다, 에 도달하다	이/가 되다

3부

적(的)과 접사

3부. 적(的)과 접사

1. 적(的)을 시작하면서

적(的)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적’은 중국에서 과녁, 목적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용하는 ‘적’은 근대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autocracy, society’와 같은 신조어를 수입하면서, ‘민주(民主), 사회(社會)’와 같은 한자어 명사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자어 명사끼리 연결할 도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의’를 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자어와 어울리고, 거센소리를 내는 ‘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변화의 흔적을 찾아보면 1873년 『생성발은』에서는 ‘천연의[天然の]’를 사용하였으나, 1874년 『명륙잡지』에서는 ‘천연적[天然的]’을 사용하였습니다.¹³⁾

다음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첫째 ‘적’은 분신이 있습니다. 조사 ‘의’, 후치사 상당구, 형식명사가 그 예입니다. ‘법률의 지식, 법률에 관한 지식, 법률상 지식, 법률적 지식’은 모두 비슷합니다.

둘째 ‘적’은 고유어를 외면합니다. ‘적’은 한자어와 외국어와 사람과 사자성어와 잘 결합하나, 고유어와 어울리지 못합니다. 고유어로는 ‘마음적’이 있으나, 오히려 ‘심적’을 더 많이 씁니다.

셋째 ‘적’은 귀먹은 사오정입니다. ‘적’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생각에 차이를 만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한 행동’을 ‘즉석에서 한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대로 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적’은 ‘귀차니즘’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일기 상황’은 ‘날마다 일기 상황’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늘 하던 업무’이고, ‘일상적인 언어’는 ‘보통 언어, 대중 언어’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장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뭉뚱그려버립니다.

13) 정영숙, “日本語 接辭 “的”의 成立 및 韓國語로의 流入問題 考察,” 『日語日文學研究』(韓國日語日文學會) 제25권 제1호 (1994): 35-36쪽, <http://www.riss.kr/link?id=A3052155>, (2021. 4. 8. 확인).

다음은 분류 방법입니다. 서재극¹⁴⁾ 씨는 ‘적’에 조사가 붙으면 ‘명사’로, 조사가 없으면 ‘관형사’로, ‘가급적, 비교적’은 ‘부사’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엔도 오리에¹⁵⁾ 씨 분류법을 기초로 삼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형사류 적’과 ‘부사형’으로 구분합니다. ‘관형사류 적’은 ‘적’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인, 이고, 이며’ 따위가 붙는 형태입니다. 즉 ‘명사, 관형사’로 분류하는 ‘적’을 ‘관형사류 적’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적, 적인, 적이고, 적이며, 적이다, 적이라는, 적이지 않다, 적이 아니다, 적이고+적인, 적이고+적이지만, 적이며+적이다, 적+적’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부사형’은 ‘적으로’ 형태입니다. 보기를 들면 ‘적으로, 적으로도, 적으로는, 적+적으로도, 적으로나+적으로’가 있습니다. 예외로 ‘가급적, 비교적’은 ‘되도록, 꽤’로 해석되는 부사이기에 이 범주에 포함합니다.

다음은 ‘적’을 고쳐보겠습니다. 먼저 고치기 개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고유어는 ‘적’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둘째 ‘적’을 조사로 고치거나 생략합니다. 특히 ‘정치적·사회적 여건’처럼 둘 이상 연속해서 ‘적’이 나오면 ‘적’을 생략합니다. 앞 문장도 ‘정치·사회 여건’으로 수정합니다. 셋째 ‘적’을 다양한 용언으로 고칩니다. 넷째 ‘형용사류 적’은 ‘가깝다, 같다, 유사하다’ 따위로 바꿉니다. 다섯째 부사형으로 사용되는 ‘적으로’는 되도록 우리말 부사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적’ 고치기에서 핵심은 뒷말에 따라 네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악과’처럼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를 들면 ‘열광적(熱狂的)’은 긍정 표현인 뜨거울 ‘열(熱)’과 부정 표현인 미칠 ‘광(狂)’이 결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긍정 표현인 ‘가수에게 열광적인 환호가 쏟아졌다’는 ‘가수에게 열렬한 환호가 쏟아졌다’로, 부정 표현인 ‘일본은 열광적 소비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일본은 지나친 소비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로 순화합니다.

둘째 동음이의어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각적’은 뒷말에 따라 5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연출’은 ‘세련된 연출’로, ‘감각적인 공간’은 ‘쓸모 있는 공간’으로, ‘감각적 상품’은 ‘감각을 자극하는 상품’으로, ‘감각적 기능 장애’는 ‘감각 기관의 기능 장애’로, ‘감각적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과 같이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14) 동뢰, "접미사 '-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강원, 2009), 29쪽, <http://www.riss.kr/link?id=T11811543>, (2022. 8. 11. 확인).

15) 엔도 오리에(遠藤織枝), "接尾辞 '的' の意味と用法," **日本語教育**(日本語教育學會) 第53号 (1984): 125-138쪽, 정영숙, 같은 학회지에서 재인용, <http://www.riss.kr/link?id=A3052155>, (2021. 4. 8. 확인).

셋째 본래 의미와 파생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면 ‘기록적 오류’는 본디 ‘기록과 관련된 오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생된 ‘기록적인 한파’는 ‘기록에 깨는 한파, 엄청난 한파’로 처음 뜻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넷째 관형사류 ‘적’과 일본어 부사에서 유래한 부사형 ‘적으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만 보면 ‘우선적 효력을 발휘했다’는 ‘우선권이 있는 효력을 발휘했다’로 풀이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현장의 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는 ‘대통령은 현장의 소리를 먼저 반영하였다’로 풀이합니다.

2. 복합명사처럼 사용되는 적(的)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다른 말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사이에 조사 ‘의’, 후치사 상당구, 형식명사를 첨가하듯이 접미사 ‘적’도 덧붙입니다. 이것을 일본어의 개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다릅니다. 복합명사가 발달한 우리말은 ‘적’을 사용하지 않고 명사를 연결합니다. 이 책에서 복합명사처럼 해석되고, ‘적’을 쉽게 생략할 수 있는 형태를 ‘복합명사류 적’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학문,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문을 의미하는 ‘경제, 고전, 구조, 과학, 역사’ 등이나 성격을 뜻하는 ‘감정, 내면, 외향, 입체, 양면, 이중’ 따위가 ‘적’과 결합합니다.

둘째 처음 형태보다 파생된 형태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천문학’은 본래 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문학적 연구’는 ‘천문학 연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파생이 되면 ‘별과 같이 무수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천문학적 금품 수수’는 ‘엄청난 금품 수수’를 의미합니다.

셋째 ‘에 관하다, 에 대하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적 특성’은 ‘기계에 관한 특성, 기계에 대한 특성’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로서, 으로, 에(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서 보면, 으로 보면’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문제’는 ‘실무에서 문제, 실무에서 보면 문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적(的)

영화 「타짜」에서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사답게’를 ‘신사적’으로 변경하면 이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 다소 불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적’은 사람·동물과 감정·성격과 비유·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좀 더 풀어볼까요? 사람·동물과 관련된 말은 ‘귀족, 기인, 동물, 서민, 신사, 야수’ 따위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감격, 감명, 굴욕, 낙천, 인도, 탐욕’ 따위가 있습니다. 비유·모습을 나타내는 말은 ‘과도기, 말세, 몽환, 원시, 평화, 환상’ 따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적’과 결합하여 형용사처럼 사용됩니다.

이 책에서 학습을 위해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적’을 ‘형용사류 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가깝다, 같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흡사하다, 닮다, 답다, 룩다, 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로 ‘형용사류 적’은 형식명사인 ‘식의, 풍의’와 비슷합니다. 보기를 들면 ‘목가적인 농촌’과 ‘목가풍의 농촌’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비유·형용을 나타내는 ‘의’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신사적 품격’과 ‘신사의 품격’은 의미가 비슷합니다.

4. 용언으로 고쳐야 하는 적(的)

움직임이 없는 한자어와 결합하는 ‘적’은 생동감이 더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고쳐야 생생해집니다. 크게 세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고유어와 ‘하다, 되다’를 비롯한 용언으로 고칩니다. 하지만 먼저 고유어를 비롯한 쉬운 말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하다, 되다’를 사용합니다. ‘회유적인 분위기’는 ‘달래는 분위기’로 먼저 고치고, 다음으로 ‘회유하는 분위기’로 순화합니다.

둘째 ‘을/를 따르다, 을/를 준수하다, 을/를 근거로 삼다, 을/를 기준으로 삼다, 와/과 맞다, 와/과 부합하다’ 따위로 순화합니다. 이것은 ‘복합명사류 적’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논리적인 설득력’은 ‘논리를 근거 삼은 설득력’으로, ‘순리적인 상황’은 ‘순리를 따르는 상황’으로 교정합니다.

셋째 상태, 소유, 발생을 나타내면 ‘나다, 발생하다, 지나다, 있다’로 바꿉니다. ‘김홍도는 개성적인 화풍을 추구하였다’는 ‘김홍도는 개성이 있는 화풍을 추구하였다’로 변경합니다.

5. 일본에서 새롭게 만든 ‘적으로’

과거 ‘미월’과 ‘다시다’로 대표되는 글루탐산나트륨(MSG)은 본디 독일에서 발견했으나, 일본에서 재발견하였습니다. MSG처럼 ‘적’도 중국에서 만들었으나, 일본에서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특히 부사형 ‘적으로’는 일본어의 부사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관형사류 ‘적’이나 부사형 ‘적으로’는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적 방법,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으로 연구하였다’는 ‘과학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형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주로 ‘복합명사류 적’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사형 ‘적으로’는 일본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제조하였습니다.

부사형 ‘적’은 일본어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어 명사를 이용하여 만든 부사가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즉각’과 ‘적’이 결합하여 ‘즉각적인 매도 중단, 즉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였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매도 중단, 곧바로 의무를 이행하였다’와 같이 모두 ‘곧바로’를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어 고유어계 부사를 ‘○○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전적으로[一に], 무의식적으로[思わず]’가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부사형으로 분류하는 ‘가급적, 비교적’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는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적, ○○적인, ○○적으로’를 모두 우리말 부사로 고치면 됩니다. 즉 한자어 명사 형태로 명사와 부사로 함께 쓰는 ‘대략, 순차, 상시’ 따위가 ‘적’과 결합하면 관형사류 ‘적’이나 부사형 ‘적으로’나 의미가 비슷합니다. 보기를 들면 ‘순차적 진행, 순차적인 사고,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차례대로 진행, 차례대로 사고, 차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로 모두 ‘차례차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사형 ‘적으로’와 ‘관형사류 적’이 의미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먼저 부사형 ‘적으로’는 부사로 교정합니다. 하지만 ‘관형사류 적’은 문맥과 맞게 고칩니다. ‘기상청은 비가 아침부터 단속적으로 온다고 예보하였다’는 ‘기상청은 비가 아침부터 푹푹온다고 예보하였다’로 변경합니다. 반대로 ‘그 법은 단속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 법은 일이 연속되지 않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로 순화합니다.

6. 접사를 고치면서

일본 사람은 숙성된 선어회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팔팔한 활어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활어회를 만들 수 있는 ‘고유어계 접사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윤영민¹⁶⁾ 씨는 “우리말 접사 443개 중 고유어계가 130개이고, 한자어계가 312개이고, 혼종어계는 1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한자어계 접사와 고유어계 접사끼리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최형용¹⁷⁾ 씨는 ‘건구역/헛구역, 공걸음/헛걸음, 대사리/한사리, 생감자/날감자, 장조카/만조카, 조력자/조력꾼, 시계사/시계장이, 옹기장/옹기장이, 등대수/등대지기’는 대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독신/홀몸, 독자/외아들, 반소/맞소, 진면목/참모습, 호적수/맞적수, 공언/헛말’도 있으나, 여전히 한자어와 고유어를 맞바꾸기가 힘듭니다.

우리말은 한자가 같은 일본어의 접사를 가져와서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윤영민¹⁸⁾ 씨는 “우리말의 한자 접두사 21개와 한자 접미사 53개는 일본어와 같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같다고 일본어 접사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알아보실까요?

첫째 띄어쓰기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우리말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와 같이 띄어쓰기로 구별합니다. 하지만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는 “어머니는 이가 좋다.[はははははいい./母は歯はいい.]”와 같이 한자로 나눕니다. 그런데도 우리말이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의 접사를 가져오다 보니 혼란이 발생합니다.

둘째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예를 들면 ‘직거래, 폐사’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직, 폐’를 접두사로 사용하나,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인간미, 종지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미사 ‘미, 부’는 국어사전에서 볼 수 없습니다. 즉 우리말이 일본어에서 ‘처삼촌 뒀에 별초하듯’ 일부만 가져오다 보니 영성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본 영업소, 본인, 본뜻, 본계약’은 같은 ‘본’을 사용하지만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 접미사 ‘고’도 일본어를 직역하다 보니 금액과 수량을 나누어서 풀이해야 합니다.

16) 윤영민, “현대 한·일어 접사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2011), 68-72쪽, <http://www.riss.kr/link?id=T12519747>, (2021. 4. 8. 확인).

17) 최형용,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등 양상에 대하여,” **한중언어학회** (한중언어학회) 제19권, (2006): 354-358쪽, <http://www.riss.kr/link?id=A35494841>, (2021. 12. 19. 확인).

18) 윤영민, 앞의 논문, 79-81쪽, <http://www.riss.kr/link?id=T12519747>, (2021. 4. 8. 확인).

7. 접두사 고치기

‘무, 미, 반, 불, 비, 소, 재, 최’ 따위의 접두사는 우리말이나 일본어에서 뜻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부 접두사는 일본어에서 베끼다 보니 의미가 불완전합니다. 그럼 알아보실까요?

① ‘각(各)’은 일본어에서 접두사와 관형사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관형사로만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각 항목, 각 나라’처럼 띄웁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같은 ‘각’을 쓰면서 ‘각가지, 각살림’은 ‘한 단어로 인식하므로 붙여 쓴다’라고 해설합니다. 처음부터 일본어의 접두사 ‘각’의 의미도 가져왔으면 좋았을 겁니다.

다음은 고치기를 살펴볼까요? ‘각’은 ‘날날의, 가지가지, 온갖,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따로따로, 뭉뭉이’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각국’은 ‘여러 나라’로, ‘각추렴’은 ‘따로따로 거둠’으로 가다듬습니다.

또 ‘각’과 접미사 ‘별, 당’은 ‘마다’와 비슷하므로 한 문장에서 같이 쓰면 중복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만 사용하거나 ‘마다’로 고칩니다. ‘각 세대별 인식 차이’는 ‘각 세대 인식 차이, 세대별 인식 차이, 세대마다 인식 차이’로 고칩니다.

여담으로 관형사 ‘매(每)’도 ‘마다’로 변경합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는 ‘그는 날마다 일기를 썼다’로 수정합니다. 아니면 반복되는 단어로 고칩니다. ‘철수는 매번 선생님에게 별을 받았다’는 ‘철수는 번번이 선생님에게 별을 받았다’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금(今)’은 일본어에서 접두사로 분류하나 우리말은 접두사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번, 금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본어에서 ‘금(今)’은 ‘현(現), 차(此)’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금세기, 현세기’는 같은 말이고, ‘금후, 차후’도 같은 단어입니다. ‘금’은 ‘이, 올, 지금, 현재’로 고칩니다. 즉 ‘금세기’는 ‘이번 세기’가 되고, ‘금년’은 ‘올해’가 됩니다.

③ ‘당(當)’은 우리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접두사 ‘당’은 ‘당고모’와 같이 사촌이나 오촌을 뜻합니다. 또 관형사로 ‘그/이, 바로 그것, 지금’을 뜻하거나 당시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당인, 당자’는 ‘관계된 사람, 관계인, 그 사람’으로 수정합니다. 또 ‘당 40세’는 ‘그때 40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는 ‘자기, 자신, 저, 우리’와 같은 뜻풀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일본어에서 의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으로, ‘당 상점’은 ‘저희 가게, 우리 가게’로 수정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해, 해당’은 본디 ‘관련하다’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은 ‘관련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 본’과 마찬가지로 ‘그, 이,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의 경험’은 ‘그 분야의 경험’으로, ‘당해 제품’은 ‘그 제품’으로 수정합니다.

④ ‘본(本)’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그/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은 본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선언문을 낭독하였다’는 ‘위원장은 이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선언문을 낭독하였다’로 바꿉니다.

둘째 ‘기본, 본래, 참’을 나타냅니다. ‘본의’는 ‘본래 마음’으로, ‘본뜻’은 ‘참뜻’으로 수정합니다.

셋째 ‘정식, 정규, 정상’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어제 협력업체와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회사는 협력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로 수정합니다. 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로 변경합니다.

넷째 앞선 ‘당’처럼 국어사전에서 풀이가 없는 ‘자기, 자신, 저, 우리’가 있습니다. ‘본 영업소’는 ‘우리 영업소’로 고칩니다. 과거 ‘전(全)’ 대통령이 말한 ‘본인’도 ‘나’라고 표현보다는 ‘저 (자신), 이 사람’으로 고쳐야 합니다.

⑤ ‘실(實)¹⁹⁾’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실, 실제’로 풀이합니다. 즉 ‘실거주자’는 ‘실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어는 두 가지 다른 뜻이 존재합니다. 첫째 ‘친(親)’과 같습니다. ‘실형’은 ‘친형’을 의미합니다. 둘째 ‘동시, 즉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처리’는 ‘동시 처리, 즉시 처리’가 됩니다.

⑥ ‘제(第)’는 차례를 나타냅니다. ‘제’가 숫자와 함께 쓰면 생략합니다. 이 책에서 예문으로 사용된 법조문은 대부분 ‘제’를 생략하였습니다. 하지만 ‘10조의2 2항’과 같이 ‘조의’가 오면 보는 사람이 연속된 숫자를 착각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부득이 ‘제’를 사용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두 개 이상의 말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붙임표’를 넣어 ‘10-2조 2항’과 같이 법조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3월 9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실.”

8. 접미사 고치기

여러분은 주택가 공터에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주인백”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게시물의 주인을 ‘백 씨’로 착각합니다. 심지어 ‘주인백, 주인 백’이 맞는지 불필요하게 논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일본어 접미사 ‘백(白)’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백’은 ‘주인 알림, 주인 아뢰’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제부터 ‘백’처럼 일본어에서 가져온 접미사를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감(感)’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분, 느낌,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요즘 미시감, 기시감이라는 단어가 사용 됩니다. ‘미시감, 기시감’도 이해하기 어려운 데 프랑스어인 자메뷔(Jamais vu), 데자뷔(Déjà vu)까지 버젓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미시감’은 ‘낯설’으로, ‘기시감’은 ‘낯익음, 익숙함’으로 바꿉니다.

둘째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단어로는 ‘강박감, 거부감, 불안감, 우울감’ 따위가 있으나, 추상성이 없으면 생략하거나, 다른 말을 넣습니다. ‘사장은 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는 ‘사장은 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로 수정합니다.

셋째 ‘감각,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기를 들면 ‘MBC에 출연하는 그 연예인은 예능감이 있다’는 ‘MBC에 출연하는 그 연예인은 예능 감각이 있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고(高)’와 결합하는 ‘기성, 매상, 보유, 생산, 수확, 어획’은 금액과 수량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과 맞게 금액과 수량으로 나누어서 고쳐야 합니다. 보기를 들면 ‘300억 원의 어획고’는 ‘어획 금액 300억 원’으로, ‘300톤의 어획고’는 ‘어획량 300톤’으로 바꿉니다.

③ ‘당(當)’은 ‘마다, 씩, 예’로 고칩니다. ‘기차표는 한 사람당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는 ‘기차표는 한 사람마다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기차표는 한 사람에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④ ‘대(臺)’는 ‘대강의 범위’나 ‘어떤 수나 값이 넘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량, 어치, 이/가 넘다’로 순화합니다. ‘500억 원대 생산 효과’는 ‘500억 원가량 생산 효과, 500억 원이 넘는 생산 효과’로 바꾸시면 됩니다.

⑤ ‘도(度)’는 시간이나 기간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일본어에서 ‘도’는 ‘연도 밑에서 그 해를 강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풀이대로라면 ‘도’는 이미 ‘연(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말에 ‘연’이 있다면 ‘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를 들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올해 예산’으로 수정하고, ‘2022년도 시무식’보다 ‘2022년 시무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도’는 정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신용도’는 ‘신용 정도’로, ‘오염도’는 ‘오염 정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물(物)’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은 ‘공유 물건’으로, ‘화합물’은 ‘화합 물질’로, ‘오락물’은 ‘오락거리’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또 ‘물’을 생략하거나, 쉬운 우리말로 고칩니다. ‘성과물’은 ‘성과’로, ‘과제물’은 ‘과제’로, ‘세탁물’은 ‘빨래’로 수정합니다.

⑦ ‘발(發)’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가다, 떠나다, 출발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발 열차’는 ‘부산 가는 열차’로 수정합니다. 둘째 ‘발신하다, 보내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동경발 외신’은 ‘동경에서 발신한 외신’으로 수정합니다. 셋째 ‘발생하다, 생기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생긴 금융위기’로 변경합니다.

⑧ ‘부(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다’를 의미하면 ‘부터, 에’로 고칩니다. ‘3월부로 종료’는 ‘3월에 종료’로, ‘오늘부로 시행 확대’는 ‘오늘부터 시행 확대’로 바꿉니다. 또 일본어에서 ‘부’와 같은 ‘자(字)’가 있습니다. 즉 ‘오늘부로 종료’와 ‘오늘 자로 종료’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조건-소속을 나타내면 ‘달다, 붙이다, 부속되다’로 바꿉니다. ‘기한부 체류 자격’은 ‘기간을 붙인 체류 자격’으로, ‘중국대사관부 상무관’은 ‘중국대사관 소속 상무관’으로 변경합니다.

⑨ ‘별(別)’은 ‘에 따라’가 아닌 ‘마다’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계절별 편차’는 ‘계절에 따른 편차’보다는 ‘계절마다 편차’로 변경합니다. 또 ‘별’은 접미사 ‘당’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청은 수해를 방지하려고 마을별 1억 원을 보조했다’는 ‘군청은 수해를 방지하려고 마을당 1억 원을 보조했다’와 비슷하나 ‘군청은 수해를 방지하려고 마을마다 1억 원을 보조했다’로 변경합니다. 여담으로 ‘별’은 비슷한 뜻을 지닌 ‘각(各), 매(賣)’와 같이 쓰면 중복 표현이 됩니다.

⑩ ‘성(性)’은 세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감각, 기능, 기질, 본능, 성질, 습성’ 따위로 수정합니다. ‘균형성이 있다’는 ‘균형 감각이 있다’로, ‘보온성이 우수했다’는 ‘보온 기능이 우수했다’로, ‘민족성을 반영하였다’는 ‘민족 기질을 반영하였다’로, ‘공격성을 가미하였다’는 ‘공격 본능을 가미하였다’로, ‘오락성이 높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오락 성질이 높은 영화를 만들었다’로, ‘대중성을 반영한 판매’는 ‘대중 습성을 반영한 판매’로 교정합니다.

둘째 ‘하다, 되다, 있다, 지나다’ 따위의 다양한 용언으로 수정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민감한 피부’로, ‘유전성 질환’은 ‘유전되는 질환’으로, ‘논리성 문장’은 ‘논리가 있는 문장’으로, ‘예술성 음악’은 ‘예술성을 지닌 음악’으로 변경합니다.

셋째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논리성이 전혀 없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논리가 전혀 없다’로, ‘습관성처럼 복용하는 약물’은 ‘습관처럼 복용하는 약물’로 교정합니다.

⑪ ‘시(視)’는 일본어에서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정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삼다,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시하였다’는 ‘문제로 삼았다’로 고치고, ‘적대시하였다’는 ‘적으로 간주하였다’로 교정합니다.

⑫ ‘용(用)’은 ‘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대상, 상대’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 대상 자전거, 어린이 상대 자전거’는 모두 비슷합니다.

단 고칠 때에는 ‘위하다’가 아닌 ‘맞다, 쓰다, 사용되다, 적합하다, 되다, 하다’와 따위로 고칩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물품’은 ‘한 번 쓰는 물품’으로 바꿉니다.

⑬ ‘자(者)’는 사람을 뜻하므로 ‘사람, 이’로 고칩니다. ‘필자’는 ‘글쓴이, 글 쓴 사람’으로 고치고, ‘독자’는 ‘책 읽는 이’로 변경합니다. 단 ‘미립자, 양성자’와 같이 작은 물질을 뜻하거나 ‘공자, 노자’처럼 성인을 뜻하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⑭ ‘정(整)’은 금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²⁰⁾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금액에 한정된다’라고 풀이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대로라면 ‘일만 원정’은 ‘일만 원에 한함’이라고 해석되므로 어색합니다. 일본어는 ‘정’과 같은 말로 ‘이다[なり]/也’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일 만원임’이 더 좋은 말입니다.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3월 9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정.”

⑮ 접미사 ‘차(次)’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고자, 여고, (으)러, 으(려), (으)려고’와 같은 목적의 연결어미로 교정합니다. ‘부장은 업무차 미국에 갔다’는 ‘부장은 업무를 하려고 미국에 갔다’로 바꿉니다. ‘그 직원은 연구차 영국에 갔다가 국내로 귀국하지 않았다’는 ‘그 직원은 연구하러 영국에 갔다가 국내로 귀국하지 않았다’로 변경합니다.

다만 의존명사 ‘차’는 세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첫째 우연한 기회나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김에, 는데, 하자마자’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숙소에 막 도착하려던 차에’는 ‘숙소에 막 도착하려는 김에, 숙소에 막 도착하려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와 비슷합니다. 이때는 그대로 사용 하셔도 됩니다.

둘째 일정한 주거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만, 째’로 고칩니다. ‘그녀는 결혼 20년 차에 집을 장만했다’는 ‘그녀는 결혼 20년 만에 집을 장만했다, 그녀는 결혼 20년째에 집을 장만했다’로 교정합니다.

셋째 차례나 횟수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번’으로 순화합니다. ‘사장은 신제품을 판매하려고 수십 차 미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다’는 ‘사장은 새 제품을 판매하려고 수십 번 미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다’로 변경합니다.

⑯ ‘착(着)’은 출발을 나타내는 ‘발’과 반대로 ‘도착’을 의미합니다. 일본어는 접미사 ‘착’을 풀이하나, 국어사전에는 접미사 ‘발’만 풀이하고, 접미사 ‘착’은 풀이가 없습니다. ‘하네다공항발, 인천공항착’은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으로 변경합니다.

⑰ ‘풍(風)²¹⁾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풍속, 풍모, 양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영국풍 가구’는 ‘영국 양식 가구’가 됩니다. 하지만 ‘풍’은 ‘형용사류 적’에서 설명 하였듯이 형식명사로 ‘가깝다, 같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흡사하다, 닮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풍 대표이사’는 ‘학자를 닮은 대표이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⑱ ‘필(畢)’은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재필’은 ‘결재 끝남, 결재 마침, 결재 완료’로, ‘지급필’은 ‘지급 완료’로, ‘예약필’은 ‘예약 완료, 예약 끝남’으로 변경합니다.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3월 9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풍.”

9. 접미사 화(化) 고치기

‘화’는 ‘적’처럼 생산성이 높아 새로운 말을 잘 만듭니다. 둘을 비교하면 ‘적’은 명사와 관련이 있는 ‘이다’가 결합하지만, ‘화’는 동사와 연관이 있는 ‘하다, 되다’가 붙습니다. 하지만 ‘화’ 안에는 ‘하는 것[にすること], 되는 것[になるこ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하다, ○○화되다’는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첫째 ‘화’는 ‘갖추다, 구성하다, 만들다’ 따위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면 ‘계급화하다, 규모화하다, 문서화하다, 제도화하다, 조직화하다’는 ‘계급을 만들다, 규모를 갖추다, 문서로 만들다, 제도를 만들다, 조직을 구성하다’로 바꿉니다.

둘째 ‘화’는 고유어를 비롯한 쉬운 말로 고칩니다. 보기를 들면 ‘가속화되다’는 ‘속도를 더하다’로, ‘가시화되다’는 ‘눈에 보이다’로, ‘간소화하다, 간편화하다’는 ‘손쉽게 만들다’로, ‘고도화하다’는 ‘정교하게 만들다’로, ‘고령화하다’는 ‘늙어가다’로, ‘고립화되다’는 ‘외톨이가 되다’로, ‘고착화되다, 영구화되다’는 ‘굳어지다’로, ‘구체화하다’는 ‘모습을 갖추다’로 바꿉니다.

또 ‘노골화되다’는 ‘대놓고 하다’로, ‘노후화되다’는 ‘늙아 빠지다’로, ‘대중화되다, 보편화되다’는 ‘널리 퍼지다, 널리 알려지다’로, ‘명문화하다’는 ‘문서로 밝히다’로, ‘사문화되다’는 ‘효력을 잃다’로, ‘양성화하다’는 ‘키우다’로 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되다’는 ‘길어지다’로, ‘쟁점화하다’는 ‘논란거리를 만들다’로, ‘토착화하다’는 ‘뿌리내리다’로, ‘폐허화되다, 피폐화되다, 황폐화되다’는 ‘망가지다’로, ‘형상화하다’는 ‘본을 뜨다’로, ‘형해화하다’는 ‘뼈대만 남다’로 변경합니다.

셋째 ‘화’는 ‘기, ㅁ(미음), 음’을 활용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고립화’는 ‘따돌림’으로, ‘고령화’는 ‘늙어가기’로, ‘조직화’는 ‘조직 만들기’나 ‘조직 만듦’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말에서 다양한 단어를 만드는 ‘화, 적, 성’은 추상성이 높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나름대로 고치기를 많이 하였으나, ‘화, 성’은 고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화, 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 6 접두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고치기 사례
가(假)	먼저, 미리, 앞서, 임시	가건물 (→임시 건물), 가납부 (→임시 납부)
강(強) ^①	강한, 무리한, 심한	강타자 (→강한 타자), 강행군 (→무리한 행군)
경(輕)	가벼운, 간단한	경비행기 (→간단한 비행기), 경금속 (→가벼운 금속), 경범죄 (→가벼운 범죄)
고(古)	낡은, 오래된, 옛, 옛날, 현	고가구(→오래된 가구), 고문헌 (→옛날 문헌), 고분(古墳) (→옛 무덤), 고색 (→낡은 빛깔, 옛 풍취)
고(高) ^①	높은	고물가 (→높은 물가), 고지대 (→높은 지대)
고(高) ^②	뛰어난, 좋은, 훌륭한	고견 (→좋은 생각), 고품질 (→뛰어난 품질)
공(空) ^①	빈, 헛된	공가 (→빈집), 공석 (→빈자리), 공언 (→빈말, 헛말)
공(空) ^②	공짜	공동 (→공짜 돈), 공술(→공짜 술)
공(空) ^③	쓸모없는	공수표 (→부도수표), 공언(헛말, 빈말)
공(空) ^④	거짓	공거래 (→거짓 거래), 공매도 (→거짓 매도)
과(過) ^①	과도한, 지나친	과보호 (→과도한 보호), 과소비 (→과도한 소비)
과(過) ^②	지나간	과거 (→지난날), 과년도 (→지난해)
구(舊)	낡은, 묵은, 옛, 옛날, 지난	구랍 (→지난해 선달), 구세대 (→옛 세대)
귀(貴)	값비싼, 귀(중)한, 소중한, 희귀한	귀하 (→소중한 당신), 귀금속 (→값비싼 금속)
극(極)	가장, 매우, 몹시, 무척, 최고	극상품 (→제일 좋은 상품·최상품), 극빈자 (→몹시 가난한 사람), 극소수 (→매우 적은 수)
급(急) ^①	가파른, 갑작스러운	급경사 (→가파른 경사), 급등 (→갑자기 오름), 급상승 (→가파른 상승)
급(急) ^②	급박한, 매우 급한	급선무 (→매우 급한 일), 급구 (→급히 구함)
난(難)	곤란한, 어려운, 힘든	난관 (→어려운 고비), 난제 (→어려운 문제)
농(濃) ^①	진한, 짙은	농무 (→짙은 안개), 농질산 (→진한 질산)

순화 대상	고치기	고치기 사례
농(濃) ^②	잘, 푹	농숙 (→푹 익음), 농익은 과일 (→잘 익은 과일)
다(多)	많은, 여러	다목적 (→여러 목적), 다발 (→짙은), 다수인 (→많은 사람·여러 사람)
대(大) ^①	넓은, 위대한, 큰	대식가 (→많이 먹는 사람), 대서특필 (→크게 알림), 대인물 (→위대한 인물)
대(大) ^②	널리, 대단히, 매우, 몹시	대만족 (→매우 만족), 대성황 (→매우 붐빔), 대유행 (→널리 유행)
대(大) ^③	중요한	대결전 (→중요한 결전), 대접전 (→중요한 싸움)
대(大) ^④	마지막, 최종, 최후	대단원 (→마지막, 마지막 장면), 대미 (→결말)
담(淡)	옅은	담녹색 (→옅은 녹색), 담황색 (→옅은 노란색)
독(獨) ^①	외, 혼자, 홀로	독신 (→홀몸), 독안 (→외눈), 독자 (→외아들)
독(獨) ^②	자기만, 제멋대로	독단 (→멋대로 판단, 혼자 판단), 독주 (→제멋대로 활동)
등(等) ^①	같은, 동일한	등거리 (→동일한 거리), 등면적 (→같은 면적)
등(等) ^②	급수, 등급	등외 (→등급 밖), 등외 판정 (→등급 밖 판정)
맹(猛)	맹렬한, 사나운, 심한, 혹독한	맹공격 (→맹렬한 공격), 맹연습 (→혹독한 연습)
명(名)	유명한, 이름난	명가수 (→이름난 가수), 명투수 (→이름난 투수)
범(凡)	온	범국민대회 (→온 국민대회), 범시민대회 (→온 시민대회)
몰(沒)	배제한, 전혀 없는	몰가치 (→가치를 배제함), 몰인정 (→인정머리 없음)
반(反) ^①	반대되는, 배반하는	반독점 (→독점에 반대함), 반사회적 (→사회를 배반함)
반(反) ^②	맞먹는	반소 (→맞소송), 반추 (→되새김질)
백(白)	하얀, 흰	백미 (→흰 쌀), 백사 (→흰 모래)
복(複)	겹친	복자음 (→겹치는 자음)
선(先) ^①	먼저, 미리, 앞서	선납 (→미리 냄), 선수금 (→미리 받는 돈)

순화 대상	고치기	고치기 사례
선(先) ^②	죽은, 돌아가신	선대왕 (→죽은 대왕), 선왕 (→돌아가신 왕)
성(聖)	거룩한, 성스러운	성목요일(→성스러운 목요일), 성주간 (→성스러운 주간)
수(數)	몇, 약간, 여러	수 개의 부동산 (→부동산 여러 개), 수인 (→여러 사람)
신(新)	새, 새로운	신기원 (→새 역사), 신년 (→새해), 신임지 (→새 근무지)
역(逆)	거꾸로, 뒤바뀐, 반대로	역선택 (→반대 선택), 역수출 (→거꾸로 수출)
연(連)	이어진	연접 (→서로 이어짐), 연작 (→이어짓기)
연(延)	전체, 합계	연건평 (→전체 건평), 연면적 (→전체 면적)
요(要)	바람, 필요	요대체 (→대체 바람, 바꿀 필요), 요식행위 (→절차가 필요한 행위), 요주의 인물 (→주의가 필요한 인물)
유(有)	있는	유기한문서 (→기한 있는 문서), 유의미 (→의미가 있음)
장(長)	긴, 먼, 오랜	장거리 (→먼 거리), 장모음 (→긴 모음), 장시간 (→오랜 시간)
재(在)	사는	재미교포 (→미국에 사는 교포, 미국교포)
주(駐)	머무는, 주둔하는	주한미군 (→한국에 머무는 미군)
준(準)	버금, 버금가는	준전시 (→전시와 버금가는), 준회원 (→버금 회원)
중(重) ^①	무겁다, 심하다	중금속 (→무거운 금속), 중노동 (→심한 노동), 중환자 (→병이 깊은 환자, 병이 심한 환자)
중(重) ^②	겹친	중모음 (→겹친 모음), 중첩 (→거듭 겹침)
진(眞)	참, 진짜	진면목·진면모 (→진짜 모습, 참모습), 진범 (→진짜 범인)
초(初)	처음, 첫	초도순시 (→처음 방문, 첫 방문), 초두 (→첫머리)
초(超)	가장, 최고, 최상	초강력 (→가장 강력), 초일류 (→가장 으뜸)
총(總)	전체	총감독 (→전체 감독), 총계 (→합계)
최(最) ^①	가장, 제일	최단 (→가장 짧음), 최적 (→가장 알맞음)
최(最) ^②	마지막, 맨	최일선 (→맨 앞), 최종일 (→마지막 날)
탈(脫)	벗어남, 자유로움	탈공해 (→공해에서 벗어남)
피(被)	당한, 받은, 입은	피견인차 (→끌려가는 차), 피보험인 (→보험 받는 사람), 피선거권 (→뽑히는 권리)

표 7 접미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고치기 사례
구(口) ^①	구멍	분화구 (→분화 구멍), 통풍구 (→통풍 구멍)
구(口) ^②	문	비상구 (→비상문, 비상 출입문), 출입구 (→출입문)
구(口) ^③	곳, 장소	개찰구 (→개표소), 매표구 (→표 사는 곳)
권(券) ^①	증서, 표	교환권 (→교환 증서), 승차권 (→승차표)
권(券) ^②	(짜리) 지폐	만원권 (→만 원 지폐), 오천원권 (→오천 원짜리 지폐)
권(圈)	범위, 안	대기권 (→대기 안), 당선권 (→당선 범위)
급(級) ^①	맛먹는, 수준, 정도	장관급 (→장관 정도), 프로급 (→프로와 맛먹는)
급(級) ^②	계급, 단계, 등급	경량급 (→가벼운 등급), 중량급 (→무거운 등급)
계(界)	모임, 분야, 사회, 영역	사교계 (→사교 모임), 정치계 (→정치 분야)
기(器) ^①	기계, 기구, 도구	녹음기 (→녹음기구), 분무기 (→물 뿌는 기계)
기(器) ^②	기관	생식기 (→생식 기관), 소화기 (→소화 기관)
기(氣) ^①	기운, 느낌	시장기 (→배고픔), 한기 (→찬 기운)
기(氣) ^②	성분	물기 (→물 성분), 기름기 (→기름 성분)
대(代)	값, 대금	도서대 (→도서 대금, 책값), 화대 (→꽃값)
료(料) ^①	요금	수업료 (→공부 값), 입장료 (→입장 요금)
료(料) ^②	재료	조미료 (→맛내는 재료), 향신료 (→향기 내는 재료)
란(欄)	단신, 부분, 소식, 토막	광고란 (→광고 토막), 독자란 (→독자 소식)
령(領)	땅, 영토	미국령 사모아 (→미국 영토 사모아)
문(文)	글	공고문 (→알림 글), 광고문 (→광고 글)
배(輩)	떼, 무리	간신배 (→간신 무리), 소인배 (→소인 무리)
백(白)	아름, 알림	관리소장백 (→관리소장 아킴), 주인백 (→주인 알림)
사(事)	거리, 사건, 사안, 일	경조사 (→기쁘고 슬픈 일), 관심사 (→관심거리)
사(辭)	글, 말, 문	개회사 (→시작 말, 시작 글), 격려사 (→격려 글)
선(選) ^①	모음	단편선 (→단편 모음), 명작선 (→명작 모음)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정석

순화 대상	고치기	고치기 사례
선(選) ^②	뽑힌	3선 의원 (→3번 뽑힌 의원)
산(産)	나는, 만든, 생산된	국내산 (→국내 생산), 제주산 (→제주에서 생산)
순(順)	대로, 차례	성명순 (→성명대로), 선착순 (→먼저 온 대로)
원(願)	바람, 소원, 요청, 원함	사직원 (→사직 요청), 휴직원 (→휴직 바람)
인(人)	사람, 이	발송인 (→보내는 이), 중국인 (→중국사람)
통(通) ^①	거리	광화문통 (→광화문 거리), 종로통 (→종로 거리)
통(通) ^②	전문가	소식통 (→소식 전문가), 정보통 (→정보 전문가)
전(戰)	경쟁, 싸움, 시합, 전투	단기전 (→단기 경쟁), 심리전 (→심리 싸움)
제(制)	제도, 방법	가부장제 (→가부장제도), 등급제 (→등급제도)
제(製) ^①	물건, 물품, 원료, 제품	금속제 (→금속 물품), 플라스틱제 (→플라스틱 재료)
제(製) ^②	그 나라에서 만드는	미국제 라디오 (→미국에서 만든 라디오)
제(祭) ^①	제사	기우제 (→기우 제사), 위령제 (→위령 제사)
제(祭) ^②	잔치	기념제 (→기념 잔치), 예술제 (→예술 잔치)
지(地) ^①	곳, 땅, 장소	개척지 (→개척한 땅), 목적지 (→갈 곳)
지(地) ^②	옷감, 천	양복지 (→양복감), 외투지 (→외투 옷감)
지(紙) ^①	용지, 종이	기안지 (→기안 용지), 포장지 (→포장 종이)
지(紙) ^②	신문	기관지 (→기관 신문), 일간지 (→일간 신문)
책(策)	방도, 방법, 방안, 방책	수습책 (→수습 방법), 해결책 (→해결 방안)
책(責)	책임자	선전책 (→선전 책임자), 모집책 (→모집 책임자)
처(處)	곳, 장소	수신처 (→받는 곳), 접수처 (→받는 곳)
치(值)	값	근사치 (→근삿값), 최대치 (→최댓값), 평균치 (→평균값)
한(漢)	녀석, 놈, 사람, 이	무뢰한 (→양아치), 무지한 (→무식한 사람), 호색한 (→여자 밝히는 이)
행(行)	가는, 향하는	부산행 기차 (부산 가는 기차), 도쿄행 비행기 (→도쿄로 가는 비행기)

4부

조사 '의'

4부. 조사 ‘의’

1. 다이어트가 필요한 조사 ‘의’

3끼 잘 드시는지요?, 바쁜 직장인은 세끼 챙겨 먹기가 힘듭니다. 때론 직장인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처럼 글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는 조사 ‘노(の)’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조사 ‘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²²⁾

왜 ‘의’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첫째 ‘의’는 ‘노(の)’를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는 밥 먹듯이 단어를 연결할 때마다 ‘노(の)’를 꼬박꼬박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복합명사가 발달했기에 다이어트를 하듯 ‘의’를 생략할수록 좋습니다.

둘째 ‘의’는 수동, 부분, 간접을 표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 ‘의’와 ‘에 의하다’가 짝을 지어 수동을 만듭니다. 형사소송법 81조 1항의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지휘하고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로 변경합니다.

셋째 ‘의’는 의미를 압축할 수 있어서 글자 수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일본어 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후치사 상당구나 ‘적’이나 ‘상’을 ‘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모리 미호(森美穂)²³⁾ 씨가 나눈 40가지 ‘노(の)’의 분류법을 기초로 삼겠습니다. 즉 일본어 ‘노(の)’와 우리말 ‘의’는 ‘재료, 종류, 형식명사에 접속’을 제외한 37가지는 모두 대응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주체, 수식, 공간, 수, 다른 조사로 고치기, 용언으로 고치기, 부사와 결합하는 ‘의’와 같은 7가지 대분류를 기준으로 16가지를 설명합니다.

22) 국립국어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서울: 국립국어원, 2005), 695-696쪽, 2005-1-33, https://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45&report_seq=1, (2021. 12. 19. 확인).

23) 모리 미호(森美穂),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의’의 교수 방안 연구: 준 구어 자료에 나타난 ‘의’와 ‘의’의 용법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서울, 2015), 14-18쪽, <http://www.riss.kr/link?id=T13955323>, (2021. 4. 13. 확인).

다시 말하면 ① 소유·인간관계 ② 동작주·작성자 ③ 단체·소속은 ‘주체’로 분류합니다. ④ 수식 관계 ⑤ 비율·한도는 ‘수식’에 포함합니다. ⑥ 장소 ⑦ 추상적인 장소 ⑧ 지시어에 접속은 ‘공간’으로 포함합니다.

또 ⑨ 시간·시기 ⑩ 수량·순서는 ‘수’에 포함합니다. ⑪ 다른 조사로 고치기 ⑫ 중첩하는 ‘의’를 고치기는 ‘다양한 조사로 고치기’에 포함합니다. ⑬ 동사로 고치기 ⑭ 형용사로 고치기 ⑮ 다른 조사와 용언으로 고치기는 ‘용언으로 고치기’에 포함합니다. ⑯ 마지막으로 부사와 결합하는 ‘의’가 있습니다.

‘의’는 여섯 가지로 고칩니다. 첫째 고유어로 다듬습니다. 둘째 다양한 조사로 교체합니다. 곧 ‘의’는 우리말에서 선택 사항이므로 ‘의’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조사로 변경합니다. 셋째 문장에서 순서를 바꿉니다. 더 설명하면 순서 바꾸기는 수량 명사와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넷째 생략합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은 탄력성이 뛰어나서 생략해서 명사를 연결해도 됩니다. 다섯째 아닌 다른 말을 넣습니다. 여섯째 ‘의’를 용언으로 고칩니다. 일본어는 ‘노(の)’가 다음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우리말은 ‘용언의 관형사형’ 형태로 다음 명사를 수식합니다.

용언으로 고치기를 더 살펴보면 김동완²⁴⁾ 씨는 “조사 ‘노(の)’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관형어 역할뿐만 아니라 전후 명사끼리 인과관계나 의미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것이 서술적인 용법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の)’와 대응하는 ‘의’는 용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문장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문장이 길어져서 걱정 된다면 다른 말 넣기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뒤에서 배울 다른 말 넣기를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소유·인간관계나 동작주·작성자: ‘공, 군, 님, 선생, 씨, 양, 여사, 부인, 옹, 자매, 형, 네, 사람, 이’ 따위 ② 단체·소속: ‘계, 단, 도, 떼, 류, 무리, 부류, 분야, 사, 소속, 족, 종, 층, 파’ 따위 ③ 수식 관계나 비율·한도: ‘분지, 가운데(에), 중(에)’ 따위 ④ 장소: ‘밭, 산, 제, 상/위, 하/아래, 중/간/가운데, 내/속/안, 외/밖, 옆/측/쪽’ 따위가 있습니다.

또 ⑤ 추상적인 장소: ‘가운데(에), 중에, 속(에)서, 속으로, 안(에)서, 안으로’ ⑥ 지시어에 접속: ‘네, 쪽’ ⑦ 시간·시기: ‘께, 날, 녘, 동안, 무렵, 중, 쯤, 철’ 따위 ⑧ 수량·순서: ‘대, 어치, 짜리, 만, 뿐, 째’ 따위가 있습니다.

24) 김동완, **일본어 번역사전**(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967쪽.

2. 소유·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까워질수록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칭이나 경칭입니다. 처음에는 '○○ 씨'나 '○○ 님'으로 부르다가 친해지면 형이나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소유·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의'는 '호칭, 경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와 결합하는 '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민, 사람, 시민, 우리나라, 전국, 친족, 너희, 저희, 우리'와 같이 친숙한 말은 '의'를 생략합니다. 즉 '우리의 능력을 개발했다'는 '우리 능력을 개발했다'로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사람 마음은 갈대와 같다'로 고칩니다.

또 '나, 너, 닥' 따위와 결합하는 '의'도 축약하거나 다른 말로 교정합니다.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너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네 모습'으로 교정합니다. '닥의 따님이 일등을 했다'는 '당신 따님이 일등을 했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사람과 결합하면 '호칭, 경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호칭, 경칭'에는 '공, 군, 님, 선생, 씨, 양, 여사, 부인, 옹, 자매, 형' 따위가 있습니다. '최인호의 소설'은 '최인호 씨 소설'로, '이미자의 노래'는 '이미자 여사 노래'로 수정합니다. 또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친구'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 친구'로, '설영의 장난감'은 '설영 양 장난감'으로 교정합니다.

셋째 '가지다, 간직하다, 부여하다, 소유하다, 지니다' 따위로 고칩니다. '그는 부안의 경치에 매혹되었다'는 '그는 부안이 간직한 경치에 매혹되었다'로 변경합니다. 헌법 105조 1항의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로 바꿉니다.

다음은 소유·인간관계에서 대표적인 것은 '자신, 서로'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스스로의, 자기의, 자신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고칩니다.

첫째 '자기, 자신'으로 고칩니다. '선생님 모두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선생님 모두 자기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당신, 저'로 수정합니다. '자신의 사재를 보태 장학 재단을 만들었다'는 '당신 사재를 보태 장학 재단을 만들었다'로 바꿉니다.

셋째 '몸소, 스스로, 친히'로 변경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것이다'는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할 것이다'로 수정합니다.

여담으로 ‘스스로[自ら]’라는 단어의 품사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와 ‘그는 스스로 입대를 하였다’에서 앞 문장은 ‘자기, 자신’을 뜻하고, 뒤 문장은 ‘자기 힘으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뜻하는 명사와 ‘스스로’를 뜻하는 부사의 의미가 둘 다 있는 일본어를 따라 하였기에 품사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로를 나타내는 ‘상호의, 서로의, 쌍방의, 양방의, 양쪽의, 피차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둘끼리, 둘 사이에’로 다듬습니다. ‘상호의 분쟁, 서로의 분쟁, 쌍방의 분쟁, 양방의 분쟁, 양쪽의 분쟁, 피차의 분쟁’은 ‘둘 사이에 분쟁’으로 순화합니다. ‘양쪽의 거래, 양방의 거래’는 ‘둘끼리 거래’로 수정합니다.

앞선 ‘스스로’의 품사 논쟁처럼 ‘서로[お互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였다’에서 우리말은 명사와 부사로 따로 구별하나, 그 속내는 일본어를 따라 합니다.

3. 동작주·작성자를 나타내는 조사 ‘의’

동작주·작성자는 소유·인간관계와 달리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므로 ‘의’를 쉽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생략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들면 ‘할아버지의 그림’이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할아버지를 인물로 그린 그림’인지, ‘할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호성에서 벗어나려면 알맞은 동사를 골라 써야 합니다. 보기를 들면 ‘개최하다, 결정하다, 그리다, 내리다, 되다, 만들다, 부르다, 쓰다, 연출하다, 열다, 이루다, 작곡하다, 저지르다, 정하다, 조성하다, 주재하다, 집필하다, 짓다, 찍다, 추진하다, 퍼내다’ 따위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다양한 동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를 생략하기가 곤란합니다.

고치는 방법을 살펴보면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으로 변경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정리’로 순화합니다. 민법 10조 1항의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피성년후견인이 결정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로 교정합니다.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였다’는 ‘선수는 심판이 내린 판정에 불복하였다’로 바꿉니다.

4. 단체·소속을 나타내는 조사 '의'

단체·소속을 나타내는 '의'는 네 가지로 다듬어 줍니다.

첫째 '의'를 생략합니다. '경안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는 '경안고등학교 학생들은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로 바꿉니다.

둘째 다른 말을 넣습니다. 즉 단체를 나타내는 '계, 단, 도, 떼, 류, 무리, 부류, 분야, 사, 소속, 족, 종, 층, 파' 따위를 넣습니다. '사교의 여왕'은 '사교계 여왕'으로, '바이킹의 후예'는 '바이킹족 후예'로, '청소년의 이상'은 '청소년층 이상'으로, '경찰서의 전투경찰'은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로 수정합니다.

셋째 단체·소속은 장소 개념이 있으므로 '으로, 에(서)'로 교정합니다. '그 사람은 영화산업의 대부로 많은 기부를 하였다'는 '그 사람은 영화산업에서 대부로 많은 기부를 하였다'로 순화합니다.

넷째 장소와 관련된 용언으로 변경합니다. 즉 '근무하다, 다니다, 팔리다, 속하다, 일하다, 종사하다' 따위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56조의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원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로 순화합니다.

5.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의'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의'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선택 범위'는 뒷말이 앞말을 수식하고, '후속 체언 범위'는 앞말이 뒷말을 수식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분류이므로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다섯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순서를 바꿉니다. '일부의 정치가는 부패했다'는 '정치가 일부는 부패했다'로 교정합니다. 또 '의' 다음에 다른 수식을 받으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은 '아름다운 시골 풍경'으로 위치를 바꿉니다.

둘째 '의'를 생략합니다. 민법 322조 1항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는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유치한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로 교정합니다.

셋째 다른 말을 넣으면 됩니다. 즉 ‘가운데(에), 중(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한 사람을 지목하여 범인으로 몰았다’는 ‘직원 중 한 사람을 지목하여 범인으로 몰았다’로 고칩니다.

넷째 다른 조사로 고칩니다. 즉, ‘으로, 에(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노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철수는 노동이 인생에서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로 변경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조사와 용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모종의, 일종의’는 비유·형용을 나타내는 ‘의’와 마찬가지로 ‘가깝다, 비슷하다, 흡사하다’ 따위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식 관계에서 대표가 되는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가 되는 말은 영어의 (전치)한정사와 잘 대응합니다.

① ‘각각의, 각자의’는 ‘각각, 서로, 저마다’로 변경합니다. ‘각각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서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로 변경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세상을 산다’는 ‘사람은 저마다 속도로 세상을 산다’로 바꿉니다.

② ‘거개의, 대다수의, 대부분의, 상당수의’는 ‘꽤 많은, 거의, 대다수, 대부분’으로 다듬습니다. 아니면 위치를 바꾸거나 ‘의’를 생략합니다. ‘거개의 저수지에 물이 말랐다’는 ‘대부분 저수지에 물이 말랐다’로 순화합니다. ‘상당수의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많은 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로 수정합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지출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로 변경합니다.

③ ‘극소수의’는 ‘매우 드문, 매우 한정된’으로 고치거나 ‘의’를 생략합니다. ‘극소수의 학생들만 해마다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는 ‘매우 한정된 학생들만 해마다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로 수정합니다.

④ ‘또 하나의’는 ‘또 다른’으로 다듬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은 ‘또 다른 가족’으로 수정합니다. ‘하나의’는 ‘같은, 단일, 한 가지’로 고치거나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의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다’는 ‘부지 하나에 여러 건물이 있다’로 순화합니다. ‘경찰청은 교통체계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였다’는 ‘경찰청은 교통체계를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하였다’로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의, 하나하나의'는 '의'를 생략합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구성원 하나하나 역할이 중요했다'로 변경합니다.

⑤ '몇몇의, 수 개의, 일부의'는 '몇몇, 여러 가지'로 고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의'를 생략합니다. '피의자는 수 개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피의자는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로 변경합니다. '오늘 모임은 일부의 인원만 참석하였다'는 '오늘 모임은 몇몇 인원만 참석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⑥ '만반의, 제반의, 전체의, 전부의, 전원의, 일체의'는 '모두, 모든, 온(갓)'으로 고치거나 '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를 제대로 개최하려고 만반의 대책을 준비했다'는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를 제대로 개최하려고 온갖 대책을 준비했다'로 수정합니다. '통일로 가는 제반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통일로 가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다'로 고칩니다.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했다'는 '모든 참석자 동의를 필요했다'로 교정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말에서 '일체'와 '일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일체'는 명사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부사로는 '전부, 완전히'를 뜻합니다. '일절'은 부정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이고, '아주, 전혀, 절대로'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²⁵⁾ 표준국어대사전대로라면 '일체의 책임'은 명사구인 '모든 것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 문장을 해석하면 '모든 책임, 온갖 책임'을 뜻하므로 관형사인 '모든, 온갖'이 올바른 풀이입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일체, 일절[いっさい/一切]'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명사로 사용되면 '일체, 전체, 전부'로 해석됩니다. 또 부사로 사용되면 '일절, 전혀, 전연'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말에서 '일체, 일절'을 구별하기 어렵다면 고유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주 일체'는 '온갖 안주'로, '외상 일절 사양'은 '외상이 전혀 안 됨'으로 변경합니다.

⑦ '유형의, 종류의, 형태의'는 '가지가지, 각가지, 온갖, 여러 가지, 이런저런'으로 고칩니다. 또 문장 안에서 수식하는 말이 앞에 오면 '유형의, 종류의, 형태의' 자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가게가 있다'는 '시장에는 온갖 가게가 시장에 있다'로 고칩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지구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로 수정합니다.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3월 9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일체, 일절."

⑧ ‘모종의, 일종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을 뜻합니다. 곧 ‘모종의 거래, 일종의 거래’는 ‘어떤 거래’를 의미합니다. 둘째 ‘답다, 슥다, ‘가깝다, 같다, 닮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흡사하다’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일종의 안내문입니다’는 ‘안내문과 비슷합니다’로 풀이합니다. 따라서 ‘일종의’와 ‘가깝다’ 따위를 함께 쓰면 중복 표현이 됩니다. 즉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는 ‘사기에 가깝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⑨ ‘일각의, 일방의, 일면의, 한쪽의’는 ‘일부, 일부분, 한쪽’으로 고치거나 ‘의’를 생략합니다. ‘일각의 주장과 달랐다’는 ‘한쪽 주장과 달랐다’로 순화합니다. ‘국민은 사회 지도층이 보여주는 일면의 모습에 실망하였다’는 ‘국민은 사회 지도층이 보여주는 일부 모습에 실망하였다’로 고칩니다. 민법 690조의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는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종료된다’로 변경합니다.

6. 비율·한도를 나타내는 조사 ‘의’

가수 투투가 부른 「일과 이분의 일」 가사 어디에도 ‘이분의 일’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는 우리말에서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발음하기도 쉽고, 구별하기도 쉬운 ‘이분지 일’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이처럼 비율·한도를 나타내는 ‘의’는 세 가지로 고치면 됩니다.

첫째 ‘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의 15%가 파산했다’는 ‘세계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 15%가 파산했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가운데, 분지, 중’을 넣거나 고유어로 바꿉니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은 ‘조합원 3분지 2가 찬성, 조합원 셋 가운데 둘이 찬성’으로 순화합니다.

셋째 다른 말로 변경합니다. 비율·한도에서 대표가 되는 말인 ‘내외의, 안팎의, 미만의, 이상의, 이하의’는 ‘가량, 남짓, 만치, 만큼, 쯤’으로 고치거나 용언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 내외의 보상, 50만 원 안팎의 보상’은 ‘50만 원 남짓한 보상’으로 교정합니다. ‘30일 미만의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수정합니다, 또 ‘1개월 이상의 기간’은 ‘1개월이 넘는 기간’으로 바꿉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00만 원이 안 되는 과태료’로 변경합니다.

7.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의’

『강아지 똥』을 지은 권정생 씨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바위 하나가 있고, 옆에는 도랑이 흐르고, 뒤에는 바위산이 있고, 오솔길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블록으로 만든 화장실과 단칸방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우리네는 소박하게 살았으므로 우리말은 영어 전치사와 대응하는 장소 개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의’는 네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를 생략합니다. 더 나아가 장소를 포함하는 ‘의’를 포함하는 단어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언덕 아래의 별장이 침수되었다’는 ‘언덕 아래 별장이 침수되었다’로 교정합니다. 또 ‘현관의 앞에 편지가 놓여 있다’에서 ‘앞’이라는 장소 개념을 생략하고, ‘현관에 편지가 놓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다른 말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밭, 산, 제’가 있습니다. 발생·출처는 ‘밭’로, 생산·제작은 ‘산, 제’로 고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다듬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공산품 수입을 제한했다’는 ‘중국은 일본산 공산품 수입을 제한했다, 중국은 일본제 공산품 수입을 제한했다’로 교정합니다.

또 소재·존재나 방향·위치는 ‘상/위, 하/아래, 중/간/가운데, 내/속/안, 외/밖, 옆/측/쪽’ 따위를 끼워 넣습니다. ‘공원의 의자’는 ‘공원 안 의자’로 바꿉니다. ‘창가의 초목’은 ‘창문 너머 초목, 창가 옆 초목, 창가 쪽 초목’으로 교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구역을 삽입합니다. ‘성주의 참외’는 ‘성주군 참외’로, ‘동래의 온천’은 ‘동래구 온천’으로, ‘충청의 자랑거리’는 ‘충청도 자랑거리’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으로, 에(서)’로 교정합니다. 일본국립국어연구소²⁶⁾는 ‘노(の)’가 ‘에 있어서(의)’와 같은 뜻이 있다고 해설합니다. 또 앞서 후치사 상당구 편에서 ‘에 있어서(의)’는 ‘으로, 에(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명물인 조랑말’은 ‘제주도에서 명물인 조랑말’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어서 명물인 조랑말’은 일본어 번역 투이므로 바른 고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조사와 용언으로 변경합니다. ① 소재·존재는 ‘살다, 소재하다, 있다, 존재하다’ 따위로 ② 발생·출처는 ‘발생하다, 보내다, 생기다, 일어나다’ 따위로

26) 일본국립국어연구소(日本国立国語研究所), 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法と実例 (東京: 秀英出版, 1951), 159쪽, doi:10.15084/00000991.

③ 생산·제작은 ‘만들다, 생산하다, 산출하다, 제작하다’ 따위로 ④ 방향·위치는 ‘떨리다, 매여 있다, 부속하다, 붙어 있다’ 따위로 교정합니다.

보기를 들면 ‘회사의 문제’는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통영의 굴’은 ‘통영에서 생산하는 굴’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휴게소에 딸린 화장실’로 고칩니다.

8.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의’

‘의’는 추상적인 장소와 결합합니다. 추상적인 장소란 ‘마음, 추상’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로 장소 개념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를 나타내는 ‘의’와는 다르게 추상성이 강해져서 ‘의’를 생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운데(에), 중에, 속(에서), 속(으로), 안(에서), 안(으로)’를 넣습니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였다’는 ‘그는 마음속 준비를 단단히 하였다’로 고칩니다.

둘째 ‘으로, 에(서)’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너는 친구를 괴롭히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니?’는 ‘너는 친구를 괴롭히고도 양심에 가책을 못 느꼈니?’로 순화합니다.

셋째 다양한 용언으로 받아줍니다. ‘우리는 아픔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우리는 아픔을 상기시키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로 다듬습니다.

9. 지시어와 접속하는 조사 ‘의’

일본어는 다양한 지시어와 ‘노(の)’가 결합하여 명사를 꾸밈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한 형태인 ‘다음의, 상기의/하기의, 위의/아래의, 전조의, 전향의, 그쪽의/이쪽의/어느 쪽의’ 따위가 있습니다.

그럼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을까요? 첫째 ‘의’를 생략합니다. ‘아래의 공지사항’은 ‘아래 공지사항’으로, ‘이들의 사연은’ ‘이들 사연’으로 고칩니다. 둘째 ‘네, 쪽’을 넣습니다. ‘위의 알림’은 ‘위쪽 알림’으로, ‘그들의 아픔’도 ‘그네들 아픔’으로 변경합니다. 셋째 ‘와/과 같은’으로 순화합니다. ‘다음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상기의 지시사항’은 ‘위와 같은 지시사항’으로 바꿉니다.

여담으로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민법 41조의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시간·시기를 나타내는 조사 ‘의’

시간·시기를 나타내는 ‘의’는 네 가지로 고칩니다.

첫째 고유어로 가다듬습니다. 즉 시간·시기는 주로 한자어로 만듭니다. 과거는 ‘거, 작, 전, 종’이 있고, 현재는 ‘금, 근, 현’이 있고, 미래는 ‘내, 명, 익, 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의’와 결합하면 고유어로 변경합니다. ‘거년의 홍수, 작년의 홍수, 전년의 홍수’는 ‘지난해 홍수’로, ‘종전의 방식’은 ‘지금까지 방식’으로, ‘작야의 소동’은 ‘어젯밤 소동’으로 변경합니다.

또 ‘금년도의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현금의 동향’은 ‘지금 동향’으로, ‘작금의 사정, 근간의 사정, 근래의 사정, 근일의 사정’은 ‘요즘 사정’으로 순화합니다. ‘내일의 모임, 명일의 모임, 익일의 모임’은 ‘내일 모임’으로 바꿔줍니다.

둘째 ‘의’를 생략합니다. ‘사춘기의 시절’은 ‘사춘기 시절’로, ‘오후의 뉴스’는 ‘오후 뉴스’로 짧게 만듭니다.

셋째 다른 말을 넣습니다. ‘계, 날, 녘, 동안, 무렵, 중, 즘, 철’ 따위를 추가합니다. ‘겨울의 강추위’는 ‘겨울철 강추위’로, ‘새벽의 여명’은 ‘새벽녘 여명’으로 ‘한밤의 소동’은 ‘한밤중 소동’으로, ‘오늘의 경제 여건’은 ‘오늘날 경제 여건’으로 수정합니다.

넷째 ‘내려오다, 발생하다, 생기다, 연결하다, 이어오다, 전해오다, 지속하다’ 따위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로, ‘백 년의 함성’은 ‘백 년을 이어온 함성’으로, ‘1894년의 동학혁명’은 ‘1894년에 발생한 동학혁명’으로 다양하게 고칩니다.

11. 수량·순서를 나타내는 조사 ‘의’

수량·순서를 나타내는 ‘의’는 네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착어로 받아줍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은 ‘처음 있는 사건’으로 변경합니다. ‘제2의 인생’은 ‘두 번째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교정합니다. ‘정부는 최종의 결과를 발표했다’는 ‘정부는 마지막 결과를 발표했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순서를 바꿉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두 잔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표현하지 “두 잔의 커피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표현하면 어색합니다. 이처럼 일본어 투는 수량 명사가 수식을 받는 말의 앞에 옵니다. 반대로 우리말은 수량 명사가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다른 말을 넣으면 됩니다. 금액과 관련이 있다면 대, 짜리, 어치'로 교정합니다. '만 원의 지폐'는 '만 원짜리 지폐'로, '수십억 원의 재산'은 '수십억 원대 재산'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만, 분, 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한 번뿐인 기회'로, '제2의 인생'은 '두 번째 인생'으로 순화합니다.

넷째 다양한 용언으로 순화합니다. '한 번의 상처가 그에게 아픔을 남겼다'는 '한 번 받은 상처는 그에게 아픔을 남겼다'로 변경합니다. 과거 MBC에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다 '만원이 가져다주는 행복'이라고 이름표를 달았으면 시청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겁니다.

12. 조사 '의'를 다른 조사로 고치기

초등학생이 소풍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조사 '의'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조사를 발굴해야 합니다. 법제처²⁷⁾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는 '의'를 '에게, 을/를, 이/가, 인, 로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조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어에서 '노(の)'는 생필품입니다. 즉 다른 조사와 겹치면 '노(の)'는 살아남고, 다른 조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우리말에서 '의'는 사치품입니다. 따라서 '의'가 다른 조사와 겹치면 '의'는 생략하고 숨어 있는 조사를 살려야 합니다.

먼저 주격 조사 고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격 조사 고치기는 '대상의 주체, 주술 관계, 복문'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모두 주격 조사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문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어는 복문에서 '이/가[が]'가 아닌 '의[の]'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일본어와 반대입니다. 복문에서 '의'가 아닌 '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향의 봄」이라는 노랫말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고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목적격 조사 고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객술 관계, 대상격, 목적의 사물, 관여물, 사실관계'로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목적격 조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국립국어연구소²⁸⁾는 '노(の)'가 '에 관하다, 에 대하다, 을/를 위하다'와 비슷한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7) 법제처, 앞의 책, 42-44쪽,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8030000&bid=0001&act=view&list_no=191536&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2021. 10. 31. 확인).

28) 일본국립국어연구소(日本国立国語研究所), 앞의 책, 155-170쪽, doi:10.15084/00000991.

즉 '에 관하다, 에 대하다, 을/를 위하다'가 '을/를'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는 항등식이 됩니다. 보기를 들면 '후보자의 교통정리'는 '후보자를 교통정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교통정리, 후보자를 위한 교통정리'는 일본어 번역 투이므로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또 '와/과, 을/를'과 함께 '관련하다, 다루다, 얽히다, 연관되다, 취급하다' 따위로 바꾸거나 문장과 맞게 알맞은 용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문제'는 '통일 독일을 처리하는 문제'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전쟁포로는 사상의 전환을 강요받았다'는 '전쟁포로는 사상을 전환하도록 강요받았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조사로 고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사 '의'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조사를 살립니다. 민법 5조 1항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교정합니다. 헌법 86조 1항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고칩니다. 이 두 문장에서 '에게, 에(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 265조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 지분만큼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 지분대로 과반수로 결정한다'로 변경합니다. '이 교육 방법은 학생의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 교육 방법은 학생마다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로 교정합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절반만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로 순화합니다. 위 세 문장에서 '대로, 만큼, 마다, 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방면의 도전을 추구했다'는 '그는 여러 방면으로 도전을 추구했다'로 변경합니다. '비만 학생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는 '비만 학생은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로 바꿉니다. '그녀는 국민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그녀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로 수정합니다. '비대면 방식의 공연'은 '비대면 방식으로 공연'으로 교정합니다. 위 네 문장에서 '으로, 은/는, 으로서, 으로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격의 나타내는 '의'는 '인, 하는, (이)라는'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는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로 교정합니다. '50kg의 몸무게'는 '50kg인 몸무게'로 순화합니다.

13. 중첩하는 조사 ‘의’를 고치기

중첩하는 ‘의’는 ‘다른 조사와 중첩하기’와 ‘일본어 투 형식명사와 중첩하기’로 분류합니다. 먼저 다른 조사와 중첩하기란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는 형태입니다. 이 책에서는 다른 조사와 중첩하기를 줄여서 ‘중첩조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중첩조사와 관련하여 우리말과 일본어는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쿠마 가나에(佐久間鼎)²⁹⁾ 씨는 우리말에서 조사로 분류하는 ‘까지, 대로, 만(큼), 부터’ 따위를 형식명사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의’가 결합하면 일본어는 중첩 조사가 아니지만, 우리말은 중첩조사가 됩니다. 더불어 일본어는 우리말에서 조사로 분류하는 ‘(으)로서, (으)로써’를 ‘구’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이것과 ‘의’가 결합하면 중첩조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대부분 ‘의’를 생략합니다. 다만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① ‘과의/와의, 하과의’는 ‘에다, 이랑, 와/과, 하고’로 교정합니다. 또 다른 조사와 용언으로 수정합니다. ‘친구와의 싸움으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친구와 싸워서 사이가 멀어졌다’로 변경합니다. ‘강관은 외국 제품하과의 가격 싸움입니다’는 ‘강관은 외국 제품이랑 가격 싸움입니다’로 고칩니다.

② ‘에의, 으로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고칩니다.

첫째 장소·방향을 나타내면 ‘의’를 생략하거나 ‘가다, 오다, 하다’ 따위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으로의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했다’는 ‘중국은 한국으로 가는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했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대상·목적을 나타내면 ‘의’를 제거하거나 다른 조사로 변경합니다. 즉 사물은 ‘으로, 에(서)’로, 사람은 ‘에게, 한테’로 변경합니다. 다만 ‘에 관하다, 에 대하다’는 일본어 번역 투이므로 바른 고치기가 아닙니다. ‘신기록에의 집착’은 ‘신기록에 대한 집착’이 아닌 ‘신기록에 집착’으로 순화합니다.

③ 신분이나 지위나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의’는 ‘으로서, 다운’으로 변경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다’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가 있다’로 고칩니다.

29) 이은정, “형식명사「こと,もの,の」 고찰: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008), 12-13쪽, <http://www.riss.kr/link?id=T14942094>, (2021. 12. 19. 확인).

④ ‘도구, 방법, 수단, 재료’를 뜻하는 ‘(으)로써의’는 ‘의’를 빼거나, ‘가지다, 사용하다, 쓰다’ 따위로 수정합니다. ‘기호로써의 언어’는 ‘기호로써 언어, 기호로 사용되는 언어’로 다듬습니다.

다음은 ‘형식명사’와 중첩하는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식명사’는 원래 뜻과는 떨어진 새로운 명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과 ‘의’가 결합하면 대부분 ‘의’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형식명사도 고쳐야 하는 말이므로, 사전 답사 차원에서 ‘상, 중, 하, 간’과 결합하는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상의’는 세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조건을 나타내면 ‘에(서), 으로’나 상황·조건을 연결어미로 교정합니다. ‘이 건물은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아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이 건물은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아 안전에서 위험이 있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원인·이유를 나타내면 ‘때문에, 탓에, 덕분에’ 따위로 바꿉니다. ‘그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는 ‘그 사람은 건강 때문에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로 바꿉니다.

셋째 대상·목적을 나타내면 ‘와/과, 을/를’과 더불어 ‘관련하다, 다루다, 얽히다, 연관되다, 취급하다’ 따위로 고칠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상의 점검’은 ‘건물 외관과 관련한 점검’으로 바꿉니다.

② ‘중의’는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가운데, 안에, 중에’로 변경하고,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진행의 연결어미로 바꿉니다. ‘적폐 중의 적폐’는 ‘적폐 가운데 적폐’로, ‘청산 중의 법인’은 ‘청산하고 있는 법인’으로 순화합니다.

③ ‘하의’는 ‘받다, 미치다, 달다, 두다, 부여하다’ 따위로 수정합니다. ‘시청은 일정한 조건하의 허가를 승인하였다’는 ‘시청은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를 승인하였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간의, 끼리의, 사이의’는 두 가지로 고칩니다. 인간관계를 나타내면 ‘끼리’로, 시간·기간은 ‘동안, 사이’로 수정합니다. ‘그간의 학업 과정’은 ‘그동안 학습 과정’으로 순화합니다. ‘친척 사이의 문제’는 ‘친척끼리 문제’로 변경합니다.

또 ‘between A and B’를 따라 한 ‘A와 B 간의, A와 B끼리의, A와 B 사이의’는 ‘A와 B끼리, A와 B 사이’로 변경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계약 분쟁이 발생하였다’로 수정합니다.

14. 조사 ‘의’를 동사로 고치기

‘의’는 동사로 고칠 수 있습니다. 동사 고치기에는 ‘사변 동사의 어간에 접속’과 ‘동사성 명사에 접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변 동사의 어간’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하다’와 대응하는 일본어 ‘스루(する)’는 ‘사행’에 포함되고, 불규칙하게 활용됩니다. 이것을 ‘사변 동사’라고 부릅니다. 곧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사변 동사의 어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약속하다’에서 ‘약속’은 사변 동사의 어간이 되고, ‘하다[する]’가 붙습니다.

신현수³⁰⁾ 씨는 사변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는 ‘의’는 ‘하다, 되다’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날이 다가왔다’는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로, ‘피의자는 구속의 이유를 몰랐다’는 ‘피의자는 구속된 이유를 몰랐다’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동사를 명사로 만든 ‘동사성 명사에 접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관형사형으로 교정합니다. 보기를 들면 ‘새로운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새로운 제도는 취약계층에게 배울 기회를 부여하였다’로 수정합니다.

15. 조사 ‘의’를 형용사로 고치기

헌법 46조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청렴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하면 더 부드러운 말이 됩니다. 이처럼 ‘의’는 형용사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의’를 형용사로 고치기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형용동사의 연체형 어미’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두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어와 잘 어울리는 ‘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자어를 좋아하는 ‘형용동사[단 이름: 나(な) 형용사]’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형용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의 관형사형인 ‘나(な)’가 아닌 ‘노(の)’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반대입니다. ‘의’가 아닌 형용사의 관형사형으로 고쳐야 합니다. 보기를 들면 ‘공정의 가치[公正の價値]’는 일본어 투이고, ‘공정한 가치[公正な價値]’는 우리말입니다.

30) 신현수, “일본어 연체격조사「の」에 대한 한국어 대응 표현 분석: 번역작품의 번역 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007), 49-54쪽, <http://www.riss.kr/link?id=T11484086>, (2021. 4. 8. 확인).

둘째 명사화된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용사를 명사로 만든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형용사인 '가깝다'를 명사인 '근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처의 가게'는 '가까운 가게'가 됩니다. 이런 형태는 '극, 고, 다, 대, 소, 저, 최'와 같은 형용사 성질이 있는 한자가 잘 결합합니다. 이때는 쉬운 말로 고쳐줍니다.

보기를 들면 '극도의 긴장'은 '극심한 긴장'으로, '고가의 선물'은 '값비싼 선물'로, '다각도의 노력'은 '다양한 노력'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대량의 하자'는 '수많은 하자'로, '소량의 오차'는 '사소한 오차'로, '저가의 물건'은 '질이 좋지 않은 물건'으로, '최적의 동반자'는 '가장 좋은 동반자'로 교정합니다.

셋째 비유·형용을 나타내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형용사류 적'과 비슷합니다. 둘 다 '가깝다, 같다, 답다, 스럽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흡사하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즉 '신사의 품격, 신사적 품격, 신사와 같은 품격'은 비슷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가 아닌 '정부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질, 상태, 모양, 색상을 나타내는 '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질과 상태는 주체를 나타내는 '의'와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모양과 색상을 나타내는 '의'만 풀이하겠습니다. 모양, 색상을 나타내면 대부분 '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영향으로 점점 '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고유어로 고치거나 '형, 빛' 따위를 넣어서 손질합니다. '원형의 상자'는 '둥근 상자'로, '삼각의 피라미드'는 '삼각형 피라미드'로, '초록의 향연'은 '초록빛 잔치'로 수정합니다.

16. 조사 '의'를 다른 조사와 용언으로 고치기

'의'는 다른 조사와 용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본디 이것은 세 가지로 분류하나, '필요성'은 '용언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과 같으므로 용언의 의미를 포함할 때와 관용적 표현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언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를 살펴볼까요? '스승의 날'은 '스승을 기리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스승에 감사하는 날, 스승을 생각하는 날'로 얼마든지 좋은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력에서 기념일을 나타내는 '○○의 날'은 다양한 용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를 받을 수 있는 용언은 많으므로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대상·관계를 나타내면 ‘와/과’와 더불어 ‘관련하다, 다루다, 얽히다, 연관되다, 취급하다’ 따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4.19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밝혔다’는 ‘그들은 4.19 민주화 운동과 얽힌 진상을 밝혔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영향·원인을 나타내면 ‘이/가’와 더불어 ‘겪다, 미치다, 주다’ 따위로 교정합니다. ‘엄마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였다’는 ‘엄마는 이웃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였다’로 변경합니다.

셋째 옷이나 장신구는 ‘을/를’과 함께 ‘매다, 쓰다, 입다, 착용하다’ 따위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상복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는 ‘장례식장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로 바꿉니다.

다음으로 관용적 표현을 나타내는 ‘의’는 쉬운 말로 바꿉니다. ‘절세의 미인’은 ‘세상에 다시없는 미인’으로, ‘주지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변경합니다.

또 이것은 비유·형용을 나타내는 ‘의’와 같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강철의 의지’는 ‘강철과 같은 의지’로, ‘하루살이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비슷한 인생’으로 교정합니다.

17. 부사와 결합하는 조사 ‘의’

일본어는 조사 ‘노(の)’를 너무 사랑하여 부사에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러므로 부사에 ‘의’를 붙이면 문법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우리말은 같은 단어를 명사, 부사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용언이 중심인 우리말은 부사나 쉬운 말로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장은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였다’도 ‘부장은 어림잡아 내용을 파악하였다’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하나는 용언의 관형사형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아는 ‘소량의, 다수의, 모처럼의, 오래간만의, 예전의, 왕년의, 모두의, 전부의, 전체의’는 일본어 부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소량의’는 ‘아주 적은’으로, ‘다수의’는 ‘수많은’으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를 들면 ‘겨울철에 물이 얼지 않도록 소량의 물을 흐르게 두어라’는 ‘겨울철에 물이 얼지 않도록 아주 적은 물을 흐르게 두어라’로 수정합니다. ‘다수의 산간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많은 산간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로 교정합니다.

‘예전의, 왕년에, 모처럼의, 오래간만의’는 용언을 보충해 줍니다. ‘예전의 격투 황제’는 ‘옛날에 잘 나간 격투 황제’로, ‘왕년의 인기 가수’는 ‘과거에 인기 있는 가수’로 변경합니다. ‘모처럼의 여행’은 ‘모처럼 간 여행’으로, ‘오래간만의 신곡’은 ‘오랜만에 나온 신곡’으로 교정합니다.

‘모두의, 전부의, 전체의’는 ‘모두, 모든, 전체, 온갖’으로 고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하시길 기원하였다’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하였다’로 수정합니다. ‘수학자는 전체의 오차를 수정하였다’는 ‘수학자는 전체 오차를 수정하였다’로 교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사로 고쳐줍니다.

첫째 주로 부정문에서 사용되는 ‘일말의, 추호의, 하등의, 한 점의, 한 치의’가 있습니다. ‘일말, 추호, 하등, 한 치’는 모두 명사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해석하면 ‘일말, 추호, 한 치, 하등’은 ‘조금도, 전혀’를 의미하는 부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다’는 ‘그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로 교정합니다. ‘시장은 생업에 추호의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시장은 생업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로 변경합니다. ‘너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너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로 순화합니다.

둘째 앞서 소유·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의’에서 배운 ‘자신, 서로’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본인의, 스스로의’는 ‘몹소, 스스로, 친히’로 변경합니다. 또 ‘상호의, 쌍방의, 서로의, 양방의, 양쪽의, 피차의’는 ‘서로’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무원은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로 교정합니다. ‘친구들은 상호의 오해를 풀었다’는 ‘친구들은 서로 오해를 풀었다’로 수정합니다. ‘쌍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서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로 순화합니다.

셋째 한자어 명사 형태인 부사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한자어 명사인 부사와 ‘노(の)’가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말이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단어라도 명사, 부사의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략, 대폭, 본래, 원래, 소폭, 실지’ 따위와 결합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는 부사로 고칩니다. ‘대략의 윤곽이 내일 드러날 것이다’는 ‘대체로 윤곽이 내일 드러날 것이다’로 순화합니다. ‘이번 추경에 대폭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이번 추경에 대규모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로 고칩니다. ‘도지사는 소폭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는 ‘도지사는 소규모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로 변경합니다.

또 ‘그는 실지의 사정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는 실제로 사정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로 변경합니다. ‘친구는 원래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친구는 원래대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갔다’로 수정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어 시험에서 ‘에’와 ‘의’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옥에 티[玉に傷]’와 ‘쇠귀에 경 읽기[馬の耳に念仏]’는 ‘에’를 씁니다. 그러나 ‘별의별[諸諸の]’과 ‘천만의 말씀[千萬の言葉]’은 ‘의’를 사용합니다.

왜 서로 다른 조사를 사용할까요? 그 원인은 일본어를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에서 명사는 ‘의[の]’를 붙이고, 동사는 ‘에[に]’를 사용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말이 답습합니다.

보기를 들면 ‘불시의 방문’은 명사가 결합하므로 ‘의’를 씁니다. 하지만 ‘불시에 방문하다’는 동사가 결합하므로 ‘에’를 사용합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명사 형태인 ‘옥의 티’와 ‘쇠귀의 경 읽기’가 옳은 말이 됩니다. 아니면 동사 형태인 ‘옥에 티가 있다’와 ‘쇠귀에 경을 읽다’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서 단순히 관용구이므로 무조건 외우라는 것은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의’ 아닌 ‘에’를 못 쓸 이유가 없으며 굳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의’를 고집하지 말고 실제 발음하기 좋은 ‘에’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글을 쓰는 사람은 한글 맞춤법과 학교문법을 준수하여 ‘에’와 ‘의’를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표 8 조사 '의'의 분류 체계

글쓴이		모리 미호			신현수	구라시마 레이코	고이즈미 시게요
대분류	소분류	분류	의(예문)	の(예문)	분류	분류	분류
주체	소유-인간관계	소유	나라의 재산	国の財産	소유관계	소유자	소유, 속성
		속성	꽃의 향기	花の香り	-	-	
		인간관계	친구의 동생	友達の弟	인간관계	관계	인간관계
	동작주-작성자	작성자	로댕의 작품	ロダンの作品	작성자	작성자	작성자
단체-소속	소속	병원의 원장	病院の院長	소속의 단체	소속	소속의 단체	
수식	수식 관계	전체-부분	어머니의 손	お母さんの手	-	전체와 부분	-
		선택의 범위	가족의 일원	家族の一員	선택의 범위	-	선택의 범위
	후속체언의 범위, 영역	하나의 방법	一つの方法	-	후행하는 체언의 범위	후속체언의 범위, 영역	
비율-한도(추가)	-	-	-	비율	-	-	
공간	장소	소재	동래의 온천	東萊の温泉	존재의 위치, 장소	장소	존재의 위치, 장소
		생산	고려의 자기	高麗の磁器	생산품	-	-
		발생	부산의 화재	釜山の火災	발신자	-	-
		방향, 위치	학교의 앞	学校の前	장소, 위치, 관계의 기점/방향	-	-
	추상적인 장소	추상적인 장소	표현의 차이	表現の違い	추상적인 장소	추상적인 장소	추상적인 장소
지시어에 접속	지시어에 접속	아래의 예문	下の例文	-	지시하는 말에 붙음	지시하는 단어에 접속	
수	시간-시기	시간, 시기	정오의 뉴스	正午のニュース	존재의 시각, 시기	시간	존재의 시각, 시기
	수량-순서 (금액 포함)	수량, 순서	제2의 청춘	第2の青春	수량의 한정 순서/단가	수량, 값의 지정	수량, 순서
다양한 조사로 고치기	조사로 고치기	주술관계	민족의 단결	民族の団結	주격	-	연문절의 주격
		주격	나의 좋아하는 음악	私の好きな音楽	-	주격	동작의 주어
		대상의 주체	신라의 통일	新羅の統一	내용의 한정	동작의 주어	-
		객술관계	자연의 관찰	自然の観察	목적격	동작의 목적어	동작의 목적어
		대상격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英語の話せる人	-	관계대명사	연문절의 대상격
		목적의 사물	여행의 준비	旅行の準備	-	목적	목적의 사물
		관여물	영어의 성적	英語の成績	관여물	관여물	-
	사실관계	공포의 기억	恐怖の記憶	단정의 의미	-	-	
다른 조사 고치기 (동격 포함, 추가)	법률가의 아버지	法律家の父	동격관계, 인용	동격	동격		
중첩하는 '의'를 고치기	조사+의+체언	친구와의 약속	友達との約束	-	조사에 접속	보조사와 결합	
용언으로 고치기	동사로 고치기	사변동사의 어간에 접속	공통의 문제	共通の問題	사변동사 어간	사변동사 어간	사변동사의 어간에 접속
		동사성 명사에 접속	잔여의 콜라	残りのコーラ	-	-	동사의 명사형과 결합
	형용사로 고치기	명사화된 형용사에 접속	근처의 가게	近くの店	-	형용사의 연체형에 붙음	-
		형용동사의 연체형 어미	특수의 렌즈	特別のレンズ	형동(形動)의 어간+의+명사	형용동사의 연체형	형용동사의 연체형 어미
		비유	꿈의 세상	夢の世の中	비유	-	비유
		형용	철의 여인	鉄の女人	-	형용	-
	성질, 상태 색상, 모양	녹색의 눈	緑色の目	성질, 상태	성질, 상태	성격, 성질, 상태	
	조사+용언으로 고치기	용언의 의미를 포함	인기의 가게	人気の店	-	원인	-
		필요성	승리의 길	勝利の道	-	-	-
		관용적 표현	절세의 미인	絶世の美人	-	-	-
부사와 결합하는 '의'	부사와 결합하는 '의'	부사+의+체언	전체의 도로	すべての道路	-	부사에 접속	부사+의+체언
제외	제외	종류	장미꽃	バラの花	종류의 의미	-	-
	제외	재료	종이상자	紙の箱	재료의 한정	재료	재료
	제외	형식명사의 접속	학생 시절	学生のころ	-	형식명사의 접속	형식명사의 접속

5부

형식명사

5부. 형식명사

1. 같은 듯 다른 형식명사와 의존명사

우리는 학교문법에서 자립명사와 대조되는 ‘데, 만, 바, 뿐’ 따위로 시작하는 의존명사를 배웠습니다. 우리말은 독립성을 강조하여 의존명사에 중심을 두나, 일본어는 실제 의미를 강조하여 형식명사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둘은 무 자르듯 명확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존명사를 형식명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의존명사가 독립성뿐만 아니라 본뜻과 다른 의미가 있으므로 형식명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족보를 살펴볼까요?

마쓰시타 다이사부로(松下大三郎)³¹⁾ 씨는 “일본어의 형식명사란 앞말에 연체형(우리말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대응)이 올 때 형식적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뜻이 없는 명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원래 뜻과 떨어진 새로운 뜻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학습하게 되는 ‘일본어 투 형식명사’는 일본어의 형식명사를 우리말로 직역한 것입니다. 줄임말로 ‘형식명사’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뜻과는 다르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어 투 형식명사는 5가지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루 사용되는 ‘것, 시제·상황’이 있습니다. 둘째 공간에서 유래하여 시간이나 다른 의미를 확대된 ‘상, 중, 하’ 따위가 존재합니다. 셋째 접속부사처럼 사용되는 ‘때문에, 고로, 반면’ 따위가 있습니다. 넷째 ‘방향’에서 유래한 ‘계통, 방법, 대상’ 따위가 있습니다. 다섯째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모양새다, 경향이 있다, 계획이다’ 따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조사와 결합합니다. ‘이상에는, 탓으로’와 같이 ‘에는, 으로’가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에, 때문에’와 같이 ‘에’가 붙습니다.

31) 마쓰시다 다이사부로(松下大三郎), 改撰標準日本文法(東京: 紀元社, 1928), 241-249쪽. doi.10.11501/1178361.

다른 하나는 축소된 후치사 상당구입니다. 앞에서 후치사 상당구의 큰형이 형식 명사라고 하였습니다. 보기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에 있어서’는 한 개만 나오나, ‘경우’는 백 개 넘게 나옵니다. 또 ‘에 한하여’보다 ‘한’을 사용하면 글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형식명사는 글자 수가 줄어든 후치사 상당구로 대부분 한자어 명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후치사 상당구만큼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어의 의미를 제한합니다. 일본어의 형식명사는 앞말에 과거형, 진행형, 현재형, 미래형과 함께 사용되어 ‘구’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ㄴ/은/는/르’+명사가 오는 ‘구’가 되나, ‘구’는 특정 조건과 결합할 때 나타나므로 의미를 제한합니다.

덧붙이면 형식명사는 앞에 ‘ㄴ/은/는/르, 다는, (이)라는’과 같은 시제가 오거나 완전한 문장인지 접미사 ‘기’가 오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시제를 살펴보면 ‘음식을 거부한 상태에서 단식 농성을 하였다’는 과거형입니다.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 보험을 올리려고 합니다’는 진행형입니다. ‘비서실장이 정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발표하겠습니다’는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또한 ‘그녀는 산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유’의 앞에 ‘그녀는 산전 기록이 없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장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하를 격전지로 내보냈다, ‘그녀는 결석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다’에서 형식명사 ‘위해, 때문에’의 앞에 ‘기’가 붙습니다. 특이하게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기도 합니다. ‘경찰관은 순찰 도중 졸아서 접촉사고를 냈다’에서 ‘도중’ 앞에 ‘동사성 한자어 명사’ ‘순찰’이 왔습니다. 또 명사가 앞에 옵니다. ‘나는 가을 정도는 모교를 방문하겠다’는 ‘정도’ 앞에 ‘가을’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둘째 띄어쓰기의 혼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의 형식명사는 우리말에서 다양한 품사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면 ‘구라이(くらい)’는 실질명사인 ‘정도’로, 의존명사인 ‘무렵’으로, 접미사인 ‘가량, 쯤’으로, 조사인 ‘만큼, 만치, 까지’ 따위가 됩니다. 하지만 각 품사는 띄어쓰기가 다르기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또 대다수 일본어 투 형식명사는 다른 품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접미사와 같이 사용되는 것은 ‘상, 하, 간, 경, 가량’ 따위가 있습니다. 조사와 같이 사용되는 것은 ‘마다, 까지, 만(큼), 만치, 대로’ 따위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명사는 다른 품사와 혼용하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띄어쓰기에 혼동을 일으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간³²⁾’은 접미사로 ‘동안’을 의미하면 붙이고, 의존명사로 ‘관계’를 나타내면 띄운다고 풀이합니다. 하지만 ‘인척간, 친척 간’은 모두 ‘관계’를 나타내지만,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인척간’은 국어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었기에 붙여 쓴다’라고 풀이합니다. 알고 보면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의 형식명사 ‘간[あいだ/間]’을 가져오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2. 두루 사용되는 형식명사: 것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에는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가사 ‘꺼’는 ‘것’과 같은 말로 ‘내 마음, 내 사람, 내 사랑’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본디 ‘것’은 우리말에도 있었으나, 요즘 사용하는 ‘것[こと/事, の, もの/物]’은 일본어 투 형식명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한자어 명사로 변형됩니다. 즉 ‘문제, 사건, 사실, 사정, 사태, 사항, 작업, 현상’ 따위로 변경되나, 의미에 문제가 없다면 생략합니다. 즉 한자어로 만든 형식명사는 문장에서 거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선량한 풍속이나 다른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로 변경하면 문장에서 길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인용절을 만들고, 문장을 강조하고, 종결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문장을 끝내는 ‘것’은 종결어미로 변경합니다. ‘시간을 지키실 것’은 ‘시간을 지켜주세요’로 교정합니다.

셋째 다른 형식명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 간에 갈등은 돈 욕심으로 발생한 것이다’와 ‘절친한 친구끼리 갈등은 돈 욕심 때문이다’는 비슷합니다.

다음은 고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명사화 접미사로 수정합니다. 일본어 투 형식명사를 대부분 ‘것’으로만 표현하나, ‘기, 口(미음), 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³³⁾ 보기를 들면 ‘일기 쓰는 것은 어려운 숙제이다’는 ‘일기 쓰기는 어려운 숙제이다’로 교정합니다.

3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6월 13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간.”

33) 기무라 나오코(kimura naoko), “한국어와 일본어의 명사절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기, 2016), 67쪽, <http://www.riss.kr/link?id=T14151125>, (2021. 4. 13. 확인).

둘째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속일 의도로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합니다’는 ‘속일 의도로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합니다’로 수정합니다.

셋째 ‘뚝, 쪽, 편’으로 고치거나 인용을 나타내는 말로 변경합니다. ‘두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는 ‘두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로 교정합니다.

넷째 다양한 연결어미로 다듬습니다. 보기를 들면 민법 151조 1항에 규정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다른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다섯째 ‘것이다’는 ‘듯싶다, 듯하다, 법이다, 성싶다, 셈이다, 참이다, 터이다’ 따위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는 ‘정부는 새로운 마련할 듯합니다’로 바꿔줍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것입니다’는 ‘우리는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참이다’로 순화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일본어는 ‘것[こと]’을 이용하여 다른 형식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경험, 가능성, 여지, 가능성’과 ‘있다/없다’가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말이 따라 합니다. 이때 ‘경험’은 ‘바, 일, 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영수는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간 경험이 있다’는 ‘영수는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가능성, 능력, 여지’가 ‘있다/없다’와 결합하면 ‘수, 리, 턱’으로 수정합니다. ‘그는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는 파산할 수 있다’로 바꿉니다. ‘사람 몸은 스스로 조절할 능력이 있다’는 ‘사람 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로 교정하면 글의 길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날 여지가 없다’는 ‘그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로 순화합니다.

‘것’ 말고도 가능성을 뜻하는 다른 형식명사 ‘염려, 우려’가 ‘있다’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로 바꿉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육교 설치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육교 설치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로 교정합니다. ‘그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그녀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3. 약방에 감초처럼 사용되는 형식명사: 도코로(ところ)

일본어에서 ‘시제, 상황, 원인, 장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도코로(ところ/所)’는 본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소(所), 처(處), 바’ 따위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약방에 감초처럼 사용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제와 결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본어에서 과거형, 진행형, 현재형, 미래형과 결합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과거는 ‘한 다음, 한 이후, 한 직후, 한 후’가 됩니다. 현재는 ‘은/는 가운데, 은/는 도중, 은/는 중(에)’이 됩니다. 미래는 ‘하기 전, 하기 직전’으로 됩니다. 이것도 되도록 연결어미로 고칩니다.

예를 들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는 ‘새 정부가 출범 하고 나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로 수정합니다. ‘여행하는 중 만난 사람을 회사 에서 다시 보았다’는 ‘여행하다가 만난 사람을 회사에서 다시 보았다’로 순화합니다. ‘의장은 죽기 전에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다’는 ‘의장은 죽음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할 듯하다’로 교정합니다.

둘째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상황, 지경, 처지, 형편’과 같이 다양한 한자어로 풀이됩니다. 이때는 고유어인 ‘마당에, 터에, 판에, 통에’로 교정합니다. ‘그는 넉넉 하지 않은 형편에 기부금을 냈다’는 ‘그는 넉넉하지 않은 마당에 기부금을 냈다’로 다듬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정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마당에 정부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로 수정합니다.

참고로 ‘상황’과 비슷한 ‘상태(로), 상태에서’는 ‘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누운 상태에서 5분 동안 명상을 하였다’는 ‘그는 아침에 누운 채로 5분 동안 명상을 하였다’로 변경합니다.

셋째 원인·이유를 나타냅니다. 본디 ‘점’은 ‘문제점, 점무늬(땡땡이) 양말’처럼 ‘부분, 점무늬’를, ‘측면’은 ‘측면 돌파, 교육적 측면’처럼 ‘옆, 부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점, 측면’이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원인·이유의 연결어미로 바꿉니다.

보기를 들면 ‘국회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국회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므로 큰 의미가 있다’로 교정합니다. 또 ‘시민이 스스로 참여를 했다는 측면에서 뜻이 깊다’는 ‘시민이 스스로 참여했기에 뜻이 깊다’로 수정합니다.

넷째 ‘순간에, 찰나에’와 같이 특정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때는 ‘바로 그때, 참에, 하자마자’로 수정합니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 산불이 발생했다’는 ‘잠시 방심하자마자 산불이 발생했다’로 바꿉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던 찰나 긴급한 전화가 왔다’는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던 바로 그때 긴급한 전화가 왔다’로 순화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찰나의 순간’의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찰나, 순간’ 가운데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 작가는 찰나의 순간을 잘 포착하여 대상을 받았다’는 ‘그 작가는 순간을 잘 포착하여 대상을 받았다’로 교정합니다.

다섯째 ‘에 따라다, 에 의하다’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바에 따라(서), 바에 의하여’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같이, 그것을 따라서’라는 뜻이 있으므로 ‘대로, 바와 같이’로 교정합니다.

보기를 들면 ‘위험물 안전 관리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의무 교육을 받았다’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대로 매년 1회 의무 교육을 받았다’로 변경합니다. 헌법 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납세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합니다.

형식명사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말은 띄어 쓰는 ‘는데’와 붙여 쓰는 ‘는데’가 있습니다.

먼저 ‘는데’는 형식명사를 직역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것, 경우, 공간, 구석, 부분, 이유, 장소, 측면’과 같은 뜻이 있으면 띄어 씁니다. 보기를 들면 ‘그녀는 시끄러운 데를 싫어했다’는 ‘그녀는 시끄러운 장소를 싫어한다, 그녀는 시끄러운 공간을 싫어했다’를 의미하므로 띄어 씁니다. ‘그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그는 흠잡을 경우가 없다’와 같으므로 마찬가지로 띄어 씁니다. 또 ‘부녀는 닳은 데가 많다’는 ‘부녀는 닳은 구석이 많다, 부녀는 닳은 점이 많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띄어 씁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한데’와 같이 역접, 전환을 표시하는 접속부사로 해석되거나, 종결을 만들거나, ‘이/가 되다’로 해석이 되면 ‘는데’를 사용합니다. 보기를 들면 ‘다들 걱정했는데 일이 잘 해결했다’는 ‘다들 걱정했다. 그런데 일이 잘 해결했다’로 풀이되므로 붙여 씁니다. ‘이것은 새 책인데 우리 선생님이 집필했다’는 ‘이것은 새 나온 책이다’와 같이 종결을 나타내므로 붙여 씁니다. ‘그는 집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는 집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붙여 씁니다.

4. 쓰기 싫은 형식명사: 상(上)

우덕초등학교 이슬 양이 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동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 짜증 섞인 투정에도 / 어김없이 차려지는 / 당연하게 생각되는 / 그런 상 ….’으로 시작합니다. 이 동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늘 받고 싶은 상도 있지만, 가장 쓰기 싫은 상도 있습니다. 상’은 원래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상동’은 ‘위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 사용되는 ‘상’은 공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은 ‘상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과 비슷합니다. 즉 ‘정황상 증거’는 ‘정황적 증거’와 유사합니다. 고치는 방법은 ‘상태, ‘상황’으로 순화합니다. ‘사실상의 우위’는 ‘사실 상태로 우위’로 변경합니다. 또 ‘실제상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실제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로 수정합니다.

둘째 앞서 배운 ‘에 있어서’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으로, 에(서)’로 변경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재판에서 청구’로 변경합니다. 또 상황·조건이 연결 어미인 ‘거든, 거나, 는바, 라면/려면, 아도/어도/여도, 아야/어야/여야, 으면’으로 바꾸거나 의존명사 ‘는 데’로 변경합니다. ‘공부방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로 교정합니다.

셋째 ‘에 의하여, 로 인하여, 때문에’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 사정상 어제 모임에 불참했다’는 ‘그녀는 개인 사정 때문에 어제 모임에 불참했다’로 다듬습니다.

넷째 ‘에 관하여, 에 대하여’와 비슷합니다. 이때는 앞서 배운 대로 ‘에(서), 에게’로 교정합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형사에서 규정한 책임’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관련하다, 규정하다, 다루다, 연관하다, 처리하다’로 바꿉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직무와 관련한 발언과 표결’로 순화합니다.

요약하면 ‘상’은 접미사 ‘적’과 후치사 상당구인 ‘에 있어서,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에 의하여, 로 인하여’와 형식명사 ‘때문에’와 같은 뜻이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5. ‘중(中), 간(間), 가운데’는 시간의 형식명사로 발효되었다

우리말에서 ‘가운데, 중’은 본디 공간, 등급, 순위,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공기 중 산소, 중급 품질, 2남 2녀 가운데 막내, 소비자물가지수 중 일부 항목’과 같이 표현됩니다.

하지만 일본어에 영향을 받아서 ‘가운데, 중’은 시간의 형식명사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때는 ‘동안, 사이’로 고칩니다. 아니면 계속·나열의 연결어미인 ‘고, 는데, 다가, 며, 면서, 았/였/였다’로 변경합니다. 보기를 들면 ‘집에 가는 중 친구를 만났다’는 ‘집에 가는 동안 친구를 만났다’로 수정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가 진행되었다’로 교정합니다.

위 근거를 뒷받침하면 최인호³⁴⁾ 씨는 “관형사형 전성어미(ㄴ/는)와 결합하는 ‘가운데, 겨를, 동안에, 사이에, 중에, 참에’ 따위는 ‘고, 며, 면서, 다가, 았/였/였다가, 는데’로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중’과 같은 의미가 있는 ‘도중, 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그는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로 교정합니다. 특히 감사나 양해를 나타내는 ‘가운데, 와중’은 ‘데도, 텐데’로 수정합니다. 그러나 ‘불구’는 일본어 번역투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순화합니다.

중, 가운데’와 비슷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외국에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녀는 외국에 출장을 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간’입니다. ‘간’은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세 가지로 고칩니다.

첫째 관계를 나타내면 ‘끼리’로 수정합니다. ‘친척 간 오해를 풀었다’는 ‘친척끼리 오해를 풀었다’로 고치고, ‘두 나라 간의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는 ‘두 나라끼리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시간을 나타내면 ‘동안, 사이’로 순화합니다. ‘한 달간’은 ‘한 달 동안’으로, ‘그간’은 ‘그동안’으로 수정합니다. ‘창졸간, 별안간, 부지불식간’은 잠깐 사이를 의미하므로 ‘갑자기, 갑작스러운, 영겁결에, 예기치 못한’으로 바꿉니다.

34) 최인호, “[말글찾집] -는 가운데,” 한겨레, 2006년 8월 18일 수정, 2021년 6월 23일 접속,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49878.html.

셋째 조선 시대 태종이 부른 「하여가」가 되겠습니다. ‘하여가’의 가사와 의미가 비슷한 ‘하여간, 좌우간, 여하간’처럼 ‘무관’을 나타냅니다. 즉 ‘이래도 흥, 저래도 흥’처럼 상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아무튼(지), 어쨌든(지), 어쨌건, 여하튼(지), 하야튼(지)’로 변경합니다. ‘좌우간 밥은 먹고 업무를 시작합시다’는 ‘여하튼 밥은 먹고 업무를 시작합시다’로 교정합니다.

6. 영향·조건을 나타내는 형식명사: 하(下), 아래

중년 주부는 빈 등지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슬하의 자식이 떠나면 빈 등지만 바라보는 어미 새처럼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슬하’는 ‘무릎 밑’이 아니라 ‘부모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하는 형식명사입니다.

본디 ‘아래, 하’는 공간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보았다, 그는 성적이 하에서 맴돌고 있다’와 같이 ‘밑, 아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는 사용되면 ‘영향,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받다, 미치다, 달다, 두다, 부여하다’로 교정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로 수정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실습을 하고 있다’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실습을 하고 있다’로 순화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야간 영업을 일정한 조건하에 허가하였다’는 ‘공무원은 야간 영업을 일정한 조건을 달아 허가하였다’로 변경합니다. ‘각국 청년들은 세계 평화라는 목표 아래 일치단결했다’는 ‘각국 청년들은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두고 일치단결했다’로 순화합니다.

‘하, 아래’와 비슷한 말로는 ‘이하’가 있습니다.

이하는 ‘밑, 아래, 안 되는, 나머지’로 수정합니다. 보기를 들면 ‘이하 생략’은 ‘나머지는 생략’으로, ‘그 사람은 오만 원 이하 벌금을 납부했다’는 ‘그 사람은 오만 원이 안 되는 벌금’을 납부했다’로 변경합니다.

또 글 속에서 괄호로 표시된 ‘이하’는 ‘준말, 같은 말, 줄임말, 마찬가지로’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이하 충북)’는 ‘충청북도(준말 충북)’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끼리 모여 한 친구가 라면을 먹자고 제안하면 다른 친구가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하 동문, 이하 같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나도 마찬가지로”라고 수정합니다.

7. ‘다른, 나머지’로 사용되는 형식명사: 외(外), 밖, 타(他)

사무실 복도를 지나가다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더군다나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staff only’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 금지, 관계자만 출입’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외, 밖’은 처음에는 ‘밖으로 나가버리고’처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다른, 나머지, 아닌, 벗어난, 말고, 만’으로 교정합니다. 민법 35조 2항의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는 ‘법인이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때문에 ….’로 교정합니다.

‘외, 밖’과 관련된 풀이를 찾아보면 이희자 님과 이종희³⁵⁾ 님은 ‘외에, 밖에’는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다른 일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발굴하면 ‘외, 밖’은 ‘넘다, 넘어서다, 다르다, 빼다, 제외하다, 아니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밖으로 고전했다’는 ‘예상을 넘어서 고전했다’로 바꿉니다. ‘학생들은 필기도구 외에 다른 학용품을 책상에서 치워야 한다’는 ‘학생들은 필기도구를 빼고 다른 학用品을 책상에서 치워야 한다’로 순화합니다.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다른, 나머지’로 교정합니다. ‘그 식당은 타 식당과는 달리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그 식당은 다른 식당과는 달리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았다’로 변경합니다. 민법 218조 1항의 ‘…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 다른 토지의 소유자에게 요청을 받으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외, 밖, 타’가 변형된 형태로는 ‘그 밖, 이 밖, 기타, 여타, 이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바꿉니다.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는 ‘나머지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로 교정합니다. ‘이곳은 여타 지역과 다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는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로 수정합니다. 민법 751조에 규정된 ‘…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 재산이 아닌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순화합니다.

35) 이희자, 이종희, **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서울: 한국문화사, 2010), 수록 단어 “밖에.”

8. 내(內), 리(裏)는 중(中), 간(間)과 같은 말이다

본디 공간 개념에서 ‘내’는 안쪽을 뜻하고, ‘중, 간’은 가운데를 나타내므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내, 중, 간’이 시간의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왜 같아질까요? 답은 일본어에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내[うち/内]’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자(內子)처럼 자기 아내를 뜻합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는 시간의 가운데를 표시합니다. 이때는 ‘중, 간’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방학 내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시행할 것이다’와 ‘방학 중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시행할 것이다’는 같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이 올 것이다’와 ‘그녀에게 금명간 연락이 올 것이다, 그녀에게 조만간 연락이 올 것이다’는 유사합니다.

다음은 ‘리’를 살펴봅시다. 흔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리’는 본디 ‘속, 안쪽’이라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명사로는 ‘내, 중, 간’과 같이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동안, 사이, 속’으로 가다듬습니다. ‘축제 기간에 특산품이 절찬리에 판매되었다’는 ‘축제 기간에 특산품이 절찬 속에서 판매되었다’로 변경합니다.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체육대회가 성황 속에서 개최되었다’로 수정합니다.

또 토박이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 두 단체는 협력했다’는 ‘올림픽을 잘 개최하려고 두 단체는 협력했다’로 교정합니다. ‘극비리, 암암리, 비밀리’는 ‘남들 모르게, 남몰래’로 변경합니다.

9. 우리말에 뿌리를 내린 형식명사: 전(前), 후(後)

‘전’은 ‘앞’과 같은 말로 본디 공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어떤 시간의 앞을 의미합니다. ‘전’과 비슷한 ‘이전, 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시간의 뒤는 ‘후, 이후, 직후, 이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다음에, 뒤에, 하고 나서’와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그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 감사 인사를 하였다’는 ‘그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감사 인사를 하였다’로 해도 어울립니다.

특히 ‘이래’는 ‘부터’로 고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래 이 지역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10건이 발생하였다’는 ‘2020년부터 이 지역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10건이 발생하였다’로 수정합니다.

참고로 ‘후’와 같이 ‘결과’도 시간의 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끝, 하고 나서’로 변경합니다. ‘그는 죽을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성공하였다’는 ‘그는 죽을힘을 다해 노력한 끝에 성공하였다’로 고칩니다.

10.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형식명사: 정도, 수준, 간격

‘또 하루 멀어져 간다 /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은 김광석 씨가 부른 「서른 즈음에」 가사의 한 대목입니다. ‘서른 즈음’은 ‘서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처럼 ‘정도, 수준’은 본디 ‘아이들 수준과 맞는 공부’처럼 일정한 기준이나 등급이나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불확정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께, 남짓, 무렵, 즈음, 쯤’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을 정도에 시골집에 방문하겠다’는 ‘가을 무렵 시골집에 방문하겠다’로 교정합니다.

둘째 분량, 비교, 수량을 표시합니다. 이때는 ‘가량, 까지, 남짓, 만치, 만큼, 은/는, 쯤’으로 수정합니다. ‘지역 내 아파트 10개 정도가 비상 대피 시설로 선정되었다’는 ‘지역 내 아파트 10개 남짓이 비상 대피 시설로 선정되었다’로 순화합니다. ‘숨을 헐떡거릴 정도의 높은 고개’는 ‘숨을 헐떡거릴 만큼 높은 고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80% 수준에 머물렀다’는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80%가량에 머물렀다’로 교정합니다.

다음은 일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형식명사 ‘간격(으로)’이 있습니다. 이것은 ‘걸러, 마다, 씩’으로 고칩니다. ‘그는 두 시간 간격으로 약을 먹었다’는 ‘그는 두 시간 마다 약을 먹었다’로 수정합니다. ‘지역 축제를 홍보하려고 도로에 100m 간격으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는 ‘지역 축제를 홍보하려고 도로에 100m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였다’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11. ‘위하다’와 ‘때문’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간 때문이야」라는 CF 송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간 때문이야 / 간 때문이야 /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고 시작합니다. 피로를 모두 죄가 없는 간에 탓합니다. 하지만 CF 송의 숨어 있는 의도는 간을 위해 ‘우루사’를 복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하다, 때문[ため/為]’은 우리말은 다른 의미이나, 일본어는 같은 ‘형식명사’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즉 일본어에서 ‘위하다’로 풀이하면 목적을 나타내고, ‘때문에’로 해석하면 원인·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럼 고치기를 살펴볼까요? ‘위하다, 때문’은 보통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앞에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오면 연결어미로 고칩니다.

즉 ‘위하다’는 ‘고자, 여고, (으)러, 으(려), 으려고’로 변경합니다. ‘정부는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는 ‘정부는 교통복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로 수정합니다.

하지만 ‘때문에’는 ‘기에, 느라고, 느니만큼, 니까, ㄹ세라/을세라, 므로, 아(서)/어(서)/여(서), 으니’로 변경합니다. ‘그는 생선을 상온에서 보관했기 때문에 생선이 금방 부패했다’는 ‘그는 생선을 상온에서 보관했으므로 생선이 금방 부패했다’로 교정합니다.

다음은 유사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근거, 기반, 기초, 바탕, 입각’은 움직임이 없으므로 되도록 ‘하다’를 붙이면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적’도 움직임이 없기에 ‘하다’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적하다’는 국어사전에 버젓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술 더 떠서 ‘목적으로 하다’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위하다’와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피하다, 도모하다, 목적으로 삼다, 목적으로 두다’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목적’이란 단어도 다듬을 수 있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만든 상품’은 ‘홍보하려고 만든 상품’으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목적’보다도 ‘왜 글을 쓰는가요?’로 쉽게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때문’과 비슷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꽤 많은 원인·이유의 형식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어에서 다양한 원인·이유[わけ, おかげ, せい, あまり]의 형식명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문에’와 같은 방법으로 교정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양한 원인·이유의 형식명사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로, 까닭으로, 사정으로, 사유로, 원인으로, 이유로’가 있습니다. 단 이것은 완전한 문장일 때 구현됩니다. ‘그는 황당한 사유로 거부했다’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형식명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아프다는 사유로 해고당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형식명사입니다. 고친 사례를 보면 ‘나는 수학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낙제했다’는 ‘나는 수학 성적이 나빠서 낙제했다’로 교정합니다.

둘째 ‘바람에, 탓에’가 있습니다. ‘바람’은 공기 속 흐름을 나타내지만,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부정 표현의 원인·이유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때문에’와 같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본이 부족한 탓에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다’는 ‘그는 자본이 부족해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다’로 순화합니다.

셋째 긍정 표현에 사용되는 ‘덕에, 덕분에, 덕택에’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문에’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변경합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덕에 엄청난 매상을 올렸다’는 ‘그는 온라인으로 판매했기에 엄청난 매상이 올렸다’로 변경합니다.

넷째 ‘나머지’가 있습니다. 원래 ‘나머지’는 ‘여분, 우수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녀는 감격한 나머지 울고 말았다’는 ‘그녀는 감격해서 울고 말았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큼’이 있습니다. ‘만큼’은 조사로도 사용되지만, 형식명사로는 ‘비례·정도’나 ‘원인·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질책을 받은 만큼 성숙해졌다’는 ‘그녀는 질책을 받았기에 성숙해졌다’로 고칩니다. 이것은 앞서 사쿠마 가나에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까지, 만(큼), 대로’ 따위의 조사를 형식명사로 분류한 것에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또 ‘까지, 만’은 조사로 사용되지만, 형식명사로는 제한·한정을 나타냅니다. 즉 ‘나는 여력이 되는 데까지 너를 돕겠다’와 나는 여력이 되는 한 너를 돕겠다’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탓’과 비슷한 ‘주제[〈世/癡〉]가 있습니다. 본디 속된 말로 ‘그 사람은 쿠세가 있다’처럼 이것은 본디 ‘버릇, 습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비꼬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때는 ‘(하)면서’로 순화합니다. ‘그는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밥만 많이 먹었다’는 ‘그는 일도 못하면서 밥만 많이 먹었다’로 수정합니다.

12. 상황·조건의 형식명사: 경우, 때/시/제, 시점, 이상, 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서 오리 때 시점에서 백조 새끼는 이상한 경우입니다. 이 동화처럼 상황, 조건의 형식명사는 ‘오리 때 시점에서 이상한 경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① 우리말에서 ‘경우’는 도리·사리나 상황·조건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나 일본어는 다릅니다. 도리·사리는 ‘도리’를 쓰고, 상황·조건은 ‘경우’를 사용합니다.

또 ‘경우’는 실질명사와 형식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명사로는 ‘본보기, 사례’를 의미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 야외에서 수업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 야외에서 수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때, 시, 제’와 마찬가지로 상황, 조건,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상황·조건의 연결어미로 고칩니다. 아니면 그나마 우리말인 ‘때’로 변경합니다. ‘그 강의는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폐강될 것이다’는 ‘그 강의는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폐강될 것이다’로 수정합니다.

특이하게 ‘경우’는 후치사 상당구와 다른 형식명사와도 결합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 한하여, 경우를 제(외)하고, 경우 외에’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조건의 연결어미로 변경합니다. ‘예약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예약은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또 ‘경우’가 보조사와 결합하면 ‘후치사 상당구’처럼 보조사만 사용합니다. 보기를 들면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하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도 따로 신청하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② ‘때, 시, 제, 시점’은 상황, 시간,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상황 조건의 연결어미나 그나마 쉬운 ‘때’로 변경합니다.

보기를 들면 ‘교통사고로 응급 구호가 필요할 때는 긴급전화를 사용하세요’는 ‘교통사고로 응급 구호가 필요하면 긴급전화를 사용하세요’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입증은 퇴거 시 반납해야 한다’는 ‘출입증은 나갈 때 반납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어릴 제 같이 놀던 친구를 어제 만났다’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를 어제 만났다’로 순화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영화가 개봉할 듯하다’는 ‘추석 연휴가 시작될 때 영화가 개봉할 듯하다’로 바꿉니다.

③ ‘이상’은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첫째 수량·정도에서 사용되는 ‘이상’은 ‘넘다, 더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돈’은 ‘1억 원이 넘는 돈,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제까지, 지금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시청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는 ‘지금까지 전국노래자랑을 시청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로 순화합니다.

셋째 문장을 종결하는 이상은 ‘끝’을 뜻합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기자 회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기자 회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을 의미합니다.

넷째 상황·조건이나 원인·이유의 형식명사로 사용됩니다. ‘노조위원장과 면담을 승낙한 이상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노조위원장과 면담을 승낙하였다면 거부할 수 없다’로 교정합니다.

④ ‘한’은 대부분 조건·양보를 나타내는 형식명사로 사용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³⁶⁾’을 주로 실질명사로 풀이합니다.

그럼 ‘한’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제한·한정을 나타내면 ‘만, 까지, 은/는’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에 한해 반값 할인’은 ‘오늘까지 반값 할인, 오늘날 반값 할인, 오늘은 반값 할인’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조건의 연결어미로 순화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한 돕겠다’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돕겠다’로 교정합니다. 또 ‘야외에서 천둥이 치면 가능한 한 차에 머물러라’는 ‘야외에서 천둥이 치면 되도록 차에 머물러라’로 수정합니다. 다만 ‘야외에서 천둥이 치면 가급적 차에 머물러라’는 ‘적’ 형태이므로 올바른 고치기가 아닙니다.

셋째 양보의 나타내는 ‘한이 있더라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로(서니), ㄴ들, ㄸ라도, ㄹ망정, ㄹ지라도, ㄹ지언정, 아도/어도/여도, 예도’로 변경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죽을지언정 할 말은 하겠다’로 수정합니다.

여담으로 최상을 표현하는 ‘한이 없다’는 일본어 투 형식명사와 부정어가 결합한 말입니다. 이것은 최상을 표현하는 말로 수정합니다. ‘50년 동안 헤어진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서 기쁘기 한이 없었다’는 ‘50년 동안 헤어진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뻐다’로 순화합니다.

3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년 10월 15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한.”

13. 대조·대비의 형식명사: 반면, 한편, 대신, 대비

‘반면, 한편’은 대조·대비의 형식명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본디 ‘한쪽, 반쪽’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고, 나, (으)면서’로 고칩니다.

예를 들면 ‘갈대는 연약한 여자에 비유한 반면, 역새는 강인한 여인을 상징한다’는 ‘갈대는 연약한 여자에 비유하나, 역새는 강인한 여인을 상징한다’로 고칩니다. ‘그는 일도 하는 한편 공부를 했다’는 ‘그는 일도 하면서 공부를 했다’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왜 일본어 투 형식명사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면³⁷⁾’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 분류하나, 앞 문장에서 ‘비유하다’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유한다. 반면/그러나’로 고치거나 ‘비유하나’로 순화해야 합니다.

‘대신(에)’는 앞서 ‘을/를 대신하다’와 같은 방법으로 고칩니다. 즉 이것은 본래 ‘대리, 대표’를 의미합니다. 즉 ‘시장은 주민들을 대신해 성금을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는 ‘시장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성금을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이/가 아닌, 말고’로 변경합니다. ‘시청은 적산 가옥을 철거하는 대신 보존하기로 선택하였다’는 ‘시청은 적산 가옥은 철거가 아닌 보존하기로 선택하였다’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비³⁸⁾’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대비’는 ‘비교’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풀이합니다. 하지만 앞서 ‘에 비하다, 에 반하다’에서 설명하였듯이 ‘대비’는 오히려 조사 ‘보다, 치고(는), 치곤’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올해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14. 나열의 형식명사: 등(等), 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기미독립선언서」는 ‘오등(吾等)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 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등’은 ‘우리 등, 우리들’이 아닌 ‘우리’로 해석합니다.

형식명사의 창시자인 마쓰시다 다이사부로 쓰는 나열의 형식명사[など/等, なんか, なんて]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등’이 아닌 ‘와/과 같은, 따위’로 다양하게 풀이하는데도 우리말은 ‘등’만 고집합니다.

3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년 10월 15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반면.”

3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년 10월 15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대비.”

그럼 ‘등’을 어떻게 고칠까요?

첫째 ‘와/과 같다, 을/를 비롯하다, 을/를 포함하다’로 수정합니다. 보기를 들면 ‘포도, 사과, 귤 등 과일은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포도, 사과, 귤을 비롯한 과일은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들, 따위, 무리, 일행, 집단’으로 받아줍니다. ‘인체는 근육, 뼈, 피부, 혈관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인체는 근육, 뼈, 피부, 혈관 따위로 구성되었다’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결어미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서), 며, 아(서)/어(서)/여(서), (으)면서’로 변경합니다. ‘지자체는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는 ‘지자체는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로 순화합니다.

다음은 ‘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양 말은 단수와 복수가 뚜렷이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를 강제로 일치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들’은 문장에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생략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나 시민과 같이 말 자체에서 복수를 담고 있으면 ‘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너희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들’을 써야 한다면 ‘우리네, 너희네, 저희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 가슴속 원한을 갚아 주었다’는 ‘그는 우리네 가슴속 원한을 갚아 주었다’로 바꾸면 됩니다.

둘째 추상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표를 나타내는 명사는 생략합니다. ‘다수의 신문 기사들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꽤 많은 신문 기사는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로 줄입니다. 또 ‘인간들과 기계들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는 ‘인간과 기계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로 짧게 만듭니다.

셋째 관형사나 부사와 같은 꾸미는 말이 있으면 생략하면 됩니다. ‘그 판매사원은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했다’는 ‘그 판매사원은 다양한 제품을 홍보했다’로 다듬으시면 됩니다. ‘시골에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다’는 ‘시골에 초가집이 다닥다닥 모여 있다’로 교정합니다. ‘책들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다’는 ‘책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다’로 순화합니다.

15. 계속·동시의 형식명사: 즉시, 동시

‘즉시’는 부사로 ‘바로’를 뜻합니다. 하지만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계속’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하는 대로, 하는 족족, 하자마자’로 받아줍니다. ‘그의 책은 출간 즉시 완판이 되었다’는 ‘그의 책은 출간하자마자 완판이 되었다’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동시(에)’입니다. 본디 ‘동시’는 ‘같이, 한꺼번에, 함께’를 의미합니다. ‘그는 밥과 국을 동시에 먹었다’는 ‘그는 밥과 국을 같이 먹었다’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형식명사 ‘동시’는 ‘즉시’와 마찬가지로 시간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때는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겸(해서), 김(에)’와 같은 고유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선물 발송과 동시에 편지도 보냈다’는 ‘그는 선물을 발송하는 겸 편지도 보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나열의 연결어미로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고(서), 며, 아(서)/어(서)/여(서), (으)면서’로 순화하면 됩니다. ‘그 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는 동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는 ‘그 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로 수정합니다.

16. 방향에서 비롯된 다양한 형식명사

일본어에서 방향[かた/方, ほう/方]에서 비롯된 형식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디 ‘○○분’과 같이 사람을 높이거나 방향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다양한 한자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순화하는지 알아보시죠.

첫째 막연하게 지칭하는 ‘계통, 분야, 방면’은 ‘쪽, 편’으로 교정합니다. ‘교수는 공대 계통 졸업생을 추천했다’는 ‘교수는 공대 쪽 졸업생을 추천했다’로 수정합니다. ‘사장은 반도체 분야에 특화하여 기업을 운영했다’는 ‘사장은 반도체 쪽에 특화하여 기업을 운영했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방도, 방법, 방안, 방식, 식, 요령, 절차’ 따위는 ‘기, □(미음), 음’과 같은 명사화 접미사로 손질합니다. ‘걷는 방법’은 ‘걷기’로, ‘작문 방식’은 ‘글쓰기’로, ‘계약 취소 절차’는 ‘계약 취소하기’로 순화합니다. ‘그는 예약 절차 및 환불 방식을 안내하였다’는 ‘그는 예약하기와 되돌려받기를 안내하였다’로 쉬운 말로 고칩니다.

셋째 ‘대상, 상대’는 ‘에(서), 에게’로 변경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학교는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보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로 수정합니다.

17. 종결형 형식명사: 모양새(이)다, 경향이 있다, 계획이다

형식명사는 ‘(이)다’와 결합하여 문장을 종결합니다. 이 책에서는 ‘종결형 형식명사’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나름이다, 그대로이다, 셈이다’와 같이 고유어로 표현되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종결형 형식명사’는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습, 모양(새), 상황, 상태, 양태, 형국, 형상, 형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다’와 결합하면 ‘모양’과는 다른 ‘조짐, 추측’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조짐, 추측을 나타내는 ‘듯하다, 듯싶다, 성싶다’로 고칩니다.

또 ‘것이다, 것 같다’라고 고칠 수 있으나, 앞서 배운 대로 ‘것’은 형식명사이므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양새다’는 ‘일자리 상승세가 둔화하는 듯하다’로 바꿉니다.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는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한껏 부풀어 있는 듯하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경향, 기색, 기미, 기세, 조짐, 추세’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기미’는 본래 취미나 기호를 뜻합니다. 그러나 ‘경향이 있다, 기색이 있다, 기미가 있다, 성향이 있다, 조짐이다, 추세다’는 추측, 진행의 형식명사로 사용됩니다.

추측을 나타내면 ‘듯하다, 듯싶다, 성싶다, 편이다’로 바꿉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요즘 젊은이들은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로 수정합니다. ‘사랑의 온정은 겨울철 추위도 녹일 기세다’는 ‘사랑의 온정은 겨울철 추위도 녹일 듯하다’로 교정합니다.

또 진행을 나타내면 ‘가운데, 중’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는 ‘요즘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중이다’와 비슷하나, ‘요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로 교정합니다.

셋째 ‘계획, 예정, 예상, 의도, 작정, 전망,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디 계획이나 예정을 나타내지만, 형식명사로 사용되면 추측이나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때는 ‘듯, 법, 성, 셈, 참, 터, 생각’으로 고칩니다.

보기를 들면 ‘학교는 안전한 등교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는 ‘학교는 안전한 등교 대책을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로 변경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듯하다’로 수정합니다.

표 9 형식명사 분류표

구분	일본어	의미	한자어 실질명사	고유어 실질명사	의존명사	접사	조사(부사)
보편	こと(事), の, もの(物)	일반	문제, 사건, 사물, 사실, 사태, 사항, 작업, 현상	-	것, 듯, 쪽, 편, 법, 성, 셈, 참, 터	기, 모, 음	-
	こと	경험	경험	일	바, 적	-	-
	こと, はず	가능성	가능성, 능력, 여지	-	리, 수, 턱	-	-
	ところ (所, 处)	시간 관계	이전, 직전, 도중, 외중, 후, 이후, 직후	앞, 가운데	중	-	-
		경우·상황	상황, 지경, 처지, 형편	-	마당, 판, 판국, 터, 통	-	-
		원인·이유	점, 측면	-	-	-	-
		특정 장면	순간, 찰나	-	참	-	-
まま	-	상황, 상태	-	-	-	-	
공간 시간	うえ(上)	조건, 대상	-	-	-	상	에(서), 에게, 으로
	うえ(上), つごう(都合)	원인·이유	덕, 덕분, 덕택	-	때문, 바람, 탓	상	에서, 부터
	うえ(上)	사정·특성	-	-	-	-	-
	もと(下)	영향·조건	-	아래	-	하	-
	なか(中)	시간	과정, 도중, 외중	가운데	중	-	-
	あいだ(間)	시간·사이	간	동안, 사이	-	간, 끼리	-
	うち(内), うら(裏)	시간	이내	안	내	리	-
	ほか·しか(外, 他), おもて(表)	시간	여타, 이외	밖, 그 밖	-	-	밖에, 말고
	まえ(前)	시간	이전, 직전	-	-	-	-
	あと(後), いらい(以來)	시간	후, 이후, 직후	다음, 뒤	이래	-	-
ぐらい, くらい, ほど, だけ	불확정한 시간	정도, 수준	-	남짓, 무렵, 즈음, 쯤	경, 깨, 가량	만치, 만큼	
おき	일정한 시간	간격	-	-	씩	마다	
접속 부사형	ため(為)	목적	목적	-	-	-	-
	ため, わけ	원인·이유	관계, 사정, 사유, 원인, 이유	까닭	때문	-	-
	せい		-	-	바람, 탓	-	-
	おかげ		덕, 덕분, 덕택	-	-	-	-
	だけ		-	-	만큼	-	-
	あまり	결과	결과	나머지, 끝	-	-	-
	ばあい(場合)	상황·조건	경우	-	-	-	-
	おり(折), とき(時), さい(際)		시점	때	시	-	-
	以上		이상	-	-	-	-
	限り·ばかり		한	-	-	-	까지, 만
	反面, 一方	대조·대비	한편, 반면	-	-	-	-
	かわり, わりに	대조·대비	대신, 대비	-	-	-	보다, 치고(는)
	ながら, しい	동시·계속	동시	-	겸, 족족, 차	-	대로(즉시)
など(等), たち	나열	-	무리	등, 따위	-	들	
방향	かた(方), ほう(方), むけ, むき(用)	-	계통, 분야, 방면, 대상, 상대, 방도, 방법, 방식, 요령, 절차	-	쪽, 편, 측	기, 모, 음	-
	종결형	よう(様)	모습, 모양, 상황, 상태, 양태, 형국, 형상, 형세	모양새	것, 법, 셈, 터	-	-
つもり, よてい(豫定)		예정·의지	계획, 예정, 예상, 의도, 작성, 전망	생각	-	-	
きみ		동향·조짐	경향, 기색, 기세, 기미, 조짐, 추세	법, 셈, 터	편, 측	-	-
기타	くせ	-	-	주제	-	-	-
	たび	-	-	-	-	별, 당	마다
	とおり	-	-	-	-	-	대로

6부

부사

6부. 부사

1. ‘없이’ 형태의 부사 고치기

우리말 부사와 일본어 부사는 비슷하나, 탄생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은 주로 형용사에 ‘이, 스레, 히’와 같은 접미사를 붙여 부사를 만듭니다. 즉 ‘깨끗하다’에서 ‘깨끗이’가 나오고, ‘마땅하다’에서 ‘마땅히’를 만들고, ‘상냥하다’에서 ‘상냥스레’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일본어는 주로 명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명사에 조사를 붙이거나 ‘없이[ない]’와 결합하여 부사를 생성합니다. 즉 명사 ‘수시’를 부사로 사용하거나, 명사 ‘이외’에 조사가 결합하면 ‘의외로[意外に]’가 되고, ‘남김이 없다’에서 ‘남김없이[残りなく]’가 나옵니다.

또 우리말은 ‘못’과 ‘안’으로 부정문을 만듭니다. 흔히 ‘못’ 부정문이나 ‘안’ 부정문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지 않다’나 ‘지 못하다’와 같은 보조용언을 사용하여 부정문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못’과 ‘지 못하다’는 ‘불능’을 나타내고 ‘안’과 ‘지 않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주로 ‘부재’를 나타내는 ‘없다[ない]’를 이용하여 부정문을 만듭니다. 이것을 부사로 활용하면 ‘없이[なく]’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일본어는 ‘없다’를 이용해 이중 부정까지 만듭니다. 그러므로 ‘않을 수 없다, 없으면 안 된다, 하지 아닐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이중 부정은 긍정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사랑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사랑은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로 순화합니다.

이처럼 우리말에서 ‘없이’를 활용한 일본어 투 부사를 답습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띄어쓰기에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떨 때는 띄우고, 어떨 때는 붙입니다. 예를 들면 ‘거리낌 없이, 격의 없이’는 띄어 쓰고, ‘스스럼없이, 허물없이’는 붙여 씁니다.

둘째 단어 풀이가 곤란합니다. ‘없이’는 구 형태가 많으므로 국어사전에서는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이루 말할 데 없이, 숨 돌릴 틈 없이’는 국어사전에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글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보기를 들면 ‘누구랄 것도 없이, 두말할 나위 없이, 손쓸 틈도 없이, 흠잡을 데가 없이’와 같이 글의 길이만 길어지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없이’를 어떤 품사로 분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부사와 어미와 혼합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백옥란³⁹⁾ 씨는 ‘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여기서는 ‘없이’로 가공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부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허웅 씨와 남기심 씨와 고영근 씨가 주장하는 것으로 ‘없이’는 부사 파생 접사로 부사를 만든다는 견해입니다. 학교문법도 같은 의견입니다. 즉 ‘남김없이’는 해석하면 ‘모조리’와 같은 부사입니다.

둘째 어미로 보는 의견입니다. 김영희 씨와 우순조 씨와 최웅 씨가 주장하는 것으로 ‘없이’의 원형인 ‘없다’가 ‘아니하다, 았다’로 풀이하는 어미의 요소가 남아있어 ‘부사형(전성)어미’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그는 미련 없이 그녀에게 떠났다’는 ‘그는 미련을 두지 않고 그녀에게 떠났다’와 같이 어미로 고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혼합형입니다. 최현배 씨와 이익섭 씨가 주장하는 것으로 ‘없이’는 부사와 어미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떠났다’는 ‘그는 무작정 떠났다’와 ‘그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났다’와 같이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여기서 ‘무작정’은 부사이고, ‘았다’는 어미입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의미를 기준으로 삼기에 혼합형에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없이’ 형태의 부사를 고쳐보겠습니다.

첫째 ‘없이’를 부사 파생 접사로 보는 견해대로 쉬운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로 고칩니다. ‘값없이/덧없이/속절없이 세월이 흘러만 간다’는 ‘허무하게/헛되이 세월이 흘러만 간다’로 교정합니다. ‘그녀는 거지에게 빵을 값없이 주었다’는 ‘그녀는 거지

39) 백옥란, “-이’의 문법범주에 대한 소고,”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제3호 (2020): 45-49쪽, <http://www.riss.kr/link?id=A106864598>, (2021. 12. 19. 확인).

에게 빵을 공짜로 주었다'로 고칩니다. '그는 간곳없이/(은데)간데없이/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로 교정합니다.

또 '윤희는 맡은 업무를 문제없이 해결하였다'는 '윤희는 맡은 업무를 가뿐히/거뜰히/잘/제대로 해결하였다'로 순화합니다. '관객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입추의 여지없이 극장을 채웠다'는 '관객들이 빼곡히 극장을 채웠다'로 교정합니다. '아이들은 밤낮없이/시도 때도 없이 안아달라고 보냈다'는 '아이들은 늘/언제나/항상 안아달라고 보냈다'로 고칩니다. '영수는 쓸데없이/쓸모없이 돈을 사용하였다'는 '영수는 불필요하게/괜스레/괜히 돈을 사용하였다'로 변경합니다.

또 '친구의 이야기는 나무랄 데 없이/흠 없이/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하였다'는 '친구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훌륭하였다'로 수정합니다. '그녀는 대중없이/두서없이/밑도 끝도 없이/종작없이 연설하였다'는 '그녀는 닥치는 대로 연설하였다'로 바꿉니다. '어른에게 무람없이/버릇없이/예의 없이 굴지 마라'는 '어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라'로 순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원 없이 먹었다'는 '그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마음대로/마음껏/실컷/얼마든지/원하는 대로/진탕 먹었다'로 고칩니다. '너는 주책없이/채신(머리)없이 행동하지 마라'는 '너는 제멋대로/함부로 행동하지 마라'로 순화합니다. '짐바브웨의 물가는 터무니없이/턱없이/형편없이 올랐다'는 '짐바브웨의 물가는 불합리하게/엄청나게 올랐다'로 교정합니다.

둘째 '없이'를 부사형 어미로 보는 견해대로 '아니하다, 않다'로 고칩니다. '그 독재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가차 없이/인정사정없이 응징하였다'는 '그 독재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인정을 두지 않고 응징하였다'로 변경합니다. '그 작가는 미련 없이 집필을 그만두었다'는 '그 작가는 미련을 두지 않고 집필을 그만두었다'로 수정합니다.

또 '그녀는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는 '그녀는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로 교정합니다. '철도 공사는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철도 공사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로 수정합니다. '학부모는 많은 돈을 아낌 없이 사교육에 투자했다'는 '학부모는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사교육에 투자했다'로 순화합니다.

다음은 ‘없이’를 활용한 다양한 말을 고쳐보겠습니다.

① ‘가없이, 그지없이, 끝없이, 끝도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량없이, 헤아릴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는 최상이나 무한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매우, 몹시, 무척’과 잘 어울립니다. ‘세월이 그지없이 빨리 흘러갔다’는 ‘세월이 무척 빨리 흘러갔다’로 가다듬습니다. ‘그녀는 떠나버린 그가 끝없이 미워졌다’는 ‘그녀는 떠나버린 그가 몹시 미워졌다’로 고칩니다.

② ‘간단없이, 끊임없이, 숨 돌릴 틈/겨를/사이/없이, 설 새 없이, 쉼 없이, 쉴 틈 없이, 중단 없이, 하염없이’는 계속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연달아,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 줄기차게’로 변경합니다. ‘부장은 질문을 설 틈 없이 받았다’는 ‘부장은 질문은 줄지어 받았다’로 고칩니다. 다만 ‘하염없이’는 다른 뜻으로 ‘멍하니, 공허하게’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천정만 보았다’는 ‘그는 멍하니 천정만 보았다’로 수정합니다.

③ ‘거리낌 없이, 격의 없이, 기탄없이, 스스럼없이, 허물없이’는 ‘있는 그대로, 터놓고’로 바꿉니다. ‘위원들은 거리낌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는 ‘위원들은 있는 그대로 의견을 교환했다’로 변경합니다. ‘실장은 부하직원과 격의 없이 지냈다’는 ‘실장은 부하직원과 터놓고 지냈다’로 순화합니다.

④ ‘기다릴 필요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지연 없이, 지체 없이’는 즉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곧(바로), 곧장, 냉큼, 바로, 빨리, 서둘러, 얼른, 어서, 재빨리, 재깅, 후딱’으로 다듬습니다. ‘그는 기다릴 필요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는 ‘그는 바로 기차에 탑승했다’로 변경합니다. ‘당신은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는 ‘당신은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⑤ ‘까닭 없이, 부질없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필요 없이’는 트집을 잡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공연스레, 공연히, 괜히, 괜스레’로 고칩니다. ‘중국은 미국을 쓸데없이 자극하였다’는 ‘중국은 미국을 공연히 자극하였다’로 순화합니다. ‘영수는 팀장에게 이유 없이 책망을 받았다’는 ‘영수는 팀장에게 괜히 책망을 받았다’로 교정합니다.

⑥ ‘난데없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손쓸 틈도 없이, 예고 없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갑작스럽게, 불현듯, 예기치 못한, 엉겁결에, 얼떨결에’로 고칩니다. ‘친구가 난데없이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친구가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왔다'로 수정합니다. '침입자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는 '침입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로 교정합니다.

⑦ '남김없이, 누락 없이, 빠짐없이, 열외 없이, 예외 없이'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조리, 모두, 전부, 죄다, 철저히, 샅샅이, 낱낱이'로 교정합니다. '공무원은 탈세를 남김없이 조사하였다'는 '공무원은 탈세를 샅샅이 조사하였다'로 수정합니다. '학생들은 예외 없이 참석하였다'는 '학생들은 모조리 참석하였다'로 변경합니다.

⑧ '남녀노소 관계없이, 내남없이, 너나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랄 것도 없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누구 할 것 없이'는 '모두'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구든지, 모두'로 교정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돈을 좋아한다'는 '누구든지 돈을 좋아한다'로 고칩니다. '수해복구에 너나없이 발 벗고 나섰다'는 '수해복구에 모두 발 벗고 나섰다'로 순화합니다.

⑨ '다시없이,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더할 수 없이, 비할 데 없이, 비할 수 없이, 세상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를 데 없이, 이를 것 없이, 한없이'는 최상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장, 매우, 몹시, 무척'으로 바꿉니다. '어제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다'는 '어제 날씨는 매우 따뜻했다'로 고칩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조망만큼은 비할 데 없이 시원스럽다'는 '지리산 천왕봉의 조망만큼은 매우 시원스럽다'로 교정합니다. 앞서 설명한 끝없이 따위도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⑩ '두말없이, 두말할 것 없이, 두말할 필요(나위) 없이'는 두 가지로 순화합니다. 첫째 순종을 나타내면 '고분고분, 순순히'로 고칩니다. '사장님은 두말없이 나를 믿고 돈을 내어 주었다'는 '사장님은 순순히 나를 믿고 돈을 내어 주었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당위를 나타내면 '당연히, 마땅히'로 바꿉니다. '내 희망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는 '내 희망은 당연히 평화입니다'로 수정합니다.

⑪ '물샅틈없이, 빈틈없이, 실수 없이, 차질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흠잡을 데가 없이'는 완벽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꼼꼼히, 낱낱이, 샅샅이, 완벽히, 하나 하나'로 손질합니다. '직원은 행사를 물샅틈없이 준비하였다'는 '직원은 행사를 꼼꼼히 준비하였다'로 바꿉니다. '그는 빈틈없이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그는 완벽히 실험을 진행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⑫ '별도리 없이, 별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릴없이, 할 도리 없이, 할 수 없이, 할 일 없이'는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피치 못해'로 고칩니다. '우리 부부는 마트가 닫혀 하릴없이 굶었다'는 '우리 부부는 마트가 닫혀 불가피하게 굶었다'로 교정합니다.

다만 '하릴없이'는 다른 뜻으로 '꼭, 반드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을에 부석사를 하릴없이 방문할 것이다'는 '나는 가을에 부석사를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로 수정합니다.

⑬ '별일 없이,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탈 없이'는 안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사히, 무탈하게, 안전하게'로 교정합니다. '자녀가 아무 일 없이 귀가해서 부모는 안심하였다'는 '자녀가 무사히 귀가해서 부모는 안심하였다'로 순화합니다.

⑭ '셀 수 없이, 수없이, 열거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는 무한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수히, 수많은, 허다하게'로 순화합니다. '지난해 주민복지센터에 민원 제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지난해 주민복지센터에 민원 제기가 무수히 많았다'로 교정합니다.

⑮ '에/와+관계없이, 에/와 상관없이, 에/와 아랑곳없이, (의) 구별 없이, (의) 구분 없이'는 세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첫째 첨가를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은커녕' 따위로 순화합니다. '국민 건강에 아랑곳없이 돈벌이에 급급한 회사는 비난을 받았다'는 '국민 건강은커녕 돈벌이에 급급한 회사는 비난을 받았다'로 교정합니다.

둘째 '무관(無關)'을 나타내는 말로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든 말든, 하든지 말든지, 아무튼(지), 압튼, 어떻든(지), 어쨌건, 어쨌든(지), 여하튼(지), 하여튼(지)' 따위로 변경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다'는 '공무원 시험은 자격을 취득하든 말든 응모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셋째 '모두, 전부, 누구나, 무엇이든지'로 수정합니다. '고용될 기회는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고용될 기회는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로 순화합니다.

⑯ '여지없이, 영락없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의심 없이, 의심할 여지없이'는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분명히, 확실히'로 변경합니다. '올해도 영락없이 봄이 왔다'는 '올해도 확실히 봄이 왔다'로 순화합니다.

2. 일본어 투 명사 겸용 부사 고치기

고유어로 만든 부사는 살아있는 오징어이고, 한자어 명사로 만든 일본어 투 부사는 죽은 오징어에 비유됩니다. 죽은 오징어를 살리듯 일본어 투 부사는 고유어로 만든 부사로 살려야 글 쓴 사람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앞서 ‘적’과 ‘의’ 편에서 한자어 명사 형태의 부사를 학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한자어 명사 형태로 명사와 부사로 함께 쓰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어 투 명사 겸용 부사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되도록 우리말 고유어계 부사로 고쳐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것을 고쳐보겠습니다.

① ‘극력’은 ‘강력하게, 힘껏’으로 바꿉니다. ‘야당은 타협안을 극력 주장하였다’는 ‘야당은 타협안을 힘껏 주장하였다’로 변경합니다.

② ‘급거’는 ‘서둘러, 허둥지둥’으로 바꿉니다. ‘도지사는 급거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는 ‘도지사는 서둘러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로 수정합니다.

③ ‘단연’은 ‘단연코, 가장, 훨씬’으로 순화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단연 최고다’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좋다’로 교정합니다.

④ ‘대거’는 ‘대규모로, 왕창’으로 교정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대거 몰려왔다’는 ‘중국 관광객이 대규모로 몰려왔다’로 수정합니다.

⑤ ‘대개’는 두 가지로 순화합니다. 하나는 ‘거의, 꽤 많은, 대다수, 대부분’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대개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이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명문대에 들어갔다’로 수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보통, 흔히’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씨앗은 대개 이른 봄에 뿌린다’는 ‘씨앗은 보통 이른 봄에 뿌린다’로 바꿉니다.

⑥ ‘대략’은 ‘가량, 남짓, 만치, 만큼, 약, 어림잡아’로 다듬습니다. ‘그녀의 수입은 대략 두 배가 늘었다’는 ‘그녀의 수입은 어림잡아 두 배가 늘었다’로 변경합니다.

⑦ ‘돌연, 아연, 홀연’은 ‘갑자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엉겁결에, 얼떨결에, 불현듯’으로 변경합니다. ‘그 사람은 돌연 회장직을 사퇴하였다’는 ‘그 사람은 갑자기 회장직을 사퇴하였다’로 순화합니다.

‘폴 죽은 아이들이 아연 생기가 돌았다’는 ‘폴 죽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생기가 돌았다’로 수정합니다. ‘그는 홀연 사라졌다’는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로 교정합니다.

⑧ ‘별단, 별반, 별양’은 부정문과 잘 어울립니다. 이때는 ‘그다지’로 바꿉니다. ‘스포츠 복지도 일반 복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스포츠 복지도 일반 복지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로 수정합니다.

⑨ ‘사실, 실지’는 ‘진짜로, 실제로, 실지로’가 잘 어울립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의사가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했다’는 ‘할아버지는 실제로 의사가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했다’로 수정합니다.

⑩ ‘상시, 항시’는 ‘늘(상), 언제나, 항상’으로 바꿉니다. ‘그는 아이 사진을 상시 가지고 다녔다’는 ‘그는 아이 사진을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로 순화합니다.

⑪ ‘속속’은 ‘연달아,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로 변경합니다. ‘남해안 여행상품 개발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남해안 여행상품 개발은 줄지어 진행되고 있다’로 수정합니다.

⑫ ‘순차’는 ‘차례대로, 차례차례’로 바꿉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다음 달부터 순차 도입할 예정입니다’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로 순화합니다.

⑬ ‘시종’은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로 바꿉니다. ‘국장은 시종 경직된 표정으로 말했다’는 ‘국장은 내내 경직된 표정으로 말했다’로 변경합니다.

⑭ ‘십분’은 ‘넉넉히, 충분히’로 바꿉니다. ‘신규 직원은 자기 역량을 십분 발휘하였다’는 ‘신규 직원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로 변경합니다.

⑮ ‘연일’은 ‘날마다’로 변경합니다. ‘가뭄이 연일 계속되자 저수지의 물이 말랐다’는 ‘가뭄이 날마다 계속되자 저수지의 물이 말랐다’로 고칩니다.

⑯ ‘일거, 일괄, 일약’은 ‘단박에, 단숨에, 단번에, 한꺼번에’로 교정합니다. ‘미국과 진행하고 있었던 관세 협약이 일괄 타결되었다’는 ‘미국과 진행하고 있었던 관세 협약이 한꺼번에 타결되었다’로 변경합니다.

⑰ ‘일응’은 ‘일단, 우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찾을 수 없는 일본어인데도 마구 사용합니다. 이것은 ‘먼저, 어쨌든, 한번’으로 바꿉니다. ‘불가피한 조치인 것은 일응 인정되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불가피한 조치인 것은 어쨌든 인정되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다’로 수정합니다.

⑱ ‘일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잠깐, 잠시, 한때’를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꺼번에’를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일시 휴업 중인 가게가 늘었다’는 ‘코로나로 임시 휴업 중인 가게가 늘었다’로 수정합니다. ‘피난민이 부산으로 일시에 몰렸다’는 ‘피난민이 부산으로 한꺼번에 몰렸다’로 교정합니다.

⑲ ‘일층’은 ‘더욱, 한결, 한층’으로 교정합니다. 또한 ‘가일층’은 ‘일층’을 강조한 말로 ‘더욱더, 더한층, 한층 더’로 순화합니다. ‘경남은 비상 태세를 일층 강화했다’는 ‘경남은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했다’로 변경합니다. ‘그 전쟁이 가일층 치열해졌다’는 ‘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졌다’로 바꿉니다.

⑳ ‘재삼’은 ‘거듭, 다시금, 되풀이해서’로 변경합니다. ‘그는 환경의 중요성을 재삼 일깨워 줬다’는 ‘그는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 줬다’로 수정합니다.

㉑ ‘적의’는 ‘알맞게, 적절히’로 수정합니다. ‘회사는 사원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게 적의 조치하겠습니다’는 ‘회사는 사원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게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로 교정합니다.

㉒ ‘전연’은 부정문에서 사용되면 ‘도무지, 전혀, 조금도’로 교정합니다. 하지만 긍정문에서 사용되면 ‘모조리, 온통, 아주, 완전히, 전부’로 순화합니다. ‘그녀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전연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그녀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도무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다’로 수정합니다. ‘이것은 주문한 것과 전연 달랐다’는 ‘이것은 주문한 것과 완전히 달랐다’로 변경합니다.

㉓ ‘종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의미하므로 ‘하루 내내’로 교정합니다. 더욱이 ‘종일, 온종일, 진종일’은 하루를 포함하므로 ‘하루’를 붙이면 중복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는 ‘우리는 하루 내내 회의를 했다’로 고칩니다. ‘그는 온종일 집구석에 굶었다’는 ‘그는 하루 내내 집구석에 굶었다’로 변경합니다.

㉔ ‘필경’은 ‘결국, 끝내, 마침내’로 다듬습니다. ‘독재자는 필경 멸망할 것이다’는 ‘독재자는 끝내 멸망할 것이다’로 변경합니다.

3. 일본어 투 1글자 부사 고치기

우리말은 일본어 투 1글자 부사를 답습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유어를 비롯한 쉬운 말로 고쳐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고 고쳐 보겠습니다.

① ‘가히’는 긍정문에서 ‘과연, 정말로, 진짜로, 충분히’로 변경합니다. ‘정부는 가히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는 정말로 심각한 빈부격차를 시정해야 한다’로 교정합니다. 하지만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어찌’로 가다듬습니다. ‘가히 선비라 하겠는가?’는 ‘어찌 선비라 하겠는가?’로 수정합니다.

② ‘감히’는 두 가지로 바꿉니다. 하나는 ‘함부로, 만만히’로 수정합니다. ‘그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그는 함부로 얼굴을 들지 못했다’로 다듬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릅쓰고, 주저넘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례인 줄 알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는 ‘결례인 줄 알지만, 주저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로 변경합니다.

③ ‘공히, 여히’는 ‘(똑)같이, 모두, 함께’로 바꿉니다. ‘정부와 국민은 공히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은 모두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④ ‘과히’는 세 가지로 고칩니다.

첫째 ‘너무, 지나치게’로 바꿉니다. ‘과히 걱정하지 말라’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로 변경합니다. 둘째 ‘과연, 정말로, 역시’로 받아줍니다. ‘과히 축제의 주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과연 축제의 주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교정합니다. 셋째 부정문에서는 ‘별로, 그다지’로 변경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여기서 과히 멀지 않습니다’는 ‘사고가 난 장소는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로 순화합니다.

⑤ ‘귀히’는 ‘귀중히, 소중히’로 변경합니다. ‘무남독녀인 그녀는 부모님 손에 너무 귀히 자라서 버릇이 없다’는 ‘무남독녀인 그녀는 부모님 손에 너무 귀중히 자라서 버릇이 없다’로 수정합니다.

⑥ ‘극히’는 ‘가장, 최고로, 지극히, 대단히, 매우’로 수정합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극히 간단하였다’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였다’로 변경합니다.

⑦ ‘급히, 속히’는 ‘곧(바로), 곧장, 냉큼, 바로, 빨리, 서둘러, 얼른, 어서, 재빨리, 재깅, 후딱’으로 바꿉니다. ‘그녀는 전보를 받고 집으로 속히 돌아왔다’는 ‘그녀는 전보를 받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로 고칩니다. 또한 ‘신속히, 시급히, 조속히, 지급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⑧ ‘기히’는 ‘벌써, 앞서, 이미’로 교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히 추진 중인 대책을 다시 점검하였다’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다시 점검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⑨ ‘능히’는 ‘거뜰히, 넉넉히, 쉽사리, 손쉽게, 수월히, 용케, 잘, 충분히’로 수정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는 위기 상황을 거뜰히 극복할 수 있다’로 바꿉니다.

⑩ ‘심히’는 ‘매우, 몹시, 무척’으로 변경합니다. 또 앞서 설명한 ‘극히’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막돼먹은 언사에 심히 불쾌했다’는 ‘그 남자는 그녀의 막돼먹은 언사에 매우 불쾌했다’로 수정합니다.

⑪ ‘엄히’는 두 가지로 고칩니다. 하나는 ‘삼엄히, 엄정히, 엄중히, 준엄히’로 받아 줍니다. ‘이사는 책임자를 엄히 꾸짖었다’는 ‘이사는 책임자를 엄중히 꾸짖었다’로 다듬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지런히, 단정히’로 수정합니다. ‘너는 몸가짐을 엄히 해라’는 ‘너는 몸가짐을 단정히 해라’로 교정합니다.

⑫ ‘실로’는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를 의미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살아오다니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살아오다니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로 고칩니다.

⑬ ‘실은’은 ‘사실은, 실제로는’으로 고칩니다. ‘아까는 안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배가 무척 고팠다’는 ‘아까는 안 먹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배가 무척 고팠다’로 순화합니다.

⑭ ‘실히, 족히’는 ‘넉넉히, 충분히’로 고칩니다. ‘실히 한 달은 걸려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충분히 한 달은 걸려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로 교정합니다. ‘그녀는 족히 십 리가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그녀는 넉넉히 십 리가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로 변경합니다.

⑮ ‘정(正)히’는 두 가지로 고칩니다.

첫째 ‘바로, 확실히, 틀림없이’로 고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히 영수함’은 ‘위와 같이 확실히 받았음’으로 교정합니다. 둘째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따위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히 가시려거든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는 ‘당신이 정말로 가시려거든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로 수정합니다.

⑯ ‘정(淨)히’는 ‘깨끗이, 단정히, 정갈히’로 고칩니다. ‘그녀는 밤에 돌아온 남편을 위해 밥을 정히 지었다’는 ‘그녀는 밤에 돌아온 남편을 위해 밥을 정갈히 지었다’로 수정합니다.

⑰ ‘중히’는 두 가지로 고칩니다.

하나는 ‘귀중히, 소중히’로 순화합니다. ‘그녀는 어머니 유품을 중히 여겼다’는 ‘그녀는 어머니 유품을 귀중히 여겼다’로 변경합니다. 다른 하나는 ‘무겁게, 엄중히’로 교정합니다. ‘판사는 민생사범을 중히 처벌했다’는 ‘판사는 민생사범을 무겁게 처벌했다’로 수정합니다.

⑱ ‘친히’는 ‘몸소, 직접’으로 바꿉니다. ‘사모님께서 그녀의 친구들을 위해 친히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모님께서 그녀의 친구들을 위해 직접 피자를 만들어 주셨다’로 수정합니다.

⑲ ‘쾌히’는 두 가지로 고칩니다.

첫째 ‘기꺼이, 시원스레, 시원히, 유쾌히, 통쾌히, 흔쾌히’로 교정합니다. ‘사장은 사원의 주장을 쾌히 승낙했다’는 ‘사장은 사원의 주장을 흔쾌히 승낙했다’로 순화합니다. 둘째 ‘쾌차하게’로 수정합니다. ‘신체가 쾌히 건강한지라’는 ‘신체가 쾌차하게 건강한지라’로 변경합니다.

⑳ ‘필히’는 ‘꼭, 반드시’로 수정합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는 ‘청사를 출입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㉑ ‘험히’는 두 가지로 변경합니다.

첫째 ‘험상궂게’로 바꿉니다. ‘그 사람 얼굴이 어찌 험히 생겼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그 사람 얼굴이 어찌 험상궂게 생겼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로 교정합니다. 둘째 ‘막, 함부로, 위협하게’로 수정합니다. ‘그는 몸을 험히 다루었다’는 ‘그는 몸을 막 다루었다’로 순화합니다.

4. 일본어 투 한자어 명사+‘히’ 형태의 부사 고치기

「한국어 어문 규범」 51항⁴⁰⁾을 살펴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한국어 어문 규범-해설」을 살펴보면 “부사 끝음절을 겹쳐 쓰는 명사 뒤, ㅅ(사이시옷) 받침 뒤, ㅂ(비읍)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더욱이’와 같은 부사 뒤에 ‘이’가 붙는다”라고 해설합니다. 또 “사이시옷 받침을 아닌 ‘하다’가 붙는 어근 뒤에 ‘히’를 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이’와 ‘히’ 때문에 외국인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히’가 붙는 부사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차라리 고유어와 사이시옷과 결합하는 형태를 빼고, 한자어와 결합하거나 ‘하다’가 붙을 수 있는 형태는 ‘히’를 붙입니다. 보기를 들면 ‘간편히, 무단히’는 한자어가 결합하고, 능히, 심히도 1글자 한자어와 결합하고, ‘꼼꼼히, 나른히’는 ‘하다’가 붙을 수 있기에 모두 ‘히’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사이시옷이 붙거나 고유어는 ‘이’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기웃이, 나긋 나긋이, 남짓이, 따뜻이’처럼 사이시옷이 붙거나, ‘가벼이, 곰곰이, 뽀뽀이’는 ‘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일본어 투 한자어 명사와 ‘히’로 된 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말과 일본어의 한자어가 일치합니다. 보기를 들면 ‘강고, 다분, 돌연, 무단’ 따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부사의 탄생 방식을 설명한 대로 우리말이 일본어의 한자어 명사에 조사가 붙는 형태로 만든 부사를 명사+‘히’ 형태로 직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유어 계통을 비롯한 쉬운 말로 고치거나 ‘게, 도록’과 같은 부사형 어미를 넣어서 바꿉니다.

① ‘강고히, 견고히, 견실히, 투철히’는 ‘굳세게, 단단히, 튼튼히’로 다듬습니다. ‘양당은 진영 논리를 더욱 강고히 하였다’는 ‘양당은 진영 논리를 더욱 단단히 하였다’로 고칩니다. ‘그는 의지를 견고히 하였다’는 ‘그는 의지를 굳세게 하였다’로 교정합니다. ‘계단은 화강석으로 견실히 쌓았다’는 ‘계단은 화강석으로 튼튼히 쌓았다’로 수정합니다. ‘회사는 인권경영 체제를 투철히 하였다’는 ‘회사는 인권경영 체제를 굳세게 하였다’로 순화합니다.

40)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2022년 7월 9일 확인,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1®ltn_no=183#a183.

② ‘공공연히’는 ‘대놓고, 드러내 놓고, 버젓이’로 고칩니다. ‘그 사람들은 심야에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했다’는 ‘그 사람들은 심야에 불법 영업을 버젓이 자행했다’로 수정합니다.

③ ‘과도히’는 ‘매우, 몹시, 지나치게’로 고칩니다. ‘나는 설날에 기름진 음식을 과도히 먹어서 배가 아팠다’는 ‘나는 설날에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배가 아팠다’로 변경합니다.

④ ‘긴절히’는 ‘귀중히, 소중한’로 고칩니다. ‘어머님들은 동백기름을 긴절히 사용하였다’는 ‘어머님들은 동백기름을 귀중히 사용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⑤ ‘다분히’는 ‘꽤, 어느 정도, 의심하건대, 짐작하건대, 추측하건대’로 바꿉니다. ‘그 회사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는 ‘그 회사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은 꽤 있다’로 순화합니다.

⑥ ‘돌연히, 졸연히’는 ‘갑자기, 갑작스레, 대뜸’으로 변경합니다. ‘잘 달리던 기차가 선로에서 돌연히 멈춰 섰다’는 ‘잘 달리던 기차가 선로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로 수정합니다.

⑦ ‘등한히, 태만히’는 ‘계을리, 소홀하게, 소홀히’로 바꿉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업무를 등한히 처리했다’는 ‘그는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로 변경합니다.

⑧ ‘막막히’는 ‘쓸쓸히, 외로이’로 바꿉니다. ‘그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십여 년을 타국에서 막막히 지냈다’는 ‘그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십여 년을 다른 나라에서 쓸쓸히 지냈다’로 변경합니다.

⑨ ‘막연히’는 ‘불투명하게, 아득히, 어슴푸레, 어렴풋이’로 고칩니다. ‘나는 막연히 짐작만 했다’는 ‘나는 어슴푸레 짐작만 했다’로 교정합니다.

⑩ ‘면밀히, 세밀히, 세세히, 주도면밀히’는 ‘꼼꼼히, 날날이, 살살이, 하나하나’로 수정합니다. ‘그는 곤충을 면밀히 관찰했다’는 ‘그는 곤충을 날날이 관찰했다’로 바꿉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밀히 만들었다’는 ‘그녀는 계획을 꼼꼼히 만들었다’로 교정합니다.

⑪ ‘명료히, 명명백백히’는 ‘분명히, 확실히, 명백히, 명확히’로 바꿉니다. ‘사건의 윤곽이 명료히 드러났다’는 ‘사건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났다’로 다듬습니다.

⑫ ‘무단히’는 ‘무단으로, 제멋대로, 함부로’ 따위로 바꿉니다. ‘그녀는 전화도 없이 무단히 결근하였다’는 ‘그녀는 전화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결근하였다’로 바꿉니다.

⑬ ‘부단히’는 ‘꾸준히, 줄기차게’로 교정합니다. ‘그녀는 자기 꿈인 작곡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그녀는 자기 꿈인 작곡가가 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로 수정합니다.

⑭ ‘상당히’는 ‘꽤, 어지간히, 제법’으로 변경합니다. ‘그 작가는 기자에게 곤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그 작가는 기자에게 곤란한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다’로 교정합니다.

⑮ ‘상세히, 소상히’는 ‘자세히, 분명히’로 바꿉니다. ‘목격자는 교통사고의 경위를 경찰에게 소상히 설명하였다’는 ‘목격자는 교통사고의 경위를 경찰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⑯ ‘서서히’는 ‘점점, 조금씩,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둘씩’으로 변경합니다. ‘서울에서 올림픽 유치가 서서히 예열되고 있다’는 ‘서울에서 올림픽 유치가 조금씩 예열되고 있다’로 순화합니다.

⑰ ‘일제히’는 ‘모조리, 몽땅, 죄다, 통째로, 한꺼번에’로 수정합니다. ‘정부는 1월부터 위험 시설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입니다’는 ‘정부는 1월부터 위험 시설을 모조리 점검할 예정입니다’로 변경합니다.

⑱ ‘절절히’는 ‘마디마디, 매우 간절히, 사무치게, 절실히’로 바꿉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절절히 그리워했다’는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다’로 순화합니다.

⑲ ‘확연히, 현저히’는 ‘뚜드러지게, 도드라지게, 뚜렷이, 부쩍’으로 순화합니다. ‘코로나로 확연히 달라진 거리 풍경’은 ‘코로나로 부쩍 달라진 거리 풍경’으로 바꿉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그 지역의 인구가 도드라지게 증가하였다’로 변경합니다.

5. 일본어 고유어계 부사 고치기

일본어의 고유어계 부사는 대부분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동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산이라면 양젓물도 마시려는 것처럼 이것도 마구 가져와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말을 고쳐보겠습니다.

① ‘공교롭게도’는 ‘때마침, 하필이면’으로 다듬습니다. ‘공교롭게도 내 생일과 할아버지의 제사가 겹쳤다’는 ‘하필이면 내 생일과 할아버지의 제사가 겹쳤다’로 변경합니다.

② ‘당초부터, 애초부터’는 ‘원래대로, 원래부터, 처음에는, 최초로, 최초에는, 처음부터’로 변경합니다. ‘그 계획은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그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로 바꿉니다. ‘그 업무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는 ‘그 업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③ ‘보다’는 ‘나는 너보다 키가 큼니다’처럼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부사로 사용되는 ‘보다’는 ‘더, 한결, 한층’으로 수정합니다.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보다 높이’는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로 바꿉니다.

④ ‘미연에, 사전에’는 ‘먼저, 미리, 앞서, 진작’으로 교정합니다. ‘그 법안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만들었다’는 ‘그 법안은 교통사고를 미리 막으려고 만들었다’로 바꿉니다.

⑤ ‘삼가’는 ‘정중히, 황공히’로 바꿉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는 ‘유가족 여러분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로 교정합니다.

⑥ ‘실상’은 ‘실제로, 실지로’가 어울립니다. ‘실상 제가 죄를 지었다’는 ‘실제로 제가 죄를 지었다’로 바꿉니다.

⑦ ‘애석하게도’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로 바꿉니다. ‘애석하게도 원서접수가 마감되었다’는 ‘안타깝게도 원서접수가 마감되었다’로 고칩니다.

⑧ ‘원컨대’는 ‘바라건대, 제발’로 바꿉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로 교정합니다.

⑨ ‘일념으로’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한결같이’로 교정합니다. ‘그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몰두했다’는 ‘그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연구에 몰두했다’로 수정합니다.

⑩ ‘일익’은 ‘나날이, 날마다’로 순화합니다. ‘그 연구원은 유럽 열차가 일익 변창하는 이유를 밝혔다’는 ‘그 연구원은 유럽 열차가 나날이 변창하는 이유를 밝혔다’로 다듬습니다.

⑪ ‘자못’은 ‘꽤,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아주’로 교정합니다. ‘이 대학교에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와 우리는 자못 기대를 많이 하였다’는 ‘이 대학교에 처음으로 신입생이 들어와 우리는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⑫ ‘재차’는 ‘거듭, 다시금’으로 교정합니다. ‘그 상관은 부하직원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는 ‘그 상관은 부하직원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로 수정합니다.

6. 서술어 형태의 부사 고치기

부정어로 만든 후치사 상당구에서 ‘에 다름없다, 에 불과하다’와 같은 서술어 형태로 부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고쳤습니다. 또한 ‘없이’는 ‘없다’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서술어는 부사와 서술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고쳐보겠습니다.

① ‘계속하다’는 ‘연달아, 연신,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와 서술어로 가다듬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를 계속하다 보니 피곤했다’는 ‘그는 줄곧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피곤했다’로 변경합니다.

② ‘고작이다’는 ‘겨우, 고작, 기껏해야’와 서술어로 교정합니다. ‘그 노승은 허름한 의복 한 벌이 고작이었다’는 ‘그 노승은 기껏해야 허름한 의복 한 벌뿐이었다’로 순화합니다.

③ ‘을/를 금할 수 없다, 을/를 금할 길 없다, 짝이 없다, 그지없다, 한이 없다’는 최상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몹시, 매우, 몹시, 무척’과 서술어로 다듬습니다. ‘애통하기 짝이 없다’는 ‘매우 가슴이 아프다’로 순화합니다. ‘이산가족은 다시 만나서 기쁘기 한이 없었다’는 ‘이산가족은 다시 만나서 무척 기뻐다’로 변경합니다.

④ ‘ 으뜸가다, 제일이다, 최고(이)다’는 최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매우, 몹시’와 서술어로 고칩니다. ‘피곤할 때 휴식이 제일입니다’는 ‘피곤할 때 휴식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로 변경합니다. ‘부동산이 투자 가운데 최고입니다’는 ‘부동산이 투자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로 바꿉니다.

⑤ ‘당연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당연히, 마땅히, 분명히, 확실히’와 서술어로 수정합니다. ‘귀중품일수록 보관비가 비싼 것은 당연했다’는 ‘귀중품일수록 보관비가 당연히 비쌌다’로 순화합니다. ‘그 사람 주장은 거짓이 명백합니다’는 ‘그 사람 주장은 명백히 거짓입니다’로 변경합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가 분명했다’는 ‘이곳은 분명히 신성한 장소였다’로 고칩니다. ‘그녀가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는 ‘그녀는 확실히 올 것이다’로 교정합니다.

⑥ ‘대부분이다, 대다수(이)다, 허다하다’는 ‘매우, 무수히’와 짝지어 ‘많다, 하다’ 따위의 서술어로 수정합니다. ‘재생품 교체를 권장하는 가게가 대다수입니다’는 ‘재생품 교체를 권장하는 가게가 매우 많습니다’로 교정합니다. ‘가격만을 보고 사는 소비자가 허다하다’는 ‘가격만을 보고 사는 소비자가 매우 많다’로 바꿉니다.

⑦ ‘하여 마지않는다’는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와 서술어 고칩니다.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된 것을 경하해 마지않습니다’는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된 것을 정말로 축하합니다’로 변경합니다.

7. 한문 투 부사 고치기

일본어 투 부사만큼 고쳐야 할 한문 투 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글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므로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합니다.

① ‘거개, 거(지)반’은 ‘거의 모든, 꽤 많은, 대다수, 대부분’으로 변경합니다. ‘거개의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을 해고하였다’는 ‘대다수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을 해고하였다’로 바꿉니다. ‘부자는 노름으로 거지반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부자는 노름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② ‘급기야’는 ‘결국, 마지막에는, 마침내’로 고칩니다. ‘그녀는 가출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그녀는 가출한 것도 모자라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로 변경합니다.

③ ‘기실’은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진짜로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로 수정합니다.

④ ‘기왕(에), 이왕(에), 기왕이면, 이왕이면’은 ‘내친김에, 어차피’로 고칩니다. ‘기왕 신세를 진 김에 점심도 주세요’는 ‘어차피 신세를 진 김에 점심도 주세요’로 순화합니다. 다만 ‘기왕’이 명사로 사용되면 ‘과거로, 옛날로, 그전에’로 바꿉니다. 민법 824조의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혼인 취소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합니다.

⑤ ‘누차’는 ‘거듭, 누누이, 여러 번, 여러 차례, 자주’로 다듬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자연보호를 누차 강조했다’는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연설에서 누누이 자연보호를 누누이 강조했다’로 바꿉니다.

⑥ ‘대저’는 ‘대체로 보면, 무릇’으로 바꿉니다. ‘시를 읽는 일이 대저 시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시를 읽는 일이 무릇 시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로 변경합니다.

⑦ ‘미상불’은 ‘꽤, 아주,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따위로 바꿉니다. ‘그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니 미상불 기분이 좋았다’는 ‘그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니 아주 기분이 좋았다’로 변경합니다.

⑧ ‘부득불, 불가불’은 ‘부득이, 불가피하게, 피치 못해’로 바로잡습니다. ‘집중 호우가 예보되어 있어서 이번 달 산불 예방 행사를 부득불 5일 먼저 시행하였다’는 ‘집중 호우가 예보되어 있어서 이번 달 산불 예방 행사를 부득이 5일 먼저 시행하였다’로 변경합니다.

⑨ ‘불과’는 ‘겨우, 고작, 기껏해야, 채’로 다듬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를 개업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망했다’는 ‘그 남자는 가게를 개업한 지 겨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망했다’로 변경합니다.

⑩ ‘불연하면’은 ‘아니면, 않으면’으로 바꿉니다. ‘네 말이 사실이냐? 불연하면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네 말이 사실이냐? 아니면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로 교정합니다.

⑪ ‘어언(간)’은 ‘벌써, 어느덧, 어느새’로 변경합니다. ‘직장동료와 친구의 연을 맺고 지내온 지 어언 20년이 되었다’는 ‘직장동료와 친구의 연을 맺고 지내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로 변경합니다.

⑫ ‘언필칭’은 ‘말마다, 말할 때마다’로 바꿉니다. ‘사기꾼은 언필칭 의리 빼면 시체라고 하였다’는 ‘사기꾼은 말마다 의리 빼면 시체라고 하였다’로 수정합니다.

⑬ ‘여반장’은 ‘손쉽게, 수월히, 아주 쉽게’로 변경합니다. ‘장 담그는 일이 여반장 처럼 느껴졌다’는 ‘장 담그는 일이 아주 쉽게 느껴졌다’로 고칩니다.

⑭ ‘연방’은 ‘연달아, 연신,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로 고칩니다. ‘자동차가 새로 개설된 고속도로에 연방 지나갔다’는 ‘자동차가 새로 개설된 고속도로에 줄지어 지나갔다’로 변경합니다.

⑮ ‘응당, 의당’은 ‘당연히, 마땅히’로 교정합니다. ‘응당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로 수정합니다. ‘늙은 부모님을 돌봐 드리는 것은 자식으로 응당 해야 할 도리이다’는 ‘늙은 부모님을 돌봐 드리는 것은 자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로 변경합니다.

⑯ ‘종내’는 ‘마지막, 결국, 끝내, 끝끝내’로 수정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종내 오지 않았다’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로 변경합니다.

⑰ ‘진즉’은 ‘미리, 앞서, 진작’으로 바꿉니다. ‘너는 일을 진즉 처리했어야 했다’는 ‘너는 일을 진작 처리했어야 했다’로 수정합니다.

⑱ ‘폐일언’은 ‘한마디로’라는 말로 순화합니다. ‘우리는 폐일언하고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우리는 한마디로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 한다’로 교정합니다.

⑲ ‘필시’는 ‘틀림없이, 확실히’로 수정합니다. ‘그녀가 오늘 결근한 것은 필시 사연이 있을 것이다’는 ‘그녀가 오늘 결근한 것은 틀림없이 사연이 있을 것이다’로 순화합니다.

⑳ ‘황차’는 ‘더군다나, 하물며’로 교정합니다. ‘황차 사고를 당한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는 ‘하물며 사고를 당한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로 수정합니다.

표 10 '없이' 형태의 부사 고치기

순화 대상	뜻이 비슷한 다른 부사	고치기
간단없이, 끊임없이, 숨 돌릴 틈/겨를/사이/없이, 쉴 새 없이, 쉼 없이, 쉴 틈 없이, 중단 없이, 하염없이	부단히, 연방, 속속	연달아,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 줄기차게
기다릴 필요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지연 없이, 지체 없이	속히, 급히, 조속히, 조급히, 신속히, 시급히, 급거, 즉각, 즉시	곧(바로), 곧장, 냉큼, 바로, 빨리, 서둘러, 얼른, 어서, 재빨리, 재깅, 후딱
까닭 없이, 부질없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필요 없이	무단히	공연스레, 공연히, 괜히, 괜스레
난데없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손 쓸 틈도 없이, 예고 없이	돌연, 아연, 홀연, 졸지, 불시, 별안간, 창졸간, 불의, 돌연히, 졸연히	갑자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엉겁결에, 얼떨결에, 불현듯
남김없이, 누락 없이, 빠짐없이, 열외 없이, 예외 없이	철저히, 일제히	모조리, 모두, 전부, 죄다, 철저히, 샅샅이, 낱낱이
다시없이,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더할 수 없이, 비할 데 없이, 비할 수 없이, 세상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를 데 없이, 이를 것 없이, 한없이	극히, 대단히, 극도로	가장, 매우, 몹시, 무척
두말없이, 두말 할 것 없이, 두말 할 필요(나위) 없이	응당, 의당, 물론	마땅히, 당연히
문제없이	능히	잘, 제대로, 쉽게, 거뜬히
물샬틈없이, 빈틈없이, 실수 없이, 차질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흠잡을 데가 없이	면밀히, 세밀히, 세세히, 주도면밀히	꼼꼼히, 낱낱이, 샅샅이, 완벽히, 하나하나
밤낮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상시, 항시	늘(상), 언제나, 항상
별 도리 없이, 별 수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릴없이, 할 도리 없이, 할 수 없이, 할 일 없이	부득불, 불가불	부득이, 불가피하게, 피치 못해
에/와+관계없이, 에/와 상관없이, 에/와 아랑곳없이, (의) 구별 없이, (의) 구분 없이	여하간, 하여간, 좌우(지)간	아무튼(지), 암튼, 어쨌든(지), 어쨌건, 어쨌든(지), 여하튼(지), 하여튼(지)
여지없이, 영락없이, 하릴없이, 의문의 여지없이, 의심할 여지없이, 틀림없이	명료히, 명명백백히	명확히, 분명히, 확실히

표 11 일본어 투 명사 겸용 부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극력	강력하게, 힘껏
급거	서둘러, 허둥지둥
단연	단연코, 가장, 훨씬
대거	대규모로, 왕창
대개 ^①	거의, 꽤 많은, 대다수, 대부분
대개 ^②	보통, 흔히
대략	가량, 남짓, 만치, 만큼, 약, 어림잡아
돌연, 아연, 홀연	갑자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엉겁결에, 얼떨결에, 불현듯
별단, 별반, 별양	그다지
사실, 실지	실제로, 실지로, 진짜로
상시, 항시	늘(상), 언제나, 항상
속속	연달아,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
순차	차례대로, 차례차례
시종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십분	넉넉히, 충분히
연일	날마다
일거, 일괄, 일약	단박에, 단숨에, 단번에, 한꺼번에
일응	먼저, 어쨌든, 한번
일시 ^①	임시, 잠깐, 잠시, 한때
일시 ^②	한꺼번에
일층	더욱, 한결, 한층
가일층	더욱더, 더한층, 한층 더
재삼	거듭, 다시금, 되풀이해서
적의	알맞게, 적절히
전연 ^①	도무지, 전혀, 조금도
전연 ^②	모조리, 온통, 아주, 완전히, 전부
종일, 온종일, 진종일	하루 내내
필경	결국, 끝내, 마침내

표 12 일본어 투 1글자 부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가히 ^①	과연, 진짜로, 정말로, 충분히
가히 ^②	어찌
감히 ^①	만만히, 함부로
감히 ^②	무릅쓰고, 주제넘게
공히, 여히	(똑)같이, 모두, 함께
과히 ^①	너무, 지나치게
과히 ^②	과연, 정말로, 역시
과히 ^③	그다지, 별로
귀히	귀중히, 소중히
극히	가장, 대단히, 지극히, 최고로, 매우
급히, 속히	곧(바로), 곧장, 냉큼, 바로, 빨리, 서둘러, 얼른, 어서, 재빨리, 재깅, 후딱
기히	벌써, 앞서, 이미
능히	거뜰히, 넉넉히, 쉽사리, 손쉽게, 수월히, 용케, 잘, 충분히
심히	매우, 몹시, 무척
엄히 ^①	삼엄히, 엄정히, 엄중히, 준엄히
엄히 ^②	가지런히, 단정히
실로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실은	사실은, 실제로는
실히, 족히	넉넉히, 충분히
정(正)히 ^①	바로, 확실히, 틀림없이
정(正)히 ^②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정(淨)히	깨끗이, 단정히, 정갈히
중히 ^①	귀중히, 소중히
중히 ^②	무겁게, 엄중히
친히	몸소, 직접
쾌히 ^①	기꺼이, 시원스레, 시원히, 유쾌히, 통쾌히, 흔쾌히
쾌히 ^②	쾌차하게
필히	꼭, 반드시
험히 ^①	험상궂게
험히 ^②	막, 위험하게, 함부로

표 13 일본어 투 한자어 명사+‘히’ 형태의 부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강고히, 견고히, 견실히, 투철히	굳세게, 단단히, 튼튼히
공공연히	대놓고, 드러내 놓고, 버젓이
과도히	매우, 몹시, 지나치게
긴절히	귀중히, 소중히
다분히	꽤, 어느 정도, 의심하건대, 짐작하건대, 추측하건대
돌연히, 졸연히	갑자기, 갑작스레, 대뜸
등한히, 태만히	게을리, 소홀하게, 소홀히
막막히	쓸쓸히, 외로이
막역히	불투명하게, 아득히, 어슴푸레, 어렴풋이
면밀히, 세밀히, 세세히, 주도면밀히	꼼꼼히, 낱낱이, 샅샅이, 철저히, 하나하나
명료히, 명명백백히	분명히, 명백히, 명확히, 확실히
무단히	무단으로, 제멋대로, 함부로
부단히	꾸준히, 줄기차게
상당히	꽤, 어지간히, 제법
상세히, 소상히	자세히, 분명히
서서히	점점, 조금씩,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둘씩
일제히	모조리, 몽땅, 죄다, 통째로, 한꺼번에
절절히	마디마디, 매우 간절히, 사무치게, 절실히
확연히, 현저히	두드러지게, 도드라지게, 뚜렷이, 부쩍

표 14 일본어 고유어계 부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공교롭게도	때마침, 하필이면
당초부터, 애초부터	원래대로, 원래부터, 처음부터, 처음에는, 최초로, 최초에는
보다	더, 한결, 한층
미연에, 사전에	먼저, 미리, 앞서, 진작
삼가	정중히, 항공히
실상	실제로, 실지로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원컨대	바라건대, 제발
일념으로	오로지, 한마음으로, 한결같이
일익	나날이, 날마다
자못	꽤, 아주,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재차	거듭, 다시금

표 15 서술어 형태의 부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계속하다	연달아, 연신,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서술어
고작이다	겨우, 고작, 기껏해야+서술어
을/를 금할 수 없다, 을/를 금할 길 없다, 짝이 없다, 그지없다, 한이 없다	몹시, 매우, 몹시, 무척+서술어
으뜸가다, 제일이다, 최고(이)다	가장, 몹시, 매우, 무척+서술어
당연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당연히, 마땅히, 분명히, 확실히+서술어
대부분이다, 대다수다, 허다하다	매우, 무수히+서술어
하여 마지않는다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서술어

표 16 한문 투 부사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거개, 거(지)반	거의 모든, 꽤 많은, 대다수, 대부분
급기야	결국, 마지막에는, 마침내
기실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기왕(에), 이왕(에), 기왕이면, 이왕이면	내친김에, 어차피
누차	거듭, 누누이, 여러 번, 여러 차례, 자주
대저	대체로 보면, 무릇
미상불	꽤, 아주,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부득불, 불가불	부득이, 불가피하게, 피치 못해
불과	겨우, 고작, 기껏해야, 채
불연하면	아니면, 않으면
어언(간)	벌써, 어느덧, 어느새
언필칭	말마다, 말할 때마다
여반장	손쉽게, 수월히, 아주 쉽게
연방	연달아, 연신, 연이어, 잇달아, 잇따라, 줄곧, 줄지어
응당, 의당	당연히, 마땅히
종내	마지막, 결국, 끝내, 끝끝내
진즉	미리, 앞서, 진작
폐일언	한마디로
필시	틀림없이, 확실히
황차	더군다나, 하물며

8. 접속부사를 시작하면서

접속표현이란 단어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논리가 있는 표현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더 설명하면 접속표현을 분류할 때 우리말은 접속부사를 주류로 받아들이나, 일본어는 접속사를 주류로 받아들입니다. 접속부사는 부사의 하위 개념으로 연결보다는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미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접속사는 품사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단어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 우리말과 일본어는 접속사를 다르게 분류합니다. 즉 일본어는 접속사를 10대 품사 분류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접속사를 9대 품사 분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어는 서양 문법에 받아서 접속사를 품사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어는 우리말과 같이 어미를 변형시켜 접속표현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접속 조사나 접속사를 사용하여 접속표현을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말은 연결어미나 접속부사로 접속표현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학교문법은 독립된 접속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학교문법과는 다르게 학계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접속표현을 접속부사로 볼지 아니면 접속사로 볼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먼저 접속부사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어 접속사를 가져와서 우리말 접속부사로 사용하면서 접속부사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들면 ‘결국, 다만, 먼저, 특히’ 따위를 접속부사로 사용하나, 국어사전에서는 접속부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법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접속부사는 부사에 하위 개념이므로 명사나 동사를 사용하여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면’과 같은 명사나 ‘그 위에’와 같은 명사구를 접속부사로 사용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더하여, 아울러, 앞서’와 같은 동사를 접속부사로 사용하면 문법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다음은 접속사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겠습니다.

접속사는 품사와 의미에서 독립성을 내세웁니다. 따라서 다른 품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고,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기를 들면 ‘그대 그리고 나’에서 ‘그리고’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더 나아가 ‘나’라는 의미를 강조하므로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더불어 우리말에서 완전한 독립성이 가진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도’와 같은 ‘그러/그리’ 계열을 빼고, 거의 없어 접속표현으로 사용할 팻감이 모자랍니다. 우리말에서 접속사와 접속부사의 견해가 대립하지만, 이 책에서는 학교문법대로 ‘접속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학습을 위해 나름대로 접속부사에 이름표를 붙이겠습니다. 저는 이시구로 케이(石黒圭)⁴¹⁾ 씨와 전영옥⁴²⁾ 씨가 분류한 접속부사를 참고로 삼아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주로 고쳐야 할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 형식명사류 접속부사, 부사형 적류 접속부사, 한자어 명사류 접속부사, 일본어 고유어계 접속부사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용어에 이름표를 붙여 볼까요?

첫째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란 후치사 상당구에서 조사가 생략되거나 후치사 상당구 앞에 ‘지시어(그/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보기를 들면 ‘이어, 이에 따라, 이로 인해, 그로 인해’ 따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자주 쓰는 접속부사 ‘따라서’도 실제 모습은 ‘에 따라서’에서 ‘에’가 탈락하였습니다.

둘째 형식명사류 접속부사란 형식명사를 그대로 접속부사로 사용하거나 형식명사 앞에 ‘지시어(그/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고로, 반면, 그 이후에, 그런 까닭에’ 따위가 있습니다.

셋째 부사형 적류 접속부사는 부사형인 ‘○○적으로’를 접속부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기를 들면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외적으로’ 따위가 있습니다.

넷째 한자어 명사류 접속부사는 일본어 한자어 명사에서 유래한 접속부사를 의미합니다. 보기를 들면 내지(乃至), 물론(勿論), 일단(一旦), 여하간(如何間) 따위가 있습니다.

다섯째 ‘일본어 고유어계 접속부사’는 일본어의 고유어 계통에서 유래한 접속부사를 의미합니다. 보기를 들면 ‘또한, 역시, 자에, 및’ 따위가 있습니다.

41) 구로야나기 시게오(黒柳子生),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쇄접속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2020), 23-25쪽, <http://www.riss.kr/link?id=T15530701>. (2021. 5. 2. 확인).

42) 전영옥, “구어와 문어의 접속부사 실현 양상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한국텍스트언어학회) 제22권 (2007): 표 2, <http://www.riss.kr/link?id=A75073998>, (2021. 5. 2. 확인).

9. 나열의 접속부사

나열의 접속부사는 나열과 시간의 앞과 시간의 뒤로 분류합니다. 먼저 나열에는 ‘및[並に]’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줄을 세우다, 서열을 세우다’는 의미로 일본어투 ‘나래비[並び]’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접속부사로 고치면 ‘및’이 됩니다. 더 설명하면 일본어의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와/과’를 가장 많이 쓰고, ‘및’은 법령이나 학술논문처럼 딱딱한 문장에서 많이 씁니다.⁴³⁾

그런데도 우리는 글을 쓰면서 고집 센 황소처럼 자꾸 ‘및’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및’은 ‘와/과, 이랑, 하고’를 사용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계획’은 ‘지원동기와 입사 후 계획’으로 고칩니다. ‘인사과 및 총무과’도 ‘인사과랑 총무과’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시간의 앞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그다음, 그리하고’와 같은 시간의 뒤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는 꽤 있었으나 시간의 앞을 나타내는 접속부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후치사 상당구나 접미사 ‘적’이나 한자어 명사로 시간의 앞을 나타내는 접속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말로 고쳐야 합니다.

즉 ‘그에 앞서, 이에 앞서, 우선, 일단,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먼저, 미리, 앞서, 최초에는’으로 변경합니다. ‘그는 전세금을 반환했다. 이에 앞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그는 전세금을 반환했다. 미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로 수정합니다. ‘공부는 체력이 중요하다. 우선 체력부터 길러야 한다.’는 ‘공부는 체력이 중요하다. 먼저 체력부터 길러야 한다.’로 교정합니다.

그다음은 시간의 뒤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그런 연후에, 그로부터, 이후(에), 추후(에), 향후(에)’는 ‘그다음에, 그 뒤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서, 그리하고’로 변경합니다.

보기를 들면 ‘부상자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의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부상자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다음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의사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순화합니다.

43) 스즈키 히데코(鈴木英子), "日本語의 接續詞 運用에 관한 考察: 韓國人學習者の 誤用分析을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005), 31-33쪽, <http://www.riss.kr/link?id=T10387628>, (2021. 12. 19. 확인).

10. 원인·이유의 접속부사

① ‘이에’는 일본어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이유의 형식명사에서 유래한 ‘이에’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따라서’로 고칩니다.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충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 충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로 변경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환을 나타내는 ‘자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근데, 한데’로 수정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는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로 순화합니다.

② ‘그에 따라, 이에 따라, 그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는 ‘지시어’와 후치사 상당구인 ‘에 따르다, 로 인하다, 로 말미암다’가 결합했습니다. 이것은 ‘이에’와 같은 방법으로 고칩니다. ‘금리 인상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만듭니다.’는 ‘금리 인상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만듭니다.’로 수정합니다.

③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고로[故に]’는 일본어 투 형식명사에서 유래한 접속부사입니다. 이것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로 변경합니다.

나머지 원인·이유의 형식명사 ‘그런 까닭에, 이런 까닭에, 그런고로, 이런고로, 이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이를 위해’도 ‘이에, 고로’와 같은 방법으로 고칩니다.

보기를 들면 ‘그는 중병에 걸렸다. 그런 이유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그는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그녀는 오늘 업무 때문에 매우 바빴다. 그런고로 모임에 못 갔다.’는 ‘그녀는 오늘 업무 때문에 매우 바빴다. 그래서 모임에 못 갔다.’로 교정합니다.

또 ‘시청은 수해 지역에 다리를 놓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공사장 주변의 토지를 조사하였다.’는 ‘시청은 수해 지역에 다리를 놓기로 계획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의 토지를 조사하였다.’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이유의 형식명사인 ‘그 덕에, 그 덕분에, 그 덕택에, 덕분에, 덕택에, 덕에, 그 때문에, 이 때문에, 때문에’도 접속부사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두 일본어 투이므로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④ ‘그 이유는’은 ‘왜냐하면’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는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로 고칠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하면 ‘그 이유는’과 ‘왜냐하면’은 짝지어진 형태(다른 말: 연어)로 ‘○○하기 때문이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어는 ‘그 이유는’과 낯선 말을 정의할 때 ‘이라 함은, 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というのは]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이란, 은/는’으로 바꿉니다.

보기를 들면 민법 98조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는 ‘이 법에서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나 다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로 변경합니다. ‘여자의 삶 속에서 한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도 비슷하였다.’는 ‘여자의 삶 속에서 한은 과거와 현재도 비슷하였다.’로 수정합니다.

11. 상황·조건의 접속부사

① ‘단’은 접속부사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만, 단지, 그러나, 하지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백화점은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단 오늘 하루입니다.’는 ‘그 백화점은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입니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일본어에서 유래한 ‘일단’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 조건, 일회성을 나타내면 ‘만약, 만일, 한번’으로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제품이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일단 시장에 팔아 보겠습니다.’는 ‘우리가 개발한 신제품이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한번 시장에 팔아 보겠습니다.’로 고칩니다.

둘째 시간의 앞을 나타내면 ‘먼저, 미리, 앞서, 잠깐’ 따위로 변경합니다. ‘나는 하루 내내 굶었더니 배가 고프니다. 일단 밥은 먹고 일을 하자.’는 ‘나는 하루 내내 굶었더니 배가 고프니다. 먼저 밥은 먹고 일을 하자.’로 수정합니다.

12. 무관·양보의 접속부사

① 토끼 뿔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본어 토끼 뿔에서 유래한 ‘여하간, 좌우간, 하여간[兔に角]’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형식명사로도 사용되지만, 접속부사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아무튼(지), 어떻든(지), 어쨌든(지), 어쨌건, 암튼, 여하튼(지), 하여튼(지)’로 교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투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 여하간 적군과 싸워 보아야 한다.’는 ‘우리는 오늘 전투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 암튼 적군과 싸워 보아야 한다.’로 고칩니다.

② 앞서 후치사 상당구에서 ‘에도 불구하고’가 양보나 무관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지시어와 결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나저나,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그런데도’로 교정합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의 통제는 되지 않습니다.’는 ‘코로나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감염자의 통제는 되지 않습니다.’로 고칩니다.

13. 대조·대비의 접속부사

① 앞에서 ‘반면’은 형식명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반면⁴⁴⁾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로 분류하나, 실제 접속부사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때는 ‘하지만, 그러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콩은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두부는 가격이 올랐다.’는 ‘콩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두부는 가격이 올랐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한편’은 ‘반면’처럼 형식명사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접속부사로 사용됩니다. 첫째 대조·대비를 나타내면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으로 고칩니다. ‘첫 전투에서 아군은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적군은 삼천 명이 사망했다.’는 ‘첫 전투에서 아군은 10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적군은 삼천 명이 사망했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계속·동시를 나타내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더불어, 아울러’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편 운동도 꾸준히 했다.’는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더불어 운동도 꾸준히 했다.’로 바꿉니다.

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년 3월 9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반면.”

③ 형식명사인 ‘대신(에)’은 접속부사로 사용됩니다. 이때는 ‘이/가 아닌, 말고’로 수정합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우유 대신 모유를 먹었다.’는 ‘그녀는 아이에게 우유가 아닌 모유를 먹었다.’로 교정합니다.

④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부사 ‘대비’는 ‘보다, 와/과+견주어, 달리, 비교하여’로 수정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10%나 상승했다.’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보다 10%나 상승했다.’로 교정합니다.

⑤ ‘그와 반대로, 이와 반대로, 그에 반하여, 이에 반하여, 그에 비하여, 이에 비하여’는 지시어와 ‘반하다, 비하다’가 결합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도리어, 아니면, 역으로, 오히려,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으로 교정합니다. ‘철수는 수학을 잘합니다. 이에 반해 영희는 영어를 잘합니다.’는 ‘철수는 수학을 잘합니다. 하지만 영희는 영어를 잘합니다.’로 고칩니다.

14. 계속·동시의 접속부사

① ‘에 이어’에서 ‘에’가 떨어져 나간 ‘이어’는 접속부사로 사용됩니다. ‘이어’는 ‘계속해서, 그리고, 따라서, 곧바로, 곧이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함께 현안 사업을 의논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현안 사업을 의논했다. 곧이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그와 더불어, 이와 더불어, 그와 동시에, 이와 동시에, 그와 함께, 이와 함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더불어, 아울러’로 다듬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규 직원도 채용합니다.’는 ‘회사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합니다. 더불어 신규 직원도 채용합니다.’로 변경합니다.

15. 첨가·선택의 접속부사

① ‘물론’은 첨가의 접속부사입니다. ‘물론’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고칩니다. 첫째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테다가, 예다가, 와/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 가족들은 물론 이웃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다.’는 ‘그녀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 가족예다가 이웃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다.’로 수정합니다.

둘째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첨가·나열의 연결어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큰거니와, 큰뿐더러, 으러니와, 고, 고서, 며, 면서, 아/어/여, 아서/어서/여서, (으)면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야 전기는 전기를 재생하는 것은 물론 전기료도 절약합니다.’는 ‘심야 전기는 전기를 재생하면서 전기료도 절약합니다.’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론’이 부사로 사용되면 ‘당연히’를 의미합니다. 보기를 들면 ‘이 회사 근로자의 월급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는 ‘이 회사 근로자의 월급은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를 의미합니다.

② ‘또한, 역시’는 그대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까지도, 도, 마저도’ 따위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호텔은 대리 예약 또한 가능합니다.’는 ‘호텔은 대리 예약까지도 가능합니다.’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 정책 역시 변화합니다.’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 정책도 변화합니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에 더하여, 이에 더하여, 그에 덧붙여, 이에 덧붙여, 그 위에’는 지시어와 후치사 상당구나 형식명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게다가, 나아가서,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욱이, 덧붙여서, 또, 심지어’로 바로잡아줍니다.

보기를 들면 ‘철수는 상장을 받았습시다. 이에 더하여 상금도 받습시다.’는 ‘철수는 상장을 받았습시다. 게다가 상금도 받습시다.’로 교정합니다. ‘어제는 비가 왔다. 그 위에 천둥도 쳤다.’는 ‘어제는 비가 왔다. 심지어 천둥도 쳤다.’로 수정합니다.

④ ‘그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그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기타, 그 밖에도, 이 밖에도’는 ‘덧붙여, 추가로, 나머지’로 교정합니다. ‘주민복지센터에서 이번 달 예비군 훈련 대상자를 알려 드렸습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전화로 부탁드립니다.’는 ‘주민복지센터에서 이번 달 예비군 훈련 대상자를 알려 드렸습시다. 추가 문의는 전화로 부탁드립니다.’로 수정합니다.

⑤ ‘또는, 혹은, 내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나 연결어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아니면, (이)나’로 바꿉니다. 하지만 ‘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건/거나, 든/든지, 든가, (으)나’로 교정합니다.

먼저 조사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복귀자는 가족 혹은 지인에게 연락하였다.’는 ‘미복귀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였다.’로 수정합니다. ‘대리 시험은 사회 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부적절합니다.’는 ‘대리 시험은 사회 윤리나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부적절합니다.’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연결어미로 고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를 들면 ‘재외동포를 협력 내지는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는 ‘재외동포를 협력하거나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였다.’라고 바꿉니다.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려고 합니다.’는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매입하려고 합니다.’로 수정합니다.

특이하게 ‘내지’는 ‘○○에서’와 ‘○○까지’로 변경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포함된 대학은 해마다 장학금 1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는 ‘고등교육법 2조 1호에서 4호까지 포함된 대학은 해마다 장학금 1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로 순화합니다.

16. 동격·예시의 접속부사

① 동격의 접속부사인 ‘소위, 환언하면’은 ‘곧, 달리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른바, 이를테면, 흔히 말하는, 이다’로 수정합니다. ‘그 남자는 소위 지옥 알바로 부르는 택배 업무를 10년 동안 수행하였다.’는 ‘그 남자는 이른바 지옥 알바로 부르는 택배 업무를 10년 동안 수행하였다.’로 변경합니다. ‘DMZ 소위 비무장 지대’는 ‘DMZ 곧 비무장 지대’로 교정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일명’은 ‘다른 이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주행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다른 이름 민식이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② 예시의 접속부사인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보기를 들면, 예를 들면, 예컨대, 이른바, 이를테면’으로 순화합니다. ‘올해 복지사업은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이 감소하였다.’는 ‘올해 복지사업은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사업이 감소하였다.’로 교정합니다.

17. 결론·강조의 접속부사

① 형식명사에서 유래한 ‘결과로, 그 결과’는 ‘결국, 마침내, 그래서’로 교정합니다. ‘나는 상한 과일을 먹었다. 그 결과로 배탈이 났다.’는 ‘나는 상한 과일을 먹었다. 그래서 배탈이 났다.’로 변경합니다.

② ‘○○적으로’ 만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는 ‘결국, 마침내’로 변경합니다. ‘대만에서도 휴대폰 판매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그 회사는 시장에서 철수해야만 한다.’는 ‘대만에서도 휴대폰 판매는 어렵다. 마침내 그 회사는 시장에서 철수해야만 한다.’로 다듬습니다.

③ ‘요는, 요컨대’는 ‘요약하면, 요점은, 핵심은, 결국, 마침내’로 교정합니다. ‘새로운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요는 지금이 문제입니다.’는 ‘새로운 사업은 성공될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이 문제입니다.’로 순화합니다.

④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는 강조의 접속부사입니다. 이것은 ‘더욱이, 유독, 남다르게, 도드라지게, 유난히, 유달리, 특별히’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관계 직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는 ‘이곳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관계 직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다듬습니다.

표 17 접속부사 분류와 고치는 방법

구분	순화 대상	고치기	
나열	나열	고유어계: 및	와/과, 이랑, 하고
	시간 전(前)	후치사 상당구류: 그에 앞서/이에 앞서 한자어 명사류: 우선, 일단 부사형 적(的)류: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미리, 앞서, 최초에는
	시간 후(後)	형식명사류: 그 후에, 그 이후에, 그런 연후에, 그로부터, 이후(에), 추후(에), 향후(에)는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서, 그리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런 연후에, 앞으로
원인·이유	후치사 상당구류: 그에/그에 따라, 이로/그로 인하여, 이로/그로 말미암아 ^① 형식명사류: 이에, 고로, 그런/이런 까닭에, 그런/이런 고로, 그런 이유로/이런 이유로, 그런/이런 점에서, 이를 위해 ^① 고유어계: 그 이유는 ^②	①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한즉, 따라서 ②왜냐하면	
조건·상황	한자어 명사류: 일단 ^① 고유어계: 단 ^②	①만약·한번/먼저·미리·앞서 ②그러나·다만·단지	
무관·양보	후치사 상당구류: 그럼에도 불구하고(하고) ^① 형식명사류: 여하간, 좌우간, 하여간 ^②	①그나저나,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그런데도 ②아무튼(지), 어쨌든(지), 어쨌건, 암튼, 여하튼(지), 하여튼(지)	
대조·대비	형식명사류: 반면, 한편 ^① , 대신(에) ^② , 대비 ^③ 후치사 상당구류: 그와/이와 반대로, 그에/이에+반하여 그에/이에+비하여 ^④	①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②이/가 아닌, 말고 ③보다, 와/과+견주어, 달리, 비교하여 ④반대로, 도리어, 아니면, 역으로, 오히려,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계속·동시	후치사 상당구류: 이어 ^① , 그와/이와+더불어, 동시에, 함께 ^② 형식명사류: 한편 ^②	①계속해서, 그리고, 따라서, 곧바로, 곧이어, 바로 ②그리고, 그러면서, 이리면서, 더불어, 아울러	
첨가	한자어 명사류: 물론 ^① 후치사 상당구류: 이에/그에+그치지 아니하고, 더하여, 덧붙여(서), 이와/그와 관련하여 ^② 형식명사류: 그+위에, 그/이+밖에, 기타 ^③ 고유어계: 또한, 역시 ^④	①데다가, 다가, 와/과, ㄹ거니와, ㄹ뿐더러, 으려니와,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②게다가, 나아가서, 더군다나, 더더구나, 더욱이, 덧붙여서, 또, 비단, 심지어 ③덧붙여, 추가로, 나머지 ④까지도, 도, 마저도	
선택	한자어 명사류: 내지 고유어계: 또는, 혹은	'나, 이나, 아니면' 또는 선택의 연결어미	
동격·예시	한자어 명사류: 소위, 환언하면 부사형 적(的)류: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곧, 즉, 말하자면, 바꿔 말하자면, 보기를 들면, 예를 들면, 예컨대, 이른바, 이를테면	
결과	형식명사류: 결과로, 그 결과 ^① 부사형 적(的)류: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① 고유어계: 요는, 요컨대 ^②	①결국, 마침내, 그래서 ②요약하면, 요점은, 핵심은, 결국, 마침내	
강조	부사형 적(的)류: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더욱이, 유독, 남다르게, 도드라지게, 유난히, 유달리, 특별히	
전환	고유어계: 이에, 자에	그러면, 그런데(도), 그럼, 그러다가(가), 한데	

7부

한자어

7부. 한자어

1. 동사성 한자어 명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자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자어는 동사 성질이 거의 없기에 우리말은 주로 ‘하다’를 붙여 동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스루(する)’를 붙여 동사를 구성합니다. 이처럼 ‘하다’와 ‘스루(する)’는 닮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와 대조되는 ‘동사성 한자어 명사’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한자어 명사 다음에 ‘하다, 되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앞서 조사 ‘의’ 편에서 언급한 ‘사변 동사의 어간’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동사성 한자어 명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다, 되다’와 쉽게 결합합니다. 또 외국어와 사자성어와 접미사 ‘시’와 접미사 ‘화’와도 결합합니다. 보기를 들면 ‘엔조이하다, 조마조마하다, 거두절미하다, 문제시하다, 일반화하다’가 있습니다.

둘째 ‘4대 비극’의 앞말에 나옵니다. 즉 후치사 상당구와 접미사 ‘적’과 조사 ‘의’와 형식명사의 앞말에 나옵니다. 이때는 용언으로 교정합니다. 하지만 ‘비동사성 한자어 명사’가 앞에 오면 조사로 변경합니다.

그럼 둘 사이를 예문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치사 상당구에서는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수출이 증가한다고 한다’는 ‘산업부에서 조사하니 올해 수출이 증가한다고 한다’로, ‘백화점은 연휴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랐다’는 ‘백화점은 연휴마다 할인율이 달랐다’로 변경합니다.

접미사 ‘적’에서는 ‘각국의 대립적 의견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는 ‘각국의 대립하는 의견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로, ‘그 사람의 과실로 법적 효력이 사라졌다’는 ‘그 사람의 과실로 법에서 효력이 사라졌다’로 교정합니다.

조사 ‘의’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다’는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다’로, ‘딸은 그에게 인생의 전부였다’는 ‘딸은 그에게 인생에서 전부였다’로 바꿉니다.

형식명사에서는 ‘그는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집에 가지 않았다’는 ‘그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집에 가지 않았다’로, ‘토기는 구석기 이래 조리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토기는 구석기부터 조리 도구로 사용되었다’로 다듬습니다.

참고로 ‘동사성 한자어 명사’는 부록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특정 조건일 때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기를 들면 ‘가라앉다’와 같은 뜻이지만, 지각은 ‘침강하다’로, 물은 ‘침몰하다’로, 물질은 ‘침전하다’로, 건물은 ‘침하하다’를 사용합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면 글을 쓰려면 어휘가 풍부하고 다양한 말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양말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유의어 사전을 참고하고 글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서양 말과 달리 유의어 사전이 빈약합니다. 부록에서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를 설명하면서 유의어를 정리하였지만, 김광해 씨가 집필한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도 있으니 이 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혼란을 가중하는 1글자 한자어 동사

일본어는 1글자 한자어에 ‘스루(する)’가 붙어 동사를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말에서 1글자 한자어와 ‘하다’ 형태로 만듭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1글자 한자어 동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표가 되는 말은 앞서 배운 ‘후치사 상당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관하다, 대하다, 반하다, 의하다’ 따위가 예시입니다. 또한 ‘1글자 한자어 동사’에서 ‘후치사 상당구’가 나오고 다시 ‘후치사 상당구류 접속부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반하다’에서 ‘에 반하다’가 출현하고 다시 ‘이에 반하여’가 나옵니다.

일본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1글자 한자어 동사’를 발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발음으로만 구별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까요?

첫째 1글자 한자어 동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2글자 동사로 고치면 의미를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하다’는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빛을 발하다’는 ‘빛을 발광하다’로 수정합니다. ‘통지를 발하다’는 ‘통지를 발송하다’로 교정합니다. ‘자정에 발하다’는 ‘자정에 출발하다’로 순화합니다. ‘대군을 발하다’는 ‘대군을 발동하다’로 변경합니다.

둘째 우리말에서 한자 병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한자어로 구성되는 1글자 한자어 동사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를 들면 ‘제하다’는 ‘자제(自制)하다’나 ‘제외(除外)하다’나 ‘제작(製作)하다’와 같이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나, 모두 ‘제하다’로 발음하므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일본어의 1글자 한자어 동사를 마구 가져오다 보니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기를 들면 일본어 투 ‘에 걸치다’와 같은 뜻인 ‘궁(亘)하다⁴⁵⁾’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 ‘감(鑑)하다⁴⁶⁾’는 일본어에서 ‘보다’의 높임말인 ‘보시다’를 의미하는데 이런 단어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3. 의미가 죽어버린 사자성어

2021년 『교수신문』에서 뽑은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산다’가 됩니다. 속뜻은 ‘도둑을 잡는 이와 도둑은 한 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자성어는 읽은 사람의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읽는 사람에게 의미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차라리 쉬운 속담이나 우리말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보기를 들면 ‘무주공산’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다듬습니다.

그럼 사자성어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 화, 성, 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천편일률적, 유명무실화, 애매모호성, 자포자기식’이 있습니다.

둘째 사자성어 가운데 일부는 일본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석할 때와 사전에 표기된 품사가 다릅니다. 우리말에서 부사로 분류하는 ‘감지덕지, 애지중지’를 해석하면 ‘매우 고맙다, 매우 사랑하다’와 같은 형용사입니다. 또 부사로 간주하는 ‘가갸호호, 사시장철’은 ‘집집마다, 일 년 내내’와 같은 명사(구)에 가깝습니다. 그와 반대도 있습니다. ‘가타부타, 유아무야’는 ‘이러쿵저러쿵, 흐지부지’와 같은 부사로 해석되지만, 명사로 분류해 버립니다.

셋째 ‘이, 히’와 결합하여 다른 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건건이, 정정당당히’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자성어는 ‘없이’를 활용한 부사와 유사합니다. ‘명약관화’는 ‘의심할 여지없이’로, ‘무미건조’는 ‘재미없이’로 ‘부지기수, 비밀비재’는

4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년 10월 15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궁하다.”

4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년 10월 15일 확인,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수록 단어 “감하다.”

‘수없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묵묵부답’은 ‘말없이’로, ‘용의주도’는 ‘물샬틈 없이, 빈틈없이’로, ‘허심탄회’는 ‘격의 없이’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넷째 사자성어는 ‘하다’와 결합하여 용언을 만듭니다. 보기를 들면 ‘거두절미하다, 공사다망하다, 대동소이하다, 무미건조하다’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자성어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첫째 명사로 쓰는 사자성어는 쉬운 말로 수정합니다. ‘감언이설’보다는 ‘사탕발림’으로 가다듬습니다. ‘첩첩산중’도 ‘두메산골’로 교정합니다. ‘모야모야’는 ‘누구누구’로 변경합니다.

둘째 ‘하다’와 결합하는 사자성어는 쉬운 용언으로 다듬습니다. ‘거두절미하다’는 ‘잘라 말하다’로 수정합니다. ‘구태의연하다’는 ‘케케묵다’로 고칩니다. ‘대동소이하다’는 ‘엇비슷하다’로 변경합니다.

셋째 일본어 투 사자성어는 고유어 부사로 순화합니다. 이것은 사자성어 중 일부가 일본어 부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어의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고유어로 교정합니다. 예를 들면 ‘기왕지사, 이왕지사’는 ‘어차피’로 순화합니다. ‘불평불만’은 ‘투덜투덜’로 교정합니다. ‘여차여차’는 ‘이래저래’로 순화합니다. ‘고성방가’는 ‘악자지껄’로 변경합니다. ‘천방지축’은 ‘덤병덤병’으로 수정합니다.

넷째 사자성어와 ‘(으)로’가 붙는 형태는 부사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운 부사형 ‘○○적으로’가 우리말에서 부사로 고치듯이 사자성어와 ‘으로’가 결합하면 부사로 수정합니다. 예를 들면 ‘구사일생으로’는 ‘가까스로, 간신히’로 교정합니다. ‘혈혈단신으로’는 ‘홀로, 외로이’로 손질합니다. ‘막무가내로’는 ‘억지로, 완강히’로 변경합니다.

8부

부록

8부. 부록

1.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하는 적(的) 고치기

① 적(的)을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으로 구별하여 고치기

* 1번은 부정 표현이고, 2번은 긍정 표현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义词
계획적 ^① 의도적 ^① 의식적 ^① [intentional]	고의로 한 미리 꾸민 일부러 한	고의적, 계획적인 행위 「교육부 보도자료」, 2016. 11. 9.	-
계획적 ^② [planned]	계획에 맞는 계획을 세워 계획이 있는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6. 2. 26.	-
의도적 ^② [planned]	의도가 있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문화산업 투자 「정책브리핑 공감」, 2017. 12. 4.	-
의식적 ^② [conscious]	생각이 있는 의식하는 자각하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7. 7. 26.	-
경쟁적 ^① [competitive]	경쟁하는 서로 다투는	부처 간 경쟁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7. 4. 11.	전투적
경쟁적 ^②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을 지닌 뒤지지 않는	경쟁적인 체재로 나가려면 「e브리핑」, 2018. 6. 8.	-
고답적 ^① [arrogant]	거드름을 떠는 거드름을 피우는 거만한 교만한	고답적인 틀을 벗어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8. 9. 23.	-
고답적 ^② [transcendent]	고고한 고상한 뛰어난	고답적인 학자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义词
관습적 ^① [chronic]	관습이 된	관리자들의 관습적, 무의식적 차별을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8. 9. 14.	습관적
관습적 ^② [traditional]	고유한 관습을 따르는 관습이 된 부리 내린	하나의 관습적인 제도 「e브리핑」, 2013. 7. 26.	-
광적 ^① 열광적 ^① [mad]	과도한 미쳐 날뛰는 지나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 「외교부 보도자료」, 2017. 3. 6. 2002년과 같은 열광적 소비는 「정책브리핑 공감」, 2005. 3. 31.	발광적
광적 ^② 열광적 ^② [enthusiastic]	뜨거운 열띤 열렬한	광적인 팬덤 활동 등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4. 7. 시민들이 열광적인 환호 속에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4. 6. 12.	열정적 정열적
관례적 ^① 관행적 ^① 형식적 ^①	관례가 되어버린 관행이 되어버린 틀에 박힌	관례적인 행사나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 3. 11.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청와대 브리핑」, 2016. 9. 17.	-
관례적 ^② 관행적 ^② [conventional]	관례를 따르는 관행이 된	당 대 당 관례적 교류 차원 「e브리핑」, 2016. 6. 13. 관행적 R&D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7. 8. 22.	-
형식적 ^② [form]	모양 틀 형태	형식적 틀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2018. 10. 30.	-
교훈적 ^① [didactic]	가르치려 드는 훈계하는	자칫 딱딱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국가청소년위원회 보도자료」, 2006. 5. 25.	-
교훈적 ^② [instructive]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주는 유익한	교훈적인 저녁 말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 3. 17.	-
권위적 ^① [prescriptive]	군림하는 권위만 내세우는 권위만 휘두르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청와대 보도자료」, 2017. 5. 10.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권위적 ^② [authoritative]	공신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국제기관이 가장 권위적이고 「e브리핑」, 2012. 8. 31.	-
도전적 ^① 공격적 ^① [challenging]	공격하는	도전적 행동이 많이 완화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9. 12. 로봇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정책브리핑 공감」, 2018. 4. 10.	-
도전적 ^② 공격적 ^② [challenging]	대담한 도전을 즐기는 도전하는	도전적인 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9. 17. 공격적인 인수전 「KTV」, 2017. 12. 8.	-
모험적 ^① [risky]	위험이 많은 위험한	안전한 투자나 모험적인 투자 중 「정책브리핑 공감」, 2008. 10. 6.	-
모험적 ^②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한 모험을 즐기는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청와대 브리핑」, 2018. 9. 12.	-
방어적 ^① [passive]	방어만 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업무만 「e브리핑」, 2018. 8. 2.	-
방어적 ^② [defensive]	방어하는 지키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e브리핑」, 2018. 6. 26.	-
세속적 ^① [worldly]	속된	중생들이 세속적인 성취를 집착할 때 「경기도 동두천시 보도자료」, 2020. 11. 23.	-
세속적 ^② [realistic]	현실과 맞는 현실을 따르는	서민적이고 세속적이며 「정책브리핑 공감」, 2009. 3. 9.	-
습관적 ^① [habitual]	버릇이 된 습관이 된	습관적 음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12. 26.	-
습관적 ^② [usual]	일상이 된	습관적인 인사말	-
유동적 ^① [quicksilver]	바뀌는 변하는 불안정한	진로는 매우 유동적 「기상청 보도자료」, 2017. 8. 8.	-
유동적 ^② [flexible]	유연한 탄력이 있는	퇴근 시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책브리핑 공감」, 2019. 4. 15.	-
유아적 ^① [childish]	유치한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정책브리핑 공감」, 2006. 11. 31.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유아적 ^② [childlike]	천진난만한	유아적인 상상력	-
원칙적 ^① [stereotyped]	고리타분한 원칙만 고수하는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 「교육부 보도자료」, 2018. 9. 28.	원론적
원칙적 ^② [observant]	원칙을 따라 원칙을 지키는	원칙적인 수갑 사용 규정이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 1.	원론적
유혹적 ^① [tempting]	끼는 혹하는	유혹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정책브리핑 공감」, 2018. 5. 20.	-
유혹적 ^② [attractive]	끌리는 매력이 넘치는 매력이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유혹적인 가능성을 제시 「외신홍보팀」, 2007. 8. 10.	매혹적 매력적
직설적 ^① [naked]	대놓고 드러내놓고 적나라한	적나라하고 직설적이다. 「정책브리핑 공감」, 2007. 6. 4.	원색적 노골적
직설적 ^② [outspoken]	대놓고 말하는 솔직히 말하는	소탈하고 직설적인 말투가 『KTV』, 2018. 4. 10.	단도직입적
타협적 ^① [temporizing]	시류에 편승하는 지조가 없는	너무 타협적인 자세다.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2003. 9. 8.	-
타협적 ^② [conciliatory]	절충하는 타협하는	타협적 대안 「외교부 보도자료」, 2011. 11. 25.	-
토착적 ^① [endemic]	뿌리 깊은	고질적이고 토착적인 권력형 비리 사업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0. 1. 7.	-
토착적 ^② [native]	뿌리 내린	특정 지역의 토착적 어휘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0. 6.	-
파괴적 ^① [destructive]	망가뜨리는 부수는 파괴하는	환경 파괴적 「정책브리핑 공감」, 2008. 11. 8.	-
파괴적 ^② [disruptive]	격을 깨는 뒤엎는	파괴적인 변화도 「e브리핑」, 2018. 3. 20.	파격적
허구적 ^① [fabricated]	날조한 조작한	부정확하고 허구적인 내용을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2001. 6. 5.	허위적
허구적 ^② [fictional]	지어낸 창작한	사실 또는 허구적 사건을 「정책브리핑 공감」, 2016. 11. 21.	가공적 소설적

② 동음이의어가 있는 적(的)을 구별하여 고치기

* 각 번호는 다른 의미로 사용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이어
감각적 ^① [sensitive]	섬세한 세련된	아이디어가 좋고 감각적인 연출이 「정책브리핑」, 2014. 8. 20.	-
감각적 ^② [sensible]	쓸모 있는	양식 창고를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화공간으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12. 26.	실용적
감각적 ^③ [sensuous]	감각을 자극하는	오감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감각적 상표 「특허청 보도자료」, 2014. 11. 4.	-
감각적 ^④ [sensory]	감각 감각과 관련된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8. 26.	-
감각적 ^⑤ [sensual]	육욕을 자극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감각적 욕망 『법보신문』, 2019. 8. 19.	-
개인적 ^① 사적 ^① [private]	사사로운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 9.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7. 9. 28.	-
사적 ^② [non-govern mental]	민간	사적인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26.	-
개인적 ^② [personal]	개인 개인과 관련된	성공은 개인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
고정적 ^① [stereotyped]	틀에 박힌	너무 고정적인 한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KTV』, 2012. 5. 9.	-
고정적 ^② [fixed]	고정된 일정한 정해진	고정적인 임대료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10. 26.	-
관능적 ^① [sensual]	요염한 풍만한	관능적 매력	육감적
관능적 ^② [sensory]	감각	한식에 대한 관능적 기호도 조사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2. 2. 10.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구체적 ^① [specific]	뚜렷한 손에 잡힐 듯한	구체적인 사업안은 없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10. 29.	-
구체적 ^② [detailed]	날날이 들어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5. 25.	세부적
규칙적 ^① [steady]	꾸준한 한결같은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1. 9.	지속적
규칙적 ^② [even]	고른 균일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상태 「e브리핑」, 2018. 10. 17.	-
규칙적 ^③ [regular]	규칙과 맞는 정기	다중이용시설의 규칙적인 소독이 중요하며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0. 11. 25.	정기적
급진적 ^① [rapid]	급속한 들불처럼	토종의 소멸 속도가 급진적이어서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06. 3. 14.	-
급진적 ^② [radical]	과격하	급진적이고 진보적 운동 「정책포커스」, 2005. 3. 15.	-
기본적 ^① [fundamental]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꼭 필요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헌법 10조」 한미 동맹의 중심적 역할 「청와대 브리핑」, 2017. 9. 21.	필수적 핵심적
기본적 ^② [basic]	기초가 되는 간단한 단순한	기본적인 조사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10. 10.	기초적 원초적
중심적 ^② [-centric]	중심이 된	공급자 중심적인 혁신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9. 20.	-
대중적 ^① [popular]	대중이 즐기는 인기 있는	대중적인 채소다.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7. 2.	-
대중적 ^② [public]	공공 대중 일반인	대중적인 관심이 「산림청 보도자료」, 2018. 7. 6.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도전적 ^① 공격적 ^① 공세적 ^① [challenging]	대담한 도전을 즐기는 도전하는	도전적인 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9. 17. 공격적인 인수전을 전개하였다.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e브리핑」, 2017. 4. 18.	-
도전적 ^② 공격적 ^② 공세적 ^② [belligerent]	공격하는	도전적 행동이 많이 완화되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9. 12. 로봇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정책브리핑 공감」, 2018. 4. 10. 공세적 작전으로 변환 『KTV』, 2017. 8. 29.	-
독자적 ^① [unique]	자기만이 가진 고유한	독자적인 연구개발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2. 9.	-
독자적 ^② [independent]	자기 힘으로 독립된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책브리핑 공감」, 2019. 3. 18.	독립적
동적 ^① [dynamic]	살아있는 생생한 활기찬 활발한	동적인 홍보 활동은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12. 6.	생동적 역동적 정력적
동적 ^② [kinetic]	움직이는	생물의 동적 속성을 「산림청 보도자료」, 2018. 3. 9.	-
배타적 ^① [closed]	교류하지 않는 닫힌 막힌	연고주의 문화의 폐쇄적, 배타적 구조 「정책브리핑 공감」, 2014. 12. 29.	폐쇄적
배타적 ^② [exclusive]	독점하는 독차지하는 혼자 쓰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7. 9. 13.	독점적
부차적 ^① 이차적 ^① 말초적 ^① [subservient]	덜 중요한 사소한 자질구레한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9. 11. 1. 가정은 이차적인 문제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0. 18. 말초적 문제	지엽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부차적 ^② 이차적 ^② [subsidiary]	덧붙여 수반된	부차적인 효과로는 「특허청 보도자료」, 2015. 5. 7. 농식품 벤처 성공에 따른 이차적 효과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6. 2.	부수적 파생적
이차적 ^③ [second]	두 가지 두 번째	이차적 저작물도 「e브리핑」, 2016. 9. 18.	-
말초적 ^② [sensual]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초적인 욕망	-
부정적 ^① [negative]	곱지 못한 나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 5. 29.	-
부정적 ^② [pessimistic]	암담한 절망스러운 희망이 사라진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 「정책브리핑 공감」, 2018. 7. 28.	비관적 절망적
불규칙적 ^① [unsteady]	불안정한	건설경기에 조금 불규칙적인 요인으로 「e브리핑」, 2017. 12. 1.	-
불규칙적 ^② [irregular]	일정하지 않는 정해지지 않는	불규칙적 근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3. 5.	-
불규칙적 ^③ [uneven]	균일하지 않는 들쭉날쭉한	크고 작은 불규칙적인 균형이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5. 3.	-
상상적 ^①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적인 아이디어 「정책브리핑 공감」, 2013. 10. 18.	-
상상적 ^② [imaginary]	머리로 그려본 상상하는	자연으로 돌아가 상상적 희열에 「정책브리핑 공감」, 2013. 7. 9.	공상적
선언적 ^① [lip-deep]	말로만 입에 발린	사회적 대타협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도자료」, 2015. 12. 4.	-
선언적 ^② [declarative]	선언하는	어떤 선언적 문구 「e브리핑」, 2019. 1. 30.	-
소극적 ^① [passive]	끌려가는 마지못해 미지근한 시큰둥한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 「청와대 보도자료」, 2018. 3. 15.	미온적 수동적 피동적 타율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소극적 ^② [timid]	소심한 수줍음이 많은	소극적이었던 딸의 성격이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1. 12.	내성적
야만적 ^① [barbarous]	무도한 악랄한 야만스러운 잔혹한	야만적 테러 공격 「외교부 보도자료」, 2014. 6. 12.	비인도적 비인간적 폭력적
야만적 ^② [uncivilized]	무례한 미개한 예의 없는	야만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정책브리핑 공감」, 2017. 12. 12.	-
운명적 ^① [predetermine]	운명과 같은 운명처럼	운명적 사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 2. 27.	-
운명적 ^② [fateful]	중대한	운명적인 시기이다. 「청와대 브리핑」, 2008. 11. 28.	결정적
원색적 ^① [vulgar]	저속한 상스러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7. 10. 17.	-
원색적 ^② [raw]	원색	한복의 강렬하고 원색적인 느낌을 원했어요. 「정책브리핑 공감」, 2016. 11. 7.	-
일상적 ^① [daily]	날마다 매일매일	가뭄, 폭염 등 일상적인 일기 상황에 「경기도 보도자료」, 2019. 2. 27.	-
일상적 ^② [usual]	보통 평범한 평소	그림과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 9. 2.	-
일상적 ^③ [routine]	규칙이 된	일상적인 덩핑방지관세 업무절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 8. 27.	규칙적
일차적 ^① [first]	맨 먼저 첫 번째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1. 30.	-
일차적 ^② [chief]	가장 중요한 주된	군인의 제일차적 의무는	-
인공적 ^① 인위적 ^① [unnatural]	꾸민 듯한 부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의 이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10. 10.	작위적
인공적 ^② 인위적 ^② [man-made]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하는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 4. 2.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어어
의례적 ^① [perfunctory]	형식만 중시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행들을 「관세청 보도자료」, 2017. 8. 31.	형식적
의례적 ^② [ritual]	격식을 차린 의식	의례적 절차에 따라 삼년상을 치렀다.	-
잠재적 ^① [latent]	숨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1. 2.	-
잠재적 ^② [potential]	잠재력이 있는	잠재적 우량기업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0. 1.	-
전문적 ^① [expert]	숙련된 전문가다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9. 19.	전문가적
전문적 ^② [special]	전문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법 제836조의2 제1항」	기술적
전문적 ^③ [professional]	직업	전문적인 브릭 아티스트가 되고자 했을 때 「정책브리핑 공감」, 2017. 11. 19.	-
전투적 ^① [competitive]	서로 다투는 서로 이기려는	전투적인 대결의 정치 「청와대 브리핑」, 2008. 12. 10.	경쟁적 호전적
전투적 ^② [fighting]	싸움 전투	전투적 가치 『KTV』, 2012. 1. 26.	-
정적 ^① [calm]	고요한	조용하고 정적인 「정책브리핑 공감」, 2018. 5. 25.	-
정적 ^② [static]	움직임이 없는	순간적으로 찍어서 정적인 게 아니라 「e브리핑」, 2016. 9. 27.	-
지배적 ^① [predominant]	대다수 대부분 매우 우세한	실패할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
지배적 ^② [dominant]	지배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가 「정책브리핑 공감」, 2015. 12. 11.	-
집중적 ^① [intensive]	강도 높은 철저한	집중적인 점검, 단속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10. 26.	-
집중적 ^② [concentrated]	집중하여 한곳에 모아 한곳에 모이는	신기술 관련 분야에 집중적 투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8. 14.	집약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치명적 ^① [killing]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6. 7.	-
치명적 ^② [lethal]	심각한 죽을 만큼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4. 18.	살인적
탈선적 ^① [corrupt]	타락하는	탈선적 행태	-
탈선적 ^② [deflective]	논점을 벗어난 빗나가는 엇나가는	탈선적인 보도	-
통속적 ^① [vulgar]	격이 낮은 저급한	센티멘털리즘은 곧장 통속적이고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 21.	저차원적 비속적
통속적 ^② [popular]	대중 현실을 담은	통속적인 삶의 드라마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4. 10.	-
폭발적 ^① [tremendous]	굉장한 엄청난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1. 10.	비약적
폭발적 ^② [explosive]	폭발하는	가장 폭발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엔진 개발 「정책브리핑 공감」, 2009. 12. 21.	-
표면적 ^① [superficial]	겉치레만 중시하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1. 7.	피상적
표면적 ^② [outside]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에 드러나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정책브리핑 공감」, 2018. 9. 17.	-
합리적 ^① [rational]	타당한 합당한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9. 3. 14.	-
합리적 ^② [reasonable]	괜찮은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 「정책브리핑 공감」, 2018. 8. 13.	-
희망적 ^① [rosy]	낙관하는 좋게 보는	희망적인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청와대 보도자료」, 2017. 12. 12.	긍정적 낙관적 전향적
희망적 ^② [hopeful]	복돋우는 희망을 주는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정책브리핑 공감」, 2017. 9. 28.	고무적
희망적 ^③ [bright]	밝은	표지색은 밝고 희망적인 색상을 「정책브리핑」, 2007. 10. 2.	-

2. 복합명사류 적(的) 고치기

① 처음과 파생되는 적(的)을 구별하여 고치기

* 1번은 처음의 뜻이고, 2번 이상은 파생되는 뜻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가정적 ^① [home]	가정 가정과 관련된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 「정책브리핑 공감」, 2015. 8. 17.	-
가정적 ^② [attentive]	가정에 충실한 다정한 세심한 자상한	가정적인 남편 「정책브리핑 공감」, 2015. 11. 4.	-
거시적 ^① [macro-]	거시 거시와 관련된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e브리핑」, 2018. 3. 15.	-
거시적 ^② [extensive]	거대한 넓게 보면 크게 보면	국방 전반에 대한 거시적 안목 「국방부 보도자료」, 2017. 2. 16.	-
경제적 ^① [economy]	경제 경제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법무부 보도자료」, 2018. 10. 16.	-
경제적 ^② [money]	돈 돈과 관련된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KTV」, 2018. 10. 10.	금전적 화폐적 재정적
경제적 ^③ [economical]	경제성이 있는 실속이 있는 알뜰한	관을 묻는 굴착식에 비해 53%이상 줄여 경제적이다.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10. 16.	-
계산적 ^① [calculation]	계산 계산과 관련된	계산적 기법을 개발한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 12. 16.	-
계산적 ^② [perfect]	꼼꼼한 완벽한	영화만 들어가면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 「정책브리핑 공감」, 2014. 7. 4.	-
계산적 ^③ [money- minded]	이익을 따지는 이득을 따지는	양국 관계가 계산적 이해를 넘어 「정책브리핑 공감」, 2014. 7. 4.	타산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고전적 ^① [classic]	고전 고전과 관련된 예스러운	고전적인 문학	-
고전적 ^② [hackneyed]	식상한 진부한 케케묵은	고전적인 생각 「청와대 보도자료」, 2016. 2. 3.	-
관념적 ^① [idea]	관념 관념과 관련된 머릿속	스티브 잡스의 관념적 상상으로부터 「정책브리핑 공감」, 2013. 5. 27.	-
이론적 ^① [theory]	이론 이론과 관련된 이론대로	훌륭한 이론적 접근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10. 2.	-
관념적 ^② 이론적 ^② [unrealistic]	생각으로만 터무니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관념적인 인성교육 「정책브리핑 공감」, 2011. 11. 17.	비현실적
구조적 ^① [structure]	구조 구조와 관련된 모양 형태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10. 18.	-
구조적 ^② [settled]	고착해버린 구조가 굳어버린	구조적, 관행적 비위를 엄단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1. 31.	-
과학적 ^① [science]	과학 과학을 따르는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민법 제854조의2 제2항」	-
과학적 ^② [systematic]	긴밀한 밀접한 잘 짜여진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 「산림청 보도자료」, 2018. 10. 12.	체계적 시스템적
국민적 ^① [people]	국민 국민과 관계되는	국민적 공감대 「청와대 보도자료」, 2017. 8. 7.	-
국민적 ^② [all the people]	국민 모두에게 온 국민	국민적 영웅 「청와대 보도자료」, 2017. 8. 7.	-
기능적 ^① [function]	기능 기능과 관련된	신경계의 기능적 최소단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4. 27.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기능적 ^② [delicate]	기능과 맞는 기능을 지닌 기능이 있는 짜임새가 있는	기능적인 공간 배치와 「정책브리핑 공감」, 2010. 10. 10.	-
기록적 ^① [record]	기록	기록적 오류	-
기록적 ^② [a record -breaking]	기록에 남을 기록을 깨는 엄청난	기록적인 한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1. 31.	-
기술적 ^① [technical]	기술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한계 탓에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11.	-
기술적 ^② [technique]	기술이 있는 재치가 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도 「정책브리핑 공감」, 2019. 1. 17.	-
내면적 ^① 내적 ^① [internal]	내부 내부와 관련된	회사는 내적인 갈등이 있다.	내부적
내면적 ^② 내적 ^② [mental]	마음 속마음	그녀는 내적인 갈등에 휩싸였다.	정신적 심리적 심적
대외적 ^① [outside]	외부 외부와 관련된	대외적 요인	외적
대외적 ^② [overseas]	국외 해외	대외적 협력 강화	-
대륙적 ^① [continent]	대륙 대륙과 관련된	대륙적 기후	-
대륙적 ^② [grand]	웅대한	대륙적인 기상 「청와대 보도자료」, 2016. 7. 18.	-
물리적 ^① [physical]	물리 물리와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특성 「특허청 보도자료」, 2014. 11. 4.	-
물리적 ^② [material]	물질	국방에 필요한 물리적인 수단 「e브리핑」, 2018. 8. 2.	물적 물질적
물리적 ^③ [physical]	몸 신체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e브리핑」, 2018. 2. 7.	신체적 육체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물리적 ^④ [forcibly]	강제	적국의 물리적 침략으로부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2. 12.	강제적
미시적 ^① [micro-]	미시 미시와 관련된	미시적 차원의 문제	-
미시적 ^② [diminutive]	세밀한 아주 작은 자세한	부문별로 미시적인 대책을 추진 「정책브리핑 공감」, 2011. 6. 4.	-
민주적 ^① [democracy]	민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 4조」	-
민주적 ^② [democratic]	민주주의와 맞는	민주적 학생회를 위한 『한국공보뉴스』, 2019. 8. 29.	-
봉건적 ^① [feudalism]	봉건 봉건과 관련된 봉건 제도	봉건적인 사회	-
봉건적 ^② [out- fashioned]	고리타분한 낡아빠진 동떨어진 식상한 케케묵은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타파하였다.	시대착오적 전근대적
사회적 ^① [society]	사회 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	-
사회적 ^② [sociable]	사교성이 있는 사회성을 지닌	인간은 사회적 존재	-
세계사적 ^① [world history]	세계사 세계사와 관련된	세계사적 관점서 조명하는 『연합뉴스』, 2019. 6. 26.	-
세계사적 ^② [tipping point]	세계사에 남을 세계사에 기억될	DMZ 회동은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
세계적 ^① [the world]	국제 세계 세계에서 세계와 관련된	세계적 문제	국제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세계적 ^② [world-famous]	세계에서 이름난	세계적 관광지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8. 3. 30.	국제적
세기적 ^① [century]	세기 세기와 관련된	18세기적 문맹 퇴치 운동	-
세기적 ^② [immortal]	세기를 대표할 세기에 남을	세기적 영웅	-
시대적 ^① [time]	시대 시대와 관련된	시대적 위기 「청와대 보도자료」, 2015. 2. 27.	-
시대적 ^② [timely]	시대와 맞는	시대적 흐름 「정책브리핑 공감」, 2018. 4. 4.	-
실험적 ^② [experiment]	실험 실험과 관련된 실험을 거친	실험적인 검증은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7. 7. 19.	-
실험적 ^② [on trial]	대담한	실험적인 시도는 무산되었다.	전위적
역사적 ^① [history]	역사 역사와 관련한	역사적 교훈	-
역사적 ^② [great]	역사에 기록될 역사에 남을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정상회담 「청와대 보도자료」, 2018. 4. 24.	-
외향적 ^① [exterior]	외부에 나타난 외부와 관련된 외향	외향적 공업화 전략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2004. 9. 1.	-
외향적 ^② [outgoing]	붙임성이 있는 사람 좋아하는 서글서글한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의 김씨 「정책브리핑 공감」, 2015. 8. 31.	사교적
입체적 ^① [three-dimensional]	입체	입체적 영상분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 3.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义词
입체적 ^② [multiple]	다각도 다방면 다양한	입체적인 취업 상담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9. 3.	다각적 다방면적
양면적 ^① 이중적 ^① [two-fold]	두 가지 이중	양면적인 효과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 「청와대 보도자료」, 2015. 1. 6.	-
양면적 ^② 이중적 ^② [two-faced]	가증스러운 겉과 속이 다른 기만하는 모순되는 서로 다른	미국의 양면적인 정체를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2019. 8. 20. 북한의 이중적 태도 『KTV』, 2015. 8. 25.	가식적 기만적 모순적 위선적
임의적 ^① [tentative]	계획에 없는 임시	임의적이고 일회적인 행사가 「정책브리핑 공감」, 2017. 7. 17.	잠정적 임시적 고식적
임의적 ^② [arbitrarily]	마음대로 제멋대로	협의되지 않은 임의적 교원 「교육부 보도자료」, 2019. 3. 12.	독단적 독선적 자의적
임의적 ^③ [random]	무작위	임의적 표본추출	-
전자적 ^① [electricity]	전자 전자에 관한	전자적 매체	-
전자적 ^② [electric]	전자를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지적 ^① 지성적 ^① [intellect]	지식 지성과 관련된	교양인의 지적 수준	-
지적 ^② 지성적 ^② [intelligent]	교양이 있는 똑똑한 총명한	지적인 매력을 지닌 「정책브리핑 공감」, 2016. 11. 7.	-
진화적 ^① [evolution]	진화 진화와 관련된	생태 및 진화적 변화연구에 「환경부 보도자료」, 2018. 8. 10.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진화적 ^② [progressive]	나아가는	진화적 개발 전략 도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 9. 28.	발전적
천문학적 ^① [astronomy]	천문학 천문학과 관련된	한국의 천문학적 성과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 4. 23.	-
천문학적 ^② [many]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 예산 「청와대 보도자료」, 2017. 6. 11.	-
평면적 ^① [flat]	평면	평면적인 해도나 지형 조사는 「e브리핑」, 2013. 10. 10.	-
평면적 ^② [superficial]	겉치레만 중시하는 깊이가 없는 눈에만 보이는	평면적인 단순 정보를 제공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4. 12. 29.	피상적
학문적 ^① [academic]	학문 학문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를 널리 알리는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 3. 28.	-
학문적 ^① [intellectual]	배움 지식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정책브리핑 공감」, 2016. 11. 7.	-
혁명적 ^① [revolution]	혁명 혁명과 관련된	정권교체의 혁명적 요구	-
혁명적 ^② [innovative]	신기원을 이룩한 혁명을 가져오는	혁명적인 발명품 「특허청 보도자료」, 2018. 5. 21.	획기적
현대적 ^① [contemporary]	현대 현대와 관련된	현대적 문제 해결	-
현대적 ^② [modern]	세련된 현대 현대와 맞는	현대적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1. 11.	-
현대적 ^③ [up-to-date]	최신	현대적인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3. 19.	-

② 파생되는 형태가 없는 적(的)을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감정적	감정 감정과 관련된 마음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정책브리핑 공감」, 2016. 6. 29.	정서적
개념적	개념 개념과 관련된 뜻	개념적인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3. 31.	-
거국적	온 나라에서	거국적 통합 「정책브리핑 공감」, 2008. 12. 10.	-
공간적	장소	공간적 이질감	-
시간적	때 시간	시간적 여유	-
공적	공공	보조금 등 공적 자원에서 배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3. 8.	-
국내적	나라 안	국내적인 사안 「통일부 보도자료」, 2017. 8. 7.	대내적
국부적	간단한 단순한 일부분 조잡한	국부적 손상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 17.	단면적 부분적 단편적
국지적	일부 지역만	국지적 호우	-
다원적	복수 둘 이상	다원적 가치 「정책브리핑 공감」, 2016. 5. 27.	-
동태적	동태	동태적 분석	-
물적	물질	인적, 물적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외교부 보도자료」, 2018. 10. 26.	물질적
법적	법에서 법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29.	사법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쌍방적	둘 다 서로 양쪽	쌍방적 공동협력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08. 2. 11.	-
성적	성 성과 관련된	성적 욕망	-
수적	수 수와 관련된	자치법규가 수적 증가분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3. 6.	-
실무적	실무에서 실무에서 보면 실무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 「통일부 보도자료」, 2018. 3. 29.	-
양적	수량 양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3. 21.	-
영적	영혼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문제	-
예비적	여벌 예비 예비하는	예비적 수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 8. 31.	-
인적	사람	인적 교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3. 14.	-
인격적	인격 인격과 관련된	인격적 자아 각성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0. 11. 26.	-
자율적	자기 통제로 자치로	자율적 연구단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11. 6.	-
정규적	정규 정식이 된	정규적 교육과정에 「정책브리핑 공감」, 2012. 3. 9.	-
정태적	정태	정태적 분석	-
질적	품질 성질 질과 관련된	이 제품은 질적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
추상적	추상 추상과 관련된	한국 최초의 추상적 화풍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12. 20.	-

3. 형용사류 적(的)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감격적	감격스러운 흥에 겨운	남북 단일팀의 감격적 순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 3. 14.
감동적 감명적	감동을 주는 감동한	가장 감동적인 사건
경이적	경이로운 깜짝 놀랄만한	한국 발전은 경이적이라고 칭송합니다.
과도기적	과도기와 비슷한 불안정한	과도기적 고통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7. 31.
굴욕적 모욕적 치욕적	굴욕스러운 부끄러운 창피한	미국과 굴욕적 협상 『KTV』, 2013. 4. 17.
귀족적	고결한 고귀한 귀족과 같은	귀족적인 인물 표현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5. 12. 31.
극적 기적적	기적처럼 연극과 같은	기적적인 국토녹화 「산림청 보도자료」, 2016. 12. 6.
기인적	기인과 같은 별난	기인적 행동
낙천적	밝은	평소 소탈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5. 5. 3.
남성적	강력한 거친 남자다운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4. 3.
낭만적	낭만이 있는 멋스러운	낭만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2. 26.
노예적	노예다운 노예와 같은 비굴한	목숨을 부지하는 노예적 평화의 길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2002. 12. 23.
독재적	독재자다운 독재자와 같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정책브리핑 공감」, 2009. 2. 28.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물적	동물과 같은	동물적 감각 「정책브리핑 공감」, 2012. 1. 20.
말기적	말기와 같은	말기적 현상
말세적	말세와 같은	말세적 세상 풍조
몽환적	꿈같은 몽롱한	몽환적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환경부 보도자료」, 2013. 2. 28.
목가적	시골스러운	길의 풍경은 목가적이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2. 1. 20.
비폭력적 평화적	평화로운 평화스러운	평화적인 공존과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3. 19.
산파적	산파극과 같은	산파적 분위기
서민적	서민처럼 소박한 평범한 친숙한	서민적인 주류로 각인된 막걸리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 4. 28.
숙명적	숙명과 같은 숙명처럼	숙명적 사랑
신비적	신비로운	신비적인 분위기
신사적	교양이 있는 신사다운 예의가 바른	신사적인 이미지 「경찰청 보도자료」, 2015. 11. 17.
암적	암과 같은	경제발전의 암적 존재 「법무부 보도자료」, 2008. 10. 27.
야생적	거친 길들이지 않는	야생적 성격
야수적	야수와 같은	야수적 매력을 지닌 남자
여성적	여성스러운 여자다운	여성적인 내설악의 포근함 「정책브리핑 공감」, 2012. 11. 2.
영웅적	영웅과 같은 영웅다운 용감한	영웅적 행동 「정책브리핑 공감」, 2016. 11. 18.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원시적	원형 그대로	울창한 숲 등 원시적인 생태환경 「환경부 보도자료」, 2017. 4. 17.
인간적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간적인 따스함 「정책브리핑 공감」, 2016. 12. 30.
인도적	사람 도리를 다하는	인도적 문제 해결 「외교부 보도자료」, 2018. 3. 22.
전제적	전제왕권과 같은	임금의 전제적 권력을 「정책브리핑 공감」, 2018. 7. 28.
제왕적	막강한 제왕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브리핑」, 2018. 2. 1.
지도자적	지도자다운	지도자적 자질
천재적	눈부신 천재 천재다운 탁월한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5. 9.
초인적	비범한 비상한 초인다운	초인적인 체력
탐욕적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 「청와대 보도자료」, 2014. 5. 19.
톨스토이적	박애주의 톨스토이와 같은	톨스토이적 평화론자
풍자적 풍유적	비꼬는	풍자적인 작품
해학적	익살스러운	해학적 장면
형제적	우애가 있는 형제애가 있는 형제와 같은	형제적인 사회
환상적	굉장한 끝내주는 멋진	환상적인 공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3. 9.
혜성적	혜성과 같이 혜성처럼	혜성적 등장

4. 적(的)을 용언으로 고치기

① 쉬운 우리말과 ‘하다, 되다’로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가변적	고정되지 않은 바뀌는	가변적인 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2017. 2. 24.
가속도적	속도를 더한	가속도적 발전
가시적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노력 「정책브리핑 공감」, 2013. 10. 18.
강압적 고압적 억압적	억누르는 억압하는	일부 강압적 조사 「정책브리핑 공감」, 2016. 2. 23.
개략적 개괄적	간추린 요약한	개략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12. 13.
개방적	열린 자유로운 개방된 솔직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7. 8. 22.
건설적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유용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노력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1. 22.
결정적	중대한 중요한	채용 비리가 탈락의 결정적 원인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3. 26.
계몽적	일깨우는 계몽하는	계몽적 성격의 문화영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12. 6.
고압적	겁을 주는 겁박하는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경찰청 보도자료」, 2017. 4. 5.
고질적 만성적	고질병인 된 고칠 수 없는 악성이 된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칭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11. 16.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고차원적 고차적	수준이 높은	고차원적 정보 처리 능력 「정책브리핑 공감」, 2017. 10. 13.
공갈적 위협적 협박적	겁주는 위협하는 공갈하는 협박하는	공갈적 언사
공감적	공감되는 공감이 가는 공감하는	공감적 이야기
공생적	함께 사는 공존하는	공생적 노사관계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1999. 10. 17.
공통적	같은 공통된 동일한	치료제의 공통적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 1. 3.
과도기적	과도기와 같은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청와대 보도자료」, 2015. 5. 13.
관망적	두고 보는 지켜보는 관망하는	관망적인 대응
관용적	널리 쓰는	‘레이더’도 관용적인 표기로 정하기로 「국립국어원 보도자료」, 2016. 2. 23.
구체적 명시적	명백한 분명한 확실한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점 「국회 보도자료」, 2020. 8. 25.
근시안적	눈앞만 보는 좁게만 보는 편협한	근시안적 행보
기동적	민첩한 기민한	기동적인 무기를 만들었다.
기술적	묘사하는 기술하는	신문 기사는 기술적 문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기형적 비정상적	정상이 아닌	기형적 구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 9. 21.
내재적	담고 있는 내재하는	전자책의 내재적인 장점은 「특허청 보도자료」, 2015. 10. 22.
냉소적	비꼬는 비웃는	금융당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2. 3.
누적적	누적된 누적하는	누적적 적자
능동적 적극적	스스로 나서는 스스로 하는	능동적 자율환경관리 능력개발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0. 11. 26.
다국적	여러 나라가 얽힌	다국적 문제
다의적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다의적 해석
대국적 대승적	크게 보는 큰 줄기로	대국적 견지에서 생각 「청와대 보도자료」, 2011. 12. 19.
대립적	맞서는 대립하는	대립적인 의견을 지녔다 하더라도 「정책브리핑 공감」, 2009. 3. 12.
대조적	반대되는 대조되는	진에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11. 14.
대척적	반대편에 있는 대척되는	주인공과 대척적인 캐릭터
대폭적	매우 많은	대폭적 확대를 견인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0. 11. 26.
대항적	대항하는	대항적 메시지
도취적	빠진 도취하는	자아도취적 사고
독보적	넘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우뚝 솟은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 8. 19.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독창적 창의적 창조적 혁신적 획기적	독특한 돋보이는 참신한 기발한	독창적인 발명품
맹목적 무비판적	눈먼 따지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 「청와대 보도자료」, 2017. 7. 20.
맹신적	무작정 믿는	맹신적 지지자
열시적 모멸적	깔보는 열시하는 업신여기는	열시적인 어투
명목적	겉दे기뿐인 이름뿐인 허울뿐인 허울 좋은	명목적 사용으로 추정해 「특허청 보도자료」, 2013. 11. 21.
모순적	모순된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도자료」, 2020. 11. 13.
무방비적	방비가 없는 무방비로	무방비적인 노출
무정부적	무질서한 혼란한 무법	무정부적 상태
무형적	볼 수 없는 형체가 없는	무형적 효과
미적	아름다운	미적 매력을 더해준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6. 9. 15.
미학적 심미적	미를 추구하는	녹색 건축의 미학적, 기능적 통합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0. 16.
반당적	당과 어긋나는 당을 배신하는	반당적 행위
반동적	가로막는 반동하는 역행하는	반동적 정책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반사회적	사회와 어긋나는	반사회적 범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9. 19.
반성적	반성하는 되돌아보는	반성적, 성찰적 양심 「청와대 보도자료」, 2018. 2. 6.
반항적	반항하는	반항적인 캐릭터
발본적	뿌리를 뽑는	발본적인 제도적 개선안을 「정책브리핑 공감」, 2010. 2. 26.
발악적	악에 반친	발악적으로 접근해 「국방부 보도자료」, 2010. 6. 18.
발작적	발작을 일으키는 발작하는	발작적인 근육수축이 발생하고 「경기도 시흥시 보도자료」, 2018. 12. 21.
방관적	내버려 두는 보기만 하는 방관하는 방치하는	방관적 태도를 버려라.
변칙적	규정을 벗어난 원칙을 벗어난	변칙적 운영
보전적	유지하는 지키는 보전하는	환경 보전적인 측면에서 「e브리핑」, 2014. 3. 12.
보편적	널리 퍼진	보편적인 규범
복합적	복합된 복합하는	복합적 애로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2018. 1. 25.
분석적	분석하는	분석적, 논리적인 사고방식 「통일부 보도자료」, 2009. 6. 11.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청와대 보도자료」, 2017. 11. 10.
불법적 위법적	법에 어긋난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댓글 사건 「국방부 보도자료」, 2017. 2. 16.
불신적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불신적 사회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비공식적	정식이 아닌	비공식적 채널 「청와대 브리핑」, 2018. 8. 12.
비극적	끔찍한 비참한	공룡의 비극적 멸종
비논리적	논리와 맞지 않는 조리와 맞지 않는	비논리적 변명
비능률적 비생산적 비효율적 소모적	쓸데없는 낭비하는 생산성이 낮은	소모적인 논쟁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 16.
비우호적	꺼리는 냉랭한 쌀쌀맞은	비우호적 규제환경
비위생적	더러운 청결하지 못한	비위생적 취급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 8. 2.
비판적	비판하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11. 9.
비협조적	협조하지 않는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e브리핑」, 2018. 4. 6.
산발적	여기저기에 흩어져 산재하는	남부지역 산발적 빗방울
상업적 영리적	돈벌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e브리핑」, 2018. 8. 30.
상투적	틀에 박힌	늘 해오던 상투적인 협박 「e브리핑」, 2017. 3. 2.
선도적	앞장서는 선도하는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3. 6.
선동적	피는 부추기는 선동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청와대 보도자료」, 2017. 6. 11.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선정적 색정적 외설적 퇴폐적	낮이 뜨거운 문란한 음란한 음탕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1. 16.
선제적	선수가 되는 선수를 치는	선제적 재해예방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1. 11. 14.
선진적	선진국과 같은 앞서가는	선진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1. 23.
수탈적 약탈적	빼앗은 수탈하는 약탈하는	수탈적인 생산방식
순정적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순정을 지닌	순정적인 배우
순종적	고분고분한 사근사근한 잘 따르는 순종하는	순종적인 며느리 「정책브리핑 공감」, 2009. 4. 14.
실리적	실리를 챙기는 이익이 되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e브리핑」, 2014. 1. 9.
쌍무적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적 금융협력강화 「정책브리핑 공감」, 2010. 1. 29.
악조건적	조건이 나쁜 열악한	악조건적인 상황
악질적	악당과 같은 고약한 악랄한	수법이 악질적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7. 12. 12.
압도적	월등한 압도하는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 「국방부 보도자료」, 2018. 1. 2.
압제적 억압적	속박하는 압박하는 압제하는	압제적 국가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애상적	구슬픈 슬픈 애처로운	애상적 노래
애호적	사랑하는 좋아하는	평화 애호적 입장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2004. 1. 6.
야유적	놀리는 야유하는 조롱하는	야유적 연사
연쇄적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마비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8. 21.
연차적	여러 해를 걸쳐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8. 6. 14.
영구적 영속적	불변하는 영원한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부 보도자료」, 2018. 10. 11.
외재적	외부에 있는	외재적인 조건 설정이 『국정신문』, 1996. 8. 19.
외형적	겉보기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4. 21.
우호적 호의적	돈독한 사이좋은 화기애애한	우호적인 여건을 「국방부 보도자료」, 2018. 9. 21.
유보적	미루는 유보하는	자발적 리콜에 대한 유보적 입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5. 25.
유혈적	피를 흘리는	유혈적 충돌
유형적	형태가 있는	고객들의 유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6. 10.
유희적	유희하는 즐기는	유희적 본능
융합적	융합된	도전적·융합적 연구과제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0. 11. 25.
이국적	낯선 타국과 같은	이국적인 모습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6. 1. 7.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이기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
이단적	정통과 어긋난	이단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 「정책포커스」, 2005. 5. 11.
이색적	색다른 특별한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3. 27.
이질적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른	이질적인 소재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7. 6. 12.
이타적	남을 위하는 사심이 없는	‘이타적 삶 살면 건강히 살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2019. 7. 15.
일면적	한쪽에서 쏠린	일면적인 견해 「교육부 보도자료」, 2018. 3. 14.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편향된	북한에 일방적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정책브리핑 공감」, 2018. 5. 13.
일원적	하나가 된	선진국 중심의 일원적 체계에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0. 5. 19.
입헌적	헌법에 근거를 둔 헌법에 들어맞는	입헌적 자유민주주의
자극적	자극하는	자극적 광고가 개선되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6. 12. 19.
자멸적	자멸하는	자멸적인 정책 「정책브리핑 공감」, 2010. 10. 18.
저항적	저항하는	저항적인 민족주의 「정책브리핑 공감」, 2009. 4. 14.
적대적	적으로 여기는	여성에 적대적인 문화
전망적	유망한 전망이 좋은	전망적인 직업
전형적	본보기가 되는 주된	전형적인 농촌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20.
종신적	죽을 때까지 종신하는	종신적인 독재 권력가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주도적	이끄는 주도하는	국민의 주도적 참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1. 31.
중재적	연결하는 중재하는	우리나라가 북미 간의 중재적 역할을 수행
중추적	뼈대가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0. 8.
지속적	꾸준한 지속하는	지속적인 상담을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10. 24.
지향적	꿈꾸는 지향하는	과거 지향적 행태이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 8. 19.
직각적	직접/바로+깨닫고 직접/바로+알고	직각적 반응
천부적	하늘이 부여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4. 7. 16.
천연적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천연적 탄력성
체험적	몸소 겪은 체험하는	체험적 깨달음을 국민들과 나누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6. 6. 10.
탐미적	미를 탐하는	탐미적 아름다움을 「정책브리핑 공감」, 2017. 9. 25.
통일적	통일된	통일적 관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9. 18.
통제적	통제하는	중앙 통제적인 불필요한 규제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 5. 2.
통합적	통합된 통합한	통합적 관점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 25.
투기적	투기하는 투기를 띤	투기적 수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1. 15.
파격적	격을 깨는	파격적 보상
파멸적	망하는 파멸하는	파멸적 전쟁의 위기에 「정책브리핑 공감」, 2010. 5. 18.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파상적	휘몰아치는	일제 군경의 파상적 공격 「정책브리핑 공감」, 2008. 1. 31.
편무적	불평등한	편무적 계약
편파적	불공평한 편향된	편파적인 발언 「조달청 보도자료」, 2012. 8. 13.
학구적	배움에 목마른 학문에 몰두하는	학구적 자세를 지닌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7. 2. 23.
함축적	담고 있는 함축된	더 많은 인생에 함축적인 의미를 「e브리핑」, 2012. 12. 3.
합목적적	목적에 맞는	합목적적 접근방식
합법적	법에 맞는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어선의 안전 조업을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8. 9. 10.
헌신적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11. 9.
현학적	똑똑한 체하는 잘난 체하는	현학적인 학자
협동적	서로 돕는 함께 하는 협동하는	협동적인 그룹 활동 「정책브리핑 공감」, 2017. 4. 13.
호전적	싸우기 좋아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북한 체재 「청와대 보도자료」, 2016. 10. 13.
환멸적	질린 환상이 깨진 학을 때는	‘곰의 감각’을 지닌 여인의 눈에 비친 환멸적 인간 본성 『한겨레』, 2018. 4. 12.
회유적	달래는 회유하는	회유적인 분위기
회의적	의심을 품는 의심하는	도시개발에 회의적 시각 「정책브리핑 공감」, 2017. 12. 5.

② 을/를+따르다, 와/과 맞다 따위로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객관적	객관으로 객관을 따르는	객관적인 실력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6.
규범적	규범 규범을 따르는 규범과 맞는	규범적인 의무를 부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5. 29.
논리적	논리를 근거로 논리와 맞는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브리핑」, 2018. 8. 30.
법리적	법리와 맞는	법리적인 개념
상식적	상식 상식과 맞는	상식적 생각 「정책브리핑 공감」, 2017. 3. 31.
순리적	순리를 따르는 순리와 맞는	순리적인 상황 「e브리핑」, 2013. 7. 29.
실증적	실제 증명된 실증에 근거로 삼아	실증적인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e브리핑」, 2017. 12. 12.
양심적 윤리적	양심을 따르는 양심을 지키는 올바른	일본의 소수 양심적 학자들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1. 23.
원론적	원론을 따르는 원론을 지키는	합의제 민주주의 제시는 원론적이고 「정책브리핑」, 2017. 6. 18.
이성적	이성을 따른 이성이 있는	이성적 판단이 곤란한 사람 「정책브리핑 공감」, 2017. 6. 2.
정론적	정론에 근거로 삼아 정론을 담은 정론을 따르는	정론적 의견
정석적	정석대로 정석을 따르는 정해진 방식으로	정석적인 진행
직관적	직관으로 보는 직관을 따르는	직관적인 이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2. 28.
주관적	주관을 따르는	면접관의 주관적 의견 「정책브리핑 공감」, 2016. 3. 18.

③ 이/가 있다, 이/가 나다, 을/를 가지다 따위로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가분적	나눌 수 있는	분리 가능한 가분적 콘텐츠에서 「e브리핑」, 2017. 11. 8.
개성적	개성이 묻어나는 개성이 있는	개성적인 화풍 「정책브리핑 공감」, 2018. 2. 7.
능률적	능률이 나는	능률적 업무처리
생산적	생산성이 발생하는 생산성이 있는	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1. 19.
성과적	성과가 있는 성과를 내는	아주 성과적인 회담을 하셨습니다. 「e브리핑」, 2017. 7. 10.
실용적	쓸모가 있는	실용적인 내부 공간
실효적	실제 효과가 나는 실제 효과가 있는	어떤 실효적인 방법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e브리핑」, 2018. 8. 7.
악의적	악의를 가지고 악의가 있는	악의적 소문
야심적 의욕적	야심이 있는 의욕이 있는	야심적인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청와대 보도자료」, 2013. 9. 9.
의무적	의무가 되는 의무가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 후 의무적 공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10. 4.
설득적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을 유발하는	설득적인 홍보 「정책브리핑 공감」, 2015. 10. 30.
탄력적	유연한 적절한 탄력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5. 17.
특징적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	특징적인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7. 11. 3.
효과적	효과가 나는 효과가 있는	모공 속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여수시 보도자료」, 2019. 8. 3.
효율적	효율이 나는 효율이 있는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6. 5.

④ 다양한 조사+용언으로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가상적	가상해 놓은 가상해 본	이런 가상의 상황을 놓고 「e브리핑」, 2017. 12. 26.
가설적	가설에 세운	미래의 가설적 상황을 전제 「e브리핑」, 2012. 1. 19.
가정적	가정해 본	이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e브리핑」, 2018. 7. 19.
감상적	감상에 빠진 감상에 젖은	감상적 활동이 존재한다. 「정책브리핑 공감」, 2009. 1. 29.
경험적 실증주의적	경험에서 우려난 경험으로 아는 경험으로 얻은	경험적 치료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4. 7. 8.
계절적	계절에 영향을 받는	계절적인 요인
관용적	관용을 베푸는 용서하는 용인하는	성범죄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4. 10.
구심적 중심적	구심이 되는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12. 7.
구심적	한 우물을 파는 한곳에 몰두하는	구심적 태도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다원적	다원화된	다원적 가치 「정책브리핑 공감」, 2016. 5. 27.
사전적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에 적합한	고목전문가라는 사전적 의미 「산림청 보도자료」, 2016. 9. 27.
설명적	설명이 추가 되는	설명적인 이야기
인상적	인상이 깊은	복숭아 향이 인상적이다.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9. 19.
좌익적 좌파적	좌익을 옹호하는	좌익적 집회
주체적	주체가 선 주인이 되는	여성으로서 주체적 삶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3. 19.
중점적	중점을 두고	중점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브리핑 공감」, 2017. 9. 3.
진보적	진보를 띠 진보를 표방하는	진보적인 교육 정책 「청와대 보도자료」, 2018. 1. 25.
참고적	참고할 만한	참고적인 수치로 활용하는 것 「정책브리핑 공감」, 2017. 7. 17.
충격적	충격을 주는	충격적인 일을 접한 가족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1. 26.
특권적	특권을 부여하는 특권을 지닌	특권적 유착 구조는 「국정홍보처 보도자료」, 2004. 1. 14.
향락적 쾌락적	놀이 즐기는 향락에 추구하는	향락적인 여행 「정책브리핑 공감」, 2010. 9. 6.

5. 부사형 ‘적으로’ 고치기

① 관형사류 적(的)과 부사형 ‘적으로’를 비슷한 의미로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가급적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생활언어와 가급적 일치시키기 「청와대 보도자료」, 2018. 3. 13.	-
간헐적으로	가끔 가끔가다가 간간이	디도스 공격시도 수차 간헐적으로 발생 「외교부 보도자료」, 2017. 3. 28.	-
간헐적	때때로 이따금	홈페이지 간헐적 접속 끊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 2019. 6. 14.	-
개별적으로	개별 개인마다 따로따로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빅데이터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20.	-
개별적	사건마다 하나하나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은평구 보도자료」, 2019. 7. 25.	-
대략적으로	대강 대략 대충	대략적으로 합의하고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20. 12. 18.	-
대략적		대략적인 번식 규모를 「전라남도 신안군 보도자료」, 2020. 5. 20.	-
대폭적으로	대규모로 대폭	세제 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3. 15.	대대적으로
대폭적		대폭적인 권한 이양 「청와대 보도자료」, 2017. 10. 26.	대대적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사건이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	-
동시적		동시적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연구원 KINU연구」, 2020. 8. 1.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익어
비교적	그런대로 꽤 생각보다 예상보다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2. 22.	상대적으로
사전적으로	먼저 미리	사전적으로 비리를 방지하였다.	선제적으로
사전적	사전에 앞서 진작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0. 11. 26.	-
수시적으로	그때그때 수시(로)	수시적으로 로드체킹을 하는 「경기도 고양시 보도자료」, 2017. 4. 19.	-
수시적		수시적이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17. 8. 22.	-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무료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3. 8.	축차적으로
순차적		순차적 진행됐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도자료」, 2021. 2. 12.	축차적
소폭적으로	소규모로 소폭	실·과 재배치를 소폭적으로 「서귀포시 보도자료」, 2009. 1. 21.	-
소폭적		소폭적인 조직개편(안)을 「경기도 보도자료」, 2021. 1. 17.	-
상시적으로	늘 상시 언제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3. 30.	항시적으로
상시적	평소처럼	상시적 문화 활동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
생래적으로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생래적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다.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생래적 선천적		생래적 요인	선천적 태생적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익어
실제적으로	실제(로)	실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알려져 「국회 보도자료」, 2021. 2. 8.	실지적으로
실제적		실제적인 내용을 세심하게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실지적
일괄적으로	몰아서 일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5%로 낮춤으로써 「정책브리핑 공감」, 2018. 2. 14.	포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괄적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교육부 보도자료」, 2018. 7. 11.	포괄적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공급과잉을 점진적으로 해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2. 1.	점차적으로
점진적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금융위 보도자료」, 2018. 9. 27.	점차적
즉각적으로	곧바로 곧장 즉각	결의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 「청와대 보도자료」, 2017. 11. 10.	-
즉각적		즉각적인 매도 종단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4. 9.	-
최종적으로	결국 마지막 최종	최종적으로 개발을 중단하여 「e브리핑」, 2018. 10. 12.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최후적으로
최종적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3. 7.	궁극적
편의적으로	제멋대로 편할 대로	행정 편의적으로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1. 26.	-
편의적		편의적인 기준이라고 「e브리핑」, 2017. 4. 11.	자의적

② 관형사류 적과 부사형 ‘적으로’를 다른 의미로 고치기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결론적으로	결국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두 내용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	결론으로 보면	결론적 태도	결론적
결사적으로	죽을 각오로 죽자사자 한사코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공군의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2011. 9. 30.	필사적으로
결사적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힘을 다해	결사적인 반대가 다반사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9. 13.	필사적
계속적으로	계속 연달아 연신 연이어 줄곧 줄지어	계속적으로 개선 건의가 있었던 「e브리핑」, 2018. 10. 7.	지속적으로
계속적	계속된 계속해서 잇따른	계속적인 성장의 가능성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7. 9. 26.	지속적
고의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짐짓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e브리핑」, 2018. 9. 17.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	고의로 한 미리 꾸민 일부러 한	고의적 행위	-
공개적으로	대놓고 드러내놓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e브리핑」, 2018. 9. 3.	-
공개적 ^① [explicit]	대놓고 드러내놓고	공개적 비난	-
공개적 ^② [open]	공개 공개된	공개적 자금 모집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11. 1.	-
공식적으로 ^① [formally]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등 「환경부 보도자료」, 2018. 10. 31.	정식적으로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义词
공식적으로 ^② [openly]	공개로 대놓고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공개적으로
공식적 ^① [formal]	공인된 정식으로	공식적 초청 「청와대 브리핑」, 2018. 10. 31.	정식적
공식적 ^② [official]	공공 정부	한류콘텐츠의 공식적인 제재조치가 「정책브리핑 공감」, 2016. 9. 12.	-
균형적으로	골고루 널리 두루두루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청와대 보도자료」, 2018. 9. 19.	-
균형적	균형이 잡힌 균형이 있는	균형적인 식단으로 「농업진흥청 보도자료」, 2018. 3. 28.	-
극단적으로 ^① [extremely]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e브리핑」, 2016. 11. 10.	-
극단적으로 ^② [very]	매우 몹시 무척	극단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주고 「e브리핑」, 2017. 8. 10.	-
극단적 ^① [excessive]	과격하 뒤가 없는 막다른 지나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7. 7. 7.	-
극단적 ^② [authoritative]	상반된 전혀 다른	극단적인 두 인물이 등장한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6. 6. 27.	-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철저히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근본적	근본이 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특허청 보도자료」, 2018. 10. 16.	본질적
기계적으로 [routinely]	관례대로 하던 대로	기계적으로 지원금을 3년간 보장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1. 22.	-
기계적 ^① [machine]	기계 기계와 관련된	기계적 특성	-
기계적 ^② [mechanical]	기계가 지닌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보도자료」, 2018. 6. 20.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기계적 ^③ [machinelike]	기계와 같은 판에 박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9. 2. 11.	획일적 일률적
단계적으로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3. 28.	순차적으로
단계적	순서가 있는 순서를 밟아	단계적인 발전 양상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1. 8.	순차적
단속적으로	띠엄띠엄 잠깐잠깐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겠다. 「기상청 보도자료」, 2017. 3. 28.	간헐적으로
단속적	단절되는 연결되지 않는	단속적 근로자	-
단언적으로	단호히 딱 잘라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책브리핑 공감」, 2009. 1. 30.	-
단언적	잘라 말하는	단언적 표현	-
단적으로	분명히 직접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2019. 8. 23.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단적	명백한 분명한	기차집 카페가 단적인 예이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2019. 7. 29.	-
대표적으로	대표를 들면 예컨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정책브리핑 공감」, 2011. 7. 18.	-
대표적	대표가 되는 대표하는 대표할 만한	동해를 낀 대표적 관광지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9. 4. 15.	-
돌발적으로	갑자기 갑작스레 대뜸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
돌발적	갑작스러운	돌발적 군사 사고 「통일부 보도자료」, 2018. 4. 23.	-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 9.	-
무의식적	무심코 한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적 경험이 자신도 모르게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7. 8. 15.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무차별적으로 ^① [blindly]	마구 무턱대고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경기도 보도자료」, 2021. 1. 17.	-
무차별적으로 ^② [at random]	무작위로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선별한 인물	-
무차별적 ^① [indiscriminative]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	무차별적인 광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12. 28.	-
무차별적 ^② [just]	공평한 차별이 없는	무차별적 대우	-
모범적으로	잘 제대로	장애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9. 27.	-
모범적	모범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토론모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2. 8.	-
묵시적으로	알면서도 알음알음	묵시적으로 용인해왔으나 「환경부 보도자료」, 2012. 10. 16.	암묵적으로
묵시적	묵인된	묵시적 동의	암묵적
반복적으로	거듭 다시금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1. 23.	-
반복적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반복적 훈련	-
반사적으로 ^① [naturally]	저도 모르게 저절로	비상벨을 듣고 반사적으로 출동했다. 「국방부 보도자료」, 2010. 7. 1.	-
반사적으로 ^② [inversely]	거꾸로 반대로 반대로 생긴	반사적으로 이익을 좀 봤습니다만 「e브리핑」, 2016. 6. 9.	-
반사적 ^① [reflective]	반사된 역효과로 생긴	지지율이 하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1. 13.	-
반사적 ^② [instinctive]	날랜 날쌘 민첩한	선수의 반사적인 선방으로 「경기도 양평군 보도자료」, 2017. 7. 3.	-
보수적으로 ^① [strictly]	엄격히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8. 30.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보수적으로 ^② [approximatively]	눈대중 어림짐작 줄잡아 지레짐작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숫자를 카운팅하였고 「e브리핑」, 2017. 11. 9.	-
보수적 ^① [stubborn]	고지식한 고집이 센 딱딱한 완고한	보수적 금융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e브리핑」, 2018. 3. 16.	-
보수적 ^② [obey]	신중한 예를 지키는 원칙을 지키는 전통을 지키는	보수적인 아시아에서 「정책브리핑 공감」, 2016. 7. 25.	-
본격적으로	제대로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
본격적	정식으로 제대로 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 5. 31.	-
불가항력적으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 6. 1.	-
불가항력적	부득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8. 21.	-
비공식적으로	사사로이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인간문화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 12. 28.	사적으로
비공식적	사사로운 개인	비공식적 일정	
성공적으로	성공리에 순조롭게 잘 훌륭하게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10. 31.	-
성공적 ^① [promising]	성공할 만한 성공할 수 있는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3. 12.	-
성공적 ^② [successful]	성공한 출세한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0. 28.	-
사실적으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경기도 동두천시 보도자료」, 2021. 1. 17.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사실적	사실과 가까운 실감나는	사실적인 동작으로 표현한다.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0. 12. 10.	-
세습적으로	대대로	장사도에서 세습적으로 무업을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3. 7. 26.	-
세습적	물려받는 세습하는	세습적 관계인 가족·부부 「정책브리핑 공감」, 2013. 5. 20.	-
순간적으로 ^① [suddenly]	갑자기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10. 24.	-
순간적으로 ^② [briefly]	잠깐 잠시	인지 능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10. 26.	일시적으로
순간적 ^① [sudden]	갑작스러운 순간	산불은 순간적인 돌풍으로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0. 12. 9.	-
순간적 ^② [brief]	잠깐	순간적인 겹침	-
실천적으로	몸소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 「청와대 보도자료」, 2017. 6. 15.	-
실천적	실천하는 행동하는	실천적인 활동가 「교육부 보도자료」, 2017. 4. 20.	-
연속적으로 [in a row]	잇달아 줄줄이	연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 9.	-
연속적 ^① [continuous]	연이은 잇따른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0. 11. 11.	-
연속적 ^② [continual]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동일 작목의 연속적인 재배로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0. 11. 25.	-
예외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 1. 10.	-
예외적	예외가 되는 예외를 적용하는	예외적인 어떤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e브리핑」, 2018. 8. 24.	-
우선적으로	먼저 미리 앞서	현장의 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10. 31.	사전적으로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우선적	우선권이 있는 우선하여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 혜택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7. 13.	-
위생적으로 [tidily]	깨끗이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였다.	-
위생적 ^① [sanitation]	위생 위생과 관련된 위생에 맞는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7. 9. 22.	-
위생적 ^② [clean]	깔끔한 깨끗한	위생적인 우물을 파는 방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12. 6.	-
유기적으로 [closely]	긴밀히 짜임새 있게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청 보도자료」, 2018. 10. 8.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유기적 ^① [organic]	유기 유기와 관련된	생물의 유기적 구조	-
유기적 ^② [systematic]	긴밀한 밀접한 잘 짜여진	유기적인 연계로 「청와대 보도자료」, 2017. 7. 20.	체계적 시스템적
음성적으로	남모르게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블랙 머니 「관세청 보도자료」, 2016. 3. 18.	암묵적으로
음성적	은밀한 음지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9. 12.	-
이례적으로 ^① [unexpectedly]	뜻밖에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르게 「국회 보도자료」, 2020. 10. 2.	-
이례적으로 ^② [specially]	특별히	영구 국외 반출을 이례적으로 허기하였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 4. 22.	-
이례적	뜻밖에 특별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2. 3.	-
이상적으로	완벽히	생산, 연구 시설이 이상적으로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0. 12. 16.	-
이상적	바람직한 완벽한 이상에 가까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 7. 22.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결같이	일률적으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을 「경기도 보도자료」, 2021. 1. 17.	획일적 천편일률적
일률적 ^① [monotonous]	개성을 무시하는 단조로운 무미건조한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고용방식으로 「산림청 보도자료」, 2018. 4. 25.	획일적 천편일률적
일률적 ^② [uniform]	균일한 똑같은 한결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 8. 30.	매혹적 매력적
일반적으로 ^① [usual]	보통 통상	일반적으로 사람이 낙퇴를 맞으면 「정책브리핑 공감」, 2017. 7. 12.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일반적으로 ^② [widely] 보편적으로	널리 두루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6조 1항」	보편적으로
일반적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종주행사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9. 8.	통상적
보편적	널리 퍼진 누구나 받아들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경기도 동두천시 보도자료」, 2021. 2. 12.	-
자동적으로	자연히 저절로	국가명 입력시 자동적으로 「외교부 보도자료」, 2017. 8. 23.	-
자동적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자동적인,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12. 29.	-
자생적으로	저절로 자연히 자연스레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20. 11. 26.	-
자생적	스스로 만든 스스로 생긴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12. 14.	-
자연적으로 [naturally]	스스로 자연스레 저절로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7. 11. 27.	-
자연적 ^① [nature]	자연 자연과 관련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
자연적 ^② [natural]	자연스러운	범죄 발생의 자연적 감시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8. 2. 19.	자발적으로
자율적	자기 통제로 자치로	자율적 연구단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 11. 6.	-
자발적	스스로 나서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4. 13.	-
자체적으로	그 자체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전기의 생산·저장·공급을 「경기도 동두천시 보도자료」, 2021. 1. 15.	-
자체적	내부 자체 직접	자체적인 도시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 10. 11.	-
전국적으로 [everywhere]	군데군데 여기저기 이곳저곳	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청와대 보도자료」, 2017. 11. 10.	-
전국적 ^① [nationwide]	전국 전국과 관련된 전국에 걸친	전국적 경기 불황	-
전국적 ^② [famous]	전국에서 유명한 전국에서 이름난	전국적인 관광지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30.	-
전제적으로	미리	이삭이 패는 시기에 전제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보도자료」, 2019. 5. 18.	-
전제적	전제조건을 달아	전제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세청 보도자료」, 2010. 7. 5.	-
전적으로 ^① [altogether]	모조리 죄다 전부 오로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3. 28.	-
전적으로 ^② [ardently]	쌍수를 들고 열렬히 힘껏	지방분권 개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 9. 2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③ [absolutely]	아주 전혀	전적으로 가망이 없었다.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전적	모든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
전반적으로 ^① [wholly]	완전히 전부 전체로	사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 「청와대 브리핑」, 2018. 11. 11.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② [overall]	대다수 대부분 대체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교육부 보도자료」, 2018. 10. 4.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전반적 ^① [whole]	전체 전체를 아우르는	수사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8. 10. 23.	전체적 종합적 총체적 총괄적
전반적 ^② [rough]	대강	전반적인 일정이 나왔는데요. 「e브리핑」, 2018. 10. 16.	전체적
전폭적으로	한도껏 힘껏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도자료」, 2021. 2. 13.	-
전폭적	폭넓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2021. 2. 16.	-
절대적으로 ^① [firmly]	꼭 절대로	역량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림청 보도자료」, 2019. 4. 2.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② [completely]	완전히 온통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10. 1.	-
절대적 ^① [imperative]	꼭 필요한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 4. 6.	필수적
절대적 ^② [absolute]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절대적 기준은 아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12. 6.	-
절대적 ^③ [unconditional]	무조건 조건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지지 「청와대 보도자료」, 2018. 4. 18.	무조건적
정례적으로	정기로 정례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11. 16.	-
정례적	정례가 된 정해진 지정된	정례적 협의제도 구성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 11. 8.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의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제대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 29.	-
정상적	올바른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회생활 제한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
조직적으로 [together]	다 같이 함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8. 10. 8.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조직적 ^① [group]	단체로 조직된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인 총체	집단적 단체적
조직적 ^② [systematic]	긴밀한 밀접한 잘 짜여진	아이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극을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0. 18.	체계적 시스템적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때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다.	-
주기적	주기를 두고	주기적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08. 10. 7.	-
즉흥적으로 ^① [thoughtlessly]	기분대로 제멋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e브리핑」, 2018. 6. 18.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② [on the spot]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한 동작 「정책브리핑 공감」, 2018. 1. 25.	-
즉흥적 ^① [whim]	기분이 따른 아무 생각 없는	즉흥적인 말과 행동	-
즉흥적 ^② [ad-lib]	그 자리에서 즉석	즉흥적인 연주로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21. 12. 2.	-
직접적으로 ^① [directly]	직접 그대로 바로	시청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10. 5.	-
직접적으로 ^② [personally]	몸소 손수	그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였다.	-
직접적	직접	직접적인 재정지원 「정책브리핑 공감」, 2018. 3. 22.	-
최우선적으로	맨 먼저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1. 26.	-

순화 대상	고치기	예문	동义词
최우선적	가장 앞선 최우선	최우선적 목표 「e브리핑」, 2018. 9. 6.	-
평균적으로	보통 통상	평균적으로 며칠 정도 일찍 도착함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7. 19.	통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적 ^① [average]	평균한	우리 사회의 평균적 소득 「정책브리핑 공감」, 2017. 9. 28.	-
평균적 ^② [common]	보통 평범한	평균적인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11. 4.	-
피상적으로	겉으로	피상적으로만 알던 신기루	-
피상적	겉핥기식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질문만 「정책브리핑 공감」, 2015. 9. 26.	-
필연적으로 ^① [naturally]	자연히	하수처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
필연적으로 ^② [certainly]	꼭 반드시	유형은 필연적으로 다시 온다.	-
필연적	당연한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된	필연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7. 9. 30.	-
한시적으로	잠깐 잠시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e브리핑」, 2018. 11. 1.	일시적으로
한시적	잠깐, 잠시 한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10. 30.	-
현실적으로	실제(로) 진짜(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9. 5.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 ^① [real]	현실 현실과 관련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 9. 28.	실제적
현실적 ^② [realistic]	진짜와 같은 현실과 같은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	실제적
현실적 ^③ [practical]	실현 가능한 유용한 이익이 되는 현실과 맞는	그는 현실적 조언을 해주었다.	실제적 실질적

6.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

① 의미를 구별해야 하는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가두다	구금 구치	①(장소)감금 ②(감옥)구금≒구속≒구치 ③(억지로)억류
가라앉다	침몰	①(밑으로, 지각)침강 ②(물, 세력, 기운)침몰 ③(물질, 기분)침전 ④(건물, 지반)침하
가려 뽑다 골라 뽑다 추리다	선발 선출 선별	①(사람)선발≒발탁 ②(따로)선별 ③(일할 사람)선임 ④(대상)선정 ⑤(투표 등)선출 ⑥(물건, 생각, 요소)추출 ⑦(엄히)엄선 ⑧(일을 위해 사람 중)차출 ⑨(옳고 그름)변별 ⑩(종류)분별 ⑪(책)발취
가로막다 깔아뭇개다 내리누르다 억누르다	억압 압제 억지	①(힘, 권력)강압 ②(행동, 자유)억압 ③(약자)박해 ④(액체, 기체, 접촉)차단 ⑤(권력, 폭력)탄압≒압제 ⑥(감정, 욕망, 충동, 정도, 한도)억제 ⑦(행동)억지 ⑧(사람, 법, 기관)저지 ⑨(방침, 목적, 언론, 경제)통제 ⑩(경쟁자, 감시자)견제 ⑪(센 힘으로)압박
가르다 나누다 쪼개다	구분	①(토지)구획 ②(기준)구분 ③(일, 역할, 비용)분담 ④(몫)분여 ⑤(나누어)분할 ⑥(복잡, 이질, 조직)분화 ⑦(종류)분류 ⑧(몫)분배 ⑨(사물, 문단)분단(分段) ⑩(나라, 민족)분단(分斷)
가르치다 교육하다	교습 강습	①(일반적)교수≒교습≒강습≒강의 ②(청중)강연 ③(목적, 방향)지도
가지런하다 고르다	정돈	①(공간, 옷)정돈 ②(사람, 데이터)정렬
감싸 주다 감싸고돌다	보호	①(위험, 곤란)보호 ②(편들다)옹호 ③(신, 절대자)가호 ④(부정적)비호≒두둔
감추다 덮다 숨기다	은폐	①(사람, 사물)엄폐 ②(시설, 병력, 장비)은폐 ③(물건)은닉 ④(보호)은비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갖추다 갖추어 두다	구비	①(사물, 체제, 체계)구축 ②(빠짐없이)구비≒완비 ③(비상시)상비 ④(둘 이상)겸비 ⑤(장소)비치
같다 똑같다 한결같다	동등 균일	①(기회, 권리, 몫)균등 ②(몫, 수치, 작용)균일 ③(정도)대등≒동등≒상등 ④(대상)동일≒일치
거두어들이다 받다 받아 내다	징수	①(돈, 물품)수령 ②(돈, 재물)수취 ③(증서, 상장)수여 ④(돈, 곡식)징구 ⑤(조세, 세금, 수수료)징수
거드름을 부리다 (시)건방지다 뽐내다	거만	①(일반적)거만≒교만≒오만 ②(스스로)자만 ③(태도, 예의)무례
거머쥐다 따내다 얻다	습득	①(학문, 기술)습득 ②(신뢰, 긍정적)획득 ③(자격, 권리, 긍정적)취득 ④(부정적)영득 ⑤(정보, 물건)입수
걸리다 어긋나다	상반	①(성품)상반 ②(의견)상충 ③(사실)배치 ④(법률, 규칙)저촉
겨루다 다투다 다툼질하다 싸우다	경쟁 결투	①(대상)투쟁 ②(목적)경쟁≒각축 ③(서로)경합 ④(합의)결투 ⑤(몸)격투 ⑥(양자)대결
계속 있다 그대로 있다	상존	①(지역)상주 ②(상황, 사물)상존 ③(현재)현존 ④(계속)존속 ⑤(제도, 설비)존치 ⑥(일반적)존재≒실재
고자질하다 일러바치다	밀고	①(몰래)밀고 ②(제3자)발고 ③(빠짐없이)함고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고치다 바꾸다	개정 대체 변경 교환	①(질, 구조, 성능)개정 ②(나쁜 점)개선 ③(글자)개정(改訂) ④(정해진 것)개정(改定) ⑤(잘못된 것)수정 ⑥(사람, 사물)교체 ⑦(다른 것)대체 ⑧(새롭게)변경 ⑨(법률, 회칙)개정(改正) ⑩(성질, 모양, 상태)변화 ⑪(서로)교환 ⑫(방향, 상태)전환 ⑬(다른 것)치환 ⑭(제품, 프로그램)호환 ⑮(낡은 것)보수
그만두다 물리치다	사절 거절 단념	①(겸손히)사양 ②(일)사퇴 ③(요구, 제의)사절≒거절≒거부≒고사 ④(하던 일)포기 ⑤(생각)단념≒체념
기르다	양육	①(짐승)사육 ②(아이)양육 ③(후계자, 산업)육성 ④(품성, 도덕)훈육 ⑤(능력, 품성)함양 ⑥(식물, 미생물, 인격, 역량)배양 ⑦(사람)양성
깨끗하다 말끔하다 산뜻하다 새롭다	청정	①(위생)청결 ②(마음, 사물)청정 ③(불순물, 더러운 것)정화 ④(마음)순수 ⑤(대상)참신
깨달다 깨치다 알다 이해하다	인지 파악 각성	①(사리)인식 ②(인식)인지 ③(사실, 물건)탐치 ④(두루)주치 ⑤(숙내)간파 ⑥(내용, 본질)파악 ⑦(잘못, 사실)각성 ⑧(잘못, 사실)자각 ⑨(이치)터득
깨뜨리다 깨부수다 무찌르다 박살을 내다 쳐부수다	돌파	①(손, 발, 적)격파 ②(기준, 기록, 장애)돌파 ③(비합리적 규정, 제도, 관습)타파 ④(음모)분쇄
깨지다 망가뜨리다 못쓰게 만들다 무너뜨리다 부서지다 찌그러지다	파손 황폐	①(조직, 질서, 관계)파괴 ②(계약, 약속, 조약)파기 ③(물건, 기능)파손 ④(몸, 명예, 가치, 기능)손상 ⑤(명예, 체면, 품위, 물건)훼손 ⑥(집, 토지, 산림)황폐 ⑦(심신)피폐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꺼리다 발뺨하다 피하다	기피	①(싫어하는 것)기피 ②(일, 책임)회피
꼭 바라다	간구 갈구 희망	①(몹시)간구≒갈구≒갈망≒열망 ②(대상)동경 ③(바라는 일)희망≒염원 ④(직업, 전공)지망
피다 돋구다 부추기다	유혹 사주 선동 도모	①(나쁜 일)교사≒사주≒총동 ②(주의, 흥미)유발≒유인 ③(방향)유도 ④(사람)유혹 ⑤(의도)선동≒책동 ⑥(더욱더)초장 ⑦(뒤)초종 ⑧(중립적)도모 ⑨(범죄, 부정적)모의≒기도
꾸미다(부정적) 만들다	조작	①(사실로)조작≒날조 ②(진짜로)위조 ③(범죄)모의 ④(나쁜 일)기도≒획책
꾸미다 만들다 맞추다 설치하다 짓다	가설 제조 건립	①(원자재, 반제품)가공 ②(전깃줄, 다리)가설 ③(건물, 설비)건설≒설치 ④(다리, 철도, 지뢰)부설 ⑤(서류, 원고, 계획)작성 ⑥(물건, 예술품)제작(製作) ⑦(제도, 법률)제정 ⑧(공장, 원자재)제조 ⑨(부품)조립 ⑩(분위기, 시설, 자금)조성 ⑪(대책, 방법)강구 ⑫(건물, 기념비)건립 ⑬(제도, 계획)수립 ⑭(기관, 조직)설립 ⑮(토지, 천연자원)개발
나무라다 비난하다 야단치다 호통치다	칠책 지탄	①(꾸짖어)칠타≒칠책≒엄책≒힐책≒견책≒지탄 ②(사람, 단체)규탄 ③(책임을 물어)문책 ④(사적인 잘못)책망
끝나다 끝마치다 끝맺다 마치다 마무리하다	만료 종결 완결	①(한도, 기한)만료 ②(절차)경료 ③(성하던 것)총식 ④(일, 사태)종료≒종결 ⑤(완전히)완료≒완결 ⑥(기한)만기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끝장나다 망하다	패망	①(국가, 민족)멸망 ②(싸움)패망 ③(집안)패가 ④(일, 계획, 경제, 회사)파탄 ⑤(재물, 세력)몰락
끼어들다	관여	①(어떤 일)관여 ②(사람, 사물)관계 ③(남의 일)간섭 ④(상관없는 이)개입
나가다 물러가다	퇴장	①(거주지)퇴거 ②(장소)퇴장 ③(진출한 곳)철수
나누어 받다	할당	①(몫)할당 ②(시간, 공간, 돈)할애 ③(공간)배정
나누어주다	배분	①(몫)배분 ②(비영리 물품)배급 ③(신문, 책자)배부 ≒ 배포
나아지다 발전하다	진전	①(앞으로)진진 ≒ 진전 ②(정도, 수준)진보 ③(생물)진화
나오다 나타나다	출석	①(직접)출두 ②(대상)출현 ③(현상, 대상)출몰 ④(자리)출석 ⑤(모임, 회의)참석 ⑥(무대, 연단)등장
나오다 터지다	분출	①(성분, 미생물)검출 ②(액체, 기체, 요구, 욕망)분출 ③(비축한 것)방출 ④(감정)발산
나타내다 보이다	발현 표현 표시	①(재능, 능력)발휘 ②(사실, 결과, 작품)발표 ③(조약, 법령)발효 ④(숨겨진 것)발현 ⑤(구체적)구현 ⑥(꿈, 기대)실현 ⑦(의사, 감정)표현 ⑧(속에 것)표출 ⑨(외부)표시 ⑩(물품)전시 ⑪(말, 글)제시
낡다 바래다	노후	①(사람)노화 ②(시설, 차량)노후 ③(사상, 표현, 행동)진부 ④(빛, 존재)퇴색
낮아지다 낮추다	인하	①(온도, 기압, 혈압)강하 ②(자격, 등급, 지위)격하 ③(물건, 가격)인하 ④(정도, 수준, 능률, 자신)저하 ⑤(화폐가치)절하
내다 바치다 주다	공여 기증	①(돈, 물건)공탁 ②(물품, 이익)공여 ③(물건)제공 ④(권리, 명예, 임무)부여 ⑤(상장, 훈장)수여 ⑥(도우려고)기부 ⑦(단체)기탁 ⑧(공짜로)기증 ⑨(선물, 기념품)증정 ⑩(의견, 문안, 법률)제출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내다보다 뜻을 내비치다 미리 알리다	예상 전망	①(앞날을 알림)예견≒예고≒전망 ②(미리)예측 ③(일기, 기상)예보 ④(미래, 생각)예상 ⑤(먼 곳)조망 ⑥(년지시)시사 ⑦(사정, 형편)짐작 ⑧(미루어 판정)추정 ⑨(형편, 풍경)관망
내려앉다 무너지다	붕괴	①(방죽, 뚝)결괴 ②(넘어져)도괴 ③(깨어져)붕괴 ④(조직, 계획)와해 ⑤(엎어져)전도
널리 퍼지다 돌다	확산 유행	①(흩어져)확산 ②(여기저기)산재 ③(널리)유포 ④(전염병, 양식, 사상)유행 ⑤(전염병, 부정적)만연 ⑥(긍정적)전파
넘겨 버리다 무시하다	묵과	①(잘못)묵과 ②(의견, 제안)묵살 ③(슬며시)묵인 ④(대충)간과
넘겨주다 넘기다	인도 이양	①(부동산)명도 ②(사물, 권리)인도≒인계≒양도≒양여 ③(관할)이관 ④(옮겨)이월 ⑤(권리, 의무)이양 ⑥(공문, 통첩)이첩
넘기다 뒤집어씌우다 미루다 미적대다	유보	①(일, 안건)유보≒보류 ②(날짜, 판결, 처분)유예 ③(잘못, 책임)전가
넣다 들어있다 머금다	포함	①(범위, 한계)포괄 ②(보편)포함 ③(성분)함유
노리다 찾다	탐색	①(사실, 지역)탐문 ②(지역, 유적지)탐방 ③(행방, 죄상)탐색 ④(방법)모색 ⑤(대상, 장소)물색 ⑥(물건, 사람)수색 ⑦(책, 컴퓨터)검색 ⑧(행적, 사람, 동물)추적
높이다 올리다	고양	①(정신, 사기)양양≒고양 ②(물체, 사람)거양 ③(가락, 사상, 감정)고조 ④(치켜)제고 ⑤(자격, 등급, 지위)격상
늘어서다	나열	①(나란히)나열 ②(사람)도열 ③(간격, 차례)배열 ④(날날이)열거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늘리다	총대 확장	①(모양, 규모)확대 ②(범위, 규모, 세력)확장 ③(세력, 권리)신장 ④(시간, 거리)연장 ⑤(양, 수치)증가 ⑥(양, 규모)총대
다가오다 닥치다	박두	①(시기, 상황)임박≒박두≒촉박 ②(현상, 세력)대두
다루다 처리하다	초치	①(대책)초치 ②(문제, 일)초처 ③(부정적)초작 ④(기계, 기구)취급
다르다	상이	①(서로)상위≒상이 ②(완전히)판이
다짐하다	서약	①(법정, 직위)선서 ②(맹세하여 약속)서약 ③(개인)맹세
닫다 막다	밀폐 폐쇄	①(행동)저지≒제지 ②(나쁜 일)방치 ③(하던 일)중지 ④(틈)밀폐 ⑤(문, 기관, 시설)폐쇄 ⑥(상자, 창문)밀봉 ⑦(구멍)전색 ⑧(가로)차단
달라붙다	접착	①(단단히)교착 ②(관계)밀착 ③(사물)부착 ④(표면)접착
달아서 없어지다 없어지다	마멸	①(마찰, 부분)마모≒마멸 ②(존재, 자격)소멸 ③(물건, 건물)멸실 ④(사회, 집단, 생물)도태
달다 도착하다	도착	①(목적, 수준)도달 ②(시기, 기회)도래 ③(목적지)도착 ④(결론)귀착
대다 마련하다	주선	①(일자리)알선 ②(좋은 목적)주선 ③(자금, 물자)조달
더하다 덧붙이다 보태다	부가 첨부	①(설명)부연 ②(주된 것)부가 ③(나중)추가 ④(안건, 문서)첨부 ⑤(더하여 셈하다)가산 ⑥(양념, 재료, 요소)가미 ⑦(기존 것)첨가
도려내다 자르다 짜다	철단	①(몸, 사물)철개 ②(관계)철단 ③(물체)철취
도망치다	도주 탈주	①(몸)도주≒탈주 ②(현실)도피 ③(환경, 구속)탈출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도와주다	구조	①(위험, 어려움, 신)구원 ②(물품)구출 ③(피해자)구제≒구호 ④(재난, 병자, 부상자)구조 ⑤(약간)일조
도움말을 주다	충고	①(일, 긍정적)권고 ②(잘못, 허물)충고 ③(말)조언
돈을 갚다	완제	①(빚, 대출금)변제≒상환 ②(완전히)반제≒완제 ③(돈, 물건)완납 ④(채권, 채무)청산
돈을 내다	납입	①(세금, 공과금)납부≒납입 ②(돈)불입 ③(단체)출연
돈구다 복돈우다 힘주다	고무 격려	①(용기, 의욕)고무≒고양≒고취≒격려≒진작 ②(사상, 감정, 세력)고조 ③(감독)독려 ④(좋은 일)장려≒권장
돌리다 움직이다	가동	①(사용할 수 있도록)가용 ②(사람, 기계)가동 ③(동력)구동
돌보다	간호	①(결)개호≒수발 ②(환자, 노약자)간호≒간병
돌아다니다 돌아보다	순찰	①(관리자, 책임자)순시 ②(여러 곳)순찰 ③(공연)순회
돕다 힘을 합치다	협동	①(마음, 힘)협동 ②(사람)협력 ③(단체) 제휴
되돌리다	반환	①(서류)반려 ②(화물, 우편물)반송 ③(빌린 것)반환 ④(원래 상태)환원 ⑤(과거)소급
되돌아보다 돌이켜보다	반성	①(일반적)반성≒성찰 ②(스스로)자성 ③(스스로 삼가)자숙
드러나다 밝혀지다	토로 발각	①(속내)실토≒토로 ②(감춘 사실)탄로≒발각 ③(겉)노출 ④(사실)판명 ⑤(긍정적)발현
들어가다	가입	①(구성원, 서비스)가입 ②(수준, 목표)진입 ③(차량, 기계)지입
들어내다 몽개 버리다 없애다 지우다 지워 버리다	말소 박멸 제척	①(몽개어)말살 ②(방해물, 사람, 현상)제거 ③(기록)말소 ④(한꺼번에)일소 ⑤(모조리)소탕 ⑥(재물, 권리, 자격)박탈 ⑦(해충)박멸 ⑧(흔적)인멸 ⑨(특정인을 법에서)제척 ⑩(제도, 법률)철폐≒폐지 ⑪(예정된 일)취소 ⑫(문맹, 부정부패)퇴치 ⑬(기록, 문헌)삭제 ⑭(나쁜 것)척결 ⑮(구성원)제명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들어맞다 맞아떨어지다	합치	①(의견)합의≒합치 ②(사물, 현상)부합≒일치
들어오다	수입	①(상품, 기술)수입 ②(액체, 기체)유입 ③(사람, 자본)투입 ④(기술, 방법)도입 ⑤(훈련소, 연구소)입소 ⑥(장내)입장 ⑦(상품)입하
들추어내다	지척	①(허물)지척 ②(비리, 부정)척발 ③(사람)색출 ④(일, 내용)추궁
따르다 쫓다	수반 순응	①(주된 것)부수 ②(다른 현상)수반 ③(사람)수행 ④(요구, 기대)부응 ⑤(명령, 변화, 체계, 환경)순응
때리다 치다	구타	①(사람, 동물)구타 ②(공, 태풍)강타 ③(손, 주먹, 몽둥이)가격
떠돌다 헤매다	방황	①(사람)방황 ②(공중, 수면, 방향)부유 ③(이곳저곳)전전
떨어지다	추락	①(아래, 나쁜 상태)전락 ②(높은 곳)추락 ③(대상, 표피)탈락 ④(값, 주가, 인기, 위신)폭락 ⑤(시험, 모집, 선거)낙방 ⑥(위에서 아래로)낙하
떨어지다(거리)	이격	①(따로)유리 ②(어그러져)괴리 ③(시야, 간격)이격 ④(차이, 거리)현격
뛰어나다 빼어나다	기발 출중 우월	①(아이디어)기발 ②(외모, 능력)출중 ③(다른 것보다)우월 ④(남보다)결출≒탁월
뛰어오르다	폭등	①(액체, 여론)비등 ②(물가, 가격)양등≒등귀 ③(가격, 주가)폭등
마주치다	직면	①(얼굴)대면≒면대 ②(눈 앞)당면 ③(정면)직면 ④(처지, 상태)봉착
만나다	조우 접촉	①(우연히)조우 ②(높은 사람, 수형자)접견 ③(둘 이상)접촉 ④(극적으로)상봉 ⑤(임금)알현 ⑥(헤어졌다가)해후
말씀드리다 요청을 드리다	품의	①(웃어른, 상사)품신≒품의 ②(개인, 단체)건의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말하다 부르다 이야기하다	호칭 친언	①(대상)지칭 ②(사람)호칭 ③(윗사람)친언 ④(문제)언급
맞서다	대항	①(일, 사태)대응 ②(반대)항의 ③(집단)대치≒대항 ④(서로)대립 ⑤(힘, 압력)저항≒항거 ⑥(적)대적 ⑦(일)대처 ⑧(의견, 비난)반박
맞아들이다 맞이하다	영접 환영	①(손님)영접 ②(오는 사람)환영 ③(반겨서)환대
말기다 부탁하다	위탁	①(돈, 물건)공탁 ②(성금, 단체)기탁 ③(의뢰, 부탁)수탁 ④(사람, 기관)위탁 ⑤(책임)위임 ⑥(부탁)위촉 ⑦(사람)의뢰
말다 말아보다	분장	①(일, 역할, 비용)분담 ②(사무)분장 ③(주관)관장
매우 크다	과대	①(일, 역할, 비용)과대 ②(어려움, 피해)막대 ③(규모, 양)방대 ④(추상적)심대≒지대
머리로 짜내다 생각하다	사고 착상 착안	①(깊게)사료≒사려 ②(실마리) 구상≒착상≒착안 ③(경험하지 못한 것)상상 ④(비현실적)공상 ⑤(새로운 안, 아이디어)고안≒안출 ⑥(일반적)사고
머무르다 묵다	체류	①(객지, 낯선 곳)체류≒체재 ②(남의 집)유숙
멈추다 쉬다	중지	①(움직이는 것)정지 ②(하던 일)중지
모으다 모이다	수집 취합 집합	①(한 군데)응집≒결집≒취합≒집중≒집합 ②(거두어)수집 ③(빠곡히)밀집 ④(사람)운집 ⑤(사람, 세력)규합 ⑥(사람을 한 군데)집결 ⑦(떼거리로)군집
모자라다 빠지다	부족 결핍 미진	①있어야 할 것(결여≒결핍) ②(기준, 한도)미달 ③(상태)미비 ④(목표, 진도)미진 ⑤(기준)미흡 ⑥(양, 기준)발족 ⑦(기세, 힘)부진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묘하다 이상하다	기괴	①(유별하게)기괴≒기이 ②(모양)괴상 ③(분위기)야릇
무르익다	능숙	①(일)능숙 ②(경험, 사물)성숙 ③(적응)익숙
뉘다	결속	①(한 덩어리로)결속 ②(연관)결부
물리치다 손사래를 치다 퇴짜를 놓다	배격 퇴출 거절	①(적)격퇴 ②(의견, 사상, 풍조, 행위)배격≒배척 ③(제외)배제 ④(소속)퇴출 ④(병, 해로운 것)퇴치 ⑤(요구, 제의)거절≒사절 ⑥(재판)각하 ⑦(단칼에)일축 ⑧(범위)제외
미워하다 시기하다 싫어하다	질투 증오	①(다른 사람)질시≒질투 ②(미움이 담긴)증오 ③(싫음)혐오 ④(서로)반목
미쳐 날뛰다	광란	①(사람, 모임, 장소)광란 ②(분위기)광분 ③(불순 세력)준동
믿다	신용	①(군계)신뢰≒신임≒신의 ②(사람, 사물)신용
바로 가다	직진	①(앞으로)직진 ②(바로, 교통편)직통 ③(중간 없이)직행
바로잡다	교정	①(옳게)경정 ②(글자)정정, 교정(校訂) ③(조사)사정 ④(잘못된 것)시정 ⑤(책)교정(校正) ⑥(품행, 행동, 결함, 오차, 틀어진 것)교정(矯正)
받아들이다	승락 용인	①(부탁, 요구)수락≒응낙≒승낙≒수용 ②(사실)승인 ③(너그럽게)용납≒용인 ④(말, 글)인용 ⑤(문서)수리
밝히다 캐내다	증명	①(의사, 태도)표명 ②(본질, 원인)규명 ③(오해, 비난)석명 ④(까닭, 이유)소명≒해명 ⑤(증거)증명≒검증≒입증
벗어나다	이탈 모면	①(범위, 대열)이탈 ②(정당, 단체)탈퇴 ③(허물, 약속)탈피 ④(모임)탈회 ⑤(끼)모면 ⑥(책임, 의무)면제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보다 여기다	가정	①(임시)가정 ②(상태, 모양, 성질)간주
붙잡다 사로잡다	포착	①(배)나포 ②(기회, 정세)포착 ③(적병, 짐승)포획 ④(범인, 피의자)체포
비다 빠지다	궤위	①(자리)공석 ②(직위, 관직)궤위 ③(모임)불참
빠지다 새어 나가다 없어지다	누락	①(기록)누락 ②(비밀)누설 ③(세금)탈루
빨다 씻다	세탁	①(약)세정 ②(상처, 장기)세척 ③(빨래)세탁
빼다 줄이다	감소 감축 공제	①(예산, 인원)감축 ②(비용)삭감 ③(고통, 부담)경감 ④(아껴서)절감 ⑤(낮추어)저감 ⑥(양, 수치)감소 ⑦(범위)제외 ⑧(금액)공제 ⑨(부피)압축 ⑩(모양, 규모)축소 ⑪(시간, 거리, 기록)단축 ⑫(전체)생략
빼앗다 앗다	탈취	①(재물, 권리, 자격)박탈 ②(강제로)수탈≒강탈 ③(침범)침탈 ④(빼앗아 가짐)탈취
살다	거주	①(사람)거주 ②(끝까지)생존 ③(동물)서식
살펴보다 알아보다 캐내다	조사 사찰 식별	①(범인)취조 ②(사실)초회 ③(사물, 사실)조사 ④(상태, 품질)검사 ⑤(조사)사찰 ⑥(현장)시찰 ⑦(시비, 선악)판별≒식별 ⑧(성질, 종류)구별 ⑨(법원)심문 ⑩(날날이)점검
살피다 즐게 보다	양지 통찰	①(사정)양해≒양찰≒선처≒통촉 ②(살펴서 알다)양지 ③(깊이)통찰
새롭게 하다	혁신 쇄신	①(제도, 기구)개혁 ②(풍습, 관습, 조직, 방법)혁신 ③(폐단)쇄신
섞다 짚뽕하다	혼합	①(일반)혼합 ②(무질서)혼재 ③(다른 물질)혼화 ④(일정 비율)배합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시작하다	출발 개시	①(일)개시 ②(토의)개의 ③(회의, 모임)개회 ④(목적지)출발 ⑤(단체)출범≒발족 ⑥(갑자기)돌입
쌓아 두다	축적	①(곡식, 물건)야적 ②(지식, 경험, 돈)축적 ③(성곽, 제방)축조 ④(비상시)비축 ⑤(공간)적치
쌓이다	누적	①(지위, 등급, 가격, 수량)누진 ②(포개서)누적 ③(물건, 일)산적 ④(책임, 부담)가중 ⑤(자동차, 사람, 프로그램)목주
써넣다 쓰다 적어 넣다	기재	①(서적, 장부, 대장)등재 ②(문서)기재 ③(서적, 잡지)게재 ④(장부)기입
써서 없애다 함부로 쓰다	낭비	①(시간, 재물)낭비≒허비 ②(함부로)남용 ③(헛되이)탕진
쓰다	사용	①(이롭게)이용 ②(기능에 맞게)사용 ③(능숙하게)구사
알려 주다 일깨우다	계도	①(목적, 방향)지도 ②(좋은 목적)계도 ③(슬기, 재능, 사상)계발
알리다	고지 공포 통지 시달	①(글, 게시)고지 ②(행정기관)고시 ③(가르쳐)교시 ④(상부)시달 ⑤(강제 집행)계고 ⑥(위험)경고 ⑦(행정관청)신고 ⑧(널리)공고≒공치≒공시 ⑨(법률, 예산, 조약)공포 ⑩(울령, 제도)반포 ⑪(서면, 말)통고 ⑫(위에서 아래로)하달 ⑬(물음, 요구)회보 ⑭(서면)통보≒통첩≒통지 ⑮(지식, 명령, 물품)전달
알맞다	적당	①(꼭)적절≒적합 ②(규모, 수준)적정 ③(정도)적당 ④(기준, 조건, 용도, 도리)합당
알아내다	해독	①(문장, 암호, 기호)판독≒해독 ②(글)독해
앞서다 앞장서다	주도	①(사람, 사물)선행 ②(상황, 추상적)전제 ③(주체적)주도
약하다 힘없다	미약 미력	①(의지)나약≒박약 ②(움직임, 세력)미약 ③(무르고)연약 ④(성품)유약 ⑤(겸손어 투)미력 ⑥(위세, 영향력, 의무, 활력)무력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어리석다	무치	①(인식, 식별)몰 ^ㄷ 치각 ②(사리)몽매 ③(지식)무 ^ㄷ 치
어지럽다	혼란	①(뒤섞이어)혼 ^ㄷ 동 ②(마음, 정신)혼 ^ㄷ 란 ③(장소)혼 ^ㄷ 잡
엷매이다	종속	①(주된 것)종 ^ㄷ 속 ②(묶이어)기 ^ㄷ 속 ③(지배, 지위)예 ^ㄷ 속
완성하다 이루다	달성	①(목표, 목적)달 ^ㄷ 성≒성취 ②(사실로)구 ^ㄷ 현 ③(끝까지)관 ^ㄷ 철 ④(완전히)완 ^ㄷ 수
욕되게 하다 욕보이다	능욕	①(남)능 ^ㄷ 욕 ②(명예)오 ^ㄷ 욕 ③(수치)모 ^ㄷ 욕, 치 ^ㄷ 욕 ④(심한)곤 ^ㄷ 욕
의견을 말하다	제기	①(의견, 생각)개 ^ㄷ 진 ②(의견, 문제)제 ^ㄷ 기 ③(속마음)피 ^ㄷ 력
이야기하다	상담	①(정답게)간 ^ㄷ 담≒환 ^ㄷ 담 ②(마주보고)대 ^ㄷ 담 ③(문제, 궁금증)상 ^ㄷ 담
이어받다	전승 수계	①(기술, 지식)전 ^ㄷ 수 ②(문화, 풍속, 제도)전 ^ㄷ 승 ③(전통, 유산, 업적)계 ^ㄷ 승 ④(권리, 의무)승 ^ㄷ 계≒수 ^ㄷ 계
이어지다 잇따르다	계속 연계	①(꾸준히)지 ^ㄷ 속 ②(맞대어)접 ^ㄷ 속 ③(끊이지 않고)계 ^ㄷ 속 ④(잇달아)속 ^ㄷ 출 ⑤(일, 사건)연 ^ㄷ 계 ⑥(서로)연 ^ㄷ 결 ⑦(연달아)연 ^ㄷ 속
일어나다 저지르다	발생	①(전쟁)발 ^ㄷ 발 ②(갑자기)돌 ^ㄷ 발 ③(일, 사물)발 ^ㄷ 생
일치하다 의견을 따르다	찬동	①(행동, 의견, 제안)찬 ^ㄷ 성≒찬 ^ㄷ 동 ②(주장)동 ^ㄷ 조 ③(의사, 의견)동 ^ㄷ 의
일하다	근로	①(직장)근 ^ㄷ 무 ②(보편)근 ^ㄷ 로≒노 ^ㄷ 동 ③(부려서)사 ^ㄷ 역 ④(목적, 계획)작 ^ㄷ 업
잃다 잃어버리다	분실	①(물건)망 ^ㄷ 실≒분 ^ㄷ 실 ②(기억, 자격, 권리)상 ^ㄷ 실 ③(기회)일 ^ㄷ 실 ④(휴대한 것)유 ^ㄷ 실
자취를 감추다	묘연	①(말, 생각)막 ^ㄷ 연 ②(소식, 행방)묘 ^ㄷ 연 ③(자취, 행적)잠 ^ㄷ 적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정하다	결정	①(행동, 태도)결정 ②(자격)지정 ③(일)확정
지키다	준수	①(물건)간수 ②(전례, 규칙, 명령)준수 ③(방위)수위
짜다	담합	①(가격, 낙찰)담합 ②(인기)영합 ③(한통속)결탁
차분하다	냉정	①(생각, 행동)냉정 ②(생각, 판단)냉철 ③(분위기)담담 ④(어려운 상황)태연
찾아오다	내왕	①(만나러)내방 ②(병원)내원 ③(서로)내왕 ④(자기가 있는 곳)왕림
풀다	해결 타결	①(문제, 사건)해결≒해소 ②(규제, 금지)해제 ③(직책, 자리)해촉 ④(대립된 이견)타결 ⑤(어려운 일, 막힌 일)타개
풀리다	해이 이완	①(가뭄, 목마름)해갈 ②(기강, 긴장, 규율)해이 ③(근육, 주의, 긴장)이완≒완화
하다	시행	①(명령, 행사)거행 ②(실제로)이행≒시행≒실시 ③(구실, 작용)기능
한곳에 매달리다	고집	①(의견)고집 ②(군계)고수 ③(마음)집착
함께 쓰다	병용	①(물건)겸용 ②(널리)범용 ③(아울러, 방법)병용 ④(문자)병기
함께하다	동행	①(모임, 일)동참 ②(함께 가다)동행 ③(기계, 장치)연동 ④(사물끼리)공존 ⑤(한꺼번에)병행
해를 끼치다	가해	①(생명, 재산, 명예)가해 ②(해로운)유해 ③(활동, 추상)저해
허가하다 허락하다 허용하다	승인 윤허	①(임금)윤허 ②(사정, 제안)청허 ③(정부)관허 ④(입법부)인준 ⑤(일, 사실)승인 ⑥(청하는 바, 결혼)승낙
화해시키다	조정	①(중간점)절충 ②(분쟁)조정≒중재 ③(양보)타협
훌륭하다	송고	①(인격, 품성, 학식)고매 ②(뜻)송고 ③(지위, 신분)존귀

② 의미가 유사한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가지다 지니다	소유	①소장 ②소유 ③보유
가난하다 어렵다 쪼들리다	곤궁	①빈곤 ②곤고 ③곤궁 ④궁핍 ⑤궁색
가로채다	횡령	①횡령 ②횡탈 ③갈취
가볍다 무게 없다 속되다	경솔	①경망 ②경솔 ③경홀 ④천박
거의 같다 비슷하다	유사	①근사 ②유사 ③흡사
걱정하다 근심하다	우려	①우려 ②염려 ③심려
게으르다	나태	①나타 ②나태 ③해태 ④태만
견디다 참다	감내	①인내 ②감내 ③감수 ④감당
고치다 낫게 하다	치료	①가료 ②진료 ③치료 ④치유
굳다 단단하다 단단하게 되다 튼튼하게 하다	강고	①공고 ②견고 ③확고 ④강고 ⑤강화
굳히다 마음먹다	결심	①결단 ②결심 ③작정
기울이다 다하다 쏟다 애쓰다	경추 몰두	①경추 ②추력 ③몰두 ④몰입 ⑤매진 ⑥열중
깊다	심오	①심대 ②심오 ③심화
깊이 생각하다	고심	①고심 ②감고 ③숙고
까무러치다 쓰러지다	기절	①기절 ②훈절 ③실신 ④졸도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깔보다 낮추보다 쉽게 보다 욕되게 하다	모멸 능멸 경시	①모욕 ②모독 ③모멸 ④경멸 ⑤능멸 ⑥경시 ⑦무시 ⑧멸시 ⑨능욕 ⑩비하
나쁘게 보다	핼하	①핼하 ②핼척 ③핼훼
낮 뜨겁다 미안하다 불 낮 없다 부끄럽다	죄송	①죄송 ②송구 ③면구 ④면괴
내버려두다 내치다 팽개치다	방기	①유기 ②방기 ③방임 ④방치
내어 주다	발부	①발급 ②발부 ③교부
놀라다(좋은)	감탄	①감탄 ②경탄 ③탄복 ④감복
눈여겨보다	추목	①추목 ②추시 ③관찰
뉘우치다 반성하다	회개	①개과 ②개심 ③개전 ④회개 ⑤후회
다그치다 몰아치다 몰아세우다	최촉	①최고 ②최촉 ③촉구 ④독촉 ⑤재촉
다 타다	전소	①소실 ②소훼 ③전소
답하다 대답하다	회답	①답신 ②회답 ③회시
떠받들다 받들다	존경	①경모 ②존경 ③존중
뚜렷하다 틀림없다	명백	①분명 ②명확 ③명백 ④명료 ⑤자명 ⑥극명
매우 급하다	긴급 긴박	①절박 ②시급 ③긴급 ④화급 ⑤급박 ⑥긴박
메마르다	각박	①각박 ②박정 ③매정 ④인색
모시고 오다	초대	①초대 ②초빙 ③초청
몸에 지니다	휴대	①소지 ②휴대

우리말	암기 대표말	한자어
벌주다	처벌	①엄벌 ②징벌 ③처벌 ④처단
불쌍하다 애처롭다	가련	①가금 ②가련 ③측은
불을 끄다	소화	①소등 ②소화
빌다	소원	①소원 ②기원 ③촉원
사다	구매	①구입 ②구매 ③매수 ④매입
생각해 보다	고려	①고려 ②배려 ③감안 ④참작
슬프다	통석	①애석 ②통석 ③통념 ④비통
(신문, 잡지) 신다	게재	①게재 ②수록
쓸쓸하다 외롭다	고적	①고독 ②고적 ③척막 ④척적
여기다 어긋나다	위반	①위반 ②위배
어찌지 못하다	곤혹	①곤란 ②곤혹 ③당혹 ④난감 ⑤난처
열다	개최	①개최 ②개비 ③개소 ④주최
올가미를 씌우다	모함	①모락 ②모함 ③모해
올리다	품신	①상신 ②품신 ③품의
억박지르다 위협하다	위협	①위협 ②협박 ③공갈
잘못 알다 잘못 판단하다 헛다리짚다	착오	①착각 ②착오 ③오인 ④오판
중요하다 필요하다	긴요	①긴요 ②요긴 ③불가결
책을 펴내다	발행	①발간 ②발행 ③간행 ④출판
통틀다	총괄	①총괄 ②통괄 ③망라
한숨 쉬다	탄식	①탄식 ②개탄 ③통탄
홀딱 빠지다	열중	①몰두 ②열중 ③전념
흘리다	매혹	①매료 ②매혹 ③미혹

③ 한자를 이용한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

의미	대표 한자	형태
강제	굳셀 강(強)	①강권(강제로 권하다) ②강매(강제로 팔다) ③강요, 강제(강제로 시키다)
급하다	급할 급(急)	①급락(가파르게 떨어지다) ②급습(갑자기 공격하다) ③급증(갑자기 늘다) ④급변(갑자기 변하다) ⑤급감(갑자기 줄다) ⑥급송(급히 보내다) ⑦급등(급히 오르다) ⑧급조(급히 만들다) ⑨급파(급히 파견하다) ⑩급전(급히 전하다)
나가다 나오다	날 출(出)	①출동(나가다) ②누출, 유출(빠져나가다, 새어 나가다) ③출원(서류를 내다) ④출마(선거에 나가다) ⑤출산(애를 낳다) ⑥출두(직접 나가다) ⑦출고(창고에서 나가다) ⑧출혈(피가 나다) ⑨출항(항구를 떠나다) ⑩출근(회사를 가다)
덜다 줄이다 빼다	덜 감(減)	①감원(사람을 줄이다) ②감압(압력을 낮추다) ③감속(속도를 줄이다) ④감점(점수를 빼다) ⑤감퇴(줄어들다) ⑥감쇄(줄어없애다) ⑦감산(줄여 생산하다) ⑧감차(차량을 줄이다) ⑨감형(형벌을 줄이다) ⑩격감(부쩍 줄이다, 확 줄다) ⑪탕감(빛을 줄이다)
말하다	말씀 언(言) 지을 술(述) 말씀 설(設)	①간언(간곡히 말하다) ②부언, 첨언(덧붙여 말하다) ③극언(막말을 하다) ④언쟁(말다툼하다) ⑤구술(말로 하다) ⑥각설(말을 돌리다) ⑦언급(말하다) ⑧직언(바로 말하다) ⑨전술(앞에서 말하다) ⑩간언(올려 말하다) ⑪상술(자세히 말하다) ⑫단언(잘라 말하다) ⑬역설(힘주어 말하다)
묻다	물을 문(問)	①힐문, 규문(따져 묻다) ②질문, 문의(묻다) ③불문(묻지 않다) ④자문(스스로 묻다)
변하다 바래다	변할 변(變)	①변심(마음이 바꾸다) ②변질(맛이 가다) ③변색(바래다)
보내다	보낼 송(送)	①환송, 회송(돌려보내다) ②추송(뒤에 보내다) ③별송(따로 보내다) ④탁송(맡겨 보내다) ⑤발송, 송부(보내다) ⑥운송(실어 보내다)

의미	대표 한자	형태
보다	볼 시(視) 볼 관(觀)	①가관(꽤 볼만하다) ②개관(대중 보다) ③응시(뚫어지게 보다) ④직시(똑바로 보다) ⑤관조(찬찬히 보다)
사라지다	사라질 소(消) 멸망할 멸(滅)	①점멸(깜박이다) ②소모, 고갈(다 쓰다) ③소각(태우다)
쓰다	쓸 용(用)	①전용(돌려쓰다) ②의용(빌려 쓰다) ③적용(맞추어 쓰다) ④절용(아끼다) ⑤통용(두루 쓰다) ⑥도용(훔쳐 쓰다) ⑦등용(뵘아 쓰다) ⑧애용(즐거 쓰다) ⑨상용(언제나 쓰다) ⑩차용(빌려 쓰다)
아님	아닐 불(不)	①불균일(고르지 않다) ②불응(따르지 않다) ③불요(필요하지 않다)
알다	알 지(知)	①감지(느껴 알다) ②문지(물어서 알다) ③숙지(잘 알다) ④추지(추측해 알다)
오다	돌아올 환(還)	①소환(나오게 하다) ②귀환(돌아오다) ③생환(살아서 돌아오다)
옮기다	옮길 이(移) 구를 전(轉)	①전출(옮겨 가다) ②이입(옮겨 넣다) ③이설(옮겨 설치하다) ④전재(옮겨 신다) ⑤이식(옮겨 심다) ⑥이적(호적을 옮기다)
읽다	읽을 독(讀)	①속독, 정독(꼼꼼히 읽다) ②속독(빨리 읽다) ③구독(사서 읽다) ④낭독(소리 내어 읽다) ⑤열독(열심히 읽다) ⑥독파(완전히 읽다) ⑦강독(읽고 알아내다) ⑧애독(즐거 읽다)
자리	자리 석(席)	①배석(함께 참석하다) ②공석(자리가 비다) ③합석, 동석(자리를 같이하다) ④이석(자리를 뜨다) ⑤착석(자리에 앉다)
죽다	죽을 사(死)	①급사(갑자기 죽다) ②압사(깔려 죽다) ③사망(죽다) ④동사(얼어 죽다) ⑤치사(죽게 하다)
팔다	팔 매(賣)	①강매(강제로 팔다) ②매진(다 팔리다) ③환매(다시 팔다) ④예매, 선매(미리 팔다)
함께 하다	함께 공(共) 합할 합(合)	①공람(함께 돌려보다) ②공모(함께 모의하다) ③공역(함께 번역하다) ④공유(함께 가지다) ⑤합심(뜻을 맞추다) ⑥합세(세력을 합하다)

④ 유형을 이용한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

의미	형태
가다	①출항(나가다) ②선회, 우회(돌아가다, 빙빙 돌다) ③밀항(몰래 가다) ④추월(앞지르다) ⑤서행(천천히 가다)
겨루다	①필적(겨를 만하다) ②승소(소송에 이기다) ③극복(이겨내다) ④선전(잘 싸우다) ⑤석권, 재패(휩쓸다)
계약보증	①호가(값을 부르다) ②결렬(깨어지다) ③상쇄(맞비기다) ④결산(마감하다) ⑤체결(맺다) ⑥해약(취소하다, 포기하다) ⑦구상(배상을 요구하다) ⑧입보(보증서다) ⑨계상(셈에 넣다) ⑩개산(어림셈하다)
발전하다	①개축(고쳐 짓다) ②추완(나중에 보완하다) ③창출(새로 만들다) ④전진(앞으로 나가다) ⑤진척(진행되어 가다) ⑥진일보(한 걸음씩 나아가다) ⑦증진(늘어가다)
글자, 책	①집필(글을 쓰다) ②가필(글자를 고치다) ③각색(꾸며 고치다) ④표기(기록하다) ⑤대서(대신 쓰다) ⑥윤색(매끄럽게 고치다) ⑦편철(매다) ⑧편찬(묶어 내다) ⑨명기(상세히 쓰다) ⑩등재(올리다) ⑪이기(옮겨 적다) ⑫개서, 개고(원고를 고치다) ⑬탈고(원고를 끝내다) ⑭교열(원고를 바로 잡다) ⑮투고(원고를 보내다) ⑯기장(장부에 적다) ⑰출품(작품을 내다) ⑱개작(작품을 고치다) ⑲납본(책을 제출하다) ⑳제판(인쇄판을 만들다) ㉑열람(훑어보다) ㉒상기(앞에 적다)
기르다	①식재(나무를 가꾸다) ②방목, 방사(놓아서 기르다) ③발육(자라다)
나누다	①교차(건너지르다, 엇갈리다) ②균분(골고루 나누다) ③분리(나누다) ④각출(나누어 내다) ⑤할당, 할양(나누어 받다) ⑥분계, 분기(나누어지다) ⑦분열(찢기다) ⑧대별(크게 나누다) ⑨안분(비율로 나누다) ⑩여과(거르다, 걸러 내다)
더럽다	①오염(더럽히다) ②감염(웁다, 물들다)
돈	①급부(재물을 주다) ②충당(채우다) ③이체(돈을 넘겨주다) ④압류, 차압(잡아 두다) ⑤임치(돈을 맡기다) ⑥송금(돈을 보내다) ⑦인출(돈을 찾아가다) ⑧선납, 예납(미리 내다)
때	①대기(기다리다) ②연착(늦게 도착하다) ③엄습(덮치다) ④도과, 경과(지나가다) ⑤실기(때를 놓치다) ⑥요원(떨어지다)

의미	형태
마음	①안정, 진정(가라앉히다, 달래다) ②생소(낯설다) ③음미(되새기다, 아로 새기다) ④유념, 유의(마음에 두다) ⑤안심, 안도(마음을 놓다) ⑥허탈(멍하다) ⑦동요(흔들리다) ⑧발동(일어나다) ⑨체감(직접 느끼다) ⑩호소(하소연하다) ⑪환멸(학을 떴다) ⑫분노(화를 내다)
막다	①경색(막히다) ②좌초(암초에 걸리다)
만들다	①안배(배치하다) ②입안(안을 만들다)
모으다	①수거, 수집(거두다) ②수렴, 수습(건어 모으다) ③집약(모아서 요약하다) ④퇴적(쌓이다) ⑤축재(재산을 모으다)
물	①저류(가두어 두다) ②침식(깎이다) ③범람(넘치다) ④용해(녹이다) ⑤건조(말리다) ⑥수장(물에 잠기다) ⑦배수(물을 빼다) ⑧팽창(부풀다) ⑨용출(솟아나다) ⑩방류(흘러보내다) ⑪결빙(얼어붙다) ⑫동파(얼어 터지다) ⑬부상(떠오르다)
받다	①향수, 향유(누리다) ②수주(주문을 받다) ③발주(주문하다)
배우다	①연마(갈고 닦다) ②채득(몸으로 익히다) ③수학(배우다) ④견학(보고 배우다) ⑤통달, 숙달(잘 익히다)
비난	①농락(가지고 놀다) ②도취(흠뻑 빠지다) ③단교(관계를 끊다) ④굴종(굽신 굽신하다) ⑤도발(갑죽대다, 대들다) ⑥미화(꿀을 바르다) ⑦유착(끈끈하다) ⑧수뢰(뇌물을 받다) ⑨미숙, 미숙련(덜 익다, 서투르다, 설익다, 어설피다) ⑩독식, 독점(독차지하다) ⑪주저(머뭇거리다) ⑫몰상식, 무례(버릇없다) ⑬가혹, 냉혹(무자비하다) ⑭내응, 내통(한통속이 되다) ⑮격노, 격분(불같이 화내다) ⑯탐닉(빠지다) ⑰냉소(비웃다) ⑱부패(썩다) ⑲중독(홀딱 빠지다) ⑳편취(속여 빼앗다) ㉑공전(헛돌다) ㉒식상, 염증(싫증나다) ㉓보복, 복수(앙갚음하다) ㉔무산(안되다) ㉕탈선(빗나가다) ㉖몽매, 우매(어리석다) ㉗결례(예의에 벗어나다) ㉘의아(의심스럽다) ㉙곡해, 왜곡(잘못 받아들이다) ㉚오진(잘못 진단하다) ㉛자행(저지르다) ㉜황행(제멋대로 다니다) ㉝과신(지나치게 믿다) ㉞유린(짓밟다) ㉟치중, 편중(치우치다) ㊱독주(제멋대로 하다) ㊲냉대(푸대접하다) ㊳빙자(핑계를 대다, 핑계를 삼다) ㊴기만, 기망(속이다) ㊵과장(부풀리다) ㊶과시(뽐내다)
세금	①과징(많이 매기다) ②납세(세금을 내다) ③과세, 부과(세금을 매기다) ④추징(추가 징수하다) ⑤탈세(세금을 빼돌리다) ⑥체납(세금이 밀리다)

의미	형태
알리다	①공표(공개로 알리다) ②추신(나중에 알리다)
옳다	①지당(당연하다, 옳다) ②양호(좋다) ③호전(좋아지다)
이어지다	①부단(꾸준하다) ②직결(바로 연결되다) ③연접(서로 맞닿다) ④인접(이웃에 있다)
일생	①소일(날을 보내다) ②쾌면(달게 자다) ③섭렵(두루 겪다) ④임신, 포태(애를 배다) ⑤취침(자다) ⑥숙면(푹 자다) ⑦결별, 이별(헤어지다)
일	①근속(계속 일하다) ②날인(도장을 찍다) ③대결(대신 결재하다) ④대행(대신 행사하다) ⑤폐업(문을 닫다) ⑥선람(미리 보다) ⑦내정(미리 정하다) ⑧철야(밤새워 일하다) ⑨면책(벗어나다) ⑩수권(권한을 주다)
일어나다 저지르다	①팽배(맹렬히 일어나다) ②우발(우연히 일어나다) ③빈발, 빈번(자주 일어나다)
있다	①강점(강제로 차지하다) ②견지(굳게 지니다) ③잔존(남아있다) ④연명(목숨을 이어 오다) ⑤정착(자리를 잡다)
좋은	①충만(가득 차다) ②감사(고맙다) ③찬양, 칭찬(기리다) ④각별(깁듯하다, 특별하다) ⑤계몽(깨우치다) ⑥관대(너그럽다, 어질다) ⑦정려(노력하다) ⑧공헌, 기여(도움을 주다, 이바지하다) ⑨돈독, 돈후(도탑다, 두텁다) ⑩월등, 초월(뛰어넘다) ⑪각오, 불사(마다하지 않다) ⑫명중(바로 맞다) ⑬근면(부지런하다) ⑭경청(새겨듣다) ⑮화합(어울리다) ⑯결실(열매를 맺다) ⑰과감(용감하다) ⑱화해(풀다) ⑲선호(좋아하다) ⑳대승(크게 이기다) ㉑충족(채우다) ㉒감축, 양축(축하하다) ㉓대성(크게 성공하다)
지키다	①엄수(굳게 지키다) ②자위(스스로 지키다) ③보호(지키다)
하다	①도급(도맡다) ②지진(스스로 하다)
회의	①상신(보고를 올리다) ②발의(의견을 내다) ③부의(토의에 붙이다) ④상정, 회부(회의에 올리다) ⑤산회(회의를 마치다)
학교 학문	①채점(점수 매기다) ②근학(부지런히 배우다) ③암송(소리 내어 외다) ④암기(외우다) ⑤실습(실제로 배우다)

의미	형태
행동	<p>①감금(가두다) ②선택(골라잡다) ③관전, 관람(구경하다) ④장악(틀어쥐다) ⑤폭로(까발리다, 들추다) ⑥폭소(낄낄 웃다) ⑦포옹(껴안다) ⑧미행 (꼬리를 밟다, 뒤를 밟다) ⑨치밀(꼼꼼하다) ⑩집요(끈덕지다, 끈질기다) ⑪기립(일어서다) ⑫질주(내달리다) ⑬돌격, 돌진(냅다 나아가다) ⑭발산 (내뿜다) ⑮치상(다치게 하다) ⑯주행(달리다) ⑰타진(두드리다) ⑱번복, 전복 (뒤집다) ⑲청취(듣다) ⑳격리, 분리(떼어놓다) ㉑단결(똘똘 뭉치다) ㉒소외 (멀리하다) ㉓사정, 애원(매달리다) ㉔극심, 막심(매우 심하다) ㉕강행 (밀어붙이다) ㉖직립(바로 서다) ㉗도말, 도포(바르다, 칠하다) ㉘분주 (바쁘다) ㉙수궁(받아들이다, 옹계 여기다) ㉚술선, 수범(본을 보이다) ㉛충돌 (부딪치다) ㉜절규(부르짖다) ㉝포박(붙잡다) ㉞기생(빌붙다) ㉟실종(사라지다) ㊱근신(삼가다) ㊲채색(색을 입히다) ㊳실족(헛디디다) ㊴통솔(이끌다) ㊵모호 (알쏭달쏭하다) ㊶고전, 고투(애먹다) ㊷속박(엄매이다) ㊸행렬, 행진(나란히 건다) ㊹졸도(까무러치다) ㊺석방(풀어 주다) ㊻집약(한데 모으다)</p>
나머지	<p>①근접, 접근(가까이 가다, 다가가다) ②편식(가려 먹다) ③동봉(함께 보내다) ④지참(가지고 오다) ⑤균열(갈라지다, 금가다) ⑥배가(갑절을 늘리다) ⑦몰수(강제로 빼앗다) ⑧경유(거치다) ⑨관통(꿨다) ⑩관여(끼어들다) ⑪견인(끌어당기다) ⑫구인, 인치(끌어 데려오다) ⑬유치(끌어들이다) ⑭상위, 상이(다르다) ⑮계양(달다) ⑯견실(단단하다, 튼튼하다) ⑰초래, 야기 (가져오다) ⑱대동, 동반(데리고 오다) ⑲부각(떠오르다) ⑳적시(똑바로 보다) ㉑난입, 투신(뛰어들다) ㉒정체(막히다) ㉓경원(멀리하다) ㉔참칭(멋대로 말하다) ㉕쇄도(몰려들다, 빗발치다) ㉖둔화(무디어지다) ㉗흡입(빨아들이다) ㉘근절(뿌리를 뽑다) ㉙돌출(쑥 나오다) ㉚강직(올곧다) ㉛취명(올리다) ㉜역임(자리를 거치다, 지내다) ㉝연호(연달아 외치다) ㉞와전(잘못 전하다) ㉟대절(빌리다) ㊱정숙(조용하다) ㊲거증, 입증(증거를 들다) ㊳목격(직접 보다) ㊴일천(짹다) ㊵패용(차다) ㊶점령, 정복(차지하다) ㊷발굴(찾아내다) ㊸호언(큰소리를 치다) ㊹투기(내버리다) ㊺훈계(타이르다) ㊻파열(터지다) ㊼전개(펼치다)</p>

⑤ 반대되는 뜻을 이용한 동사성 한자어 명사 고치기

긍정·능동	부정·수동
낙승, 압승(가볍게 이기다)	신승(겨우 이기다)
구비(갖추다)	불비(갖추지 못하다)
절연(끊어 버리다)	단절, 두절(끊어지다)
연승, 연패(내리 이기다)	연패(내리 패하다)
구축, 추방, 축출(내쫓다, 쫓아내다)	실각(쫓겨나다)
광대(넓다, 크다)	협소(좁다)
주시(눈여겨보다)	방관, 좌시(지켜만 보다)
증산(늘려 만들다)	감산(줄여 만들다)
상회(뛰어넘다)	하회(밀돌다)
파다, 허다(매우 많다)	전무(전혀 없다)
대부, 대여(빌려주다)	대출, 차입(꾸다, 빌다)
조속(빠르다)	완만(느리다)
용이, 평이(쉽다)	곤란, 난삽, 지난(어렵다), 과중(벅차다, 힘들다)
반입(들여오다, 실어 오다)	반출(내어가다, 실어내다)
상차(오르다)	하차(내리다)
각골(잇지 못하다)	망각, 망실(까먹다, 잊다)
삼가, 절제(조절하다)	과도, 과분(지나치다)
순화(좋게 고치다)	개악(나쁘게 고치다)
양호(좋다)	악화, 열악(나쁘다, 덧나다, 뒤떨어지다)
농후(질다)	희석(묽다)
양수, 인수(넘겨받다)	양도(넘겨주다)
점증(늘어 가다)	점감(줄어들다)

7. 1글자 한자어 동사 고치기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가(加)하다 ^①	입히다, 저지르다, 주다, 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민법 750조」
가(加)하다 ^②	더하다, 보태다	약한 열을 가한 후 「연합뉴스」, 2017. 10. 14.
가(加)하다 ^③	서두르다, 애쓰다, 힘쓰다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정책브리핑 공감」, 2014. 10. 31.
가(可)하다 ^①	가능하다	농축액이 몇 %이상이면 가하다. 『JTBC』, 2017. 12. 12.
가(可)하다 ^②	옳다, 지당하다	징계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감(減)하다	적어지다, 줄이다	복과 명을 감하는 식탐
감(鑑)하다	보시다, 살펴보다	어른들께서 감해 주실 겁니다.
거(居)하다 ^①	거창하다, 웅장하다	이름이 거하다 『조선비즈』, 2016. 11. 9.
거(居)하다 ^②	거주하다, 머물다	은혜 안에 거하다 『책제목』
격(隔)하다	간격을 두다, 두다	하루를 격하여 만났다.
결(缺)하다	모자라다, 빠지다, 없다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며 『뉴스스』, 2011. 12. 15.
결(結)하다	연결하다	대모산을 결하는 생태통로 『뉴스투데이』, 2017. 8. 28.
결(決)하다 ^①	결정하다, 정하다	거취를 결하라고 『데일리 메디』, 2017. 6. 22.
결(決)하다 ^②	결제하다	10만원 이상 결하는 고객에게는 『뉴스스』, 2010. 5. 5.
경(輕)하다	가볍다, 약하다	굉장히 경한 징계인데 『KBS』, 2018. 3. 5.
경(經)하다	경유하다, 거치다	삼척을 경하여 강릉으로
고(告)하다 ^①	고지하다, 아뢰다, 알리다	꿈 이야기를 고종에게 고하여 『프레시안』, 2018. 3. 13.
고(告)하다 ^②	고발하다, 고자질하다, 고해바치다	뇌물 사건을 고했다.
곡(哭)하다	통곡하다	친구의 죽음을 곡하였다.
공(供)하다	내다, 바치다, 제공하다, 주다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민법 100조 1항」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공(空)하다	공허하다	일체 세간은 모두가 공하여 『대구신문』, 2016. 12. 15.
과(過)하다	넘치다, 지나치다	의욕이 과하여 발생한 일
과(課)하다	과세하다, 세금을 매기다	엄청난 세금을 과했다.
과(科)하다	형벌을 부과하다	1년 이하 금고에 과했다.
궤(闕)하다	자리가 비다, 충족하지 못하다	요건을 궤한 문서
궁(窮)하다	궁핍하다, 난처해지다, 막히다	그는 처지가 궁하여 이웃에게 구걸하였다.
금(禁)하다	못하다, 못하게 하다	조선왕조실록 왕의 열람을 금하다. 『KBS』, 2017. 3. 9.
공(亘)하다	걸치다	10년을 공하여 온 소송
기(期)하다 ^①	각오하다, 대비하다, 예기하다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期)하다 ^②	기한을 정하다	아군은 정오를 기해 반격을 시작하였다.
기(期)하다 ^③	기대하다, 기약하다	사람 혼자서는 생존을 기하기는 어렵다.
기(基)하다	근거를 두다, 근거를 삼다, 기반을 삼다, 바탕을 두다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민법 542조」
달(達)하다 ^①	되다	한 달에 1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달(達)하다 ^②	이르다, 도달하다	독재자의 폭압이 극에 달했다.
달(達)하다 ^③	달성하다	그는 목적을 달하지 못했다.
당(當)하다 ^①	겪다, 입다	욕설,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3. 9. 27.
당(當)하다 ^②	당면하다	그는 시험일에 당하여 마음을 굳게 먹었다.
당(當)하다 ^③	맞먹다	교육 효과는 3배에 당한다.
당(當)하다 ^④	타당하다, 합당하다	그 일을 결코 당치 않는다.
득(得)하다	얻다, 이익을 보다	남자의 자격을 득하다. 『한국경제』, 2012. 3. 26.
면(免)하다 ^①	그만두다, 벗어나다	여관방 신세를 면한 안씨는 『정책브리핑 공감』, 2012. 5. 4.
면(免)하다 ^②	면제하다, 면죄하다, 면직하다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민법 5조 1항」
면(面)하다 ^①	당면하다	위기를 면하자 기지를 발휘했다.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면(面)하다 ^②	붙어 있다	동쪽으로는 바다에 면해 있다.
멸(滅)하다	멸망시키다	왜적을 멸한 이순신 장군
명(命)하다 ^①	명령하다, 시키다	부분 조업정지를 명한 상태다. 『환경부 보도자료』, 2013. 4. 15.
명(命)하다 ^②	임명하다	박춘수에게 상당한 직의 제수를 명하다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유적』, 2017. 9. 11.
명(名)하다	이름을 짓다	그를 홍의장군이라고 명했다.
발(發)하다 ^①	나타내다, 내다, 발현하다	스포츠 기상지원으로 빛을 발하다. 『연합뉴스』, 2017. 10. 14.
발(發)하다 ^②	발표하다, 알리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민법 71조』
발(發)하다 ^③	가다, 출발하다	그는 대전을 발하여 떠났습니다.
발(發)하다 ^④	발동하다, 움직이다	장군은 대군을 발했다.
범(犯)하다	저지르다	죄를 범한 범인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1. 18.
보(報)하다	보도하다, 알리다	그 사람 죄상을 낱낱이 보하였다.
보(補)하다 ^①	보충한다, 보태다	오장을 보익하고 정(精)을 보할 『경기도 안산시 보도자료』, 2013. 7. 15.
보(補)하다 ^②	임명하다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봉(封)하다 ^①	임명하다	항우가 공신들을 왕으로 봉했다.
봉(封)하다 ^②	막다, 밀봉하다	상자에 넣고 봉한 후 『제민일보』, 2018. 3. 5.
부(富)하다	풍부하다, 넉넉하다	그는 나라를 부하게 했다.
부(不)하다	부인하다	검찰 조사 때 대부분 혐의를 부한 바 있어 『SBSCNBC』, 2018. 3. 20.
부(付)하다	붙이다, 첨부하다	태극기를 모자에 부하고 응원을 했다.
분(扮)하다	분장하다	그녀는 줄리엣으로 분하여 열연하였다.
사(赦)하다	용서하다	우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謝)하다 ^①	감사하다	그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하는 바입니다.
사(謝)하다 ^②	사죄하다	저의 잘못을 사하는 바입니다.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사(辭)하다	거절하다, 사절하다	호의를 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賜)하다	주다, 하사하다	왕은 그에게 작위를 사하였다.
생(生)하다 ^①	발생하다, 생기다, 일어나다	병이 생하다.
생(生)하다 ^②	출생하다, 나오다	1560년(명종19년)에 생하여 「경상북도 경북 소개」, 2016. 8. 5.
속(屬)하다	따르다, 포함되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40조」
승(乘)하다	곱하다	배수를 승하여 정한다.
승(勝)하다	뛰어나다	재주가 남보다 승한 사람은 덕이 없다.
약(略)하다	생략하다	직원은 자료를 약하여 제출하였다.
요(要)하다	필요하다	3주가량의 회복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스포츠키리아』, 2018. 3. 27.
유(柔)하다	온순하다, 유순하다	그 아이는 성격이 유하고 여린 편입니다.
임(臨)하다 ^①	나가다, 도달하다, 마주치다, 하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 「정책브리핑 공감」, 2018. 2. 7.
임(臨)하다 ^②	영향을 미치다	온갖 재앙이 지구에 임하였다.
임(臨)하다 ^③	마주치다, 만나다	공장들은 바다를 임하여 들어서 있었다.
임(臨)하다	떠맡다, 책임지다	그렇게 진심으로 활동에 임하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2. 11. 7.
접(接)하다 ^①	대하다	학생들이 기업 현장을 처음 접하다 보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2. 9.
접(接)하다 ^②	듣다, 만나다, 보다, 읽다, 듣다	그 자리에서 연설을 접한 뒤 「정책브리핑 공감」, 2016. 6. 2. 노트와 영감을 받기 위해 접한 책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 4. 3. 뉴스로만 접하다 보면 「정책브리핑 공감」, 2012. 9. 4. CTS프로그램 개최 소식을 접한 「정책브리핑 공감」, 2018. 2. 1.
접(接)하다 ^③	마주치다, 붙어 있다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국방부 보도자료」, 2018. 3. 7.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절(絶)하다	다시없다, 초월하다	천하에 절한 명승지
절(切)하다	끊다, 단절하다	그는 세상과 절하고 살았다.
점(占)하다 ^①	자리를 잡다, 점유하다, 차지하다,	자전거 수입은 우위를 점한 국가 없이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10. 2.
점(占)하다 ^②	점을 쳐보다	자신의 미래를 점해 보다.
제(制)하다	억누르다, 자제하다, 제압하다	분노를 제하고 미래를 바라보자.
제(題)하다	제목을 붙이다	‘일자리 지원 겹돈다’ 제하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27.
제(製)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제작하다, 짓다	한약을 제하면서 인삼을 빼먹었다.
제(除)하다	빼다, 제외하다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민법 82조」
족(足)하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할만하다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경기도 보도자료」, 2021. 1. 17.
준(準)하다	따르다, 상응하다, 준용하다	표준약관에 준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9. 18.
중(重)하다 ^①	무겁다, 심하다, 중대하다	죄질이 중한 경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12. 13.
중(重)하다 ^②	중요하다	밀접한 호흡이 중요하다. 『스포츠향국』, 2018. 3. 6.
책(責)하다	문책하다, 비난하다	남을 책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합시다.
책(策)하다	꾀하다, 획책하다	세력 만회를 책하고 있다.
처(處)하다 ^①	놓이다, 대처하다, 맞닥뜨리다, 부딪치다, 빠지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환경부 보도자료」, 2018. 1. 10.
처(處)하다 ^②	벌주다, 처벌하다	도둑질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請)하다 ^①	바라다, 부탁하다	주위의 도움을 청해 「정책브리핑 공감」, 2016. 9. 15.
청(請)하다 ^②	초청하다	이웃을 잔치에 청하였다.
청(請)하다 ^③	자다	낮잠을 청하는 아이들
취(醉)하다	도취하다, 빠지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8. 9.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취(取)하다 ^①	따다	송산의 송자와 소림사의 림자를 취해 『국민속으로』, 2017. 2. 15.
취(取)하다 ^②	세우다, 쓰다, 하다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 9. 6.
취(取)하다 ^③	잡다	멤버 8명이 포즈를 취해 「정책브리핑 공감」, 2016. 8. 4.
칭(稱)하다	말하다, 부르다, 사칭하다	증후군이라 칭할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 1. 22.
탁(濁)하다	더럽다, 혼탁하다	물이 탁한 비취색이었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4. 7. 17.
파(罷)하다	그만두다	직위를 파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1. 13.
파(破)하다	이기다	왜적을 파한 이순신 장군
파(派)하다	출장을 보내다, 파견하다	부장은 과장을 파해서 진상을 알아보았다.
평(評)하다	비평하다, 평가하다	일반적이지 않는 자살방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2017. 7. 14.
폐(廢)하다 ^①	쇠퇴하다, 없애다, 몰아내다, 폐위하다	사장은 불필요한 직책을 폐하였다.
폐(廢)하다 ^②	그만두다 중단하다	그녀는 식음을 폐하고 걱정을 하였다.
표(表)하다	나타내다	과장은 청탁에 난색을 표했다.
표(標)하다	남기다	학생은 색연필로 중요 부분을 표해 두었다.
필(畢)하다	마치다	그는 학업을 필하고 군대에 갈 예정입니다.
합(合)하다	합치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제잉여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 2. 9.
행(行)하다	다루다, 수행하다, 처리하다, 하다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행한 것임을 「관세청 보도자료」, 2017. 9. 30.
해(害)하다	침해하다, 해치다, 해를 끼치다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자는 「형법 315조」
허(許)하다	허락하다, 허가하다	우리는 늑대의 후손, 운동장을 허하라 『한겨레』, 2018. 3. 23.

8. 사자성어 고치기

① 사자성어를 쉬운 말로 고치기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각계각층	여러 분야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온정의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
감언이설	꿀을 바른 말 달콤한 말 사탕발림	온갖 감언이설을 하며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1. 13.
당연지사	당연한 일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 건 당연지사이고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20. 12. 18.
만장일치	한목소리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한 대상 「국립한글박물관 보도자료」, 2021. 9. 30.
모야모야	누구누구	모야모야하는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다.
무주공산	텅 빈 땅 짚고 헤엄치기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 9. 30.
반면교사	나쁜 본보기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3. 3.
농반진반 반신반의	농담 반 진담 반 반반	솔직하게 반신반의하면서 「경상북도 구미시 보도자료」, 2020. 5. 15.
백척간두 위기일발 풍전등화	벼랑 끝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나 「청와대 보도자료」, 2018. 6. 14.
사면초가 속수무책 진퇴양난	빼도 박도 못하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5. 22.
사방팔방 사방천지 방방곡곡	군데군데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사방팔방 돌아다녀도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1. 13.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사사오입	반올림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9. 17.
삼라만상 세상만사	온 세상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해와 달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 11. 16.
염량세대	반지빠름 약삭빠름	예나 지금이나 염량(炎涼)세대일수록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6. 8. 5.
이전투구	개싸움 진흙탕 싸움	정치권의 이전투구 「정책브리핑 공감」, 2011. 8. 5.
금시초문 전대미문	난생처음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3대 세습 독재국가인 「교육부 보도자료」, 2016. 3. 7.
전광석화	눈 깜짝할 사이 번개처럼 빛처럼 비호같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국방부 보도자료」, 2016. 11. 14.
안성맞춤 적재적소	딱 맞음 최적	적재적소에 배치해 「정책브리핑 공감」, 2017. 9. 15.
구우일모 조족지혈	극소수 매우 적음	벌금은 초과 수익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진검승부	죽기 살기로	금메달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칠 『KTV』, 2014. 1. 29.
천신만고	갓은 고생 온갖 고생	천신만고 끝에 「정책브리핑 공감」, 2011. 11. 4.
천태만상 각양각색 형형색색	가지가지 온갖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국고보조금 비리는 천태만상이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4. 2. 14.
피장파장 피차일반	마찬가지 매한가지 장군 명군	피차일반 아쉬울 게 없었다.
혼연일체	한마음 한뜻	우리 장병 일동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와대 보도자료」, 2017. 5. 17.
천양지차 천차만별	하늘만큼 땅만큼	분권 수준은 천양지차일 것이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9. 21.
첩첩산중	두메산골	산간오지 주민들이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4. 13.

② 사자성어를 쉬운 말로 고치기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거두절미	잘라 말하다	답변 부분만 거두절미 부각시키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7. 21.
경거망동	경망스럽다 방정맞다	자신의 경거망동을 크게 후회하며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4. 13.
고립무원	외톨이가 되다	고립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와대 보도자료」, 2016. 3. 25.
곡학아세	아침하다	곡학아세하는 세대
공사다망	매우 바쁘다	그는 공사다망한 가운데 참석하였다.
경천동지 팔목상대	급격히 발전하다 눈에 띄다	팔목상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2. 12. 21.
구태의연	낡아 빠지다 케케묵다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9. 4.
기고만장 득의양양 의기양양	들썩거리다 우쭐거리다 으스대다	스포츠 신동으로 주목받아 기고만장했던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19. 11. 21.
기진맥진	맥이 빠지다	당사자들이 기진맥진하는데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9. 6. 3.
기절초풍 대경실색 아연실색	경악하다 기겁하다 깜짝 놀라다 몹시 놀라다 질겁하다	그녀는 그 사람의 이중적 태도에 아연실색했다.
능수능란	능하다 잘하다	가볍게 다뤄내는 능수능란함이 돋보였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7. 20.
방약무인 안하무인 오만방자 오만불손	거들먹거들먹 사람을 깔보다 사람을 무시하다	그는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
노발대발	불같이 화내다	회장님이 저에게 노발대발하시더라.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1. 13.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다사다난 다사다망	바쁘다 분주하다	그는 다사다망한 한 해를 보냈다.
대동소이	엇비슷하다 유사하다	지역마다 판매량이 대동소이합니다.
동분서주	부산스레 움직이다	모두가 동분서주하며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20. 12. 2.
만고불변 만대불변	영원하다	만고불변의 자연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16. 8. 26.
망연자실	넋을 놓다 멍하다 어리둥절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큰불이 나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20. 9. 11.
명약관화	분명하다 뻔하다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한 부분이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2020. 8. 25.
명실상부	이름과 어울리다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무미건조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지질히	삶이 무미건조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2020. 11. 25.
무소불위	제왕과 같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전라남도 여수시 보도자료」, 2019. 10. 23.
묵묵부답	대답이 없다 침묵하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19. 1. 3.
발본색원	뿌리를 뽑다	상품권 위장 매입을 발본색원할 수 있어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3. 16.
부지기수 비일비재	매우 많다 수많다 어머어마하다 즐비하다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경기도 보도자료」, 2020. 2. 12.
분기탱천	몹시 분하다	지도자는 농민 착취에 분기탱천하였다.
불가사의	수수께끼와 같다 신비하다 오묘하다	그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목격했다.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불요불급	불필요하다	불요불급한 행사나 회의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2.
사실무근	근거가 없다 터무니없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19. 9. 29.
어불성설 언어도단 황당무계	불합리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조리가 맞지 않다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5. 2. 16.
상부상조	서로 돕다	상인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전했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5. 10. 8.
상호의존	서로 기대다	끈끈한 상호의존 관계는 「KTV」, 2017. 12. 18.
술선수범	모범을 보이다	공공기관이 술선수범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 6. 28.
순진무구 천진무구 천진난만	깨끗하다 순수하다	어린이와 같은 순진무구함 「경기도 안산시 보도자료」, 2018. 7. 20.
시시비비 시비곡직	옳고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도자료」, 2020. 12. 16.
설왕설래 시비연쟁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이다 말씨름을 벌이다	너는 불필요한 시비연쟁을 그만둬야 한다.
시의적절	때에 맞다 적절하다	시의적절하게 전달됐다고 「청와대 보도자료」, 2017. 8. 18.
심사숙고	곰곰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심사숙고해 내놓은 의견인 만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 1. 17.
애걸복걸	빌다 통사정하다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 3. 18.
애매모호 오리무중	알 듯 말 듯하다 불확실하다	애매모호한 개념은 사라져야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 1. 30.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다	역지사지의 마음 훈련하기 「경상북도 영양군 보도자료」, 2020. 10. 20.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예측불허	예측을 못하다 짐작을 못하다	세계 경제가 지금 예측불허이며 「청와대 보도자료」, 2011. 11. 23.
완전무결	완벽하다	완전무결한 인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20. 5. 11.
요지부동 확고부동	움직임이 없다	미국 증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용의주도	꼼꼼하다 완벽하다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청와대 보도자료」, 2013. 12. 16.
유명무실	번지르르하다 이름뿐이다 허울뿐이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해 「경찰청 보도자료」, 2018. 1. 23.
유유상종	엇비슷하다	도둑은 유유상종인가 봅니다.
유유자적	느긋하다 한가하다	유유자적인 낭만과 멋을 느낄 수 있다. 「경상남도 함안군 보도자료」, 2019. 9. 27.
유일무이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유일무이한 마을 전승 민속 인형극으로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9. 21.
의기소침	기가 죽다 풀 죽다	의기소침해 있을 대학생들이 「경기도 보도자료」, 2021. 1. 17.
인사불성	제정신이 아니다	그는 인사불성이 되었다.
일망무제	드넓다	일망무제(一望無際)로 탁 트인 조망에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4. 13.
일망타진	한몫 검거하다 한몫 체포하다	경찰은 사기범을 일망타진했다.
일맥상통	서로 통하다	사람 중심 경제와 일맥상통 「청와대 보도자료」, 2017. 11. 12.
일목요연	명확하다 분명하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정책브리핑 공감」, 2017. 8. 21.
일사불란	일매지게 하다 흐트러짐이 없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보도자료」, 2017. 8. 21.
일자무식	까막눈이다 하나도 모르다	그는 일자무식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순화 대상	올바른 고치기	예문
자포자기	제풀에 지치다 포기하다	집 장만은 자포자기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10. 26.
천정부지	가파르다 하늘 높을 줄 모르다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책브리핑 공감」, 2017. 9. 15.
취사선택	가려내다 고르다 골라잡다	분기별로 취사선택하여 「국회 보도자료」, 2021. 5. 3.
태연자약	태연하다 평소와 같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에도 항상 태연자약하였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6. 8. 5.
파렴치한 후안무치	뻔뻔하다 철면피 같다	이 해에 파렴치한 부정선거로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16. 3. 9.
패가망신	망하다	지나친 음주 문화로 패가망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7. 3. 2.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정치인의 표리부동을 꼬집는 「충청남도 계룡시 보도자료」, 2019. 2. 22.
허송세월	헛되이 보내다	그는 허송세월만 했다.
허심탄회	마음을 터놓다	친구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호언장담	큰소리를 치다 흰소리를 치다	호언장담하던 고지였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2. 6. 14.
화기애애	돈독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11. 16.
확고부동	굳건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부동하게 「정책브리핑 공감」, 2016. 7. 21.
허무맹랑 황당무계	거짓되다 망령되다 터무니없다	이 언어도단의 시대 앞에서 「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 7. 23.
허장성세	떠벌리다 허세를 부리다	지역개발이라는 허장성세와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8. 6. 8.
흥청망청	물 쓰듯이 하다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과소비하던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10. 14.

③ 사자성어를 부사로 고치기

가. 부사인 사자성어를 쉬운 말로 고치기

순화 대상	올바른 표기	예문
감지덕지	괜찮다 매우 고맙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공명정대 공평무사	똥똥이 올바르게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7. 3. 15.
구구절절	마디마디 말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국회 보도자료」, 2019. 1. 7.
기세등등 위풍당당	들썩들썩	기세등등 어깨에 힘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0. 10. 27.
사사건건	번번이 시시콜콜 일마다	사사건건 투덜거리고 「정책브리핑 공감」, 2015. 10. 8.
사시사철 사시장철	늘, 언제나 일 년 내내	이곳은 사시장철 사람들이 모였다.
애지중지	귀중히 소중히	애지중지하던 손자가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20. 8. 11.
여차여차 여차저차	그래저래 이러나저러나 이래저래	그는 여차저차해서 비행기에 올랐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부라부라 허둥지둥	선생님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재삼재사	거듭 다시금	메모의 중요성을 재삼재사 강조하였다.
정정당당	똥똥이	정정당당히 스포츠맨십으로 싸우라.
조목조목	마디마디 조목마다	조목조목 대안을 제시했다. 「전라남도 보도자료」, 2021. 1. 10.
주도면밀	철저히	주도면밀히 사건을 처리했다.
차일피일	꾸물꾸물, 머뭇머뭇 미적미적, 우물쭈물 주저주저, 주춤주춤	차일피일 미룬다면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천방지축	덤벙덤벙 제멋대로	천방지축이었던 아이들이

나. 실제 부사처럼 써야 하는 사자성어 고치기

순화 대상	올바른 표기	예문
가타부타 시시비비 왈가왈부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데 대체로 들어보면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1. 13.
고성방가 야단법석	와글와글 왁자지껄	고성방가로 신고가 들어왔다.
구사일생 기사회생	가까스로 간신히 겨우겨우	철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구절양장	굽이굽이 꼬불꼬불 꾸불꾸불	구절양장 9000 굽이 계곡과 「경기도 부천시 보도자료」, 2013. 7. 24.
기왕지사	어차피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20. 6. 10.
난형난제 막상막하 백중지세 용호상박 호각지세	비등비등 비슷비슷 어슷어슷	난형난제의 경쟁
막무가내	억지로 완강히	막무가내로 대북 전단을 살포 「경기도 보도자료」, 2021. 1. 17.
무위도식	빈둥빈둥 어슬렁어슬렁	무위도식하는 무능한 남성의 이미지 「경기도 동두천시 보도자료」, 2019. 6. 28.
박장대소	깔깔 꼴꼴 낄낄	얘기를 들으며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경기도 안산시 보도자료」, 2018. 6. 21.
불문곡직	다짜고짜 무조건 무턱대고	불문곡직 간첩으로 몰리던 시절이 「경기도 보도자료」, 2017. 10. 29.
불철주야	늘 언제나 항상	불철주야 애쓰는 여러분 덕분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도자료」, 2021. 2. 13.

순화 대상	올바른 표기	예문
불평불만	투덜투덜 툭툭	불평불만 없이 진심을 다해 「경상북도 경주시 보도자료」, 2018. 5. 9.
사분오열 지리멸렬	갈기갈기 불뼉이	사분오열 나라를 빼앗겼는데 「국회 보도자료」, 2019. 5. 4.
삼삼오오	끼리끼리	삼삼오오 떼를 지어 영화관에 갔다.
속전속결 즉시즉시	빨리빨리 빨랑빨랑 바로바로	현장 문제를 즉시즉시 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12. 28
수미일관 시종일관 초지일관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한결같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KTV』, 2017. 6. 30.
수수방관	본척만척 본체만체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시시각각	수시로 시간마다 자꾸자꾸	시시각각 색을 바꾸며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11. 16.
십중팔구	거의 다 대부분	십중팔구 사실입니다.
아전인수	제멋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흡수되어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 6. 22.
오매불망	늘 자나 깨나	오매불망 자식 걱정만 하는 엄마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 2. 7.
용두사미 유야무야	흐지부지	못하고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다.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19. 12. 17.
우유부단	어물어물 어영부영 우물쭈물	우유부단한 성격
이구동성	한목소리로 한결같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도자료」, 2020. 9. 24.

순화 대상	올바른 표기	예문
일사천리 파죽지세	거침없이 척척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11. 30.
일언지하	말 떨어지자마자 한칼에	일언지하에 길 안내를 거절했다. 「정책브리핑 공감」, 2010. 1. 8.
임기응변	그때그때 땀질 얼렁뚱땅 임시변통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 11. 9.
자유자재	자유로이 자유롭게	장면들을 자유자재로 촬영하며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21. 1. 15.
전전공공 좌불안석	공공 아슬아슬 조마조마	각 구단이 전전공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6. 11. 7.
좌우지간	아무튼(지) 여하튼(지) 하어튼(지)	좌우지간 밥을 먹고 합시다.
주마간산	대충대충 설렁설렁 어설피 얼렁뚱땅	주마간산 격으로 여행을 한 적이 「KOTRA 해외시장뉴스」, 2014. 10. 15.
중구난방	뒤범벅 뒤죽박죽 엉망진창	중구난방인 법적 청년 기준을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0. 3. 2.
지지부진	하는 등 마는 등	지지부진하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 2. 11.
천편일률	비슷비슷 어슷비슷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아닌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자료」, 2021. 2. 16.
철두철미	철저히	철두철미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충청남도 논산시 보도자료」, 2021. 6. 8.
청산유수	술술 줄줄	청산유수같이 외어 보이기도 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6. 8. 5.
혈혈단신	외로이 혼자 홀로	혈혈단신으로 세계 테니스 프로 무대에 「대한체육회 보도자료」, 2019. 11. 21.

참고문헌

국내서적

김문오, 홍사판.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전면 개정을 대비하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3. https://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207&report_seq=337&pageIndex=1, (2021. 10. 31. 확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제9판. 서울: 행복한 나무, 2019.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8030000&bid=0001&act=view&list_no=191536&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2021.10. 31. 확인).

오경순. **번역 투의 유혹**. 서울: 이학사, 2010.

이오덕. **우리말 바로 쓰기 2**. 제2판. 파주: 한길사, 2009.

----- . **우리말 바로 쓰기 4**. 제1판. 파주: 한길사, 2009.

외국서적

마쓰시다 다이사부로(松下大三朗). **改撰標準日本文法**. 東京: 紀元社, 1928. doi.10.11501/1178361.

Ramstedt, Gustaf John.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1939, <https://altaica.ru/LIBRARY/KOREAN/Ramstedt,%20A%20Korean%20Grammar.pdf>, (2021. 10. 31. 확인).

일본국립국어연구소(日本国立国語研究所). **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法と実例**. 東京: 秀英出版, 1951, doi:10.15084/00000991.

사전류

김광해. 편. **비슷한 말 반대말 사전**. 서울: 낱말, 2000.

김동완. **일본어 번역사전**.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13.

이희자, 이종희. **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서울: 한국문화사, 2010.

논문

고대영. "현대국어의 후치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6. 서울, <http://www.riss.kr/link?id=T10329049>, (2021. 4. 13. 확인).

고이즈미 시게요(小泉繁代). "일본어 격조사 'の'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2013, <http://www.riss.kr/link?id=T13036834>, (2021. 4. 13. 확인).

구라시마 레이코(倉島礼子). "일본어 'の'와의 대조를 통한 한국어 '의'의 생략 양상 연구: 준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1, 서울, <http://www.riss.kr/link?id=T12578835>, (2021. 4. 13. 확인).

구로야나기 시게오(黒柳子生).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쇄접속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2020, <http://www.riss.kr/link?id=T15530701>, (2021. 4. 13. 확인).

기무라 나오코(kimura naoko). "한국어와 일본어의 명사절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기, 2016, <http://www.riss.kr/link?id=T14151125>, (2021. 4. 13. 확인).

김영아. "「のこと」에 대한 고찰 :현대소설·드라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2009, <http://www.riss.kr/link?id=T11748091>, (2021. 4. 13. 확인).

동뢰. "접미사 '-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강원, 2009, <http://www.riss.kr/link?id=T11811543>, (2022. 8. 11. 확인).

모리 미호(森美穂).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의'의 교수 방안 연구: 준 구어 자료에 나타난 '의'와 'の'의 용법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서울, 2015, <http://www.riss.kr/link?id=T13955323>, (2021. 4. 13. 확인).

스즈키 히데코(鈴木英子). "日本語의 接續詞 運用에 관한 考察: 韓國人學習者の 誤用分析을 통하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005, <http://www.riss.kr/link?id=T10387628>, (2021. 12. 19. 확인)

신현수. "일본어 연체격조사「の」에 대한 한국어 대응표현 분석: 번역작품의 번역 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007, <http://www.riss.kr/link?id=T11484086>, (2021. 4. 8. 확인).

윤영민. "현대 한·일어 접사의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2011, <http://www.riss.kr/link?id=T12519747>, (2021. 4. 8. 확인).

이은정. "형식명사「こと,もの,の」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008, <http://www.riss.kr/link?id=T14942094>, (2021. 12. 19. 확인).

정기간행물

백옥란. '이'의 문법범주에 대한 소고.'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제3호 (2020): 44-53쪽, <http://www.riss.kr/link?id=A106864598>, (2021. 12. 19. 확인).

전영옥. "구어와 문어의 접속부사 실현 양상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한국텍스트언어학회) 22권 (2007): 223-247쪽, <http://www.riss.kr/link?id=A75073998>, (2021. 5. 2. 확인).

정영숙. "日本語 接辭 "的"의 成立 및 韓國語로의 流入問題 考察." **日語日文學研究**(韓國日語日文學會) 제25권 제1호 (1994): 27-55쪽, <http://www.riss.kr/link?id=A3052155>, (2021. 4. 8. 확인).

최형용.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등 양상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한중인문학회) 제19권, (2006): 339-361쪽, <http://www.riss.kr/link?id=A35494841>, (2021. 12. 19. 확인).

보고서

국립국어원.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서울: 국립국어원, 2003. 2003-1-5,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208&etc_seq=107, (2021. 12. 19. 확인).

국립국어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2005. 2005-1-33, https://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45&report_seq=1, (2021. 12. 19. 확인).

신문기사

최인호, "[말글찾집]의하면과 따르면." **한겨레**. 2006년 8월 11일 수정, 2021년 1월 12일 확인,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48211.html.

최인호, "[말글찾집] -ㄴ가운데." **한겨레**. 2006년 8월 18일 수정, 2021년 6월 23일 확인,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49878.html.

참고사이트

세계법제정보: <https://world.moleg.go.kr>.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

정책브리핑 공감: <https://www.korea.kr>.

끝맺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님 덕분입니다. 한평생 고추만 따다가 돌아가신 전무전 님을 ‘천년집’에 모셔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천년집’에 들어가겠지만, 사람에게나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서 공공언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 3년을 잡고 글쓰기를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매끄러운 글을 만들려고,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처럼 단어를 보태보고, 새로운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글도 넉넉히 받아주시는 이들이 있기에 이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단 지성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책을 쓰면서 조언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더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단 지성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닫힌 결말이 아닌 열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메일(golange@korea.kr)이나 블로그(blog.naver.com/golange)에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글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백 년 전부터 마쓰시다 다이사부로를 비롯한 학자들이 일본어를 분석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이 근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은 혁신을 요구하고, 문화는 공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의 답안지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우리말입니다. 그러나 한자어 명사와 일본어 투에 오염된 우리말이 아닌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입니다.

이 책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세 번이나 강조한 국민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4대 비극은 사지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몸통은 한자어 명사가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글의 뼈대만 있는 허수아비로 다른 사람이 공감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허수아비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므로 두뇌인 고유어와 심장인 용언과 혈액인 부사와 근육인 조사를 살려서 써야 합니다.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정석

1판1쇄 2022년 9월 28일

지은이 홍성진

발행인 홍성진

디자인 나모기획

정 가 비매품

발행처 나모기획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월현잇길 9 1동

등 록 제 2021-000030 호

이메일 namo998@naver.com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정석

(공무원이 쓴 글쓰기 오답 교본)

